

全州學研究

제 8 집

전주시 · 전주역사박물관

목 차

<기획특집>

전주대사습놀이 의 역사성과 문화사적 의의

전주대사습놀이의 연원과 역사	이보형	7
전주대사습놀이의 개념과 형성과정	심승구	27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인 명창들	이상규	77
전주대사습놀이의 지역사적 · 문화사적 의의	이정덕	133
전주대사습놀이의 과제와 발전방향	심인택	163

<보고서> 전주시 마을조사 Ⅱ

완산동 지명과 유적	210
완산동 사람들	220
완산동 마을조사 구술채록	227

■ 회 보	332
-------------	-----

<기획특집 >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성과 문화사적 의의

전주대사습놀이의 연원과 역사 || 이보형

전주대사습놀이의 개념과 형성과정 || 심승구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인 명창들 || 이상규

전주대사습놀이의 지역사적 · 문화사적 의의 || 이정덕

전주대사습놀이의 과제와 발전방향 || 심인택

전주대사습놀이의 연원과 역사

이보형*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통인청 판소리 축제가 근대 판소리 발 |
| II. 전주 통인청 동지제와 대사습 판 | 전에 끼친 영향 |
| 소리 축제행사 | IV. 맺음말 |

I. 서론

오늘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해마다 “전주대사습놀이”라는 매우 큰 규모의 국악경연대회를 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 경연대회는 40주년을 맞는 만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여러 지방에서 수많은 우수한 국악인들이 배출되었다. 경연 종목 또한 종류가 많아서, 1975년에 출발 당시에는 판소리를 비롯하여 기악, 농악, 시조, 궁술 등 5개 부문이었던 것이 차츰 경연 종목이 증가하여 1983년에는 기악, 병창, 경기민요, 무용 등 4개 종목이 추가 되어 총 9개 종목이 경연을 벌이고 있다. 명실 공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악경연대회로 성장하였다.

*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

그 많은 경연 종목 가운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주 종목은 판소리가었던 것은 전주가 판소리의 중심적인 고장이라 이를 중요종목으로 인식되는 이유도 있지만, 전주대사습놀이라는 행사가 조선시대 전주 관아 통인청에서 주관하던 동지제(冬至祭) 대사습 판소리 축제 행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전주 대사습놀이가 조선시대 전주 관아 통인청에서 주관하던 동지제 대사습 판소리 축제 행사의 전통을 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전주 대사습놀이와 조선시대 전주 관아 통인청에서 주관하던 동지제 대사습 판소리 축제 행사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대 전주 대사습놀이와 현대 조선시대 전주 관아 통인청에서 주관하던 동지제 대사습 판소리 축제 행사와는 어느 점에서 같고 어느 점에서 다른 것인가? 이에 대한 깊은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그동안 판소리와 관련된 전주 통인청 대사습 행사에 대하여서는 그리 연구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현행 전주대사습의 전통을 논하며 때때로 조선시대 전주 단오절 행사나 전주 감영에서 전라도 관찰사가 주최하는 이른바 연(宴)날 판소리 축제와 혼동하였다. 심지어는 조선시대 대사습이 판소리 경연대회였던 것으로 잘 못 알려지기도 하였다. 더 나가서 이 행사를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명창을 중앙에 천거되는 예비행사로 잘 못 알려지기도 하였다. 더구나 전주 통인청 동지제 판소리 축제가 ‘대사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선시대 관아에서 행하던 일반 대사습 행사와 혼동하기도 하고 관아의 일반 대사습에서도 행사 끝에 가무백회를 연행하는 행사와 혼동하기도 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를 통하여 현행 전주 대사습놀이와 조선시대 전주 관아 통인청 동지제 대사습 판소리 축제와 비교하여 양자의 주최집단, 행사의 의의, 행사의 형태 등을 비교하고, 이것이 생성되던 문화적 성격과 판소리 발전에 기여하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전주 대사습 행사가 전주 관아의 통인청에서 동지제로 행하는 판소리

공연 행사라는 것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대로 밝힌 것은 1960년대 전북 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홍현식(洪顯植) 교수의 조사보고 논문이다. 홍현식 교수는 전북대학교 한문학 전공 교수이지만 전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고 현지조사를 행하여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있었다. 그 때문에 조선시대 전주 대사습 행사에 대하여 비교적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홍현식 교수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발행한 『문화재』라는 학술지¹⁾에 전주 관아 통인청 판소리 행사 조사보고서를 겸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전주대사습사』²⁾에 전재되었지만 아직까지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전주 통인청 대사습 판소리 행사에 대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 된다. 그러나 홍현식 교수는 조선시대 전주 통인청 판소리 행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작고하였다. 그래서 전주 관아 통인청 대사습 판소리 행사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미진한 대 과제로 남아 있지만 아직 우리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선시대 전주 통인청 판소리 행사에 대한 연구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 판소리 행사의 전주 통인청 주관에 대한 동기, 전주 통인청 판소리 행사에 대한 성격, 전주 통인청 행사가 판소리 발전에 끼친 영향, 조선시대 전주 통인청 판소리 행사가 근대 전주 대사습놀이에 끼친 영향과 같은 여러 과제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1) 홍현식, 「남도의 민속풍류 -대사습 조사를 중심으로-」, 『문화재』 8, 1974, pp.

64~78

2)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전주대사습사』 (도서출판 탐진, 1992), pp. 140 ~ 141

II. 전주 통인청 동지제와 대사습 판소리 축제행사

1. 통인

현행 전주 대사습놀이의 주최집단은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라는 민간 단체이지만 조선시대 대사습 판소리 축제는 관아의 통인청에 속한 통인이라는 관속집단이었다. 조선시대 전주 “대사습” 판소리행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보인다. 이 저서의 「유공렬조」에 “삼십세에 전주 대사습장에서 기량을 발휘하여”³⁾라 한 것처럼 전주 대사습의 행사지가 전주이고 그 행사가 판소리 공연이라는 것은 일찍부터 알려졌다지만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조선시대 전주 대사습 판소리 행사 주체가 전주 관아 부서의 하나인 통인청이라는 것은 정노식의 『조선창극사』, 「정창업조」에 “당시 전주부 통인청(通引廳) 대사습 시에 참여하여”라 기록하고 있어⁴⁾ 이것이 전주부의 통인청이 주최하는 행사라 밝혀졌다. 이것으로 봐서 근래에 전주 관찰사가 주최하는 행사인 것처럼 보도하는 이가 있는 것은 오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전주 대사습 행사 주체가 전주 본부(府衙)와 영문(監營)의 두 통인청에서 주최한 것이고 또 통인청의 동지제 행사라는 것을 밝힌 것은 앞에서 말 한 전북대 홍현식 교수는 조사 논문에 밝혀진 일이다.

대사습 행사가 전주 감영, 본부 두 관아 통인청 주관으로 행하여졌다는 것이 잘 인식되지 못한 것은 일반인들이 ‘통인(通引)’이라는 직책에 생소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인은 조선시대 관아에서 봉직하는 관속의 하나이지만 관속 가운데 육방, 군로사령, 기생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많이 알려졌지만 통인은 좀처럼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거의 없다는데서 알 수

3) 정노식, 『조선창극사』(조선일보사출판부, 1939), p. 176

4) 정노식, 같은 책, 1939, p. 93

있다.

이것은 판소리 ‘춘향가’에서도 본관, 육방, 기생, 군로사령 등 남원 관아의 관속이 수도 없이 입에 오르내리지만 통인에 대한 것은 두 차례 잠깐 뿐이다. 그나마도 이몽룡이 춘향을 생각하고 천자를 큰소리로 읽다가 남원부사가 듣고 통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 분부하는 대목, 춘향이 변사또에게 수청을 거절하자 통인을 시켜 춘향을 마당으로 끌어 내리는 대목과 같은 소소한 역을 담당할 뿐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인이 관아의 한 직책이기는 하지만 그 소임이 미미하여 흔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통인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조사 또한 위에서 말한 전북대학교 홍현식 교수의 조사에서 밝혀졌다.⁵⁾ 통인이 관아에 봉직하는 소년집단이라는 것은 대충 알려졌지만 그 소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홍현식 교수는 전주관아 관속으로 있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통인은 10여세에서 30 또는 40세에 이르는 소년들로 구성되지만 대부분 소년들이 주가 되고 고령자는 그 수장인 수통인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통인의 복색은 대부분 머리를 땃았고 복건을 쓰지 않고 쾌자를 걸치고 띠를 띠고 갓신을 신었다 한다.

통인이 주로 수령의 잡일을 거드는 비서와 같은 구실을 감당하는데 그 소임에 따라 ‘집강통인(執綱通引)’, ‘삼번통인(三番通引)’, ‘수통인(首通引)’으로 구분된다는 것도 홍현식 교수의 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집강통인은 새내기 어린 통인을 말하며 주로 청 내의 잡일을 맡아 행하는 것이며 삼번통인의 원님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 그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5) 홍현식, 앞의 논문, 1974

삼번통인은 통인 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통인으로 동헌 당상에 올라 수령의 비서역할을 한다고 하여 ‘당상통인(堂上通引)’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한다. 앞에서 춘향가에 두 차례 나온다고 말한 통인들이 이런 유형이다. 이 삼번통인이 승진하여 장차 육방이 되는 것이라는 것으로 봐서 필자가 보기에는 이 유형 통인이 육방이 되기 위한 예비 수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근대 영국에서 의회의원을 지명하는 소년들이 먼저 의회도서관에 서사로 일하며 의회 일을 익히는 예비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수통인은 모든 통인을 감독하는 수장이지만 사실은 삼번통인이 못 되어 육방으로 나가지 못하고 처진 통인이 수통인 구실을 한다고 하니 무능한 자질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통인들은 소년들로 구성되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장차 육방이 되는 자격을 얻는 처지라, 생각 외로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이런 통인의 성격 때문에 대사습 행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통인청과 판소리 공연장

육방이 근무하는 관서를 질청(작청)이라 이르고, 사령이 근무하는 관서를 사령청(장방청)이라 이르고 기생이 근무하는 관서를 교방청이라 이르듯이 통인이 근무하는 관서를 통인청이라 이른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창극사에 전주 대사습을 개최한 부서를 통인청이라 한 것처럼 대사습을 개최하고 주관하는 부서는 동헌도 아니고 질청도 아니고 통인청이라는 것은 특이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홍현식 교수의 보고서에는 전주부의 통인 수를 77인이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상보다 많은 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감영이나 부아(본부)의 경우이지 군이나 현과 같은 작은 고을에서는 통인 수효는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인청의 수장으로 통인들을 통괄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수통인인 것이다.

홍현식 교수는 통인청 대사습 판소리 공연장이 통인청 청사나 야외 정자라 하였다. 통인청은 평소에 통인의 근무지이지만 대사습 시에는 일시 공연장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통인청 동지제와 판소리 공연

조선시대 전주 대사습 판소리 공연 행사가 관아 부서인 통인청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이미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의 기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사습의 성격을 규명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관아의 통인청은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육방 관속의 예비 수련과정을 행하며 수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 따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성격이 아니다. 이 점이 통인청 대사습의 성격을 규명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통인청에서 어느 철에 무슨 계기로 대사습이라는 판소리 공연 행사를 펼치었는지는 홍현식 교수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주 통인청에서 벌이었다는 대사습 판소리 공연 행사가 통인 집단 내에서 스스로 향수하기 위하여 벌인 단순 공연 행사인지, 아니면 통인청이 주최하여 명창들의 기량을 겨루는 경연대회 행사인지, 아니면 통인청에서 통인과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축제 행위로 벌이는 판소리 공연 행사인지가 아직 규명 되지 않았다. 홍현식 조사 자료에 의하면 “통인청 통인들은 물놀이, 동지놀이 등 여러 행사를 행하였다.” 하는데 대사습의 공연적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이것이 어느 계기에 어떻게 공연되었는지 행위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사습의 공연적 성격을 규명할 단서를 홍현식 조사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⁶⁾ 전주 대사습 판소리 공연이 통인청에서 동짓날에 행사로 벌어졌다는 것이 보인다. 동짓날의 성격을 캐게 되면 대사습의 성

격도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홍현식 교수는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대사습이 통인청에서 동짓날에 벌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발표하였지만 이를 통하여 대사습의 성격을 밝히는 후속 논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작고하고 말았다. 필자는 홍현식 교수가 조사한 대사습 자료를 꼼꼼히 살펴 전주 대사습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홍현식 교수의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주 대사습 행위가 통인청 동지 축제 행위로 연행되었다는 몇 가지 단서가 드러난다.⁷⁾

첫째, 전주 관아 통인청에서 동지 절기에 대사습 행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동지는 추운 계절이라 축제를 벌이기에는 불편한 계절이다. 굳이 동지라는 추운 계절에 행사를 벌이었다는 것이 대사습이 단순한 여흥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동지제 종교적 행사이고 이 제의적 행사의 부대 행사로 판소리가 공연된 것을 말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에서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동지는 천문학적으로 목은해가 소멸하고 새해가 탄생하는 계절이라 중국 주대(周代)에 이를 원년으로 삼았던 것과 같이 인류는 고대사회로부터 이를 신년으로 알았고 이를 위한 제의를 벌이었는데 이는 동지제라 할 수 있다.

홍현식 교수도 위 조사보고서에서 말하였지만 한국에서도 신라 및 고려시대에 중동(仲冬) 팔관회와 같은 국가 행사가 있었고, 전주에서도 경기전 동지제가 있었고 민간의 각 사정(射亭)에서는 궁에 대한 제의를 지냈고, 가정에서도 조상 동지제를 지내는 것과 같이 동지에 제의가 있었고 이에 축제가 딸리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었다. 이 동지 제의에 가무가 딸리는 것이 대사습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전주 통인청에서는 동지에 통인청 건물이나 큰 정자에서 동지제를 지니며 판소리 광대를 불러다 가창을 시켜 향수하였던 것인데 종당에

6) 홍현식, 앞의 논문, 1974, p. 73

7) 홍현식, 앞의 논문, 1974, p. 73

는 통인들 스스로만 즐기기 위하여 공연에서 벗어나 일반 관중을 모아 함께 향수하는 축제적 연행 방식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전주 통인청 동지 판소리 연행이 축제 형식을 취하였다는 것은 도당제나 난장과 같은 지역 일반축제에서 음식 장사들을 동원하는 것처럼 동지제에서도 음식 장사를 동원하여 판소리 청중에게 음식을 팔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축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축제적 운영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홍현식 교수는 보고서에서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통인청 한 구석에 막을 쳐 놓고 술과 음식을 먹는 자리가 있어 밤참을 먹어가며 판소리를 듣기로 날을 세웠다 한다....대사습에 사용한 물품과 자료도 외상이며 값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⁸⁾

위 통인청 대사습 연행 방식을 보면, 제의적 행위에 원천적 근원이 있는 점, 일반 대중의 가무 향수 행위를 하는 점, 주체집단과 상인집단의 결합으로 행사가 이뤄지는 점 등 제반 특징이 일반 대동제나 난장 축제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봐서 조선시대 전주 판아의 통인청 동지 대사습대회는 판소리 축제 행위라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4. 통인청 동지제에서 본 판소리 축제 시원과 대사습 명칭 시원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전주 대사습 판소리 축제 시원은 전주 판아 통인청 동지제에서 판소리 명창을 초청하여 축제를 벌인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본다. 축제에 판소리 명창을 초청하여 공연을 벌이는 것은 남부지역의 음악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니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통인청 동지축제를 전주 최대 판소리 축제로 키운 것이 전주 통인청 대사습이라 할 수 있다.

8) 홍현식, 앞의 논문, 1974, pp. 73~75

전주 통인청 동지제의 판소리 축제를 ‘대사습’이라 이른 이유와 그 의미는 불분명하다. 대사습을 한자로 적은 것도 ‘大私習’ 또는 ‘大射習’이라 하여 일정하지 않다. 대사습(大射習)은 궁사(弓射)나 총사(銃射)의 학습(學習)을 뜻하는 것이니 대사습(大射習)이 원명일 것이다. 다른 부서에서 동지제에 이런 사습행사를 벌이고 그 끝에 가무백희를 벌이던 관례를 따라 통인청에서는 동지제에 판소리 축제를 벌이며 다른 부서에서 대사습(大射習)이라 이르던 것을 차용한 것으로 봐야 맞다.⁹⁾ 통인청 동지제 판소리를 다른 부서의 ‘대사습(大私習)’용어를 차용하였다고 하지 않으면 어찌하여 통인청 판소리 축제를 대사습이라 불렀는가 하는 것이 해명되지 않는다. 혹자는 조선시대에 궁사나 총사의 학습을 뜻하는 것이니 대사습(大射習)을 행하며 가무백희를 행하였으니 통인청 대사습도 궁사나 총사의 학습을 하면서 판소리를 공연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통인청은 그런 궁사나 총사의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사는 군영이나 통인청, 관아의 병방 질청이나 장방청에서 하는 일이다. 결국 통인청에서 동지제에 판소리 공연을 하던 것이 대형 축제로 성장하면서 명칭을 다른 군영, 병방, 장방청과 같은 부서에서 대사습 끝에 가무백희하며 대사습이라 한 예를 따라 통인청 판소리 축제도 그 이름을 차용한 것이라 보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통인청 동지제 판소리 축제를 대사습이라 이르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통인청은 그 성격으로 봐서 궁사나 총사의 학습을 뜻하는 대사습(大射習)을 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5. 통인청 대사습의 시기

어느 시대부터 전주 통인청 관아에서 동지제에 판소리 축제를 벌이었

9) 사진실, 「인조 이후 나례의 사습과 산대도감패의 활동」, 『공연문화연구』 28, 2014, pp. 83~151

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홍현식 교수의 조사 보고서에 보면 통인청 대사습에 출연한 명창에 전기 팔명창(前期 八名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순조 시대에 전주 대사습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 시원은 그 무렵부터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정창업, 이날치, 김세종, 장자백과 같은 후기 팔명창(後期 八名唱)들의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철종 시대에는 전주 대사습 판소리축제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김창환, 송만갑과 같은 오명창(五名唱)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조선말기까지 존속되었다는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관아의 제도가 바뀌어 통인청이 폐지되면서 대사습 행사도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주대사습사¹⁰⁾에 권삼득, 송홍록, 모홍갑과 같은 전기 팔명창의 명칭을 거론하는데 이들이 통인청 대사습 축제에 출연하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 알 길이 없다.

III. 통인청 판소리 축제가 근대 판소리 발전에 끼친 영향

전통사회에서 통인청이라는 관청은 어느 고을 관아에나 존재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통인청에서 동지제를 행하는 것은 다른 고을에서도 존재하였을 것이지만, 오직 조선 말기 전주 통인청 동지제에서만 판소리 축제 행위를 베푼 이유는 무엇인가? 더구나 그렇게 성대하게 축제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전주 통인청에서 동지제를 거행할 시에 마침 판소리라는 공연 부문이 매우 뛰어난 공연력을 키워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것.

둘째, 당시에 전주 고을이 판소리 공연문화가 한국 최고로 판소리 문화

10)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앞의 책, 1992

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셋째, 당시 전주부아 통인청과 전라감영 통인청이 팽팽한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동지제 판소리 축제도 경쟁적으로 키워졌다는 것.

이것이 전주 통인청에서 대시습이라는 위대한 판소리 축제를 키울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다시 상세히 살피고자 한다.

1. 판소리의 전성시대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판소리는 숙종 무렵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소리가 청중의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전기 팔명창 시절인 순조 때부터라고 봐서 만일 전주 통인청 동지축제가 정조 이전에 성행하였다면, 기생 정재와 같은 다른 공연종목을 축제에 끌어들이지 판소리를 끌어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전주 통인청 동지제가 순조 이후에 성행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대중의 인기를 받던 판소리를 통지제에 끌어 들인 것이고 이것이 대시습의 시원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주 통인청 동지제가 판소리 전성시대인 후기 팔명창 및 오명창 시절과 맞아 떨어져 행하였기 때문에 “전주 통인청 대시습”이라는 위대한 판소리 축제를 키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전주 판소리 공연문화

순조 이후 고종 시절이 판소리 절정기일지라도 만일 전주가 아닌 평양이나 해주와 같은 판소리 중심지가 아닌 다른 지방의 통인청 동지제에 참가하는 공연종목을 채택한다면 판소리가 선택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직 전주판아 통인청 동지제에서 공연 종목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판소리가 채택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전주라는 고장의 판소리 문화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전주관아 통인청 동지제에 판소리가 선택되었고 그래서 대사습이라는 판소리 대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전주의 판소리 문화를 보면 대사습이라 이르는 통인청 동지 판소리 축제 밖에도 속칭 ‘연(宴)날’이라 하여 전라감영에서 주최하는 도 단위 큰 경축 행사에도 판소리가 성창되었고, 민간의 각종 향연에 판소리가 주종목으로 연행되었고, 판소리를 즐기는 양반가의 사랑에서도 판소리 감상회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3. 부아(府衙) 통인청과 감영(監營) 통인청 경쟁

전주 뿐만 아니라 대구, 공주, 평양 등 각 도(道)의 감영이 있는 곳에는 부의 관아 즉 부아(府衙 本府)가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 행정 용어로 말하자면 도청과 시청 두 관공서가 한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감영이 부아보다 상위 관청이므로 감영 통인청이 부아 통인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주부아 통인청 통인들은 감영 통인청 통인들에 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태에 있었다 한다. 그 이유는 부아에 종사하는 관속들이 세력이 센 전주 토박이들로 구성되어 감영의 관속들을 우습게 보았다는 것을 전주 관아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¹¹⁾

따라서 감영 관속들이 보기에는 하위 관아의 관속들이 드세게 나가니 이를 억누르려 하지만 부아 관속들은 지지 않으려 하니 긴장이 생기고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양편의 관속들이 이런 경쟁관계이니 통인청 동지제 판소리 축제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주부아의 통인청 통인들과 전라감영의 통인청 통인들이 서로 경

11) 홍현식, 앞의 논문, 1974

쟁적으로 판소리 축제를 키워 전주 대사습이라는 전국적으로 가장 큰 판소리 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양쪽 관아의 통인들이 경쟁적으로 판소리 명창을 초대하기 때문에 전주 대사습에 출연하는 명창들은 양편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본부 광대, 영문 광대로 구분되어 출연하였는데 본부 통인들이 더 드세었기 때문에 본부 광대가 우위에 있었다고 한다. 홍현식 교수의 보고서에는 본부 광대로 장자백, 정창업, 김세조, 송만갑을 꼽았고 영문 광대로는 이날치, 박만순, 주덕기, 장수철을 꼽았지만 이는 확실치는 않은 것이라 한다. 본부 광대가 영문 광대보다 인기를 더욱 끌었던 것은 광대의 기량 때문이 아니고 통인들의 운영 차이에서 오는 것 같다.

당시에 전주 통인청 통인들이 대사습에 얼마만큼 정성을 드렸는지는 홍현식 교수 조사보고서에 자세히 보인다. “대사습의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 본부(本府 府衙) 통인, 영문(營門 監營) 통인이 서로 다투어 훌륭한 광대를 구하는데 객지로 수소문한 후에 유능한 광대가 있다면 수 천리 밖의 벽지에 사는 광대라도 불원천리하고 초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기량을 기르기 위하여 한 달 동안 솜씨 좋은 음식 집을 선택 지정하여 광대의 체절에 맞는 숙식을 하게하고 수련에 힘을 쓰는데 동지달 찬바람에 감기 걸릴까 염려하여 문구멍을 막아주는 데까지 세심하였다 하며 산해진미와 약주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니 그 대우가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¹²⁾

결국 전주부아 통인청 통인들과 감영 통인청 통인들의 경쟁이 판소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주 대사습이 발전하면서 대사습은 판소리 최대의 축제로 컸다. 당시에 전주 통인청 대사습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판소리 명창으로써는 최대의 영광으로 알게 되었고 대사습 대회에

12) 홍현식, 앞의 논문, 1974, p. 67

서 청중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명창의 등용문으로 알았다. 이에 판소리 지망생들은 여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판소리가 고도의 공연예술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보면 전주라는 고장은 판소리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주 대사습은 일제 강점기에 끝났지만 해방 후에 전주에서는 한국 최대의 전통예술 경연대회로 부활시켜 전통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IV. 결론

전주 대사습이라는 한국의 가장 큰 판소리 축제는 조선 후기 판소리 전성기에 전주라는 조선시대 가장 성했던 판소리 문화와 부아(본부) 통인청과 감영 통인청 통인집단이 그들의 축제인 동지제에 경쟁적으로 판소리 공연을 시도하면서 이뤄진 특이한 판소리 축제라 할 수 있다.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대사습(大私習)이라는 판소리 공연이 있다는 것과 이것이 전주 관아의 통인청(通引廳)에서 주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주 관아의 통인청에서 어떻게 대사습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것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판소리 공연 행사로 발전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970년대 초에 전북대학교 교수였던 홍현식(洪顯植)이 당시까지 살아있던 조선시대 관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조선시대 전주관아 통인청의 대사습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다. 여기에 의하면 조선시대 전주감영(현 도청)과 부아(본부: 현 시청) 양편의 통인청 통인들이 동지(冬至) 축제를 벌이면서 판소리 공연을 하였는데 감영과 부아의 통인들이 저마다 훌륭한 명창을 경쟁적으로 불러 공연하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판소리 공연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찌하여 통인청

판소리 공연을 ‘대사습’이라 하였는지 그리고 그 대사습이라는 판소리 공연행사는 어떤 성격을 지니었는지는 미처 밝히지 못하고 작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사습이라는 조선시대 전주 통인청 동지제(冬至祭) 판소리 공연이 통인과 시민이 어울린 축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명하였고, 전주 통인청 대사습 동지제 판소리 공연이 큰 시민 축제가 된 것은 당시 전주가 당시 한국 최대 판소리 공연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 통인청 판소리 축제를 ‘대사습’이라 이른 것은 당시에 조선시대에 군영, 병방청, 장방청과 같은 군사 담당 부서에서 대사습이라는 사격 훈련을 하며 이를 ‘대사습’이라 이른데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런 대사습 사격훈련 끝에 가무백회를 공연하는 문화가 있었고 당시에 전주에서 판소리 문화가 최고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대사습 사격 훈련에 판소리 공연을 하였는데 이것도 대사습이라 이른 것이다.

이 전통에 따라 통인청 동지제 판소리 축제로 ‘대사습’이라 이른 것이 전주 관아 사격 훈련 끝에 판소리 공연을 대사습이라 이른데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통인청 판소리 축제는 판소리 명창들에게 경쟁심을 일으켰고 판소리 명창들은 이를 등용문으로 여겨 학습에 목숨을 걸었으니 이것이 판소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전주 통인 집단이 경쟁적으로 판소리 축제를 키웠던 까닭에 판소리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한 것이다. 지금 판소리가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런 위대한 문화유산인 판소리의 성장에는 전주라는 특이한 음악문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는 판소리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본이 될 것이다.

주제어: 전주대사습놀이, 전주 통인청 대사습, 통인, 통인층, 통인청 동지제, 판소리 축제

〈Abstract〉

The Origin and the History of Jeonju Daesasup Festival

Lee, Bo-hyoung

Korea's largest traditional folk art contest festival, "Jeonju Daesasup Festival," is held in Jeonju every summer.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festival cherish the great tradition of the folk art performances in the Jeoson dynasty. But experts are divided on what kind of performances have been handed down.

Jeong Rosik insisted, in his book on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al opera, that Jeoson had pansori performances named 'Daesasup', and they were held at the tongincheong building of the Jeonju local government office. But he did not commit himself how the Daesasup festival was managed and how it proceeded to national pansori performances.

Early in the 1970s, Professor Hong Hyunsik fro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terviewed elderly people who had worked at the local government office of the Joseon dynasty for the 'Daesasup' held at the tongincheong building of the Jeonju local government office.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ansori performances were held under the auspice of the tongins, local petty functionaries, from tongincheong building who served in the Jeolla and the Jeonju local government offices during the winter solstice. Every tongins tried to invite well-known singers competitively, then the presentations developed into the national pansori stage. But Hong did not explain the reason that the

performances were called ‘Daesasup’ and did not also reveal the character of such pansori performances.

In this paper, I showed that the pansori performances held at the tongincheong building of the Jeonju local government office during the winter solstice were one of the festival at which tongins and ordinary peoples got along well with one another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under Jeonju’s longtime and largest pansori performances tradition that the tongincheong pansori stage became a great citizen festival. And I also revealed that the title ‘Daesasup’ named the festival came from the fact that there were often shooting exercises at some military departments in the Joseon dynasty, and people called them ‘Daesasup.’ And they enjoyed playing music and dancing after the firing drills. Moreover, as Jeonju achieved the highest level of pansori culture at the time, there were also pansori performances after the shooting exercises. They called such performances ‘Daesasup,’ too.

In short, the title ‘Daesasup’ named the tongincheong pansori performances originated from those after the shooting exercises of the military camps in Jeonju. Tongincheong pansori festival made master singers competitive one another, and the singers thought that the festival would be a gateway to success as a singer, then they absorbed themselves in hard study at the risk of their lives. This is how the brilliant development of pansori culture began after ‘Daesasup’ performances.

Key word: Jeonju Daesasup Festival, Daesasup in the tongincheong building of Jeonju, tongin, the festival of the winter solstice in the tongincheong, pansori festival

【참고문헌】

-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全州大私習史』(도서출판 탐진, 1992)
- 전주역사박물관, 『기록으로 본 전주』(퓨전디자인, 2008)
- 정노식, 『조선창극사』(조선일보사출판부, 1939)
- 사진실, 「인조 이후 나례의 사습과 산대도감패의 활동」, 『공연문화연구』
28, 2014
- 홍현식, 「남도의 민속풍류 -대사습 조사를 중심으로-」, 『문화재』8,
1974

전주대사습놀이의 개념과 형성과정

— 역사적 정체성 정립을 중심으로 —

심승구*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2. 사습과 대사습 |
| II. 전주대사습의 개념에 대한 검토 | V. 전주대사습놀이의 형성과정 |
| III. 국가행사로서 사습의 두 유형 | 1. 임란 후 '나례 사습과 호남 재인의 역할 |
| 1. 국가의전용 사습 | 2. 호남의 군사훈련과 나례잡희 |
| 2. 군사훈련용 사습 | 3. 18C후반 산대나례의 중단과 재인들의 동향 |
| IV. 사습과 대사습과의 관계 | VI. 나가는 말 |
| 1. 습의와 사습 | |

I. 들어가는 말

올해는 1975년 전주대사습놀이가 부활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의 전통예술을 대표하는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생 시기가 조선후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니,¹⁾ 그 유래와 전통이 꽤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주대사습에 대한 적지 않은 선행 연구 덕분에 그 개략적인 실체와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²⁾ 하지만, 다양한 업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한국사 교수.

1) 홍현식, 『대사습의 전통성』, 전주,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연구결과 보고서, 1987.
(사)全州大私習놀이保存會, 『全州大私習史』, 탐진, 1992. 38~43쪽.

황미연, 「전주대사습놀이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 『낭만음악』 28호, 1995.

- 2) 전주대사습에 관련한 연구는 판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전주대사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와 성과에 한정하여 제시한다.

宋萬甲, 『自敍傳』, 『三千里』 제14호, 1931.

[조선일보], 1937년 1월 3일. 명창에게 들은 생사.

鄭魯湜, 『朝鮮唱劇史』, 京城, 朝鮮日報社, 1940.

유기용, 「명창과 수련」, 『동아일보』, 1965년 6월 8일.

홍현식, 「남도의 민속, 大私習」, 『동아일보』, 1965년 7월 17일.

홍현식, 「南道の 民俗風流 : 「대사습」 踏査를 中心으로」, 『문화재』 8, 1974.

신찬균, 「전주대私習놀이」, 『독서생활』 9, 1976.

신찬균, 『民俗의 故郷』, 眞文出版社, 1978.

홍현식, 「南道 광대의 판소리 李善有의 唱本을 중심으로」, 『월간 문예진흥』 제7권 2호, 1980.

홍현식, 『대사습의 전통성』, 전주,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연구결과 보고서, 1987.

홍현식, 「전주대사습」, 『음악동아』 1988년, 7월호 동아일보사

(사)全州大私習놀이保存會, 『全州大私習史』, 탐진, 1992.

황미연, 「전주대사습놀이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 『낭만음악』 28호, 1995.

유영대, 「전주대사습」, 『비교민속학』 13, 1996.

김준형, 「宋萬甲 「自敍傳」 解題」, 『판소리연구』 11집, 2000.

김석배, 「『조선창극사』의 비판적 검토(3)」, 『어문학』 제73호, 2001.

김기형, 「명인명창 최고 등용문, 전주대사습전국대회 정체성 찾기」, 『문화예술』 2005. 6.

김기형, 「전주대사습놀이의 정체성 찾기와 축제성 회복을 위한 모색」,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7.

정원지, 「韓中 傳統 소리 藝術 판소리와 崑曲清唱의 傳統 繼承 發展展望에 관한 比較研究 : 全州 판 소리 大私習과 中國 蘇州 虎丘 曲會를 中心으로」, 『판소리연구』 29, 2010.

李晶魯,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의 역사성 형성 배경과 정착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19, 2010.

장연옥, 「한국의 이야기 노래 판소리의 발전과 변화」, 런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원지, 「全州大私習 놀이와 節氣」, 『건지인문학』 5, 2011.

유영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통과 콘텐츠의 확장」, 『한국학연구』 37, 2011.

한명희외, 「전주대사습놀이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을동국회의원 주최), 2011

이영금, 「조선후기 전주제인청 무부들의 판소리활동-전주제인청과 전주아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 53, 2012.

전주대사습놀이의 개념, 형성 배경과 시기, 그리고 형성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³⁾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주대사습놀이와 관련한 자료의 부재(不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관련자의 증언과 채록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실제 전주대사습놀이에 대한 접근도 부로(父老)들의 구전(口傳)과 광대들의 회고담을 구술(口述)하고 채록한 것에 의거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그동안 전주대사습놀이에 대한 다양한 성과들은 주로 당대의 기록이 아닌 후대의 기억에 입각한 구술과 구전에 의존하여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구전과 구술에 입각한 자료만으로는 전주대사습놀이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는데 한계가 따른다. 구술과 구전 자료를 토대로 하되, 다양한 문헌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거친 체계적이고도 실증적인 고증 작업이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출발하였다. 전주대사습놀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학, 예술, 민속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같은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에 필자는 우선 대사습의 개념과 함께 전주대사습놀이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주대사습놀이가 대사습에서 출발한 만큼, 이에 대한 천착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히는 관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면의

3) 현재 전주대사습의 형성시기, 관장부서, 대사습의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예컨대, 현재 전주대사습놀이 유래는 18세기초중반 숙종·영조대로 보는 견해와 19세기 초반 철종대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전자의 견해는 홍현식(홍현식, 『대사습의 전통성』, 전주,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연구결과 보고서, 1987)과 전주대사습보존회(全州大私習놀이保存會, 『全州大私習史』, 탐진, 1992)이고, 후자의 견해는 황미연의 글에서 확인된다(황미연, 「전주대사습놀이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 『낭만음악』 28호, 1995).

문외한으로서 전주대사습놀이의 실체에 다가선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고백치 않을 수 없다. 혹 오류와 억측이 있더라도 선학제현의 너그러운 혜량이 있기를 바란다.

Ⅱ. 전주대사습놀이의 개념에 대한 검토

전주대사습놀이는 전주에서 시행된 대사습과 관련된 놀이이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그동안 대사습의 실체 내지 정체성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홍현식은 “대사습은 통인들이 주최한 광대놀이이다.”라고 정의한다.⁴⁾ 혹자는 “사숙(私塾)에서 습득한 공부와 실력에 대해 큰 전시효과를 노린다는 뜻에서 대사습놀이란 말이 나왔다”⁵⁾고 한다. 또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의 대사습 항목에는 “해마다 단오 무렵 전주에서 벌어지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민속음악경연대회”로 정리되어 있다.

전주대사습놀이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아직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특히 대사습과 사습의 개념에 대한 오해는 그 같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 해 왔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대사습의 개념에 대한 오해와 혼동이다. 그동안 대사습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대사습(大私習)’과 함께 ‘대사습(大射習)’으로도 기록하였다.⁶⁾ 여기서 대사습(大射習)으로 쓴 한자식 표기는 전주대사습놀이

4) 홍현식, 「남도의 민속, 대사습」(《동아일보》 1965. 7. 17).

5) 「황설수설」, (《동아일보》 1976. 5. 25).

6) 그러한 사실은 전주대사습놀이 개요 및 발간사, 축간사, 전주대사습놀이 事蹟碑 碑文에서 잘 확인된다(全州大私習놀이保存會, 『全州大私習史』, 담진, 1992).

에 대한 오해를 불러온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주대사습놀이가 간혹 사정(射亭)에서 열렸다는 사실도 대사습(大射習)으로 쓰는 배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궁술대회’로 이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대사습(大射習)’이 ‘대사습(大私習)’으로 변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⁷⁾

그러나 ‘대사습(大射習)’은 존재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실제 조선시대의 기록 가운데 그러한 용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사(大射)’의 용례가 확인된다. 대사는 임금의 활쏘기 의식으로서, 대사례(大射禮) 또는 대사의(大射儀)라고 하였다.⁸⁾ 원래 활쏘기 의식인 사례(射禮)에는 대사례와 향사례(鄉射禮)의 두 가지가 있다. 주관하는 이에 따라 임금이 하면 대사례, 대부나 지방관이 하면 향사례라 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의 활쏘기를 가르키는 ‘대사(大射)’는 지방에서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주대사습을 한자로 ‘大射習’이라고 쓰는 방식은 애초 잘못된 일이다. 또한 대사습(大射習)에 근거하여, 전주대사습놀이를 ‘숙종 때 마상궁술대회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⁹⁾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후술하듯이 대사습은 ‘사습(私習)’ 또는 ‘사조(私操)’에서 비롯한 용어로서, 한자로 ‘대사습(大私習)’이라고 쓰는 것이 옳바르다.

둘째, 사습의 개념에 대한 오해이다. 사습 역시 한자로는 사습(私習)으로 쓴다. 사습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개인의 사사로운 익힘 또는 연습’을 뜻한다.¹⁰⁾ 사습의 용례 가운데 예외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¹¹⁾ 사

7) 이보형, 「전주대사습놀이의 연원과 역사」,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성과 문화사적 의미』, 2014. 14쪽.

8) 심승구, 「朝鮮時代 大射禮의 設行과 政治 社會的 意味」, 『한국학논총』 32집, 2009. 참조.

9) 주)와 동일.

10) 원래 사습의習은 ‘거꾸’의 重, ‘익다’의 慣, ‘익히다’의 肄 등의 의미를 갖는다(沈慶昊 外, 『朝鮮後記漢字語彙檢索辭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324쪽. 『廣才物譜』, 人道部, 人事). 『朝鮮語辭典』朝鮮總督府, 1920. 3月刊(韓國學古事典

습은 대부분 ‘개인의 사사로운 익힘 또는 연습’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였다.¹²⁾ 지금까지 전주대사습의 사습에 대한 이해도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해 왔다.¹³⁾

그러나 조선시대의 사습에는 사전적 의미와는 구별되는 사습의 용례가 확인된다. 즉 ‘국가 또는 관청의 행사’를 뜻하는 사습이 그것이다. 이 같은 사습의 사례는 종래 보통명사의 사습이 아닌 고유명사로서의 사습이다. 전주대사습놀이의 사습은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한 국가행사로서의 사습에서 비롯한 용어였다.

셋째, 대사습놀이가 전주 외에 다른 곳에서도 시행되었을 가능성이다. 그동안 대사습놀이는 전주에서만 시행되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왔다.¹⁴⁾ ‘전주대사습놀이’가 구전이 아닌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정노식의 『조선창극사』(1940)이다. 이 글에 따르면, 조선말 판소리 광대 몇몇이 ‘전주부 통인청 대사습’ 또는 ‘전주대사습장’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¹⁵⁾ 이러한 내용은 전주대사습놀이가 본래 판소리를 위한 무대였다

叢書 3, 서울 亞細亞文化史刊, 1975년). 私習 참조.

- 11) 사습의 용례가운데는 공도(公道)에 대비되는 ‘사적인 폐습’의 뜻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相避之法 載在國典 先王設法 扶公道 防私習之意 至矣(『宣祖實錄』 권 182, 37年 12月 18日 癸亥).
- 12) 近聞私習儀註之事 亦不爲快矣(『中宗實錄』 卷38, 15年 3月 29日(丁巳). 古之制律私習天文者有罪(『明宗實錄』 卷30, 19年 1月 29日 癸卯).
- 13) 황미연, 「전주대사습놀이의 제 문제에 대한 연구」, 『낭만음악』 28호, 1995. 54쪽. 그러한 견해는 송방송의 글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본래 사습이라는 말은 스스로 배워서 익힘을 뜻하지만, 전통음악계에서는 판소리를 배우는 과정을 사습이라고 불렀다.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른 판소리 수련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기량을 겨루던 풍습이 전라도에 있었다. 그 대회가 대사습으로 알려져 있다”(송방송, 『한국음악용어론』 권3, 1979, 1089~1090쪽).
- 14) 대사습이 전주에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홍현식의 글에서 확인된다(홍현식, 「南道 광대의 판소리-李善有의 唱本을 중심으로」, 『월간 문예진흥』 제7권 2호, 1980. 29쪽).
- 15) 전주대사습과 관련한 기록은 재인들의 삶을 채록한 『朝鮮唱劇史』(1940)에서 처음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柳公烈(1864~1927), 丁昌業(1847~1919)을 다룬 내용

는 점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대사습이 전라도 전주 이외에 순천에서도 열렸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1929년에 판소리 명창 송만갑(1866~1939)이 쓴 자서전에는 “순천의 대사습놀리는 정월 14일과 15일 마다 열리는 것으로 항시 청류정(淸流亭)이라는 사정(射亭)에서 시행했다.”¹⁶⁾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자서전 내용 가운데 의문 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¹⁷⁾ 일단 대사습의 개최 시기와 지역, 그리고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으로 미루어 순천에서도 대사습놀이가 열린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전주에서만 대사습이 열린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견해를 제고하게 만든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한 의문의 해소는 순천대사습놀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만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리라 믿는다.¹⁸⁾

에서 정창엽은 전주부 통인청대사습에 참여했다가 실패하였고, 유공렬은 30세 경에 전주대사습장에서 명성을 얻었다는 내용이 있다(鄭魯湜, 『朝鮮唱劇史』, (京城, 朝鮮日報社, 1940 ; 동문선, 1994. 187쪽). 이를 토대로 정창엽이 22세(1869)에 전주통인청대사습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뒤, 3년 뒤인 25세(1872)에 다시 참여하여 명성을 얻은 뒤 이듬해인 1873년에 서울로 상경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박황, 『판소리이백년사』, 사사연, 1987. 132~133쪽). 또한 유공렬이 전주대사습에 참가한 30세경의 시기를 ‘1893년’이라고 밝히고 있다(이보형, 「유공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그런데 유공렬의 출생년도를 [매일신보]의 기사(1928년 2월 13일자)에 의거하여 1859년에 태어나 1934년에 죽은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김석배, 앞의 논문, 2001. 278~279쪽).

- 16) 송만갑(1869~1939)이 쓴 「자서전」에는 순천의 「대사습놀이」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때 대사습은 대사습의 사투리로 보이며 「대사습노름」이라 쓰기도 하였다. 순천의 대사습놀리는 정월 14일과 15일 마다 열리는 것으로 항시 순천감영의 射亭인 淸流亭이라는 射亭에서 시행했다고 언급하고 있다(宋萬甲, 「自敘傳」, 『三千里』 創刊號, 1929년 6월, 44~48쪽).
- 17) 송만갑이 순천의 대사습놀이를 술회하면서도 이를 「순천감영의 대사습놀이」라고 언급한 점은 의문이다(宋萬甲, 「自敘傳」, 『三千里』 創刊號, 1929년 6월, 44~48쪽). 당시 순천은 순천부사가 관할하는 지역이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관할하던 水營이 있었던 곳으로 전라 감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의 수군은 갑오개혁으로 폐지되고, 1895년(고종 32) 7월 15일에 전라좌수영은 폐영되었다(정청주, 「전라좌수영의 역사」,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박물관, 1993. 참조)

Ⅲ. 국가행사로서 사습의 두 유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사습(私習)은 개인적인 사스러운 연습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국가행사로서의 사습이다. 국가행사로서의 사습은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한 사습의 용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가 오례(五禮)를 준비하기 위한 사습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으로서의 사습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국가의전용 사습

우선, 국가의전용 사습은 국가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습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의전과 관련한 사습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민구가 사옹원의 말로 아뢰기를, “남별궁(南別宮) 사습의(私習儀)를 이번 달 12일에 하고, 모화관(慕華館) 사습의(私習儀)는 이번 달 16일로 행하기를 이미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지금 조사(詔使)의 도착이 아직도 멀었으므로 각 날의 습의(習儀)는 잠시 보고를 기다린 뒤 시행하기를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알았다고 하였다.¹⁸⁾

위의 기록은 인조 때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남별궁 사습의와 모화관 사습의를 실시하려 했으나, 사신의 도착이 늦어지자 습의(習儀)를

18) ‘순천 감영의 대사십노리’의 실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19) 李敏求以司饗院言啓曰, 南別宮私習儀, 以今月十二日, 慕華館私習儀, 以今月十六日 行之事啓下矣。今聞詔使消息尙遠云, 各日習儀, 姑待的報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承政院日記』 인조 12년 5월 12일 정유).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습의는 국가 행사에 필요한 의식절차를 미리 익히는 예행연습으로써, ‘이의(肄儀)’라고도 하였다.²⁰⁾ 여기서 사습의(私習儀)는 습의(習儀)의 일종으로써, 습의 전에 별도로 익히는 의식절차였다. 사습의(私習儀)는 줄여서 ‘사습(私習)’이라고도 하였다.²¹⁾

당시 습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습의(私習儀)를 시행한 까닭은 국가행사의 소홀이나 차질을 막기 위해서였다. 특히 칙사(勅使)가 서울에 도착하면 모화관(현 서울의 독립문 부근)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사신의 숙소였던 남별궁(현 서울의 소공동)에서는 연향(宴享)을 베풀었다.²²⁾ 모화관 사습의가 사신을 영접하기 위한 별도의 예습절차라면, 남별궁 사습의는 숙소에서 잔치를 베풀기 위한 별도의 예습절차였다.

특히 모화관 영접행사는 성대한 국가행사로 베풀어졌다. 조선의 국왕은 이를 위해 승례문 밖에 나가 모화관에서 사신을 직접 영접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사신들을 환영하기 위한 행사로 야외무대인 산대(山臺)를 만들어 놓고 나례(儼禮)를 베풀었다. 나례는 원래 선달그믐 궁중이나 민간에서 귀신을 쫓는 의식이었으나, 점차 사신 접대를 비롯한 크고 작은 국가행사에서 공연행사로 발전하였다.²³⁾ 나례는 일명 나희(儼戲), 잡희(雜戲), 백희(百戲) 등으로도 불렸다. 모화관 사습의는 산대나례를 위한 별도의 예행연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0) 廷顯答憲府之劾曰 吾以疾不肄儀, 以致錯誤(『世宗實錄』 卷37, 7年 1月 3日 甲戌).

21) 訓鍊都監啓言 儼禮廳下屬捉來棍問則 放砲人林光祿所供渠 以禁營待年軍人於儼禮廳舉行 而聞在前私習時 有放砲吹打之例云(『日省錄』 정조 8년 갑진(1784, 건륭49) 11월 5일 병진)

22) 심승구, 「조선시대 외국인 관광의 사례와 특성-使行觀光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7, 2008, 33~62쪽.

23) 이해구, 「목은 선생의 구나행」, 『한국음악의 연구』 (보경관, 1996. 민속원, 1955. 조원경, 「인조시대의 나례등록」, 『향토서울』 제4호, 1958.

사진실, 「조선 전기의 나례의 공연양상과 공연의 특성」, 『구비문학연구』 제3집, 1996.

영접도감이 아뢰기를, “나례(儼禮)에 쓰이는 헌가(軒架)를 태평관(太平館)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되었으므로 내일 숭례문(崇禮門) 밖으로 끌어내서 전례대로 사습의(私習儀)를 행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²⁴⁾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모화관 사습의는 영접도감에서 주관하였다. 여기서 “전례대로 사습의를 실시한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1646년(인조 25)이전부터 사습의가 이미 관행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전에 사습의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은 사습의가 임진왜란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의식절차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습의는 외교의전에 국한된 의식절차만이 아니었다. 왕실의 연향을 비롯한 각종 국가의전에도 적용되었다.

(풍정)도감에서 계하기를 “인경궁(仁慶宮) 안에서 오늘 이미 사습의(私習儀)를 했는데, 막중한 대례(大禮)를 소홀히 할까 오히려 염려되어 오는 초 10일에 두 번째로 사습의(私習儀)를 행함이 어떻겠습니까 (중략)”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미 습의(習儀)를 했으니 반드시 두 번째 습의(習儀)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²⁵⁾

1630년(인조 8)에 대왕대비전의 회갑 잔치인 진풍정(進豐呈) 사습의를 거행하는 내용이다. 진풍정은 규모가 큰 궁중잔치를 뜻한다. 여기서 사습의를 실시한 까닭이 막중한 대례(大禮)를 소홀히 할까 염려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사습의를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를 건의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사습의가 한 차례로만 그치지 않고 행사의 비중에 따라 여러 차례 시행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전에서의 사습이라 함은 곧 사습의(私習儀)

24) 『承政院日記』 인조 25년 9월 21일(무오).

25) 庚午 三月初八日 都監啓曰 仁慶宮內 今日已爲私習儀 而莫重大禮 猶慮生疎 內初十日 再度私習儀何如(『豐呈都監儀軌』(『韓國音樂學資料叢書』卷13).

를 가리킨다. 17세기 이후 등장한 국가의전용 사습은 ‘사습의(私習儀)’ 또는 ‘사습례(私習禮)’²⁶⁾의 줄임말로써, 습의(習儀) 전에 시행하는 별도의 예행연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 군사훈련용 사습

국가의전용 사습 이외에 또 하나의 사습 용례는 군사훈련에서 찾아진다. 즉 평소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익히기 위한 방법으로 사습이 제도화된 것이다. 다음의 사례는 인조 때에 군사를 대상으로 사습을 행한 기록이다.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2월)9일에 합조(合操)할 군병(軍兵)을 어찌하여 오늘 점고(點考)했는지 아뢰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번 군병들은 비록 3운(運)으로 나뉘어 올라왔지만, 사습(私習)하는 10초(哨)는 한 곳에서 합조(合操)할 수 없고 반드시 기한 전에 올라와서 여러 차례 사습(私習)해야만 합조(合操)할 때에 모양새를 갖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 5일 전에 올려 보내도록 행회(行會)한 것입니다. 5일에는 점고한 다음 사습(私習)하고, 6일에는 군량을 지급하고, 7일에는 화약을 나눠 주고, 8일에는 또 사습(私習)하는 것으로 날짜를 배정했음을 감히 아뢰니 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서울에 머무는 일수가 너무 많은 듯하니, 앞으로는 일수를 줄이는 것으로 정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훈국등록』에 의거함²⁷⁾

26) 金光煜, 以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勅使之行, 越江有日, 宴享之事, 不可不前期整頓, 故臣等今日爲南別宮私習禮, 而假提調行司直蔡彥奎, 行司果徐得信, 行副司猛鄭忠直, 假郎廳繕工主簿白大璉等, 不爲進參, 行益昌副守, 以病終始不參, 事極不當, 請竝從重推考. 且今番假提調, 多有微賤不識事體者, 莫重大禮, 必有顛倒失儀之患, 令吏曹擇差, 而益昌副守忠生, 亦改差, 何如? 傳曰, 依啓(『承政院日記』 인조 15년 11월 8일 임신)

27) 訓鍊都監啓曰, 初九日合操之軍, 何以今日點閱耶? 問啓事, 傳教矣. 此軍兵等, 雖

사습은 이처럼 훈련도감 군사들을 조련시키기 위해 채택한 제도였다. 대오(隊伍)를 셋으로 나눈 군사를 모아 합조(合操) 전에, 부대 단위로 조련하는 것을 사습이라고 하였다. 국가의전용 사습과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용 사습 역시 사사로운 개인 활동이 아니라 부대단위의 공식 군사훈련이었다. 사습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어영청과 금위영 등 왕실과 도성을 방어하는 중앙군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을 지키는 향병(鄉兵)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신이 오랫동안 향곡(鄉曲)에 있어 군병을 조련하고 군병을 뽑는 일을 싫증이나도록 들었는데, 영장(營將)이 시재(試才)하고 장관(將官)이 사습(私習)하는 대상이 모두 농사짓는 농민입니다. 활·칼·기계(器械)가 미비한 것이 많으니, 어찌 감히 사졸(士卒)이 정예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²⁸⁾

각 지방에서 영장(營將, 정3품)이 군사들을 조련하는 제도를 ‘시재(試才)’라 하고, 장관(將官)이 하는 조련을 ‘사습(私習)’이라 하였다. 사습이 속오군(束伍軍)인 지방군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훈련에도 적용된 제도였음을 말해준다. 군사훈련용 사습은 이처럼 중앙의 군영은 물론 지방의 속오군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였다.²⁹⁾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습은 17세기 이후에 새로운 제도로 등장하

有分三運上來，私習十哨，不得一處合操，必須前期上來，數次私習後，合操之際，庶可成形，故前期五日上送事行會矣。初五日點閱，仍爲私習，初六日放糧，初七日火藥分給，初八日又爲私習，以此排日矣。敢啓。傳曰，知道。留京日數，似爲過多，今後減定施行。訓局謄錄(『承政院日記』인조 19년 2월 6일 신해).

28) 營將之試才，將官之私習，是皆農民鋤手也。弓劍器械未備者多，何敢望士卒之精銳乎(『承政院日記』인조 14년 7월 20일 임술).

29) 당시 군사훈련을 ‘肄習’이라고도 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만기요람』의 판본 가운데 어떤 판본에는 私習을 ‘肄習’이라고 쓴 사실에서 확인된다(『萬機要覽』軍政篇 2, 禁衛營, 鍊習).

였다. 임진왜란으로 국가체제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자, 조선왕조는 국가 의전과 군사체제 등의 국가운영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사습을 제도화한 것이다. 사습은 국가나 관청이 주관한 행사로서, 공식(公式) 내지 정식(定式) 행사에 앞서 별도로 마련한 예비적인 제도 또는 보조적인 제도였다. 다시 말하면, 사습의 ‘사(私)’는 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나 관청에서 관여하는 공적인 개념으로서의 사(私)를 의미하였다.³⁰⁾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습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관행사습(官行私習)’의 성격을 분명히 갖는다. 그러한 사습에는 국가의전용 사습과 군사훈련용 사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국가의전에 대비한 ‘예습(豫習)’ 내지 ‘시습(試習)’ 절차라면, 후자는 평상시 정규 훈련으로서 중·하위 장교가 별도로 주관하는 훈련 제도였다. 결국 사습은 17세기 국가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였던 셈이다.

IV. 사습과 대사습과의 관계

1. 습의와 사습

국가의전용 사습은 습의(習儀)에서 나왔다. 성리학 이념에 입각한 조선왕조는 예악정치의 실현을 위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를 편찬하였다.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의 다섯 가지 의전에 따라 크고 작은 나라의 행사를 치렀다. 국가행사는 저마다 복잡한 절차와 의식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국왕을 비롯한 많은

30) 본고에서 다루는 私習과 유사한 용어는 ‘私大同’, ‘私募屬’ 등의 사례에서도 찾아진다. 이러한 사례는 사적인 개념으로서의 私가 아니라 국가 내지 官이 관여하고 있는 공적인 개념으로서의 私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의 ‘公과 私’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 크다.

참가자들은 그 예법을 익혀야만 했다. 이에 행사에 앞서 반드시 예행연습인 ‘습의(習儀)’를 거쳤다. 습의는 보통 세 차례 실시하는데, 이를 ‘삼도습의(三度習儀)’라고 하였다.

하지만, 습의는 행사 규모와 비중에 따라 횟수가 달랐다. 외교의전과 같이 국빈을 맞이할 경우에는 세 차례의 습의를 한 반면,³¹⁾ 왕실 잔치의 경우에는 한두 번만 거행하였다.³²⁾ 초도(初度), 재도(再度), 삼도(三度)로 구성된 삼도습의는 행사를 앞두고 짧게는 2~3일, 길게는 5~6일 기간을 사이에 두고 열렸다.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 습의는 집사관과 백관들이 참여하였고, 최종 리허설에 해당하는 세 번째 습의는 본 행사 날(正日)과 같이 모든 참석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³³⁾

조선전기 이래 국가의전에서 본 행사에 앞서 시행하는 삼도습의 방식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한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래 도감이 아뢰기를, “나래를 할 때 헌가(軒架)와 정재(逞才)는 오로지 희자(戲子)들이 맡아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종묘에 고하는 대례

31) 勅使入京定日後 迎勅之儀 三度排日演習(『通文館志』 事大 下, 郊迎儀).

32) 大王大妃殿內習儀 初度則初七日 二度初九日 三度十一日爲之 而王大妃殿習儀 則只行一度於十三日事分付(丁巳年 十一月 初五日 『國譯壽宴謄錄』, 2003. 177쪽).

33) 召見都監郎廳李采于誠正閣 予曰今番自都監舉行之事 皆在於傳教中 而特召爾分付者 都監之舉行 專在於郎廳故也 爾其惕念舉行也 仍教曰今此祔廟習儀 當行三度 而取考丙午謄錄 則自一度宗親文武百官之進參 自二度侍衛軍兵之陳列 一依正日例舉行矣 雖出於預爲習禮之意 而習禮生熟在於執事官 至於百官軍兵屢次陳列 徒近煩文 況有丁丑已例 今番則至於三度習儀日 依正日例舉行 而百官則只有堂上衙門堂郎各一員 宗親每品進參事 預爲知委 一二度習儀日 則除不緊執事但以廟內殿內舉行執事進參事分付祔廟都監上號進號習儀亦依祔廟習儀例 只三度時依正日例舉行 上號進號別無各習之儀同時舉行 而事面與祔廟有異百官進參一節安徐事分付 上號都監及進號都監封園上諡 則體貌之輕重自別依先朝近例習儀只行一度於他都監三度習儀日事 亦爲分付於封園都監 (중략) 又教曰上號進號習儀 則雖行三度 一度二度自都監舉行 三度則只以內習儀舉行事分付都監 予曰今下傳教甚多 郎廳郎去謄去以爲舉行之地 『日省錄』 1778년(정조2) 3월 20일).

(大禮) 날짜를 이달 9월 16일로 정한 뒤에 각도의 재인(才人)들을 기일 전에 올려 보내도록 하는 일을 파발마를 보내면서까지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삼도습의(三度習儀)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상색재인(上色才人)이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 이번 대례(大禮)의 체모가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전라도·공홍도·경상도·황연도 등의 관찰사들을 모두 감찰하소서. 올라온 재인들 가운데 비록 상색재인은 없지만, 의식을 거행치 않을 수 없음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뢰 대로 하라.” 고 전교하였다.³⁴⁾

1616년(광해군 11)에 나라의 경사가 생기자 종묘에 알린 뒤 나례를 베풀기 위해 전국의 재인들을 동원하였다. 그런데 삼도습의 하루 전까지 뛰어난 재인이 올라오지 않자, 할 수 없이 습의를 그대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삼도습의가 광해군대까지는 행사에 앞서 시행하던 유일한 예행연습이었던 점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인조대에는 삼도습의에 앞서 별도의 절차인 사습의가 등장한다. 1625년(인조 3)에 사신영접을 위해 마련한 남별궁(南別宮)의 연향(宴享) 사습의(私習儀)가 그것이다.³⁵⁾ 이는 기록상으로 국가의전을 위한 사습의의 첫 사례이다. 그 후 사습의에 대한 용례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가행사에서 사습의가 자주 확인되는 까닭은 삼도습의만으로 행사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다.

34) 己未九月十二日辛卯儺禮都監啓曰 儺禮之時 軒架呈戲 專掌戲子之事 故告廟大禮 今九月十六日擇日之後 各道才人 前期上送事 至於發馬督促 而三度習儀 只隔一日 上色才人 不爲來到 今此大禮 事體埋沒 全羅公洪慶尙黃延等道觀察使 竝察之 來現才人中 雖非上色勢 不得已行禮之意 敢啓 傳曰依啓(『光海君日記』 卷144, 11年 9月 12日 辛卯).

35) 李榮以司饗院言啓曰 今日南別宮宴享私習儀時 假提調蓮城都正夢虎 泳城都正亨忠 蓮恩都正應虎 行司果許晴·李克一 竝無緣不進 請從重推考 傳曰依啓(『承政院日記』 인조 3년 5월 7일 갑인)

영접도감(迎接都監)이 계하여 아뢰기를, “나례청을 지난 번 인경궁(仁慶宮) 월랑(月廊)에 설치한 예에 따라 갑자기 세웠으니 가히 시습(試習)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일에 사습(私習)을 하고, 22일에 삼도습의(三度習儀)를 해야 하니 헌가(軒架)와 잡상(雜像)은 모두 정문(正門)으로 나가게 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습(私習)은 폐단이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라고 하였다³⁶⁾

1643년(인조 21)에 영접도감이 칙사의 영접을 위한 습의에 앞서 사습을 청하는 내용이다. 3월 22일에 삼도습의가 열리지만, 그에 앞서 20일에 사습을 요청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폐단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사습이 시습(試習)의 성격을 띤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시습(試習)의 표현처럼, 사습은 세 차례 습의(習儀)에 앞서 미리 예법을 익히기 위한 의식이었던 것이다.³⁷⁾

국가의전용 사습은 인조대 이후 칙사영접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굳어졌다. 사습의(私習儀)가 생겨나자, 구별하기 위해 본래 습의는 ‘원습의(元習儀)’라고 불렀다.³⁸⁾ 국가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습은 다른 국

36) 迎接都監啓曰 儼禮廳依前設行於仁慶宮月廊 而倉卒造作 不可不試習 二十日將爲私習 二十二日當爲三度習儀 軒架雜像 皆由正門而出 敢啓 傳曰知道 私習有弊 勿爲可也(『承政院日記』, 인조 21년 3월 18일 신해)

37) 국가의전에서 습의는 보통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다만 남녀의 유별을 위해 궁중의 內朝에서 하는 습의를 ‘內習儀’, 외조나 궐밖에서 하는 습의를 ‘外習儀’라고 하였다(『傳于金尙憲曰, 今日內習儀, 退行』 『承政院日記』 인조 3년 5월 21일 무진, “二十八日 大妃殿上尊號二度外習儀” 『承政院日記』 효종 2년 7월 19일 갑오). 보통 삼도습의는 행사를 앞두고 세 차례 습의로 구성되며 날짜는擇日을 하되 대체로 3일 간격으로 행하였다. 예컨대 진연의 경우 9월 28일 행사일(이를 正日이라고 함)에 앞서 18일 초도습의, 21일 재도습의는 모두 예조에서 담당하고, 최종 리허설인 삼도습의는 24일에 진연청의 주관아래 행사 장소인 경연당에서 설행하였다. 세자는 삼도습의 때인 24일에 進參(참석)하였다(『肅宗己亥進宴儀軌』).

38) 上命書傳敎曰 本事句語 引用爽實 可知其憑聞之以誤傳誤 況相筭臺章 已先用者不止一二 則重臣於此 義不獨當 特因句語字數之多寡 未免偏勘 且況自初有敦匠

가의전에도 적용되었다. 다만, 모든 국가의전에 사습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사습을 시행하지도 않은 의전도 있었다. 그러나 외교의전의 경우는 반드시 사습을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특히 효종대 이후 외교의전의 기록에는 ‘겸행사습의(兼行私習儀)’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³⁹⁾ 습의와 함께 사습의를 겸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록방식은 17세기 중엽 이후 외교의전에서 습의와 사습의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사습 가운데는 단순히 예법과 절차를 익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대한 공연이 베풀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칙사를 영접하기 위한 산대나례(山臺儺禮)를 익히기 위한 사습이 그것이다. 『칙사등록』에 따르면, 칙사(勅使)가 국경을 건너면 의주, 정주, 안주, 평양, 황주, 개성, 벽제의 7지역에서 환영행사를 하였다.⁴⁰⁾ 안주, 평양, 황주에는 결채(結彩)와 향분(香粉)을 마련하고, 평양과 황주에는 전례에 따라 모두 잡희(雜戲)를 베풀었다. 서울에서는 7곳에서 연향과 유관(遊觀)을 베풀고 성대한 환영행사를 하였다.⁴¹⁾ 특히 모화관 앞에서 사신을 맞이하는 나례잡희(儺禮雜戲)는 성

之勞 廟儀將成 移奉在即 前判書尹蓍東 文禧廟營建廳堂上還差 元習儀 雖命除之都監私習儀 明將爲之云 牌招 使之仕進(『承政院日記』 정조 13년 4월 20일 병오).

39) 迎接都監啓曰 儺禮軒架雜像 已爲畢役 而自前三度習儀 例出於崇禮門還入矣 今番習儀 則勅使入京前一日 早朝出去郊外 兼行私習儀 以除市民曳出之役 宜當敢啓 傳曰知道 都監儀軌 (『承政院日記』 효종 5년 7월 10일 정유).

40) 曹單子 今此勅使之來 應行節目 稟議廟堂開坐爲白去乎 依此舉行何如 一 西路七處 碧蹄開城府黃州平壤安州定州義州 迎錢慰使及中路問安承旨 一 依前例 令政院臨時差出 一 碧蹄 大臣承旨依例進去 一 問禮官 令該曹差出 一 白牌通事 令該院擇定 一 西路所經各站館舍鋪陳支持等事 觀其被兵微甚 隨力整備 俾不至大段埋沒 一 迎勅時及各宴節目 依五禮儀磨鍊 一 所經一路安州平壤黃州等處 結綵頂香盆 平壤黃州 則依前例并設雜戲 一 京中迎勅時 各門及街巷結綵 一 西路安州平壤黃州等處迎錢慰時 依前例用樂 一 京中迎勅行禮時各宴時用樂 一 遊觀各處修掃等事 從略整備 一 黃幄次黃龍亭黃儀仗等物 令該司措備啓 依所啓施行 (『勅使謄錄』 1, 仁祖 15年 丁丑1637) 六月 二十九日).

41) 迎接都監啓言 遠接使移文 而京中七處宴享及遊觀牛駝駱牛軍威軍軒架雜戲 勅使

대하게 베풀어졌다.⁴²⁾

조선왕조는 이를 위해 사신접대를 위한 영접도감(迎接都監)과는 별도로 나례청(儼禮廳)을 운영하였다.⁴³⁾ 산대를 배경으로 수백 명이 참여하는 재인들의 나례와 잡희 행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였다. 나례청은 각 도에서 가장 재주가 뛰어난 ‘상색재인(上色才人)’을 동원하였다.⁴⁴⁾ 만일 상색재인이 없을 경우에는 잡색재인(雜色才人)만으로 행사를 치렀다.⁴⁵⁾ 특히 전국에서 수백 명의 재인을 동원하는 나례와 잡희의 경우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사습을 시행치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거대한 산대(山臺), 잡상(雜像), 채붕(彩棚)을 만들고 이를 도성 밖으로 이동시켜 공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였다.⁴⁶⁾ 실제로 재인들이 산대를 끌고 도성 밖 모화관에 나가 재주를 익히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산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서지거나 망가지고, 재인들이 수많은 구경꾼과 섞여 다치거나 산대 바퀴에 깔려 죽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⁴⁷⁾

併停減 從前宴享許停之時, 例遣別問安使 以示致謝之意矣 命如例(『英祖實錄』卷90, 33年 9月 9日 戊戌).

42) 御便殿 觀儼禮雜戲 賜正布一百匹曰 予豈欲觀之哉 小兒輩欲觀之也 時使臣將至 有司備儼禮百戲, 比常加等焉(『太宗實錄』卷15, 8年 4月 14日 壬辰).

43) 己未九月十二日辛卯儼禮都監啓曰: “儼禮之時 軒架呈戲 專掌戲子之事 故告廟大禮 今九月十六日擇日之後 各道才人 前期上送事 至於發馬督促 而三度習儀 只隔一日 上色才人 不爲來到, 今此大禮, 事體埋沒. 全羅公洪慶尙黃延等道觀察使 竝察之. 來現才人中 雖非上色勢 不得已行禮之意敢啓 傳曰依啓(『光海 君日記』卷144, 11年 9月 12日 辛卯).

44) 上同.

45) 義禁府啓曰 軒架呈戲 專以戲子爲之 而上色才人則無一名來到 國家莫重大禮 不成模樣 只以數雜色才人習儀爲之矣 注之廣大等物則自前戶曹 例爲改修進排 而亦不舉行 請當該郎廳察之 傳曰允 竝勿揀赦前 習儀事 自上何以知之乎 自外察爲(『광해군일기』 권144, 11년 9월 13일 임진).

46) 사진실, 「인조이후 儼禮의 私習과 산대도감패의 흥행활동」, 『공연문화연구』 28, 2014, 105~117쪽.

47) 司諫院啓曰: “今日還宮時, 大駕住日影臺前路, 旣命雜戲前導, 而棚車挽曳之人,

산대 나례는 삼도습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모화관 사습의를 비롯 한 여러 의전행사에서 사습이 덧붙여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⁴⁸⁾ 본 행사에 앞서 펼쳐지는 모화관 사습은 최고 수준의 재인들이 좌우 산대로 나뉘어 벌이는 최고의 경연 무대였던 만큼, 늘 수많은 구경 인파로 북적거렸다.⁴⁹⁾ 이와 같이 나례 사습은 17세기 이후 수도권 최고의 축제이자 공연 무대로 발전해 나갔다. 나례 사습의 관행은 칙행(勅行) 나례가 중단되는 18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2. 사습과 대사습과의 관계

국가의전용 사습과 다른 사습의 용례는 군사훈련에서 찾아진다.⁵⁰⁾ 조 선왕조는 임진왜란 중인 1594년(선조 27)에 훈련도감을 창설한 뒤, 곧바로 사습(私習)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광해군대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도감의 장관(將官)은 중순(中旬), 진법(陣法), 사습(私習), 입번(入番), 수학(受學) 등 하루도 한가한 틈이 없으니 노역이 곱절이나 고됩니다. 따라서 도망친 군병을 잡아들인 것과 한정(間丁)을 모집하여 들인 것도 모두 출사일(出仕日)을 계산하여 주는 것이

爲車輪所輓，既致殞絕。此不過主管之人，不能檢飭而然，請當該官先罷後推。”
答曰：“徐當發落(『光海君日記』卷165, 13年 5月 15日 丙辰).

48) 여기에는 宴享私習儀, 南別宮私習儀, 司饗院私習儀, 南別宮一度私習儀 등이 있었다.

49) 大抵儺禮廳 自古分左右邊 各自勝癖 遊戲之際 百怪之事 互相層出 作爲奇觀 自以爲孰勝孰負 世所共知(『訓局謄錄』 37책, 甲辰十一月初五日條, 한국학중앙연구원, 필사본).

50) 그 하나의 예가 中日에 활쏘기를 연마하는 私習節目이다(『中日射會私習節目』 (附將校軍總新入禮納節目) [編者未詳, 筆寫本(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朝以前, 假裝1冊(6張) (藏書閣 所藏本)

장려하는 일입니다.”(하략) 51)

사습은 훈련도감의 장관(將官)이 맡은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⁵²⁾ 이 사습 역시 단순히 사사로운 개인 활동이 아닌 군대에서 시행하는 훈련이었다. 당시 훈련도감 군사들의 훈련을 통틀어 ‘연습(鍊習)’이라고 불렀다. 훈련도감의 연습에는 사습(私習), 사강(射講), 포폄강(褒貶講), 습진(習陣) 등 4가지가 있었다.⁵³⁾ 그 가운데 사습은 도감의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의 각 부(部)·사(司)·초(哨)에서 2월~10월까지 매달 3차례씩 실시하고, 10월에 좌·우 마병과 좌·우부 보군(步軍)이 각기 계산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뽑아서 시상(施賞)하였다.⁵⁴⁾ 단, 11월부터 정월까지의 3개월은 사습을 정지하였다.

사습의 과목은 마병(馬兵)의 경우에 기사(騎射)와 사회(射會), 보군(步

51) 訓練都監啓曰 都監將官中旬習陣私習入番受學 殆無一日之閑 爲役倍苦 而至如逃軍捉入 閒丁募入 亦皆計仕 獎勵之事 第都監 以其亂後權設之故 兵曹以爲 都監將官計仕 非法典所載 而從前每等付祿 或不計仕 將官輩常所稱冤 至於今春等則專不計仕 許多將官 無遺降付司勇 況計仕之時 先計北道赴防之仕者 乃是國家重赴防之意 而北道赴防將官之仕 竝棄不用 尤爲未穩 且今春等祿一付之後 則四月等 例爲仍付云 兩等降付 無以慰將官之心 今春等雖難改付 夏等爲始 更爲計仕 高下付祿 與他禁軍一體施行 永爲恒式事 奉承傳何如 傳曰允(『光海君日記』 24卷, 2年 1月 17日 甲午)

52) 도감의 장관은 局別將, 把摠, 哨官을 일컫는다(『萬機要覽』 軍政篇 2, 兵曹 各掌事例, 省記色).

53) 『萬機要覽』 軍政篇 2, 訓練都監, 鍊習.

54) 처음과 최종 연습은 모두 琵琶亭(창의문 밖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곳)에서 기수를 시험하며, 중간 연습은 모화관에서 진법을 布列한다. 다만, 난후초·7색군·부·사의 취수는 3차를 모두 燕尾亭에서 실시하고, 장막군은 加佐洞에서 실시한다. 마병은 1일에는 별기대, 2일에는 좌좌초, 3일에는 좌우초, 4일에는 右前哨, 5일에는 右左哨. 6일에는 우우초, 7일에는 별대가 실시한다. 그 중간과 최종 연습도 상황과 같다. 2·3·4·8·9·10월에는 騎射를 실시하는데 초·중·종의 3차 사습을 모두 東小門 밖에서 실시한다. 5·6·7월에는 射布를 실시하는데, 처음과 최종 연습은 남소문에서 실시하고 중간 연습은 모화관에서 실시한다(상동).

軍)의 경우에 포방(砲放:총포), 시예(試藝:각종 무예), 포진(布陣:진법)이다. 보군 가운데 난후초(攔後哨), 칠색군(七色軍), 고수(吹手)도 사습에 참여하였다. 사습의 방법은 해당 집사(執事)와 장령(將領)을 보내 부대를 모아 훈련하는 관사습(官私習)과 각 부대 단위로 훈련하는 사사습(私私習)으로 구분된다.⁵⁵⁾ 이때 훈련도감의 사습은 단순히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시험을 통해 우수자는 포상하고 하위자는 처벌하는 등 평가를 겸하는 제도였다.

사습은 훈련도감 이외에 다른 중앙 군영(軍營)의 훈련에도 적용되었다. 1625년(인조 3)에 어영청이 세워지고⁵⁶⁾, 1682년(숙종 8)에 금위영이 창설되었다.⁵⁷⁾ 어영청·금위영의 창설과 함께 사습을 시행하였다.

사습은 어영청과 금위영 군사를 훈련시키되, 왕의 허락을 받아 추진하였다. 사습에 동원된 군사들이 자칫 반역에 이용될 것을 염려한 탓이다. 어영청과 금위영 군사들의 훈련도 ‘연습(鍊習)’이라고 불렀다. 연습의 종류에는 중일(中日), 사습(私習), 습진(習陣), 사강(射講), 포폄강(褒貶講), 하번향군사습(下番鄉軍私習) 등 6가지가 있었다.⁵⁸⁾ 그 가운데 사습은 매달 3차례에 걸쳐 진법, 활쏘기, 총술을 익히는 훈련이었다.⁵⁹⁾ 매월 3차례의 사습 가운데 두 번째 사습은 출번(出番)과 입번(立番)의 군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훈련이었다.⁶⁰⁾ 다만, 사습은 국상일 경우 졸곡(卒哭) 후에

55) 馬兵一朔三次 二三四八九十月騎射 五六七月射會 至臘正月停止 步軍一朔三次 內[子:二次官私習自二月至十月合十八次內砲放六次試藝六次布陣六次一次私私習自二月至十月九次試藝○至臘正月停止] 試藝[子:南山琵琶亭] 砲放[子:燕尾亭] 布陣[子:慕華館] 七色軍及部司吹手則 初終[次子:燕尾亭] 中[次子:慕華館] 牙兵則 初七日一次 帳幕軍則一朔三次並設於北營後 兩營鄉軍停番時 各哨步軍從一朔一次(『訓局總要』, 私習, 憲宗年間(1845 - 1849) 寫, 장서각 소장본).

56) 『萬機要覽』軍政篇 2, 御營廳, 鍊習.

57) 『萬機要覽』軍政篇 2, 禁衛營, 鍊習.

58) 『萬機要覽』軍政篇 2, 御營廳, 鍊習. 『萬機要覽』軍政篇 2, 禁衛營, 鍊習.

59) 교련관 1명과 천총소 기괘관 2명이 교사와 함께 참여한다. 장소는 남소영(상동).

60) 영군 파총도 또한 교련을 감독한다. 用劍軍의 기에는 별무사 가운데서 교관 2명

거행하였다.⁶¹⁾

조선후기의 군사훈련에는 사습 이외에 대사습이 실시되었다. 대사습은 중앙 군영의 잦은 훈련 정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에서 잘 보여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지난번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을 때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군문(軍門)에서 습조(習操)를 많이 폐지한다 하여 외방(外方) 사조(私操)의 예에 의거하여 대사습(大私習)을 설행(設行)하되, 중군(中軍)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니다. 근래에 이를 장신(將臣)들과 상의(相議)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중군이 대신 거행하는 것이 비록 고사(故事)가 있긴 하나 신여철(申汝哲)이 건백(建白)하여 혁파(革罷)하기에 이르렀으니, 지금 와서 다시 중군으로 하여금 대신 거행하게 하는 것은 마침내 미안(未安)한 데 관계된다. 만약 대장이 유고하면 반드시 도제조(都提調)가 대신 거행하되, 간헐적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대조(大朝)께 취지(取旨)해야 하는 일이니, 대조께 품의(稟議)하여 하교(下敕)하시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허락하였다.⁶²⁾

위의 기록은 중앙 군영의 군사훈련인 습조(習操)가 자주 폐지되자, 지방군을 대상으로한 사조(私操)의 예에 따라 대사습(大私習)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사습(大私習)’은 중앙 군영에서 군영 대장(정2품)을 대신하여 그 휘하의 중군(中軍:종2품)이 습조하는 것을 말한다.⁶³⁾ 대사습이 본

을 임명하고, 元私習을 실시하는 날에 같이 사습한다(상동).

61) 命軍門習陣 行於卒哭後 私習一節 依癸亥年例舉行 從訓練大將張鵬翼之言也(『英祖實錄』卷27, 6년 8월 5일신축).

62) 昌集又曰 頃者藥房入診時 都提調李頤命 以軍門習操多廢 請依外方私操例 設行大私習 令中軍舉行矣 近與將臣相議 則皆以爲中軍代行 雖云有故事 申汝哲至於建白革罷 則到今復令中軍替行 終涉未安 若大將有故 則必須都提調代行 毋令間歇似好云 而此取旨大朝之事 奉稟于大朝而下敕 恐爲合宜 世子許之(『숙종실록』권64, 45년 11월 10일 무인).

래 사조(私操)에서 비롯된 까닭에 대사조(大私操)라고도 하였다.⁶⁴⁾ 이와 같이 중앙에서 대장의 습조를 중군이 대사습을 대신하는데서 비롯된 제도라면, 지방에서는 병마절도사의 습조 하루 전에 영장이 주관하는 군사 훈련이 대사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대사습은 어영청과 금위영이 창설된 뒤인 17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사실은 숙종대 말 1719년(숙종 45)의 기록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외방에서는 병사(兵使)가 습조(習操)할 때 영장(營將)이 반드시 하루 전에 별도로 조련(操鍊)을 거행하는데 이를 사조(私操)라고 하며, 경군문(京軍門)에서도 파총(把總)과 초관(哨官)이 대사습(大私習)하는 전례가 있습니다.⁶⁵⁾

위의 기록에서 대사습이 이미 중앙의 군사훈련으로 정착된 사실을 말해준다. 당시 지방에서는 병마절도사가 습조(習操)할 때 영장(營將, 정3품)이 반드시 하루 전에 별도로 시행하는 사조(私操)라고 불렀다. 중앙 군영의 파총(把總, 종4품)과 초관(哨官, 종9품)이 주관하는 대사습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사습은 지방의 사조(私操)에 비견되는 훈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사습은 말 그대로 사습 보다 더 큰 규모로 시행되는 군사

63) 外方兵使習操時 營將必前一日私行操鍊 稱以私操 京軍門 亦有把總哨官大私習之例矣 若以中軍之代行習操爲未安 則皆以大私操爲名 使中軍爲之 猶勝於全然廢闕矣 上曰申汝哲之言 不無意見 故其時有中軍勿爲代之命矣 外方則私操後 兵使卽爲正操 而此則無正操 而但行私操 果何如耶 顧命曰一朔之內 定行三操 大將雖未行前操 猶可爲後操 便是正操 恐無所妨 而第臣一人之見 未必合宜 宜令廟堂稟處矣 上命廟堂商議稟處 (『숙종실록』 권64, 45년 8월 13일 계축).

64) 상동.

65) 外方兵使習操時 營將必前一日私行操鍊 稱以私操 京軍門亦有把總哨官大私習之例矣 (『숙종실록』 권64권, 45년 8월 13일 계축).

훈련이었다. 따라서 시행하는 군사의 성격과 훈련 방식에 따라 다양한 대
사습이 시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차대사습(日次大私習), 춘추
대사습(春秋大私習), 금군대사습(禁軍大私習) 등이 확인된다.

우선, 일차대사습은 어영청과 금위영에서 날에 따라 실시한 군사훈련
이었다. 금위영의 경우는 영군(領軍) 천총(千摠)이 군사들의 번(番)이 끝
나는 달 28일에 신번(新番)·구번(舊番) 8초(哨:1哨 124명)를 거느리고 대
사습을 시행하고,⁶⁶⁾ 어영청의 경우는 군사들의 번(番)이 끝나는 달 27일
에 신·구번의 8개 초(哨:1哨 120명)를 거느리고 대사습을 시행하였다.⁶⁷⁾
그러므로 대사습은 어영청과 금위영이 지방에서 올라온 향군(鄉軍) 약 1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사훈련이었다. 당시 어영청과 금위영에서
거행하는 대사습을 ‘일차대사습(日次大私習)’이라고 하였다.⁶⁸⁾

일차대사습은 부대 단위로 매달 3차례씩 시행하는 사습과 달리 두 달
마다 교체되는 군사들을 한데 모아 시행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일차
대사습은 중앙군 가운데 훈련도감은 제외하고 어영청과 금위영에서만 실
시하였다. 훈련도감은 중앙군으로 구성되어 늘 훈련을 할 수 있었던 반면,
향군으로 구성된 어영청과 금위영의 경우는 한번 올라왔다 내려가면 다
시 불러 모아 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차대사습은 어영
청과 금위영의 군사력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춘추대사습(春秋大私習)은 말 그대로 춘추로 실시한 대사습을 말한다.
춘추대사습은 수어청과 충용청의 군사훈련으로 시행되었다. 원래 수어청
은 정묘호란 이후 중앙 군사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남한산성에 설치한

66) 領軍千摠 終番朔二十八日 率新舊番八哨 大私習(『萬機要覽』軍政篇 2, 禁衛營, 鍊習).

67) 終番朔二十七日 新舊番八哨大私習 各該哨官監試(『萬機要覽』軍政篇 2, 御營廳, 鍊習).

68) 徐元淳啓曰, 御營廳將官來言, 今日本廳軍兵, 日次大私習云矣敢啓 傳曰 知道(『承政院日記』 현종 15년 4월 27일 을축).

5군영의 하나이다. 춘추대사습은 매년 봄과 가을에 수어청의 중군(中軍)이 한량군관, 별파진, 표하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⁶⁹⁾ 일명 춘등대사습(春等大私習) 또는 추등대사습(秋等大私習) 등으로도 불렸다.⁷⁰⁾ 춘추대사습은 1795년(정조 19) 장용영(壯勇營)의 설치와 함께 수어청이 폐지되면서 일찍 사라졌다. 충용청은 인조때 설치되어 북한산성의 수비를 맡았던 5군영의 하나였다. 충용청의 군사 역시 춘추로 대사습을 시행하였다.⁷¹⁾

금군대사습(禁軍大私習)은 말 그대로 왕실을 호위하는 금군(禁軍)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사습이다. 금군을 용호영(龍虎營)이라고도 불렀으므로, 용호영 대사습이라고 할 수 있다. 금군대사습은 해마다 사중삭(四仲朔)에 한 차례씩 거행하였다.⁷²⁾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습과 대사습은 17세기 이후 등장한 군사훈련 제도였다. 사습은 군대와 병종에 따라 그 시행 시기와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예컨대 사습의 종류에는 한 달에 3차례씩 하는 ‘일삭사습(一朔私習)’, 4달에 한 번씩 하는 ‘사맹삭사습(四孟朔私習)’, 춘추로 실시하는 ‘춘추사습(春秋私習)’ 등으로 구분된다. 사습(私習)은 포방(砲放:총포), 시예(試藝:각종 무예), 포진(布陣:진법), 활쏘기 등을 부대 단위로 연마하는 훈련방식이었다. 그런데 군사훈련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습을 했던

69) 金相福以守禦廳言啓曰 本廳京閑良軍官及別破陣標下軍等 團束改作隊後 春秋大私習事 筵稟定奪矣 今春等大私習 依定奪今月十一日 本廳中軍洪元益領率 設行於南伐院之意敢啓 傳曰知道(『承政院日記』 영조 24년 3월 10일 갑오).

70) 상동.

71) 충용청 표하군의 경우에 처음에는 춘추로 사습하다가 영조 31년부터는 매년 한 두 차례만 실시하였다 “且標下之春秋私習 自是古規 從今以後 標下軍勿論京鄉 每年一二次草記啓下後 分邑招集 排日私習 俾知坐作進退之節 上可之”(『영조실록』 권83, 31년 1월 20일 갑오).

72) 允鉦曰 禁軍大私習 以每年四仲朔 設行於弘濟院事定式(『承政院日記』 영조 49년 9월 12일 무진).

군사를 모아 연합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대사습(大私習)’이다.

사습이 군대의 병종에 따라 다양하듯이, 대사습도 군대나 병종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일차대사습(日次大私習), 춘추대사습(春秋大私習), 금군대사습(禁軍大私習)의 형태가 그것이었다. 대사습은 사습을 통해 재주를 닦은 군사를 모아 테스트하는 성격을 갖는다. 대사습의 이 같은 관행은 후일 전주대사습놀이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습이 국가의전용과 군사훈련용 제도로 모두 쓰인 용어라면, 대사습은 군사훈련에서만 사용되었다. 이점 또한 전주대사습놀이와의 관련성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V. 전주대사습놀이의 형성과정

1. 임란 후 나례 사습과 호남 재인의 역할

전주대사습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직까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전주대사습놀이가 전라도 지방에서 발달한 예인(藝人)문화였던 만큼, 조선후기 민간예술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전기 이래 국가의 대표적인 행사였던 나례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민간의 공연문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나례는 칙사영접(勅使迎接), 부묘(附廟), 안태(安胎), 추숭(追崇), 상존호(上尊號) 등 나라의 크고 작은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공연행사였다. 나례에는 좌우로 마련된 산대(山臺)와 채붕(彩棚)을 배경으로 다양한 노래와 춤, 줄타기·땅재주·숫대타기 등의 기예(技藝), 창우희(倡優戲), 괴뢰희(傀儡戲) 등의 다양한 공연이 열렸다. 이러한 나례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재인들이 필

요하였다.

조선전기의 나례를 시행할 때에는 주로 서울과 경기 일원의 재인(才人)들이 참여하였다.⁷³⁾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경기 일원의 재인들을 모으기가 어려워지자, 나례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재인을 불러 모았다. 그런데 17세기 이후부터는 국가행사에 호남 재인들이 대규모로 동원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1621년(광해군 13)에 의금부가 국왕에게 올린 보고에서 잘 확인된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희자(戲子)가 드리는 기예(技藝)를 전적으로 전라도에 맡긴 것은 그 수요가 무려 6백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증(追崇) 대례(大禮) 때에 본부가 행이(行移)하여 올려 보낼 것을 재촉하였을 뿐 아니라, 전후로 네 번이나 하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차사원이 단지 노약자 64명으로 구차히 수를 채워 때에 맞춰 오기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려 보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재주를 익힌 희자(戲子)가 절반 이상이 나오지 않았으니, 극히 통탄스럽습니다. 본도(전라도) 감사는 추고하고 차사원(差使員)은 파직하는 한편, 뒤에 떨어져 있는 희자(戲子)들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일제히 올라오라고 말을 보내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택한다. 감사는 자급을 내리고 도사(都事)는 파직하라.” 하였다 【희자(戲子) 때문에 감사는 자급을 내리고 도사는 파직되었으니, 당시의 법령이 매우 엄하다 하겠다. 그런데도 기강은 왜 세워지지 않는 것인가】⁷⁴⁾

73) 傳于政院曰 天使時 綵棚之設 戲事甚多 擾擾之中 必不詳翫 今天使時 勿令加設 仍前所造之物 修補用之可也 遠方才人 皆令聚會 往來之時 偷取民財 其弊不小 擇在畿甸有才者用之(『중종실록』 권89, 34년 2월 4일 계묘).

74) 義禁府啓曰 戲子呈技 專責於全羅道 厥數多至六百名。今此追崇大禮時 非但本府行移催送 前後四道 至於下諭 而昨日差使員 只以老弱六十四名 (苟充其數, 故爲)臨時來現 使不得更催。成才戲子 則過半不來 極爲痛心。請本道監司推考 差使員罷職 落後戲子 不分晝夜 一齊上送事 發馬行移 何如 傳曰允 監司降資 都事罷職(【爲戲子之故而降監司之資 罷都事之職 當時法令嚴矣 紀綱何得不立乎】) 『光海君日記』 169卷, 13年 9月 5日 癸卯).

윗 기록은 종계변무(宗系辨誣)와 정응태(丁應泰) 사건이 해결되자, 선조와 의인왕후를 추숭(追崇)하는 경사를 맞이하여 나례를 준비하는 내용이다.⁷⁵⁾ 임진왜란의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지만, 광해군은 나라의 경사를 계기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나례를 베풀고, 전국에서 희자(戲子)를 대거 불러 모으고자 한 것이다. 이때 희자는 곧 정재인(呈才人)으로 광대 또는 재인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당시 전라도의 재인에 크게 의존한 까닭은 다른 지역에서 재인들을 모으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전란으로 다른 지역의 재인들이 화를 당하거나 흩어진 반면에, 전라도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재인을 동원하기가 수월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라도에서도 재주있는 광대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자, 해당 지역의 감사와 도사를 처벌하였다. 이는 각도에서 재인의 상송(上送) 업무를 감사와 도사(都事 중5품)가 책임을 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⁷⁶⁾ 그럼에도 윗 기록은 전란 직후 서울의 산대 나례가 호남의 재인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임진왜란은 이처럼 각종 국가행사에서 전라도 재인들이 중앙에서 크게 활약하는 계기가 되었다.⁷⁷⁾ 그러한 경향은 인조반정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실제로 1626년(인조 4)에 명나라 태자의 탄생 조서(詔書)를 맞이하기 위해 실시한 나례 때에도 호남 재인들이 타도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75) 이때 종계변무는 명나라의 『大明會典』에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로 잘못 기록한 宗系를 바로 잡아 200년간 숙원을 풀었다는 사건을 말하고, 정응태의 誣告 사건은 임진왜란 중 조선이 일본을 끌어들여 명을 치려고 계획했다고 명나라에 무고하여 명나라의 의심을 산 사건을 말한다.

76) 都事는 관찰사의 보좌관으로 한 도의 순력과 규찰을 분담하고, 감사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신하여 ‘亞監司’라고도 불렀다(『성종실록』 권36, 4년 11월 9일 을미).

77) 이를 두고 손태도는 경기 지역의 세습 예인들이 호남 세습예인들로 대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손태도, 『광대의 가창문화』, 집문당, 2003).

〈표1〉 1626년(인조 4) 좌 산대도감 소속 재인수⁷⁸⁾

	군현별 재인 수	계	
		군현수	재인수
경기	광주 4, 양주 1, 죽산 1, 잠두 2, 고양 2, 교하 1, 수원 3, 통진 3, 부평 2, 안성 2, 강화 1, 풍덕 1, 용인 1, 파주 3, 김포 1, 양성 1,	16곳 (18.1%)	29명 (10.1%)
충청	한산 4, 공주 4, 연기 1, 전의 3, 목천 1, 청주 6, 임천 8, 홍산 3, 홍주 1, 아산 6, 온양 1, 천안 1, 정산 1, 면천 4, 부여 1, 진잠 1, 태안 1, 서천 1, 음성 2, 회인 1, 나산 1,	21곳 (23.8%)	52명 (18.1%)
경상	함양 1, 인동 6, 대구 3, 진해 1, 밀양 1, 군위 1, 신령 1, 영천 1, 경주 2, 영일 2, 흥해 1, 울산 1, 통영 ¹¹ , 성주 1, 웅천 1	15곳 (17%)	34명 (11.8%)
전라	전주 ²⁸ , 여산 2, 금산 3, 진산 1, 김제 4, 용안 2, 태인 9, 금구 7, 부안 1, 정읍 5, 함열 3, 고부 6, 임피 4, 영암 9, 함평 5, 장성 1, 익산 6, 나주 ¹⁴ , 옥구 1, 영광 6 (이상 右道) 순창 3, 순창 2, 홍양 2, 남원 1, 담양 ¹⁰ , 화순 1, 장수 1, 남평 5, 광산 ¹⁰ , 보성 3, 낙안 5, 장흥 6, 옥과 2, 진안 2, (이상 左道)	36곳 (40.9%)	171명 (59.7%)
계		88곳 (100%)	286명 (100%)

* 고딕은 10명 이상 배출한 군현

〈표1〉은 1626년(인조 4) 전국에서 동원된 좌우 산대도감 가운데 좌 산대도감에 소속된 군현과 재인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앞에서 광해군 때에 회자 600명을 동원했다는 기록에 알 수 있듯이, 원래 좌우 산대도감에 동원된 재인의 수는 모두 600여명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표1〉의 좌 산대도감 소속 286명은 좌우 산대도감에 소속된 총 인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전라도 재인이 171명(59.7%)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이어 충청도 52명(18.1%), 경상도 32명(11.8%), 경기 29명(10.1%) 순이다. 또한 재인을 배출한 군현은 전라도 36곳, 충청도 21곳, 경기 16곳, 경상도 15곳으로 전라도가 단연 앞선다.

10명 이상 재인을 올려 보낸 군현도 전주(28명), 나주(14명), 통영(11

78) 사진실, 「나례청등록 4」, 『문헌과 해석』 통권5, 1998.

명), 광산(10명), 담양(10명) 순으로 통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라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군현을 확인해 보니, 전라 좌도와 우도 군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⁷⁹⁾ 물론 <표1>의 결과는 우 산대도감의 내용이 빠져 그 분석의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결과는 중앙의 산대나례에서 전라도 광대의 비중과 역할이 광해군에 이어 인조대까지 지속되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17세기 이후 사신영접을 환영하기 위해 배푼 한양의 산대 나례는 전국의 재인들을 서울로 불러 모으는 동시에 각 지방에서 재인을 양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조선후기의 산대나례는 가장 성대한 국가행사로 치러졌다. 중국과의 외교의전 절차인 산대나례는 명·청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빈(國賓)을 환영하는 최고의 공연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를 위해 당시 전국에서 올라온 재인들은 좌우 산대 패로 나뉘어 나례 사습(私習)과 3차례의 습의(三度習儀), 그리고 나례 본 공연에서 각종 재주를 펼쳤다. 그 가운데 도성 밖 야외에서 벌어지는 모화관 사습의는 도성과 인근의 백성들이 전 과정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큰 구경거리였다. 모든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된 습의나 본 행사와 달리, 그에 앞서 거행된 사습은 백성들의 참관과 환호 속에서 재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79) 전라도는 1407년(태종 7)에 군사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좌·우도로 나누고 좌도는 동쪽 산악지대, 우도는 서쪽 평야지대로 삼았다. 하지만, 관찰사를 따로 두지 않고 兵使, 水使 등 군사상 직제만 좌·우도로 나누었다. 『증보문헌비고』(여지고)에 따르면, 좌도는 남원·담양·순창·용담·창평·임실·장수·곡성·옥과·운봉·진안·무주·광주·장흥·남평·순천·낙안·보성·능주·광양·구례·홍양·동북·화순의 24개 고을이고, 우도는 전주·익산·김제·고부·금산·진산·여산·만경·임피·금구·정읍·홍덕·부안·옥구·용안·함열·고산·태인·나주·장성·영암·영광·함평·고창·무장·무안·진도·강진·해남·제주·대정·정의 32개 고을이다. 전라 좌·우도는 1892년(고종 33)에 남·북도의 체제로 바뀌었다.

중앙 무대의 산대나례에 참여했던 재인들의 경험은 서울은 물론 지방에 나례문화 내지 사습 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재인을 동원했던 전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짐작된다. 그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7세기 이후 전라도 재인이 중앙 무대에서 차지한 큰 비중은 18세기를 거쳐 19세기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진다.

19세기 전국의 읍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에 소속된 예인(妓生, 樂工, 吹鼓手, 吹手, 細樂手, 保)과 서울로 상납하는 군병예인(軍兵藝人 : 樂生, 樂生保, 樂工, 樂工保, 樂生樂工保, 內吹, 內吹保)을 합한 수가 호남이 제일 많다.⁸⁰⁾ 즉 호남이 1,949명, 영남 1,697명, 충청 1,584명, 황해도 1,176명 순인데, 서울에 번상(番上)하는 예인을 제외하고 지방에 속한 예인만 해도 호남이 6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평안도 572명, 경기 529명, 충청 466명, 황해 366명, 경상 303명, 함경도 178명, 강원 109명 순이다.

위의 결과는 19세기의 예인문화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어느 정도 엿보게 한다. 1843년에 송만재(1783~1851)가 쓴 한시 관우희(觀優戲)에서 ‘극(劇)과 기(伎)는 호남 출신이 가장 많다’⁸¹⁾ 라고 한 사실은 이 같은 경향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 뒤 1894년에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 김개남이 전라도 창우(倡優)와 재인(才人) 천여 명을 뽑아 별도의 부대를 조직한 사실도⁸²⁾ 19세기말까지 호남 지역 내에서 재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호남 지역의 예인문화 전통은 20세

80) 배인교, 「조선후기 지방관속 음악인 연구」 (학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8~134쪽. 한편, 保의 경우는 예인의 숫자에 포함하기 어렵다. 다만, “악생과 양인 악공의 보(保)는 동거하는 친족 중 2인을 붙이도록 하였다”(『經國大典』 卷4, 兵典, 給保)에 근거하여 당시 악공들의 경우도 친족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81) 劇伎湖南產最多 (『觀優戲』, 『板橋初集』 : 박애경, 『宋晩載의 觀優戲를 통해 본 19세기 시정문화의 한 국면』, 『열상고전연구』 37, 2013. 48쪽 참조).

82) 初開南選道內倡優才人千餘人爲一軍 厚禮之冀得死力 至是才人等見開南逆節已判一夜盡散(黃玿, 『梧下奇問』, 三筆, 음력 1894년 10월 일미상).

기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졌다. 그리하여 전라도는 ‘광대의 못자리판’⁸³⁾이라고 하거나 ‘광대는 대개 전라도 사람들이다’⁸⁴⁾라고 말할 정도였다. 1940년에 쓴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수록된 89명의 광대 중에서도 전라도 출신 48명, 충청도 출신 25명, 경상도 출신 7명 순으로 전라도 출신이 타도에 비해 크게 앞선다.⁸⁵⁾

결국 임진왜란 이후 중앙의 산대나례를 위해 전라도의 재인들이 대거 동원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18세기말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내내 중앙의 산대나례에 대거 참여한 호남의 재인들은 자연스럽게 나례사습을 익혀 나갔고, 지역에서는 상색재인(上色才人)과 잡색재인(雜色才人)을 가리기 위한 사습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⁸⁶⁾ 만일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19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는 전주대사습은 나례 사습의 전통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호남의 군사훈련과 나례 잡희

전주대사습이 나례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의

83)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辯護士 金炳魯氏는 광대의 못자리판인 全羅道胎生이니만큼 南道소리를 다 잘 하지만은 특히 春香歌中の 리별歌 일절은 求禮宋萬甲이가 드르면 首弟子를 삼으라고 애를 쓸 것이다”(『별건곤』 제10호, 1927.12.20. ‘名男名女 습은 장끼 歲暮 餘興競技大會’).

84) 김재철, 『조선연극사』, 조선어문학회, 1933. 119~120쪽.

85) 鄭魯湜, 『朝鮮唱劇史』, 京城, 朝鮮日報社, 1940. 참조 문순태, 「順天지방의 판소리 形成考-唱制의 傳承系譜를 중심으로」, 『南道文化研究』 1집, 1985. 78쪽.

86) 義禁府啓曰 軒架呈戲 專以戲子爲之 而上色才人則無一名來到 國家莫重大禮 不成模樣 只以數雜色才人 習儀爲之矣 注之廣大等物 則自前戶曹例爲改修進排 而亦不舉行 請當該郎廳察之 傳曰允 竝勿揀赦前 習儀事 自上何以知之乎 自外察爲(『광해군일기』 권144, 11년 9월 13일 임진). 한편, 예능이 뛰어난 上色才人은 ‘左山木上才人’·‘右山木上才人’으로 불렸다(赤松智城·秋葉 隆 共著, 『朝鮮巫俗의 研究』 下卷, 1938 ; 『朝鮮巫俗의 研究』 (下),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284쪽).

나례 흔적을 주목하게 만든다. 호남 지역에서 나례 잡희가 처음으로 확인 되는 것은 조선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a. 그 뒤 (전라감사) 박은이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중략) 처음에 황태감(黃太監) 등이 서울로 떠나매, 경기(京畿)·충청(忠淸) 두도의 감사(監司)가 영접할 때 크게 나례(儺禮)를 갖추고, 기악(妓樂)과 유밀과상(油蜜果床)이 지극히 변화해도 폐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니다. 신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옳지 못한 전례(前例)를 만드는 것을 분하게 여기어, 즉시 도체찰사(都體察使) 박석명(朴錫命)에게 글을 보내, 모든 영접(迎接)하는 일은 그 도(道)의 예(例)에서 수등(數等)을 감하게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그 도(道)의 예(例)에 이끌려서 완산부(完山府)에서는 나례(儺禮)와 과상(果床)을 차려 놓았으니, 이것이 신의 죄의 셋째입니다.”⁸⁷⁾

b. 임금이 완산부(完山府)에서 장차 결채(結彩)를 하고 나례(儺禮)하여 어가(御駕)를 맞이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과하라고 명하였다.⁸⁸⁾

사료 a는 1416년(태종 6)에 명나라 환관 황엄(黃儼, ?~1423)이 나주로 갈 때 완산부(전주)를 방문하자, 전라도 감사가 영접을 위해 나례(儺禮)와 과상(果床)을 차린 내용이다. 당시 전라 감사는 경기와 충청 감사가 나례(儺禮), 기악(妓樂), 유밀과상(油蜜果床)으로 영접하는 예를 본받되 등급을 낮추어 영접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폐를 끼쳐다 해서 스스로 사직을 청하고 있다. 사료 b는 태종이 전라도까지 내려갔을 때, 전라 감사가 역시 완산부에서 나례를 베풀어 어가를 맞이하려 했으나 중단했다는 내

87) 其後嘗上書曰 (중략) 初 黃太監等發京 而京畿忠淸兩道監司 於迎接之際 大備儺禮 妓樂油蜜果床 極其繁華 不以爲弊 臣聞之 憤其作俑於前 卽通書於都體察使 朴錫命 凡迎接事件 減於彼道之例數等爲之 然牽於彼道例 只於完山府 設儺禮果床 臣罪三也(『태종실록』 권12, 6년 7월 16일 계묘).

88) 上聞完山府 將以結綵儺禮迎駕 命罷之(『태종실록』 권26, 13년 9월 25일 신축).

용이다. 두 기록에 따르면 조선 건국 직후에 전라도 전주에 나례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례는 아무 고을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도의 대주(大州)에 해당하는 큰 고을에서만 설행하는 예식이었다.⁸⁹⁾ 따라서 고려 때부터 전국의 큰 고을에 발달한 나례가 조선건국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전주대사습놀이의 형성과정에서 염두할 점은 군사훈련과의 연관성이다. 왜냐하면 전주대사습놀이라는 명칭이 일단 대사습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대사습은 전주대사습놀이가 탄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사습은 본래 평소 사습하던 군사들을 한데 모아 행하던 연합훈련이었다. 대사습은 단순히 합동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마했던 능력을 평가하는 성격을 갖는 제도였다. 이러한 관행은 실제로 전주대사습놀이가 형성되는데 일정하게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군사제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에는 훈련도감을 비롯한 5군영이 설치되는가 하면, 지방에는 진관제도의 복구와 함께 속오군제가 실시되었다. 양인·공사천인(公私賤人)으로 조직된 속오군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지역을 방어하는 군사들이었다. 이들의 훈련은 겨울철 농한기에 소집하여 진법훈련과 포술·검술 등 무예훈련을 실시하고, 매년 1회씩 도 전체의 병력을 모아 진법을 연마하였다. 그 같은 사실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601년(선조34) 10

89) 庚寅/視事 判書權軫(軫)申商等啓 今令各道迎新監司 毋得用山棚儺禮結綵軍威臣等以爲前此無王旨之行 尙備禮以迎 況今奉王旨以行 不可不備禮 若以爲有弊則除山棚儺禮 但以結綵軍威迎之何如從之 知申事安崇善等啓 此禮非每邑而行之 慶尙道則尙晉慶星等大州而已 朝廷使臣之來 亦設上項等禮 所以尊帝命也以小弊而廢舊禮 恐不可也 請竝仍舊 上曰 卿等之言是也 然監司數遞 年例事也 除別例奉王旨使臣外 新監司則禁山棚儺禮結綵軍威若何 左代言金宗瑞對曰 宜仍舊勿禁 若農時或年歉 則監司臨時除之 安有膠柱之弊乎 請仍舊以尊王命 從之(『세종실록』 권52, 13년 5월 27일 경인).

월 전라도 전주 감영에서 시행된 군사훈련의 모습에서 찾아진다.

(10월 16일 호남의) 열두 고을의 삼수병(三手兵)이 교장(敎場)에 모여 대열(大閱)을 하는데, 내(許筠)가 형님(전라감사 許箴)을 모시고 참관하였다. 군사들이 모두 주먹이 날래고 용감하였다. 좌우군(左右軍)을 펴서 어령진(魚麗陣)과 아관진(鵝觀陣)을 만들었는데 병기는 예리하고 깃발은 선명하고 북과 피리의 군호 소리는 우렁찼다. (중략) 저녁에 조련(操鍊)을 과하고 잡희(雜戲)를 벌이고 잔치를 열어 호궤(犒饋)하였다. 밤이 되니 불을 밝힌 성 안은 대낮같이 밝았다.⁹⁰⁾

위의 내용은 10월에 호남지역 12고을의 삼수병(砲手, 射手, 殺手)을 모아 대열(大閱)을 하는 모습이다. 당시 호남의 군현 수가 58개였으므로 진법훈련인 대열은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2고을의 군사가 참여한 셈이다. 때마침 전운판관(轉運判官)으로 전주에 들린 허균(許筠)은 전라감사에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형님 허성(許箴)과 이를 참관하였다. 대열(大閱)을 마친 뒤에는 저녁에 잡희(雜戲)를 베풀고 잔치를 열어 군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잡희가 지방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마친 뒤에 뒤풀이 문화의 일환으로도 베풀어진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초 만해도 전라 감영에서는 조련을 마친 뒤, 잡희를 베풀고 잔치를 여는 것이 관행이었다. 잡희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때 시행된 공연종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사훈련이 있기 바로 한 달 전 전주에서 열린 잡희 속에서 당시 연행종목을 확인할 수 있다.

90) 甲戌會十二邑三手兵。大閱于敎場。余侍兄往觀。士皆拳勇敢銳。張左右軍爲魚麗鵝觀陣。戈甲鮮利旗幟精明。鼓角謹亮。進退坐作皆合節。用此可以却敵。而惴惴然南顧以憂者。抑何故歟。夕罷操。陳雜戲譙以犒之。夜回火。城如晝矣(『惺所覆瓿藁』 卷18, 文部 15, 紀行上, 漕官紀行)

a. (8월) 13일(임신) 진남헌(鎭南軒)에 나가 방백과 함께 장간(長竿)·주승(走繩)·도상(跳床) 등 여러 가지 기예(諸伎)를 다 보았다.⁹¹⁾

b. (9월) 7일(을미) 삼례에서 점심을 먹고 전주로 들어가는데 관관이 기악(伎樂)과 잡희(雜戲)로 반마장이나 나와 맞이했다. 고취(鼓吹)로 천지가 시끄럽고 천오(天吳), 상학(翔鶴), 쌍간(雙竿), 희환(戲丸), 대면(大面), 귀검(鬼臉) 등 온갖 춤으로 길을 메우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성곽에 넘쳤다.⁹²⁾

사료 a는 허균이 전라감사와 함께 동헌(東軒)인 진남헌에서 관람한 잡희의 내용이다. 사료 b는 전주관관이 다시 전주를 방문한 허균을 영접하기 위해 거리에서 베푼 기악(伎樂)과 잡희(雜戲)의 모습이다. 위의 두 사례는 전주 지방에서 잡희가 비교적 자주 시행되는 모습을 엿보게 된다. 이때 기악은 곧 지방 군대의 고취(鼓吹) 연주로 이해된다.⁹³⁾ 여기서 등장하는 잡희의 종목에는 장간(長竿:장대놀이) 주승(走繩:줄타기) 도상(跳床:방방뛰기), 쌍간(雙竿:쌍 장대), 희환(戲丸:공던지기) 등의 다양한 재주와 천오(天吳:水神을 형상화한 춤),⁹⁴⁾ 상학(翔鶴:학춤), 대면(大面:황금 탈), 귀검(鬼臉:귀신탈) 등 여러 가지 탈춤과 가면극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잡희의 연행종목은 앞서 살핀 대열 뒤에 베푼 잡희의 종목과

91) 夕入全州方伯來見 壬申就鎭南軒 同方伯看陳雜戲 長竿走繩跳床諸伎悉奏(『惺所覆瓿』 卷18, 文部 15, 紀行上, 漕官紀行)

92) 乙未午飯于參禮入州 判官出伎樂雜戲于半程以迓 鼓吹喧天 萬舞塞途 天吳翔鶴 雙竿戲丸大面鬼臉 觀者溢郭 余笑語長姪曰 恨不以此行爲君折桂來也 渠亦捧腹(『惺所覆瓿』 卷18, 文部 15, 紀行上, 漕官紀行)

93) 이때 전주 관관이 마중 나와 베푼伎樂이 악대의 鼓吹라는 사실은 조선통신사일행의 악대 연주를伎樂이라고 한데서 뒷받침된다(使之行之始至也 倭將等請觀隨行伎樂 誠一不許曰 國書未傳 而先呈伎樂 是受侮也 『宣修修正實錄』, 25卷, 24年 3月 1日 丁酉).

94) 天吳는 水神춤이다. 수신의 형상은 사람처럼 생긴 머리가 8개, 다리가 8개, 꼬리가 10개이며, 호랑이 몸의 형상을 하고 있다. 탈 빛깔은 푸른 색에 노란 빛이 감돈다. 朝陽之谷의 水神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동일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판소리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17세기 초반까지 지방의 잡희 가운데 판소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⁹⁵⁾ 그러므로 전주대사습은 군사훈련과도 상관없이 설행된 별도의 재인들의 기악과 잡희의 놀이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지방에서 대규모 훈련 뒤에 베풀어진 기악과 잡희는 후일 전주대사습이 발달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대사습은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시행된 만큼, 곧 전주대사습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만일 전주대사습이 군사훈련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놀이문화라고 한다면, 이는 전주 감영에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감영, 병영, 수영, 통제영 등지에서도 대규모 군사훈련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은 대사습이 군사훈련에서 비롯한 용어임에는 틀림없지만, 군사훈련인 대사습이 곧바로 전주대사습놀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전주대사습놀이는 일단 그 명칭에서 군사훈련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재인들이 참여했던 산대 나례에 가까워 보인다. 따라서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칭은 군사훈련용 대사습에서 빌려오고, 내용은 산대나례와 같은 잡희를 배경으로 탄생한 놀이문화였을 가능성이 크다.

3. 18C 후반 산대나례의 중단과 재인들의 동향

조선전기 이래 각종 국가행사에 쓰이던 산대나례는 인조대 이후 큰 변

95) 요즘과 같은 판소리의 형태와 내용이 자리 잡은 시기는 숙종대(1661~1720년) 시대로 보는 설과 영조(1694~1776년, 재위 1724~1776년) 이전 시대로 보는 설이 있다. 문헌상으로 가장 오랜 기록은 柳振漢(1711~1791)의 『晩華集』에 소개된 춘향가다(김종철, 『판소리사연구』, 역비한국학총서 12, 1996 참조).

화를 맞이한다. 그 까닭은 인조반정 이후 나례도감을 없애고 침향산을 불사르는 등 나례의 폐지를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이다.⁹⁶⁾ 인조는 폐주 광해군이 자주 나례도감(儺禮都監)을 설치하고 헌가(獻架)·잡상(雜像)·침향산(沈香山)을 만들어 민력(民力)을 허비하며, 희자(戲子)와 기생을 모아 잡희를 벌이는 폐단을 막고자 하였다. 그런데 위의 조치 두 달 만에 계동(季冬) 나례의 시행 여부를 묻자, 인목대비가 계시므로 완전히 폐지할 수 없으니 두 해만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⁹⁷⁾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거둬 들였다. 대간이 나례가 역귀를 쫓는 것은 『주례(周禮)』에 실린 것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⁹⁸⁾ 또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조사(詔使)가 나오는 문제가 생기자, 산대나례를 다시 거행하기로 하였다.⁹⁹⁾ 임진왜란 뒤에도 나례를 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단할 경우 의심을 살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인조반정 직후 추진한 나례의 폐지는 당초 의지와는 달리 사안에 따라 복구되어 나갔다.

96) 罷營建儺禮火器等十二都監(『인조실록』 권1, 1년 3월 13일 계묘). 命焚沈香山于通衢 從禮曹之請也 光海時 有告廟親祭之舉 則預設儺禮都監 造軒架雜像及沈香山 虛費民力 罔有紀極 八方戲子 前期聚集 及其還宮之時 自廟門外 緩緩前導 戲子妓生 相雜道上 鼓吹喧咽 呈技萬狀 處處駐輦 耽玩不倦 識者寒心 及今反正之初 卽命燒火於通衢 遠近瞻聆 莫不悅服(『인조실록』 권1, 1년 3월 25일 을묘).

97) 夕講時, 特進官李曙所啓, 歲前儺禮, 城中市民所費, 至於米五百餘石, 可罷則罷之, 不可罷則以木堅固造置, 勿使有歲歲新造之弊, 罷不罷間, 請亟下睿斷, 預爲省費之策事. 上曰, 慈殿在上, 不可任意罷之, 限今年勿爲. 觀象監謄錄(『承政院日記』 인조 원년 5월 25일 갑인).

98) 院啓 儺禮所爲驅疫 載在周典 不可廢之事也 今以民弊言之 紙造假面 其數甚多 一件之費 大則米三十斗 小不下二十餘斗 合計則多至四百餘石 此皆出於市民膏血 往去廢朝 亦因市民上言 許令從願 而觀象監臨時防啓 不爲舉行 誠可痛惜 若據市民所願 以木像代紙面 使逐年改粧而用之 則費甚省而久不弊矣 無損於上而益下不費 請令觀象監與市官 量定其價 預造木像 勿使臨時沮格事 捧承傳着實舉行 答曰依啓 觀象監謄錄(『承政院日記』 인조 원년 10월 10일 정묘).

99) 上命議詔使時儺禮停否于大臣 三公以爲 亂離之後 不廢儺禮 今若不設 或致怪訝 似難停止 惟當務從簡便 使弊不及民 從之(『인조실록』 권3, 1년 윤10월 2일 무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례 사습은 1625년(인조 3)부터 칙사영접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정착되었다. 당시 ‘막중대례(莫重大禮)’라는 표현처럼,¹⁰⁰⁾ 17세기 이후 청과의 외교의전은 중요한 국가행사로 간주되었다. 병자호란 뒤에 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전국 8도의 재인들이 재인청(才人廳)과 같은 나례 조직을 갖춘 것도 그 때문이었다.¹⁰¹⁾ 더구나 전국에서 올라온 산례의 재인들은 좌·우패로 나누어 저마다 다양한 재주와 장기를 펼쳤다. 정조대 다음의 기록은 당시 나례 사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대저 나례청(儼禮廳)은 예로부터 좌편 우편으로 나뉘어 서로 이기려는 고질병이 있어서 유희할 때 갖가지 기괴한 일을 술하게 만들어내고 서는 기이한 구경거리로 삼으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¹⁰²⁾

산대 나례가 좌·우패로 나뉘어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면서 다양한 기예와 재주를 펼쳤다는 내용이다. 서울의 산대 나례의 공연문화가 매우 치

100) 義禁府啓曰: “軒架、雜像造作案付畫員及匠人散入諸都監, 請大禮事畢間, 更爲來役。各道戲子, 日期已迫, 全不捉送, 莫重大禮, 恐生大事。諸道監司處, 請各別發馬催促何如?” 傳曰允(『光海君日記』卷144, 11年 9月 1日 庚辰).

101) 右完文爲知悉舉行事 八道才人等 丙子以後 當爲勅行而設爲左右山舉行 有才人中 都山主爲稱所在任者 各道各邑才人等 都取上來 各各差備當爲無事奉行矣去(『甲申完文』(1824) 等狀 八道才人). 원래 좌우편 산대의 산주재인(山主才人)은 이미 광해군 때부터 나타난다(義禁府啓曰 前日本府啓辭內 今此科舉舉子等 或稱榮墳榮親 才人遠道率歸 則前頭大禮 不成模樣 若不嚴立科條 痛塞其路 僅聚烏合之卒 盡爲還散 無以禁斷 至爲悶慮 大禮前徑先率去舉子及山主才人等 竝從重治罪事 各別捧承傳施行事 啓下矣 近來紀綱解弛 凡干捧承傳之事 慢不舉行 至爲寒心 庭試舉子等 不有承傳 僅聚才人 公然遠道率去 多至二十餘人 其中上色六人尙不還現 極爲駭愕 請舉子及山主才人等 竝令攸司重治 傳曰允(『광해군일기』 권133, 10년 10월 16일 신미).

102) 大抵儼禮廳 自古分左右邊 各自勝癖 遊戲之際 百怪之事 互相層出 作爲奇觀 自以爲孰勝孰負 世所共知(『訓局謄錄』 37책, 甲辰十一月初五日條. 한국학중앙연구원, 필사본).

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구경하는 관람객이 누가 잘했는지를 저절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일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전주 감영과 전주부의 소속 재인들이 서로 재주를 겨루었다는 증언들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19세기말 전주대사습놀이에서 벌였던 소리 경연이 이미 조선후기에 산대 나례에서 벌였던 재주 경쟁의 전통에서 비롯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사신영접을 위한 산대나례 사습은 18세기말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러한 조짐은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1737년(영조 11) 영조가 칙사영접을 언급하면서 “지금 사대(事大)의 예(禮)가 예전과 비교하여 점차로 줄어들었다”¹⁰³⁾ 라고 한 사실은 그 같은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그러다가 사신을 위한 좌우 산대나례는 1784년(정조 8)이후에 중단되었다. 그 사실은 다음의 두 기록에서 확인된다.

a. 오른쪽 완문(完文)은 거행하는 일의 갖추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8도 재인(才人) 등은 병자(丙子:1636년) 이후 칙행(勅行)을 위해 당연히 좌우 산대(山臺)를 설치하고 거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중략) 지난 갑진(甲辰:1784년) 이후 좌우 산대가 설행되지 않았으나, 전례(前例)에 기록되어 있는 칙행(勅行) 때에 나누어 맡긴 것들이 있어 각 도 재인들이 그 도의 소임(所任)을 맡아 청(廳)에 대기하고 있는 즉, 8도 재인 중 명칭을 허락받아 임직(任職)을 가진 자들이 많아 매번 착란(錯亂)되었습니다. (중략) 갑신 5월 일 완문 손원출(孫瑄出), 김난득(金難得), 이봉국(李鳳國), 임춘학(林春鶴), 송인영(宋人英), 고수관(高壽寬) 등(等) 하은담(河殷潭) 처분(處分) 호조(戶曹) 여기에 정한 법식에 의하여 분란이나 체월(遞越)의 폐단이 있으면 마땅히 엄하게 다스릴지

103) 行畫講 上謂知事宋眞明曰 今茲迎勅時 儼禮例用樂而猶不用軍樂云 甚不可 此事蓋倣皇華之遺儀 而於今事大之禮 比前漸殺 夫忠信篤敬 可行蠻貊 須盡接待之禮 而爲自強之道可也(『영조실록』 권44, 13년 5월 27일 갑인).

나라¹⁰⁴) (『甲申完文』(1824) 等狀 八道才人).

b. 예로부터 유유상종이라 했으니, 청(廳)을 설치하고 계(契)를 만들어 자리를 배열하고 안을 만들었다. 대방(大房)께서 영술하시니, 영술을 위해 대방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 청의 규칙을 삼는다. 아! 우리 계원 4만 명은 어찌 스스로 서로를 멀리하고 규약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 대개 우리들이 맡은 일이 나라에서는 중국의 칙사가 올 때 조산(造山: 산대를 만들)하여 놀이하는 것이고, (지역에서는) 저 사람(아전)들에게 잘 보여 재인청(才人廳)에 속한 뒤 순번대로 관가의 공역(公役)에 응하는 것이며, 사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 자신을 살찌우니, 대개 천한 장부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갑진(1784년) 이전의 칙행조산(勅行造山) 때에는 맡은 바가 스스로 중했으나, 갑진 이후에 조산(造山)의 규칙이 깨지자 우리 무리들도 곧 한산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여전히 관가의 공역에 응하고, 또 재인청 내부에 규칙을 세웠으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하고 대만하겠는가? 아! 오직 우리 계원들만도 경기도에 대략 4만 명이니 모두 재인청의 훈계를 따르고 우리의 약속을 좇는다.”¹⁰⁵) (『京畿道唱才都廳案』, 1836)

사료 a는 1824년(순조 24) 5월에 호조가 8도 재인이 올린 등장(等狀)에 답한 「갑신완문(甲申完文)」이다.¹⁰⁶) 「갑신완문」은 칙사 영접을 위해 각

104) 右完文爲知悉舉行事 八道才人等 丙子以後 當爲勅行而設 爲左右山舉行 有才人中都山主爲稱所在任者 各道各邑才人等都取上來 各各差備當爲無事奉行矣去甲辰年以後 左右山不爲設行是乎乃 前例所載勅行時 何必分付是乎喻 各道才人等者 其道所任廳等待是乎則 八道才人中許名稱以所任多多是乎所 每故錯亂故 至于今古法更爲遵行之計 八道都領位所任者 設行房會後 各道所任只爲一名式差定爲乎矣 (中略) (『甲申完文』(1824) 等狀 八道才人).

105) 京畿道唱才都廳案

106) 이 완문은 병자호란 이후 청국 사신이 올 때 산대극을 봉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 도 재인청을 재정비할 목적으로 甲辰年 각도 소임들이 서울에 모여 행방회를 열고 전국적인 규모로 개조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1784년 이전에는 팔도재인이 조정에서 시키는 대로 사신을 봉행하는 자리나 그 외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어 차질없이 연회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인들이 올린 등장문

도의 도산주(都山主)가 재인들을 이끌고 와서 차비에 임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호조(戶曹)에 올린 문서이다.

사료 b는 1836년(헌종 2)에 수정 작성된 경기도창재도청안(京畿道唱才都廳案)이다. 19세기 초반의 두 내용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국 사신을 위한 산대 나례를 했다가 1784년(정조 8)에 조선의 규칙, 즉 산대를 만드는 규칙이 폐지되는 바람에 재인들이 한산해지게 되었다고 기록한 사실이다. 물론 사료 b처럼, 여전히 관청의 공식적 행사나 민간의 대소 연회 등의 행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¹⁰⁷⁾

그럼에도 조선왕조 이래 지속해 오던 산대나례의 중단은 18세기말 조선의 요청과 함께 청나라 칙사들의 수용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울과 외방의 연향(宴享) 및 정배 다담(庭排茶啖)·군위(軍威)·군가(軍歌)·무동(舞童)·유관우(遊觀牛)·타락우(駝駱牛)·별자우(別雌牛)·헌가(軒架)·나례(儼禮)·병화(瓶花)·성문결채(城門結綵)·성포(城砲)·상하마포(上下馬砲) 등의 의식을 그만둔 것이다.¹⁰⁸⁾ 이 같은 나례의 중단은 칙사의

은 「丁亥所志」가 전하는데, 이는 ‘재인 조직의 소임을 정하고 소임자의 圖書나 印章을 만들어 두었는데, 靑陽에 사는 宋日文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公州 工人 朴膺善·崔聖潤·朴英大·朴應喆 등이 무단히 빼앗아갔다.’ 라고 하여 포청에 올린 등장이다. 이런 점에서 재인들은 조직 내의 문제가 있으면 정부 관할 부서에 해결을 요청하는 ‘등장’을 올리고 조정에서는 ‘완문’을 보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7) 申緯가 1826년(순조 26)에 쓴 「觀劇詩」나 宋晩載(1788~1851)의 《觀優戲》는 19세기 당시 연희문화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특히 <觀優戲>에 따르면 광대들의 판놀음의 주요한 레퍼토리가 가곡·음율·별곡, 판소리(本事歌) 12마당, 줄타기, 땅재주, 呈才(舞樂)·假面劇, 俳戲·劍舞, 笑謔之戲, 巫歌, 傀儡戲들로서 광대들은 고사도 하였고, 농어촌을 다니면서 대중을 상대로 소리를 팔았고, 또 등과한 사람에게 불리기 위하여 유식한 사람 즉 양반들을 상대로 서로 소리경쟁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정은 조선말까지 내내 그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108) 義州府尹金箕象 以勅行到鳳城馳啓 上勅田國榮 散秩大臣世襲侯 年今六十三 性純謹 問多昏瞶 副勅英和 年今三十 而故禮部尙書德保之子 性明敏 嫻習翰墨 素著名稱 頗爲近幸云 京外宴享及庭排茶啖 軍威軍歌舞童遊觀牛駝駱牛別雌牛軒架

행차에 따른 폐단을 줄이라는 청나라 황제의 지시가 영향을 미쳤다.¹⁰⁹⁾

척사 영접을 위한 산대나례의 중단은 자연 나례 사습의 폐지를 가져왔고, 이는 팔도의 재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사실은 이때까지 전국의 산대나례를 주도했던 나례 우인들이 18세기말을 기점으로 판소리로 전환한데서 확인된다. 원래 하은담(하한담), 고수관, 임춘학, 김년득, 염계달, 송홍록 등 판소리 명창들이 갑신완문(1784)에서 보이듯이 18세기말까지는 산대극을 담당했던 나례 우인(優人)이었다.¹¹⁰⁾ 나례 우인들은 본래 재인청 조직에 소속된 무가 출신으로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어 산대극을 담당해 왔다. 그 가운데 하은담은 19세기 이전에 판소리 명창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고수관, 염계달, 송홍록 역시 신재호의 「광대가」에서 판소리 아홉 명창으로 거론된 인물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산대 나례의 재인들이 18세기 중반 중앙에서의 산대 나례가 폐지되면서 소리 중심의 재인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또한 18세기 중반부터 이미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화극(話劇)에서 판소리로 전환되어나가는 분위기도¹¹¹⁾ 이 같은 민간예술의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특히 1829년(순조 29)에 순조의 등극 30주년과 순원왕후의 보령(寶齡) 40세 탄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열린 기축진잔(己丑

儼禮瓶花城門結綵城砲 上下馬砲 竝停免(『정조실록』 권53, 24년 1월 19일 임신).

109) 一 勅行臨發時 皇帝二次引見上勅曰 以大臣頒詔外國 意有所在 諸凡貽弊之事 竝宜除減(『정조실록』 권51, 23년 3월 30일 무자).

110) 김동욱, 「판소리연구」,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308쪽.

111) 판소리에 관한 최고의 문헌은 1754년(영조 30) 柳振漢의 『晚華集』의 「춘향가」이다. 그 전에도 판소리가 재인 광대들이 벌이는 판놀음에서 여러 놀음 틈에 끼여 한 놀이로 구실을 하던 것은 훨씬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짐작되지만, 18세기 중엽은 판소리가 성행하는 시대적 분위기였다. 晚華 柳振漢이라는 사람이 1753~54년에 호남 지방에서 판소리 〈춘향가〉를 즐기고는 그 내용을 2백 구의 한시로 옮겨 놓은 것인데, 이를 흔히 「晚華本春香歌」라고 한다(김종철, 『판소리사연구』, 역비한국학총서 12, 1996 참조). 현재 판소리의 내용은 철종대(1849~1863) 이후의 것으로 확인된다.

進饌)에서 가객이 초대된 점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¹¹²⁾ 즉 궁중연향에서 가곡을 부르기 위해 민간에서 4명의 가객(歌客)이 초대되었다. 이는 민간예술의 성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궁중행사에 초대될 정도로 시정의 가곡(歌曲)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시 산대나레가 폐지된 상태에서 민간의 가객이 궁중연향에 초대를 받아 노래를 부른 사실은 재인들에게 소리에 대한 관심을 크게 고조시켰으리라 짐작된다.¹¹³⁾ 실제로 그로부터 18년 뒤인 1847년(헌종 13)에 판소리 명창 가운데 모흥갑이 왕의 부름을 받고 노래를 하고 큰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잘 보여준다.¹¹⁴⁾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8세기 중엽 이후 판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산대 나레가 중단된 사실은 많은 재인들에게 종래의 나레에서 소리로 재주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19세기이후 국가의 행사에서 가객(歌客)을 초대하여 왕실행사에 참여시키게 된 사실도 재인들의 소리로의 전환에 일정하게 기여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112) 당시 가객 4명이 참여한 사실은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신경숙, 「조선조 외연의 가자와 금슬」, 『한국시가연구』 31, 135쪽).

113) 이동안(李東安, 1906~1995)은 화성 재인청의 도대방을 지낸 경기도 세습무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이재학(李在學, 1872~1946) 역시 화성 재인청 소속의 재인이었고, 조부 이화실은 당대 단가와 피리의 명인으로 이름나 있었다. 그의 작은 할아버지 이창실은 줄타기 명인이었고, 친가 외가 모두 재인들로 채워져 있었다. 모두 재인청의 도대방을 지낸 경기도 세습무 집안에서 태어났다(심우성, 「광대줄타기 演戲本: 李東安 口述本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1974). 또한 전주의 국악(무용) 명인 鄭亨仁(1906~1969)의 부친 鄭甲孫은 世襲巫 출신으로 헌종, 철종, 고종 3대에 걸친 무용에 뛰어난 명인이고, 그 조부(이름 미상)는 줄타기 명수였다고 한다(홍현식, 『전주시사』, 대광출판사, 1986. 590~591쪽). 이처럼 전주의 巫家 출신 정씨 일가는 대대로 세습적인 재인이었다. 조부 때까지는 줄타기와 같은 才人으로 활동하다가, 정조와 순조대를 거치면서 그 자식 대에는 소리꾼이나 춤꾼으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1784년 이후 나레 중단과 관련해 소리꾼 내지 춤꾼으로 바뀐 양상으로 여겨진다.

114)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全州大私習史〉〉, 탐진, 1992. 59~60쪽 참조.

불구하고 기록상으로 전주에서 대사습놀이가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중엽에 들어와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호남평야를 무대로 한 곡창지대와 함께 풍부한 물산은 전주에서 예인문화와 함께 뛰어난 재인을 배출하는 배경이 되었다. 더구나 다른 도의 감영(監營)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을 옮긴 것과 달리, 전주는 오백년 넘게 감영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수원 백씨로 대표되는 향리 집단이 각종 연회를 지원하게 된 사실도 전주대사습이 형성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진다.¹¹⁵⁾

Ⅵ. 나가는 말

이 글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핀다는 목표아래 그 첫 단계로서 전주대사습놀이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형성과정을 밝히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결론을 내리기에 주저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일단 제시한 내

115) 전주대사습놀이가 발달하는데 전주 향리들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주 속담에 ‘班不如吏’라는 말은 衙前 세력의 강했음을 뜻하는 말이다. 또 한 衙前 通引을 전주에서는 ‘홍문안 사대부’라고 한 것도 그들의 권세를 짐작케 한다. 그러한 아전 가운데 유력한 성씨가 ‘白吏房’으로 대표되는 수원백씨이다. ‘白吏房’의 현손으로 한량명창이던 白星煥(1893~1970)에 따르면, 대사습 이전에는 관리하는 대방이 돈벌이 목적으로 명창을 초빙하고 막걸리 한 남 대기 값의 입장료를 받았으나 대사습 때부터 일반 민중은 무료였다고 한다(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전주대사습사』, 탐진, 1992. 44~156쪽 참조). 한편, 안동대 정진영 교수에 따르면, 경상도 監營의 경우는 상주에서 임진왜란 뒤에 대구로 변동되었으나 營吏를 담당했던 성씨는 계속 안동에서 배출했다고 한다. 그 결과 감영 지역에서 안동의 營吏들이 활동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타 감영 지역에서 전주와 같이 재인문화가 발달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용을 정리하여 앞으로의 이 방면 연구에 토대를 삼고자 한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전주에서 행한 대사습놀이를 뜻한다. 대사습(大私習)은 원래 ‘사습(私習)’ 내지 ‘사조(私操)’에서 비롯한 말이다. 그런데 대사습의 사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개인적인 연습’이나 ‘사사로운 조련’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관장하는 공식적인 연습 내지 조련’을 뜻한다. 16세기말부터 일반명사 이외에 고유명사로 사습이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사습이 나타나게 된 까닭은 임진왜란으로 국가체제가 해이해지자 군사훈련의 소홀을 막고, 국가의전의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사습에는 군사훈련용 사습과 국가의전용 사습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국가 내지 관청에 의해 시행된 ‘관행사습(官行私習)’의 성격을 띤다. 결과적으로 사습은 임진왜란 이후 국가체제의 공적(公的)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사습과 함께 대사습은 17세기 이후 중앙과 지방의 군사들을 연합 훈련을 위해 등장하였다. 사습의 큰 규모가 대사습이다. 사습의 종류에는 그 시행방법에 따라 관사습(官私習), 사사습(私私習), 원사습(元私習), 대사습(大私習)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사습을 ‘대사습(大私習)’이라고 하였다. 대사습 역시 대상과 방식에 따라 일차대사습(日次大私習), 춘추대사습(春秋大私習), 사맹삭대사습(四孟朔大私習)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대사습은 부대단위의 군사들을 모아 행하는 연합 훈련인 동시에 그동안 닦은 재주를 시험보아 우열을 가리는 평가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그러한 관행은 조선후기에 군사훈련을 벗어나 다른 분야까지 확대되어 대사습이 쓰이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사습은 전주대사습놀이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무엇보다 대사습이라는 명칭은 조선후기 중앙과 지방의 군사훈련인 대사습(大私習)과 관련되어 탄생한 용어였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일환인 대사습이 곧바로 전주대사습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주대

사습은 군사훈련과는 관련이 없는 공연활동 내지 예술행사의 일환으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주대사습은 내용상으로는 지역에서 나례 잡희로 대표되는 재인들의 줄타기, 땅재주, 가면극, 우희(優戲), 무가(巫歌), 괴뢰희(傀儡戲 인형놀이) 등 각종 재주와 춤, 연극과 같은 민간 예술의 발달 내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주대사습놀이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는 1784년(정조 8)에 단행된 산대나례의 중단이었다. 산대나례의 중단은 곧바로 나례 사습의 폐지를 가져왔고, 이는 전국의 재인들에게 더 이상 나례 사습과 관련한 재주를 이어가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나례 재인들로 하여금 종래에 산대 나례에서 선 보였던 다양한 재주에서 소리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18세기 말 만화집 춘향가의 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재담극인 우희(화극)에서 판소리로 분화되기 시작하는 시대적 분위기도 이 같은 예능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특히 1829년(순조 29)에 기축진찬에서 가객을 궁중 연향에 초대하여 노래를 부르게 한 점 역시 그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가객(歌客)이 궁중 잔치에 초대되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사실은 소리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¹¹⁶⁾

그러한 사실은 당시 재인들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팔도 재인들의 문서인 갑신완문(1826년)과 정해소지(1827년)에 따르면, 그동안 판소리의 초기 명창으로 일컬어지는 고수관, 송흥록, 김계철, 염계달 등이 본래 재인청 소속의 산대나례 재인들이었다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18세기말 국가의 산대나례 폐지가 많은 재인들을 소리꾼으로 재능을 전환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크게 시사한다. 이 시기

116) 기축진찬에서 가객이 부른 가곡과 판소리와의 관계는 앞으로 천착해야 할 과제이다.

부터 소위 판소리 8명창을 비롯한 다양한 소리광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뛰어난 소리 명창의 탄생과 함께 이룩한 소리 예술의 발전은 현종, 철종, 고종(대원군)으로 이어지는 왕실의 관심은 급기야 판소리를 19세기 최고의 예술로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의 민중예술은 18세기말 19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하여 ‘나례 사습’에서 ‘소리 사습’으로 크게 전환되었다. 그러한 변화를 전주는 가장 능동적으로 이끄는 지역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뛰어난 재인 배출, 풍부한 물산과 예향 문화, 오랜 감영(監營)의 나례사습 전통, 수원백씨와 같은 지역 향리들이 이끄는 풍류문화 등은 타 지역과 달리 전주에서 새로운 소리 문화가 잉태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전주대사습놀이의 탄생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전주대사습놀이, 국악(國樂), 사습(私習), 대사습(大私習), 대
사습놀이, 판소리, 통인

〈Abstract〉

The meaning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Jeonju Daesaseup Nori
- Focusing on historical identity -

Shim, Seung-Koo

Jeonju Daesaseup Nori has been developed as a gateway to recruit the best talented person of the Korean national music Pansori or some other fields. It paused during 70 years from 1905 to 1975, and has been restored again till nowadays. But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historical origin of Jeonju Daesaseup Nori. Above all, the confusion of identification with Jeonju Daesaseup Nori does not end into just the lack of recognition for the past fact, but also end into the obstacle against checking present and future phase. However, it's not easy to solve all those problems above. This paper is focusing on identifying the historical meaning and concepting of Jeonju Daesaseup Nori.

Lexically, the word Saseup means 'private learning'. But the Saseup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was 'National formal exercise', different with its lexical meaning. In other words, all the coverage of national formal exercise was called Saseup. Daesaseup was evaluating system and bigger exercise than Saseup. Actually, Daesaseup had been the system to train central and rural military step-by-step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word Daesaseup had been used in terms to evaluate the

competence of artists in rural office after 18th Century. At that moment, as Pansori spreading tremendously around Jeonrado area, Pansori performance had held up with Pansoriman in Dongji(winter solstice) type of holidays. Contrary to the word Daesaseup used in military training mostly, the word Daesaseup Nori had been used when Pansori performance of Pansori artists. Literally it was the festival and feast competing Pansori talent among the people of the area. It was the reason that in Jeonju, where was Jeonrado governor's office area, Daesaseup Nori had spreaded tremendously (mainly Pansori) after 19th Century. Just Daesaseup Nori was lead by rural officers called Tongin.

Key Word: Jeonju Daesaseup Nori, Korean national music, Saseup, Daesaseup, Daesaseup Nori, Pansori, Tongin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인 명창들

이상규*

〈목 차〉

- | | |
|---------------------|--------------------|
| I. 머리말 | 1. 농악 2. 무용 3. 기악 |
| II.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창 | 4. 시조 5. 민요 6. 궁도 |
| 1. 전주 통인청 이전의 명창 | 7. 가야금병창 8. 명고수 |
| 2. 통인청 대사습과 운현궁의 명창 | IV. 전주대사습놀이와 명인 명창 |
| 3.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창 | V. 맺음말 |
| III.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인 | |

I. 머리말

전주대사습놀이는 해마다 단오 무렵 전주에서 벌어지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민속음악경연대회이다.¹⁾ 판소리명창부·농악부·무용부·기

*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성남: 삼화인쇄주식회사, 1999), p. 402

“해마다 단오 무렵 전주에서 벌어지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민속음악경연대회. 대사습이란 판소리 명창들의 학습을 보여주는 큰 잔치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조선 숙종 이후 전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타고 활쏘는 활쏘기대회의 일종이었으므로 ‘대사습(大射習)’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 뒤 영조 무렵 물놀이와 함께 연행(演行)되었고, 철종 무렵 여러 가지 놀이와 더불어 판소리경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연방법은 지금과 같이 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가 아니었

악부·시조부·민요부·가야금병창부·판소리일반부·궁도부·명고수부 등 총 10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는 전주대사습놀이에는 매 해 최고의 판소리 명창을 배출하며 판소리의 맥을 이어왔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현대의 문화 속에 살아 숨쉬게 하는 국악 축제마당으로서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²⁾

이러한 전주대사습놀이의 연원에 대해 1992년 발간된 『全州大私習史(전주대사습사)』³⁾에서는 조선조 숙종 때의 마상궁술대회 및 영조대의 물놀이와 판소리·백일장 등 민속무예놀이인 사습놀이를 유래로 한다고 적고 있지만, 1987년 발간된 『대사습사의 전통성』⁴⁾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가 조선 숙종대부터 시작한 판소리놀이로, 무예와는 별 관계가 없는 순수통인들의 놀이이며, 열린 시기도 단오날이 아닌 동짓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구한말까지의 연원에 대한 논란과는 달리, 중단된 전주대사습놀이가 1975년부터 전주 지방 유지들에 의하여 70여년 만에 부활되어 현재에 이른다는 부분은 두 주장이 일치한다.⁵⁾

이렇게 일부 엇갈리는 양 측의 주장을 학술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 성과⁶⁾가 발표되었으며, 그 결론으로 전주대사습놀이의 최초 발생시기는 조선 철종과 고종대인 19세기 초이고, 전주대사습놀이의 관장 부서는 통인놀이이며, 전주대사습놀이의 성격은 판소리를 위한 순수한 축제였으며, 개최시기는 현재와 같은 단오가 아닌 동짓날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⁷⁾

고, 어느 특정인에게 명창의 칭호를 안겨 주는 것도 아닌,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 의해 명창으로 불리게 되는 특이한 것이었다.”

2) 황미연, 『전북국악사』(전주: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8). pp. 233-234

3)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全州大私習史(전주대사습사)』(전주:도서출판 탐진, 1992).

4) 홍현식, 『대사습사의 전통성』(전주: 전북도립국악원 연구결과보고서, 1987).

5)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홈페이지

<http://www.jjcds.or.kr/01company/01history.php?&pc=0>

6) 황미연, 「전주대사습 놀이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 『낭만음악』28(서울:낭만음악사, 1995).

7) 황미연, 『전북국악사』(전주: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8), pp. 35-37

그에 따라 전주대사습놀이는 19세기 초부터 구한말까지의 형성기, 구한말부터 1974년까지 휴지기를 거쳐 1975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부활기로 이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한말 이후 중단되었다 부활된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는 1975년 판소리명창부와 농악, 시조, 무용, 궁도 등 다섯 종목으로 시작하여 1978년 제4회 대회에는 기악을 추가하였고, 1979년 제5회 대회에는 민요를, 1980년 제6회 대회에는 판소리 일반부를, 1984년 제10회 대회에는 가야금 병창부를, 2010년 제30회 대회 때에 명고수부가 추가되어 현행과 같은 10개 분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1983년 제9회 대회부터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다.⁸⁾

그동안 전주대사습놀이가 배출한 많은 명창과 명인들은 국악계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⁹⁾ 특히 전주대사습에서의 장

8)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全州大私習史(전주대사습사)』(전주:도서출판 탐진, 1992), pp. 39-42

9) 2009.6.1 현재 뉴시스 신문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판소리명창 수상자를 소개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090601132007528>)

제1회 고(故) 오정숙 명창

제2회 조상현 명창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

제3회 성우향 명창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판소리연구원 운영

제4회 성장순 명창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판소리연구원 운영

제5회 이일주 명창 전북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전북대 출강

제6회 최난수 명창 전북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사)판소리보존회 군산지부장

제7회 최승희 명창 전북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우석대·전북대·전남대 출강

제8회 조통달 명창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전수교육조교, 우방조통달판소리전수관운영

제9회 김일구 명창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전수교육조교, 온고을소리청 운영

제10회 전정민 명창 전 국립남도국악원 단장

제11회 김영자 명창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전수조교, 온고을소리청

원은 명인¹⁰⁾ 혹은 명창¹¹⁾의 반열에 올랐다는 척도로, 또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운영

제12회 성준숙 명창 전북무형문화재 제2호 전북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제13회 박계항 명창 부산대 국악과 출강

제14회 고(故) 은희진 명창

제15회 김수연 명창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전수교육조교, 김수연판소리연구소 운영

제16회 이명희 명창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보유자

제17회 방성준 명창 광주광역시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판소리 전수관 운영

제18회 최영길 명창 전 국립창극단 단원

제19회 이입례 명창 광주광역시무형문화재 제14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제20회 송순섭 명창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광주시립국악단장

제21회 조영자 명창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출강

제22회 주운숙 명창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동국대학교 출강

제23회 전인삼 명창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과 교수

제24회 윤진철 명창 전남대학교 국악과 출강

제25회 이순단 명창 전북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흥부가 보유자, 판소리 전수관 운영

제26회 모보경 명창 전북도립창극단 단원

제27회 왕기철 명창 국립창극단 주연 및 운영위원

제28회 염경애 명창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남대, 목원대, 용인대학교 출강

제29회 송재영 명창 전북도립국악원 판소리반 교수

제30회 장문희 명창 전북도립국악원 판소리반 교수

제31회 왕기석 명창 국립창극단 주연

제32회 고향임 명창 판소리연구소 운영

제33회 김금미 명창 국립창극단 단원

제34회 박영순 명창 전북도립창극단 단원

10) “어떤 기예에 뛰어나 유명한 사람”(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서울:민중서림, 1982), p. 1196 ‘명인’)

11) “노대를 뛰어나게 잘 부르는 사람”(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서울:민중서림, 1982), p. 1198 ‘명창’)

명창은 명인의 범주에 속하지만 성악 분야의 명인을 특별히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므로, 이와 구분하기 위해 명인은 성악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명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¹²⁾ 그런 점에서 그동안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한 수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이 글은 먼저 구한말까지 전주대사습과 관련이 있는 명창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1975년 이후 시작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배출한 명인과 명창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전주대사습놀이와 명인 명창과의 상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창

이 장에서는 19세기 초부터 전주 통인청 대사습 이전까지 전주대사습과 관련이 있는 판소리 명창들을 살펴보고, 전주 통인청 대사습 명창부터 구한말까지 전주대사습 관련 판소리 명창을 살펴봄, 1975년 이후 부활된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한 판소리 명창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주 통인청 대사습 이전의 명창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주대사습의 최초 발생시기를 영·정조대에서 19세기초까지 끌어내렸더라도, 관련 문헌이나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시 대사습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기 힘들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듯 전주대사습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문헌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관련 구술자료 역시 19세기 중기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¹³⁾¹⁴⁾

12) 황미연, 『전북국악사』(전주: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8), p. 237

『전주대사습사』에 의하면, 대사습은 영조 때를 전후하여 아전들과 한량들에 의해 시작된 판소리 축제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사습이 판소리 등 용문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가진 하나의 제도로 확립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었던 것 같다. 『조선창극사』¹⁵⁾를 보면, 19세기 초반에 활동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전기팔명창¹⁶⁾들이 대사습에서 활동한 기록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세기 후반기, 그러니까 후기팔명창¹⁷⁾들이 주로 대사습을 통해서 활동했던 것 같고, 근세오명창¹⁸⁾들은 대사습을 어린 나이에 참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증언에 의하면 송만갑은 머리를 땅고 대사습에 참가하였다고 하며, 김창룡은 아버지인 김정근을 따라서 대사습에 다녔다고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인청 대사습 이전에는 한 사람의 명창을 데려다가 한바탕의 소리를 부르게 하고 같이 즐긴 사적인 축제형식이었기 때문에,¹⁹⁾ 명창들

13) 최동현, 『판소리 이야기』(서울: 도서출판작가, 1999). p. 131

14) 전주대사습 답사를 위해 구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본적과 성장이 전주인 전주 토박이, 80 이상 고령자로서 직접 대사습을 참관한 분, 대사습이 통인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통인(通引)과 이속(吏屬)인 사람, 직접 참관치 않았어도 판소리 풍류를 아는 노인은 참고삼아 접촉’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全州大私習史(전주대사습사)』(전주:도서출판 탐진, 1992), pp. 141-142

15) 정노식, 『조선창극사』(서울: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 정노식, 『조선창극사』(서울: 민속원, 1998 영인).

16) 전기8명창을 꼽는 기준은 문헌이나 구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권삼득, 송홍록, 모흥갑, 염계달, 고수관, 신만엽, 김제철의 7명에, 박유전, 주덕기, 황해천 중에서 1명을 꼽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립민속국악원, 『명창을 알면 판소리가 보인다』(남원: 국립민속국악원, 2000). p. 71

17) 일반적으로 후기8명창은 박만순, 이날치, 송우룡, 김세중, 장자백, 정창엽, 정춘풍의 7명에, 김찬엽, 김정근, 한송학 중에서 1명을 꼽는다. 국립민속국악원, 『명창을 알면 판소리가 보인다』(남원: 국립민속국악원, 2000). p. 104

18) 근대오명창이라고도 하며, 김창환, 송만갑, 이동백의 3명에 김창룡, 정정열, 유성준, 전도성, 박기홍, 김채만, 이선유 중에서 2명을 꼽는다. 국립민속국악원, 『명창을 알면 판소리가 보인다』(남원: 국립민속국악원, 2000). p. 137

이 대사습에 참가한다는 의식이나 개념도 별로 없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도 크지 않았을 것 같다. 즉 그 당시 대사습은 소리꾼들에게 아직 판소리 명창의 등용문 혹은, 공인된 명창의 권위를 제공해주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명창들의 대사습 참가 관련성 여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 통인청 대사습과 윤현궁의 명창

19세기 초에 시작된 전주대사습이 판소리 축제 형태에서 판소리 명창 등용문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1864년 제1회 전주부 통인청 주관의 대사습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원군은 고종 2년(1864) 당시 전라감사에게 “단오절에 관의 주관으로 판소리 명창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거기서 장원한 명창은 상경케 하라”고 분부하였고, 그 결과 1864년 5월5일 단오절에 제1회 전주부 통인청 대사습이 개최되었다고 한다.²⁰⁾

이렇게 대사습에서 장원을 하여 대원군의 부름을 받고 상경하여 어전에서 소리를 하였던 명창을 윤현궁의 명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벼슬을 제수받고 윤현궁에서 일년동안 기거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대접을 받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²¹⁾ 이 절에서는 이들 명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전주대사습사』는 윤현궁의 명창이란 항에서 정춘풍, 김세종, 박만순, 박유전, 이날치, 장자백, 정창업, 박기홍, 진채선 등 9명창을 소개하고 있는데,²²⁾ 이 곳에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들과 전주대사습과의 관련성

19)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앞의 책, 1992, p. 45

20)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앞의 책, 1992, p. 44

21)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앞의 책, 1992, p. 75

22)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앞의 책, 1992, pp. 75-126

을 살펴보도록 한다.

정춘풍은 순조 14년(1814) 충청도 유가(儒家)에서 출생한 양반광대로, 독공으로 대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유가에서 자라서 진사와에 오를만큼 한학에 조예가 깊고, 창악에 대한 이론적인 면은 고창의 신재효와 비교될 정도로 박식했다. 우조를 주로 하고, 동편제에 속하며, 적벽가에 능한 그는 박기홍에게 창법을 전수하였다. 대원군의 후의로 운현궁에 기거하였다는 점에서 전주대사습과의 연계성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이다.

김세종은 순조 25년(1825) 전북 순창에서 출생한 명창으로, 신재효의 문하에서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주대사습에서 장원하여 왕명으로 상경하였는데, 대원군은 그의 출중한 소리와 더불어 탁월한 식견과 논리정연한 판소리 이론에 탄복하였다고 한다. 대원군의 총애를 받은 그는 어전에서 여러 번 소리를 하였고, 무과선달의 직계도 제수받았다. 운현궁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명성을 떨치었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한다. 그의 문하에서 박유전, 장자백, 이선유, 성민주, 이동백 등의 명창을 배출하였고, 여류명창 허금파를 길러낸 것이 빛나는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는 특히 춘향가에 능하였고 춘향가 중 천자뒤풀이는 당대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았다.

박만순은 순조 30년(1830) 전북 정읍에서 출생한 가왕 송홍록의 제자로, 근대 판소리계의 출중한 대가로 알려져 있다. 1864년 대사습에서 장원을 한 박만순은 서울로 상경하였고, 어전에서 여러 차례 소리를 하였으며, 대원군의 총애를 입어 무과 선달의 직계를 제수받았다. 운현궁에서 1년간 기거하면서 그의 명성은 높아져갔고, 돈도 많이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만순은 1898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였는데, 그의 장기인 춘향가 중 사랑가와 옥중가, 적벽가에서는 적벽대전, 화용도 등의 더늠이 송만갑, 전도성, 정정렬 등의 명창들에게 전해졌다.

박유전은 현종 1년(1835) 전북 순창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넘어지면서 돌 모서리에 찢려 평생 애꾸눈으로 살게 되었다. 김세종의 제자로 서편제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25세에²³⁾ 전주대사습 장원으로 상경하여 어전에서 여러 차례 소리를 하였다. 대원군의 총애를 받은 그는 무과 선달의 직계를 제수받고, 1년 동안 운현궁에서 기거하면서 명성과 부를 얻었다. 1906년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한 박유전은 이날치, 정창업, 박창섭, 정재근 같은 명창을 배출하였다.

이날치는 순조 20년(1820) 전남 담양에서 출생하여 광주에서 성장하였다. 박만순의 수행고수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박유전의 제자가 되면서 본격적인 소리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날치의 나이 49세에 전주대사습에서 장원을 하여 어전에서 여러 차례 소리를 하였으며, 무과 선달의 직계를 제수받고, 1년 동안 운현궁에서 기거하면서 국창으로서의 명성과 엄청난 부를 얻었다. 1892년 72세를 일기로 타계한 이날치는 춘향가와 심청가, 새타령 등에 장기를 보였으며, 김채만, 이득권, 강요환, 이창운, 최득 등의 명창들을 배출하였다.

장자백은 순조 22년(1822) 전북 순창에서 출생으로, 인물이 뛰어났다고 한다. 김세종의 제자이다. 장자백은 전주대사습에 장원을 하여 상경하였고, 어전에서 여러 차례 소리를 하였으며, 대원군의 총애를 입어 무과 선달의 직계를 제수받았다. 운현궁에서 1년간 기거하면서 그의 명성은 높아져갔고, 돈도 많이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세종의 법제를 많이 계승하였고, 변강쇠 타령과 춘향가를 장기로 하였다고 한다.

정창업은 현종 13년(1847) 전남 함평 출생으로, 12세 때 박유전의 문하

23) 박유전의 출생연도가 1835년이 정확하다면, 그의 나이 25세는 1860년이 되므로, 1864년부터 시작된 통인청 대사습이 아닌 이전 대사습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 『명창을 알면 판소리가 보인다』(남원: 국립민속국악원, 2000), p. 92에서는 박유전이 1860년대 말에 대원군의 부름을 받고 상경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에 들어가 제자가 되었다. 그의 나이 22세때 전주대사습에 참가하였는데, 너무 긴장하고 흥분하여 춘향가 중 이도령 광한루 구경차 나가려는 대목에서 말문이 꼭 막혀버렸고, 정창업은 퇴장당하고 말았다. 3년 후 다시 전주대사습에 도전하여 심청가로 장원을 하였고, 상경하여 어전과 내전에서 여러 번 소리를 하였다. 대원군의 총애를 받은 그는 무과 선달을 제수 받았고, 1년 동안 운현궁에서 기거하면서 명성과 부를 얻었다. 홍보가와 심청가를 장기로 하는 정창업은 심청가 중 몽운사 화주승이 권선시주 얻을 차로 산에서 내려오는 대목의 더늠을 남기고, 1919년 73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박기홍은 나주박씨 자손으로 헌종 14년(1848) 나주에서 출생하고 진주에서 성장하였다. 정춘풍의 수행고수인 부친의 영향으로 정춘풍의 제자가 된 그는 그의 나이 25세인 고종 7년(1870) 전주대사습에 참가하여 장원을 하였다. 대원군의 총애를 받은 그는 무과 선달을 제수받았고, 1년 동안 운현궁에서 기거하면서 명성과 부를 얻었다. 그는 춘향가, 적벽가에 능하였고, 1925년 77세를 일기로 대구에서 타계하였다.

진채선은 헌종 13년(1847) 전북 고창 태생으로, 관기 출신이었다. 진채선은 얼굴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가무에도 능하였고, 고운 목청과 풍부한 성량을 가지고 있었다. 진채선은 당대의 명창 김세종의 권유에 따라 판소리에 뜻을 두고 신재효의 제자가 된다. 고종 4년(1867) 7월 경복궁 경회루 낙성연에 전국의 명창들을 불러들였을 때 진채선도 참가하게 되었다. 이날 참석한 명창은 김창록, 황호통, 정춘풍, 김세종, 박만순, 이날치, 박유전 등 10여명에 달하였는데 여자로서는 진채선 한 사람뿐이었다. 이상의 내용으로는 진채선과 전주대사습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데, 경복궁 경회루 낙성연에 전국의 명창들 초대에 진채선이 포함되었음은 전주대사습의 장원이거나 아니면 장원은 아니더라도 그에 걸맞는 명창으로서의 대우를 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김세종, 박만순, 박유전, 이날치, 장자백, 정창업, 박기홍 등 7명의 명창은 전주대사습 장원을 하고 상경하여 어전에서 소리를 하였고, 무과 선달의 직계를 제수받았으며, 1년간 운현궁에서 명창 혹은 국창으로서의 명예를 얻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들은 운현궁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대부분 국창으로서의 대우와 함께 지속적인 대원군의 비호를 받아 소리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명창 나아가 국창으로서의 명예와 경제적인 부를 제공하는 효과로 인해 전주대사습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졌을 거라고 판단된다. 다만 정춘풍과 진채선은 운현궁에서 명창으로서의 대우를 받았지만, 전주대사습 장원의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주대사습이 배출한 명창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고종 원년 1864년 국가적인 행사로 막을 올렸던 전주대사습놀이는 임오군란(1882), 동학혁명(1894), 을미사변(1895) 등 국가적인 대변란으로 인하여 열리지 못했던 다섯 차례를 제외하곤 35회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인 듯 하다.²⁴⁾ 따라서 통인청 전주대사습은 경창대회로 매년 장원자를 뽑기 때문에 모두 35명의 명창이 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²⁵⁾

3.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창

1905년 공식적으로 전주대사습놀이가 폐지된 이후 70여년만에 전주 지역의 유지들과 국악인들의 노력으로 1975년 전주대사습놀이가 부활되

24)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앞의 책, 1992, p. 38

25) 그러나 대사습 장원자가 운현궁에서 1년을 기거하는 제도는 절대적인 후원자인 대원군이 10년 만에 실각하고, 이후 정치적인 부침이 심하였기 때문에 최대 10년 정도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35명의 장원자 중 일부만 운현궁에서의 1년 기거의 혜택을 본 것으로 생각된다.

었다. 판소리명창부와 농악, 시조, 무용, 궁도 등 다섯 종목으로 시작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2014년 현재 10개 종목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 중 판소리 명창부 수상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성한 다음의 표는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홈페이지²⁶⁾에 기록된 판소리 명창부 수상자 명단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판소리 명창부 입상자

회(연도)	장원(지역)	차상(차원)	차하(3원)	참방	장려
1(1975)	오정숙(서울)	성우향	박초선		
2(1976)	조상현(서울)	성우향	이일주		
3(1977)	성우향(서울)	안향연	성창순		
4(1978)	성창순(서울)	송순섭			
5(1979)	이일주(전주)	최난수	김영자		
6(1980)	최난수(전북)	최승희	은희진	김영자	
7(1981)	최승희(서울)	김성수	홍성덕	민소완	
8(1982)	조통달(서울)	송순섭	김일구	박복남	
9(1983)	김일구(서울)	은희진	조소녀	임향임	정순임, 성준숙
10(1984)	전정민(서울)	송순섭	김영자	조소녀	성준숙, 강형주
11(1985)	김영자(서울)	조남희	임향임	강형주	박길연, 김연임
12(1986)	성준숙(전북)	은희진		박길린	강형주
13(1987)	박계향(경기)	강광례	최영길	박소영	김연임, 박대두
14(1988)	은희진(서울)	김수연	강형주	김소영	최영길, 박홍출
15(1989)	김수연(서울)	이명희	방성춘	김소영	조영자, 강형주
16(1990)	이명희(대구)	방성춘	박정례	조영자	강형주,

26) (http://www.jjcss.or.kr/03award/01award.php?s_num=19&pc=0)

회(연도)	장원(지역)	차상(차원)	차하(3원)	참방	장려
					김소영
17(1991)	방성춘(광주)	이임례	주운숙	정옥향	김금산, 주순자
18(1992)	최영길(서울)	이임례	주운숙	조영자	김소영, 윤소인
19(1993)	이임례(광주)	송순섭	조영자		
20(1994)	송순섭(광주)	조영자	이순자	윤진철	주운숙, 박홍출
21(1995)	조영자(전북)	윤진철	박복남	주운숙	박홍출, 남궁정애
22(1996)	주운숙(대구)	박복남	윤진철	남궁정애	박홍출
23(1997)	전인삼(전북)	김향순	천희심	강점례	김미숙, 김연
24(1998)	윤진철(전남)	이순단	남궁정애	김미숙	박홍출
25(1999)	이순단(서울)	김향순	왕기철	남궁정애	강점례
26(2000)	모보경(전북)	왕기철	강점례	송재영	김미숙
27(2001)	왕기철(서울)	송재영	강점례	정선화	김재근
28(2002)	염경애(서울)	송재영	황갑도	권하경	이은숙
29(2003)	송재영(전북)	권하경	허은선	김미정	주소연
30(2004)	장문희(전북)	왕기석	박복희	권하경	강점례
31(2005)	왕기석(서울)	박경자	김명남	박춘앵	김미숙
32(2006)	고향임(대전)	정의진	김명남	권하경	김미숙
33(2007)	김금미(서울)	정의진	허은선	박정선	김명남
34(2008)	박영순(전북)	조정희	김미숙	허은선	윤종호
35(2009)	허은선(전북)	박정선	조정희	김미숙	강경아
36(2010)	박정선(전남)	김명남	김미숙	서정민	조정희
37(2011)	조정희(서울)	김미숙	강경아	채수정	남해웅
38(2012)	강경아(서울)	조희정	현미	김태희	윤종호
39(2013)	조희정(전북)	김공주	서정민	현미	서애선
40(2014)	김나영(경기)	서정민	정수인	최영인	정소영

위 표를 보면 판소리 명창부는 장원, 차상, 차하²⁷⁾, 참방, 장려 등 모두 5등급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1975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 40회를 치르는 동안 장원 40명, 차상 40명, 차하 38명, 참방 34명, 장려 41명 등 모두 193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이 중 장원 수상자는 40명으로, 대부분 장원 외 입상 경력 과정을 거쳐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살펴보았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번 입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전통이 전주대사습놀이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13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5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9명, 3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2명, 4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도 1명이 있었다.²⁸⁾

먼저 입상 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오정숙(1회), 조상현(2회), 조통달(8회), 전정민(10회), 박계향(13회), 전인삼(23회), 모보경(26회), 염경애(28회), 장문희(30회), 고향임(32회), 김금미(33회), 박영순(34회), 김나영(40회) 등 13명에 달한다.

다음으로 1회 입상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성창순, 이일주, 최난수, 최승희, 김일구, 김영자, 성준숙, 원희진, 김수연, 이명희, 최영길, 송순섭, 이순단, 왕기석, 조희정 등 15명이고,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

27) 1회 대회때는 장원, 차원, 3원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지만, 2회 때부터는 장원, 차상, 차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으며, 6회 때부터 차하 밑의 단계로 참봉을 추가하였고, 8회 대회 때부터 참봉 아래에 장려 부분을 추가하여 모두 5등급을 시상하였다. 따라서 차원은 차상과 그 비중이 같고, 3원은 차하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28) 이 내용은 입상자 명단을 기초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참가횟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입상경력횟수를 기준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이유는 입상 대상자는 장원의 기량에 더 접근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성우향, 방성춘, 이임례, 주운숙, 윤진철, 양기철, 허은선, 박정선, 강경아 등 9명, 3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송재영, 조정희 등 2명이며, 4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조영자 명창의 경우도 있었다.²⁹⁾

또한 판소리 명창부와 별도로 1980년 제6회 대회 때부터 판소리 일반부가 진행되었는데, 이임례 명창은 1984년 판소리 일반부 장원 후 1993년에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하였으며, 송재영 명창도 1988년 일반부장원을 한 후, 2003년 명창부 장원을 하였다. 또한 강경아 명창도 1995년 일반부장원을 거쳐 2012년 명창부 장원을 하였으며, 장문희 명창 역시 1998년 일반부 장원을 한 후 2004년 명창부 장원을 하였다. 이렇듯 판소리 일반부 장원을 거쳐 명창부 장원을 한 경우는 모두 4명으로, 판소리 일반부가 판소리 명창부의 예비과정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판소리 일반부 입상자

회(연도)	장원(지역)	차상	차하	참방	장려
6(1980)	강형주(서울)	왕기창	전현희		
7(1981)	박복남(전북)	한해자	임추자	최선희	
8(1982)					
9(1983)	라모녀(전북)	허종렬	김명자	임추자	오현숙, 윤충일
10(1984)	이임례(전남)	왕기철	임추자	김소영	이영신, 강광례
11(1985)					
12(1986)					
13(1987)	김소영(전주)	최재현	강점례	박연자	강영금, 박미선

29) 그러나 이와 반대로 총 9회 입상하였지만 장원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김미숙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참가하면서 차상, 차하, 참방, 장려 등의 입상을 9번이나 하였지만, 장원 수상자는 되지 못하였는데, 이듬해인 2012년 제39회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장원 수상자가 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전주대사습놀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판소리 명창부 대회는 대회명과 상관없이 기존 대통령상 수상자에 대한 명창부 지원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회(연도)	장원(지역)	차상	차하	참방	장려
14(1988)	송재영(전주)	강점례	정소연	박미선	김소연, 홍경자
15(1989)	김성애(서울)	박춘맹	남궁성례	최정희	홍경자, 이지희
16(1990)	남궁정애(성남)	김순자	손명희	김규문	김향순, 최영란, 라태옥
17(1991)	최진숙(서울)	조주선	김형철	이진희	윤숙희
18(1992)	김정순(전주)	김연민	박선미	김형철	양명희, 정선화
19(1993)	양명희(전주)				
20(1994)	강점례(전주)	백금열	이영태	강경아	최영란, 배기수
21(1995)	강경아(서울)	조주선	김형월	김연	최삼순, 김금희
22(1996)	배기수(광주)	김미숙	박미애	이호연	양은주, 정미경
23(1997)	김지숙(서울)	이호연	양은희	조주선	박영순, 최은경
24(1998)	장문희(전주)	김명남	조세영	김금희	김찬미
25(1999)	양은주(전주)	조세영	서춘영	차복순	남해웅
26(2000)	차복순(전주)	석지연	조세영	장영순	김민영
27(2001)	김자영(전북)	정준태 (전북)	최영인	신세봄	김정태
28(2002)	김은영(서울)	정수인	허정승	한승원	김영화
29(2003)	문명숙(전북)	신정혜	이연정	김대일	최진희
30(2004)	이자람(서울)	서정민	이연정	한승원	조경자
31(2005)	이광복(서울)	안이호	한승원	김정태	박민정
32(2006)	전지혜(나주)	김문희	이지숙	김예진	최형선
33(2007)	김성환(서울)	조준희	김문희	유기영	정은미
34(2008)	유기영(남원)	강민지	최호성	최건	심현희
35(2009)	오단해(서울)	최건	강민지	백현호	심현희
36(2010)	강태관(서울)	송길화	유지수	최용석	정세연
37(2011)	백현호(서울)	최용석	김형석	전태원	유지수
38(2012)	김형석(광주)	전태원	박성우	김준수	심소라
39(2013)	박성우(서울)	박현영	최치웅	최민정	임영중
40(2014)	이승민(경남)	김은석	고준석	김유빈	임영중

이제 판소리 명창부에서 장원을 한 수상자들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작성된 다음 표³⁰⁾는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한 수상자들의 수상 당시 연령과 성별, 출신지와 본선에서 불렀던 대목, 전승계보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판소리 명창부 장원 수상자의 경연 대목과 전승계보

연도(회)	이름	연령 (당시)	성별	출신지	본선에서 불렀던 대목	전승계보
1975(1회)	오정숙	40	여	경남 진주	홍부가(박타는 대목)	김연수
1976(2회)	조상현	37	남	전남 보성	홍부가(놀부 부자된 홍 부집 찾아가는 대목)	송만갑-김정문- 박녹주
1977(3회)	성우향	42	여	전남 화순	심청가(심청이 눈뜨는 대목)	김세종-정응민- 성우향
1978(4회)	성창순	45	여	전남 광주	춘향가(천자풀이 대목)	김세종-정응민
1979(5회)	이일주	44	여	충남 부여	심청가(곽씨부인 상여나 가는대목)	김연수-오정숙
1980(6회)	최난수	50	여	전북 임실	춘향가(박석티 대목)	김창환-김봉학- 정광수-박초월
1981(7회)	최승희	45	여	전북 익산	춘향가(옥중가 대목)	정정렬-김여란
1982(8회)	조통달	37	남	전북 익산	수궁가(토끼 배 가르는 대목)	유성준-정광수- 박초월
1983(9회)	김일구	44	남	전남 화순	춘향가(사랑가 대목)	김세종-정응민- 정권진
1984(10회)	전정민	32	여	충남 금산	수궁가(토끼 배 가르는 대목)	유성준-정광수- 박초월
1985(11회)	김영자	37	여	경북 대구	심청가(황성가는 대목)	정응민-성우향
1986(12회)	성준숙	42	여	전북 완주	심청가(부녀 이별 탄식 하는대목)	김연수-오정숙- 이일주
1987(13회)	박계향	49	여	전남 목포	심청가(황성 가는 대목)	정응민-박계향

- 30) 다음 표는 이화정, 『한국 판소리 명창 제도와 내부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전주 대사습 명창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0. pp. 65-66의 부록으로 수록된 표에 2010-2014년까지 내용을 필자가 보충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표 내용 중 전승계보는 황미연, 「전주대사습 놀이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 『낭만음악』28 (서울:낭만음악사, 1995). p. 67의 표에 1996-2014년까지 내용을 필자가 보충하여 작성하였다.

연도(회)	이름	연령 (당시)	성별	출신지	본선에서 불렀던 대목	전승계보
1988(14회)	은희진	42	남	전북 정읍	수궁가(토끼 배가르는 대목)	유성준-김연수-오정숙
1989(15회)	김수연	41	여	전북 군산	춘향가(어사 상봉하는 대목)	정응민-성우향
1990(16회)	이명희	44	여	경북 상주	춘향가(오리정 이별 대목)	정정렬-김소희
1991(17회)	방성춘	43	여	전남 광주	심청가(황성 가는 대목)	김연수-오정숙-이일주
1992(18회)	최영길	55	남	전북 전주	춘향가(옥중가 대목)	김세종-정응민-성우향
1993(19회)	이임례	52	여	전남 진도	심청가(장승택 시비따라 가는대목)	김세종-정응민-성창순
1994(20회)	송순섭	59	남	전남 고흥	적벽가(적벽대전 대목)	송만갑-박봉술
1995(21회)	조영자	38	여	충남 아산	심청가(범피중류 대목)	김연수-오정숙-조소녀
1996(22회)	주운숙	43	여	전북 남원	심청가(부친 이별 탄식 하는대목)	김연수-오정숙-이일주
1997(23회)	전인삼	35	남	전북 남원	홍보가(박 타는 대목)	송만갑-김정문-강도근
1998(24회)	윤진철	34	남	전남 목포	심청가(추월만정 대목)	정응민-정권진
1999(25회)	이순단	54	여	전남 목포	홍보가(박 타는 대목)	송만갑-김정문-박녹주-박송희
2000(26회)	모보경	36	여	전북 전주	춘향가(신관 사또 부임 하는대목)	정정렬-김여란-최승희
2001(27회)	왕기철	38	남	전북 정읍	심청가(심봉사 눈뜨는 대목)	정응민-정권진-조상현
2002(28회)	염경애	29	여	서울	춘향가(옥중가 대목)	김세종-정응민-조상현
2003(29회)	송재영	42	남	전북 전주	심청가(심봉사 물에 빠 지는대목)	김연수-오정숙-이일주
2004(30회)	장문희	29	여	전북 전주	춘향가(오리정 이별 대목)	김연수-오정숙-이일주
2005(31회)	왕기석	39	남	전북 전주	수궁가(토끼 배 가르는 대목)	유성준-정광수-박초월남해성
2006(32회)	고향임	49	여	충남 대전	춘향가(동헌 뜰에서 어사 상봉대목)	김연수-오정숙
2007(33회)	김금미	43	여	서울	춘향가(옥중가 대목)	김세종-정응민-성우향-김영자

연도(회)	이름	연령 (당시)	성별	출신지	본선에서 불렀던 대목	전승계보
2008(34회)	박영순	35	여	전남 목포	춘향가(십장가 대목)	김세종-정응민- 성우향-김영자
2009(35회)	허은선	33	여	전북 남원	춘향가(오리정 이별 대목)	김세종-정응민- 성우향
2010(36회)	박정선	48	여	전남 구례	적벽가(군사설움 대목)	김연수-오정숙
2011(37회)	조정희	33	여	전남 순천	춘향가(옥중가)	김세종-정응민- 성우향
2012(38회)	강영아	41	여	서울	심청가(심봉사 황성 울 라가는 대목)	정응민-성우향- 김수연
2013(39회)	조희정	32	여	전북 전주	심청가(심청이가 황후되 어 아버지를 그리워 하 는 대목)	김연수-오정숙- 조소녀
2014(40회)	김나영	36	여	경기 고양	심청가 (심봉사 눈뜨는 대목)	김세종-정응민- 성창순

위 표를 보면 2014년 40회 대회까지의 판소리 명창부 장원 수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1.2세로 나타났다. 1995년 21회 대회까지 조사한 수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4세인데,³¹⁾ 19년이 지나는 동안 약 3세 정도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령 수상자는 1994년 당시 59세의 송순섭 명창이고³²⁾ 최연소 명창은 2002년과 2004년 29세로 장원을 한 염경애와 장문희 명창이었다. 이러한 명창들의 연령대는 50대가 5명, 40대가 18명, 30대가 15명, 20대가 2명으로, 40대 참가자들이 가장 많았고, 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1회부터 10회까지 40대 이상은 70%(7명)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40대 이상은 40%(4명)로 점차 명창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명창들의 성별은 남성이 전체 40명 중 11명으로 27.5%를 점유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남자 장원자가 배출되지 않아 판소리의 여성화를 우려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31) 황미연, 앞의 논문, 1995, p. 62

32) 황미연, 앞의 논문, 1995, p. 62에서는 50세로 되어있는데, 59세의 오기로 보인다.

명창부 장원 수상자의 출신지는 전라북도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 13명, 충청남도(대전 포함) 4명, 서울 3명, 경상북도(대구 포함) 2명, 경상남도 1명, 경기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인 전라남북도는 29명으로 7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편중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서울 출신이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도제식 전통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이 일반화됨에 따라 교육을 위해 서울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출신지역별 구분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³³⁾

판소리 명창부 본선 경연 대목을 분석해 보면, 춘향가 8대목, 심청가 9대목, 흥보가 2대목, 수궁가 1대목, 적벽가 2대목 등, 모두 5마당 22대목이 본선곡으로 불러졌다. 이 중 가장 많은 명창이 부른 마당은 춘향가와 심청가이며, 대목으로는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과 심청가 중 ‘황성가는 대목’으로 나타났다. 즉 판소리 명창부 장원 수상자 40명 중 75%(30명)는 춘향가와 심청가의 대목을 불렀고, 나머지 25%(10명)는 흥보가 10%(4명), 수궁가 10%(4명), 적벽가 5%(2명)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춘향가는 모두 15명이 불렀는데, 대목별로 살펴보면 ‘옥중가’ 5명, ‘오리정 이별대목’ 3명, ‘어사상봉대목’ 2명, ‘박석티 대목’ 1명, ‘사랑가 대목’ 1명, ‘신관사또부임 대목’ 1명, ‘십장가 대목’ 1명, ‘천자풀이 대목’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장원 수상자들이 본선에서 부른 춘향가의 전승계보를 살펴보면, 동편제에 속하는 김세종 바디는 성창순(4회)³⁴⁾, 김일구(9회),

33) 올해 2014년 제40회 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한 김나영 명창의 경우, 진도에서 나고, 목포에서 자랐다. 서울에 있는 국립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보도하는 언론에서는 모두 경기 고양으로 소개하고 있다.

34) 회는 대회 횟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은 용례로 사용하겠다.

김수연(15회), 최영길(18회), 염경애(28회), 김금미(33회), 박영순(34회), 허은선(35회), 조정희(37회) 등 8명이 불렀고, 서편제인 김창환 바디는 최난수(6회)가 불렀으며, 정정렬 바디 중 김여란에 이어진 소리는 최승희(7회)와 모보경(26회)이, 김소희에 이어진 소리는 이명희(16회)가, 김연수 바디는 장문희(30회)와 고향임(32회)이 각각 불렀다.

심청가는 모두 15명이 불렀는데, 대목별로 살펴보면 ‘심봉사 눈뜨는 대목’ 3명, ‘황성가는 대목’ 4명, ‘부녀 이별탄식하는 대목’ 2명, ‘범피중류 대목’ 1명, ‘장승댁 시비 따라가는 대목’ 1명, ‘곽씨부인 상여 나가는 대목’ 1명, ‘추월만정 대목’ 1명, ‘심봉사 물에 빠지는 대목’ 1명, ‘심황후 아버지 그리워하는 대목’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본선에서 부른 심청가의 전승계보를 살펴보면 서편제만 활발하게 불리는데, 그 중 정웅민 바디는 성우향(3회), 김영자(11회), 박계향(13회), 이임례(19회), 윤진철(24회), 왕기철(27회), 강영아(38회), 김나영(40회) 등 8명이 불렀고, 김연수 바디는 이일주(5회), 성준숙(12회), 방성춘(17회), 조영자(21회), 주운숙(22회), 송재영(29회), 조희정(39회) 등 7명이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홍부가는 모두 4명이 불렀는데, ‘박타는 대목’ 3명, ‘놀부 부자된 홍보집 찾아가는 대목’ 1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15년간 홍보가를 부른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 본선에서 부른 홍보가의 전승계보를 살펴보면, 동편제에 속하는 송만갑 바디는 조상현(2회), 전인삼(23회), 이순단(25회)이 불렀고, 서편제에 속하는 김연수 바디는 오정숙(1회)이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궁가는 4명이 불렀는데, 모두 ‘토끼 배 가르스 대목’을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선에서 부른 수궁가의 전승계보를 살펴보면, 동편제에 속하는 유성준 바디만 전해지는데, 정광수와 박초월로 이어지는 소리는 조통달(8회), 전정민(10회), 왕기석(31회)이 불렀고, 김연수와 오정숙으로 이어지는 소리는 은희진(14회)이 불렀다.

적벽가는 2명이 불렀는데, ‘적벽대전 대목’ 1명, ‘군사 설움 대목’ 1명으

로 나타났다. 본선에서 부른 적벽가의 전승계보를 살펴보면, 동편제에 속하는 송만갑 바디는 박봉술을 거쳐 송순섭(20회)이 불렀고, 김연수 바디는 오정숙을 거쳐 박정선(36회)이 불렀다.

이상 논의한 명창부 본선곡은 춘향가 8대목, 심청가 9대목, 흥보가 2대목, 수궁가 1대목, 적벽가 2대목 등, 모두 5마당 22대목이 본선곡으로 불려졌으며, 바디별로는 춘향가는 김세종 바디, 김창환 바디, 정정렬 바디, 김연수 바디 등 4개 바디가, 심청가는 정웅민 바디, 김연수 바디 등 2개 바디가, 흥부가는 송만갑 바디와 김연수 바디 등 2개 바디가, 수궁가는 유성준 바디가 그리고, 적벽가는 송만갑 바디와 김연수 바디 등 2개 바디가 각각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자 명창들이 부르는 대목의 경우만 정리해보면, 11명의 남자명창들은 수궁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 3명,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 1명, ‘옥중가 대목’ 1명으로 나타났고, 흥보가 중 ‘놀부 부자된 흥보집 찾아가는 대목’ 1명, ‘박타는 대목’ 1명으로 나타났으며, 심청가 중 ‘심봉사 물에 빠지는 대목’ 1명, ‘심봉사 눈뜨는 대목’ 1명, ‘추월만정 대목’ 1명으로, 적벽가 중 ‘적벽대전 대목’ 1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남자 명창들의 선호 마당과 대목은 수궁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인

이 장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에서 판소리 명창 분야를 제외한 농악, 무용, 기악, 시조, 민요, 궁도, 가야금병창, 명고수 등의 부분별 명인들을 종합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1. 농악

이곳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 농악부 수상자를 개관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1975년 제1회 대회부터 2014년 제40회 대회까지의 농악부 입상자들을 정리한 것이다.³⁵⁾

〈표 4〉 전주대사습놀이 농악부 입상자

회 (연도)	장원(지역)	차상(차원)	차하(3원)	참방	장려	참가
1(1975)	광주농고(광주)		전주농고 정읍산외중			
2(1976)	호남여성농악단(전남)	아리랑농악 이리농악단			산외중, 팔복국교	
3(1977)	부산농악단(부산)		전주비사별	임실농악단		
4(1978)	임실필봉농악단(전북)					
5(1979)	전주아리랑농악단(전북)	광주농악단	옥구농악단			
6(1980)	서울농악단(서울)	이리농악단	김제농악단	옥구농악단		
7(1981)						
8(1982)	공주농업고(충남)	정읍감곡국	여수소라남국	장수천천중 서울오류국	익산용안국 부안의북국	
9(1983)	한국민속촌농악단(경기)	전주시립농악단	충남중앙농악회	완주새마을농 악단	김제농악단 장수천천농악단	
10(1984)	청주대학농악단(충북)	전주시립농악단	충남중앙농악단	대전농악단	이리농악단 완주농악단	
11(1985)	전주시립농악단(전북)	김제농악단	국악협회충남 지부	경남함안농악단		
12(1986)	김제농악단(전북)	부안농악단	함안농악단	대전웃다리농 악단	풍각농악단	고흥농악단
13(1987)	충남중앙농악단(충남)	경암함안농악단	완주고산농악단		전북도립국악	

35) 아래 〈표4〉 및 이하 다른 종목의 입상자 내용을 정리한 표들은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에서 제공해 준 자료와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홈페이지 (http://www.jjcdss.or.kr/03award/01award.php?s_num=19&pc=0)를 중심으로, 일부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기회를 빌어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준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에 감사드린다.

회 (연도)	장원(지역)	차상(차원)	차하(3원)	참방	장려	참가
					농악 호남좌도농악	
14(1988)	경남함안농악단(경남)	청주시립농악	노령민속악회 농악	남원금다농악	전북도립국악원	마산무학 농악 이리신통 농악
15(1989)	청주시립농악(충북)	전주노령민속 악회	마산두레농악단	대구비산농악단	남원농악단	
16(1990)	전주노령민속악회(전북)	마산두레농악단	여수용수농악단	대구비산농악단		
17(1991)	대전시농악단(대전)	여천시농악단	마산농악단	원광농악단	마산두레농악 단	
18(1992)	정읍사농악단(전북)	공주농악단	육군제633부대	여수수영농악단	장성농악단	
19(1993)	공주농악단(충남)	경남마산농악단	김제농악단			
20(1994)	충남금산농악단(충남)	한국전자빛내 농악	전주35사단농 악단	배틀농악단	마산농악단	
21(1995)	정읍이평농악단(전북)	한국전자농악단	육군2632부대	전남순천농악	전남영광농악	
22(1996)	경남마산농악단(경남)	전남순천농악단	한국전자농악단	정읍단풍농악단	여수용수농악단	
23(1997)	한국전자풍물단(경북)	고창방장농악단	함안칠원농악단	여수농악민속 보존회		
24(1998)	고창방장농악단(전북)	여수농악단	경남함안농악단	여수민속예술단	이담농악	
25(1999)	김천매곡구농악단(경북)	전주시놀이패 우리마당	여수국악협회	함안칠원농악단	동두천이담농 악단	
26(2000)	구례농악보존회(전남)	여수농악단	이담농악단	전주놀이패우 리마당	함안칠원농악단	
27(2001)	가루뱅이농악단(대전)	남원시립농악단	정읍시립농악단	동두천이담농악	중부농악	
28(2002)	풍장21농악단(경기)	남원시립농악단	정읍시립농악단	이담농악단	구미농악단	
29(2003)	중앙타악연희단(서울)	남사당풍물패	구미문화원농악	김제덕암풍물단	놀이패우리마당	
30(2004)	구미무을(경북)	정읍농악단	시흥월미두레 풍물놀이	남원농악단	노름맛치풍물단	
31(2005)	원주매지농악단(강원)	한누리전통연 희단	우리문화연구회	대전구봉풍물단		
32(2006)	수원제인청(경기)	대불대학교	서울예대	청주신명	덕암풍물단	
33(2007)	화성농악보존협회(경기)	중앙타악단	고창곳전수생 연합	달성이천농악단		
34(2008)	중앙타악단(서울)	한누리연희단	대불대농악단	김제우도농악		

회 (연도)	장원(지역)	차상(차원)	차하(3원)	참방	장려	참가
35(2009)	광지원농악보존회(경기)	대불대전통연 회단	전통연희단난 장애판	진안증평굿울림	해오름농악단	
36(2010)	대불대 전통연희학과(전남)	파주농악보존회	창원퇴촌농악	영등포풍물단		
37(2011)	포천농악(경기)	정읍농악	전라좌도농악 보존회	빛오름전통공 연예술단		
38(2012)	중방농악보존회(경북)	화성두레보존회	영남풍물연구소	구포1동타작소리		
39(2013)	파주농악보존회(경기)	정읍농악단	세한대학교	영남풍물연구소	동국대학교	
40(2014)	정읍농악보존회(전북)	웃다리농악단	무을농악단	화성두레굿	청도차산농악단	

위 표를 보면 농악부는 장원, 차상, 차하³⁶⁾, 참방, 장려, 참가 등 모두 6등급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1975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 40회를 치르는 동안 장원 39팀³⁷⁾, 차상 37팀, 차하 38팀, 참방 34팀, 장려 28팀, 참가 3팀 등 모두 179팀의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이 중 장원 수상팀은 39팀으로, 장원 외 입상 경력 과정을 거쳐 장원 수상팀이 된 경우가 많아 이를 살펴보았다.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25팀,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8팀, 2회 이상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도 6팀이 있었다.

장원을 수상한 40팀의 지역은 전라북도 9팀, 경기도(인천포함) 7팀, 충청남도(대전 포함) 5팀, 경상북도(대구 포함) 5팀, 전라남도(광주 포함) 4팀, 서울 3팀, 경상남도(부산 포함) 3팀, 충청북도 2팀, 강원도 1팀 등으로

36) 1회 대회때는 장원, 차원, 3원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지만, 2회 때부터는 장원, 차상, 차하, 장려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으며, 6회 때부터 차하 밑의 단계로 참봉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차원은 차상과 그 비중이 같고, 3원은 차하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37) 1981년 제7회 대회는 농악부분이 개설되지 않았다. 1986년 12회 대회는 장원이 두 팀이 선정되었다.

나타났다. 농악 분야는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지방의 강세가 두드러져 보인다.

2. 무용

이 곳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 수상자를 개관하고자 한다.

〈표 5〉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 입상자

회 (연도)	장원			차상(차원)	차하(3원)	참방	장려(입선)
	이름(지역)	성 별	나 이				
1(1975)				김조균, 오영숙	박인희		
2(1976)	김나영(서울)			김진홍	조영숙		황영희, 김지혜 김덕영
3(1977)				임이조			
4(1978)	이완순(서울)						
5(1979)	최영순(광주)			임규홍	이명숙		
6(1980)	강정웅(경기)			임규홍	심가영	송갑혜	
7(1981)	임규홍(서울)	남	31	송갑혜	이정희	이인호	
8(1982)	박인희(대구)	여	31	김현숙	강문순	이정희	송화영
9(1983)	김자홍(부산)	남	48	심정순	천재수	김현숙	이정희, 송갑혜
10(1984)	김정희(경남)	여	26	송갑혜	최영순	천명선	김구남, 최복실
11(1985)	양길순(서울)	여	22	최영순	송화영	김미행	김형배, 강혜숙
12(1986)	채향순(서울)	여	30	채상묵	한순서	김옥진	오은명
13(1987)	채상묵(서울)	남	43	송화영	오은명	한혜경	김덕숙
14(1988)	오은명(경기)	여	32	최영순	송화영	최창덕	문숙경
15(1989)	박형봉(광주)	남	55	홍웅기	윤병관	조영자	정연님
16(1990)	진유림(서울)	여	34	최미애	권성경	윤병관	주병희
17(1991)	심정순(서울)	여	33	김금미	여현주	조윤, 김덕숙	김신희, 박경랑
18(1992)	김덕숙(광주)	여	37	최창덕	최미애 이정래	김현정	박수현

회 (연도)	장원			차상(차원)	차하(3원)	참방	장려(입선)
	이름(지역)	성 별	나 이				
19(1993)	최창덕(서울)	남	33	오철주	김은희	김일환	여형주
20(1994)	여현주(경남)	여	42	오철주	이은자	정명자	박경량
21(1995)	박경량(부산)	여	34	오철주	이은자	서숙자	채홍남
22(1996)	이은자(서울)	여	26	박종필	이귀선	천명선	김복연
23(1997)	천명선(대구)	여	38	김은희	이미숙	조명숙	박종필
24(1998)	이미숙(경기)	여	40	공민선	홍송화	문숙경	이귀선
25(1999)	조진숙(인천)	여	32	정영수	최지원	양태순	김은희
26(2000)	홍송화(광주)	여	32	김은희	양태순	공민선	이귀선
27(2001)	이강용(대전)	남	40	김무철	노수철	조명호	김미숙
28(2002)	김진원(서울)	남	34	정영수	김미숙	박광자	김은희
29(2003)	정영수(서울)	여	39	장순향	강유선	손혜영	최경희
30(2004)	김미래(서울)	여	36	이혜진	박성호	손혜영	이문이
31(2005)	이혜진(경기)	여	31	이문이	손혜영	나효선	김정화
32(2006)	강윤나(경기)	여	61	문숙경	이현희	이민영, 손혜영	조명호
33(2007)	유영수(전북)	남	29	이우호	김은희	장순향	이문이
34(2008)	김형신(서울)	여	34	백승현	김성훈	최진영	오근영
35(2009)	최진영(경기)	남	24	김성훈	손혜영	백승현	정송이
36(2010)	이우호(서울)	남	51	김기승	손혜영	김미라	김영운
37(2011)	장옥주(충북)	여	38	하수연	조명호	홍성미	김기석
38(2012)	전수석(서울)	남	25	김기승	고재현	조명호	차준명
39(2013)	김미숙(서울)	여	44	이현숙	이문이	김기석	이승용
40(2014)	이승용(경남)	남	24	최정윤	문성혜, 이현희	김영산, 황규선	김민정, 한소정

위 표를 보면 무용부는 장원, 차상, 차하³⁸⁾, 참방, 장려 등 모두 5등급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38) 1회 대회 때는 장원, 차원, 3원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지만, 2회 때부터는 장원, 차상, 차하, 장려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으며, 6회 때부터 차하 밑의 단계로 참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차원은 차상과 그 비중이 같고, 3원은 차하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1975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 40회를 치르는 동안 장원 38명, 차상 40명, 차하 40명, 참방 38명, 장려 41명 등 모두 197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장원 수상자는 여성이 24명 남성이 12명으로 남성 수상자가 여성 수상자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35.5세로, 연령대는 30대 초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⁹⁾

무용부의 장원 수상자는 38명⁴⁰⁾으로, 장원 외 입상 경력 과정을 거쳐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살펴보았다. 즉 판소리 장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여러 번 입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전주대사습놀이의 권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20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2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6명이 있었다.⁴¹⁾

무용부 장원 수상자의 출신지는 서울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인천 포함) 7명, 전라남도(광주 포함) 4명, 경상남도(부산 포함) 5명, 경상북도(대구 포함) 2명, 충청남도(대전 포함) 1명, 충청북도 1명, 전라북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악

이 곳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수상자를 개관하고자 한다.

39) 이 표에서는 장원수상자 38명 중 4명의 자료가 제외되었는데,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40) 1회와 3회 7회 등 3개 대회에는 장원 수상자가 없다.

41) 이 내용은 입상자 명단을 기초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참가횟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입상경력횟수를 기준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이유는 입상 대상자는 장원의 기량에 더 접근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입상자

회 (연도)	장원			차상(차원)	차하(3원)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 별	나 이				
3(1977)	서용석(경기)	남	37	김일구			
4(1978)	이생강(서울)	남	41				원장현
5(1979)	김일구(서울)	남	39	강동일	심상남		
6(1980)	강동일(전북)	남	52	원장현	김동진	김광복	
7(1981)	김동진(서울)	남	43	원장현	김경애	심상남	
8(1982)	원장현(서울)	남	31	지미자	김경애	이재화	김동표
9(1983)	김경애(경북)	여	26	지미자	김무길	박현숙	이재화, 박화자
10(1984)	윤윤석(서울)	남	41	지미자	김무길	송화자	
11(1985)	강정렬(전북)	남	36	이세환			이기중
12(1986)	김무길(서울)	남	43	지미자	강동열	천대용	이화동
13(1987)	심상남(서울)	여	32	김순정	천대용	정병국	조연희
14(1988)	서영호(경기)	남	23	임희식	김재영	이화동	이용구
15(1989)	최종관(경기)	남	34	김기영	이용구	오은숙	이정주
16(1990)	이용구(서울)	남	21	김재영	김도연	김성아	송선명
17(1991)	김재영(서울)	남	32	김도연	박혜선	이정애	이창우
18(1992)	임경주(경기)	여	39	한정순	유두근	홍수기	권정숙
19(1993)	채주병(서울)	남	34	최병숙	김미경	이정래	모혜경
20(1994)	이태백(서울)	남	33	정정희	유소희	이항윤	이성원
21(1995)	김성아(서울)	여	27	한민택	안경애	이정래	이항윤
22(1996)	남현우(경기)	남	35	원지선	임미애	김혜연	김경희
23(1997)	이광훈(서울)	남	30	채옥선	전지영	서영민	김경희
24(1998)	권용미(서울)	여	29	한민택	차영수	허익수	이문영

회 (연도)	장원			차상(차원)	차하(3원)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 별	나 이				
25(1999)	원완철(서울)	남	25	허익수	이항윤	박진선	안소현
26(2000)	유홍(서울)	남	21	박상현	서정호	장영수	김선구
27(2001)	서정호(광주)	남	20	허소희	신현식	권태경	민형식
28(2002)	서병조(전북)	남	34	김도현	신현식	금용웅	노택용
29(2003)	금용웅(서울)	남	23	신현식	김종환	서정곤	홍세린
30(2004)	신현식(서울)	남	25	김용수	이필기	홍세린	김종환
31(2005)	김도현(전북)	남	24	김용수	김종환	이민영	이필기
32(2006)	김용수(서울)	남	24	한림	박제현		김승호
33(2007)	박제현(경기)	남	22	배런	한명희	이민영	채길용
34(2008)	배런(서울)	남	25	채길용	이민영	김종환	한명희
35(2009)	채길용(서울)	남	25	문아영	김호빈	장진아	홍세아
36(2010)	성휘경(서울)	남	22	국선미	이영국	한빈	전범구
37(2011)	국선미(전북)	여	25	정하선	안건용	전혜선	김어진
38(2012)	박종현(충남)	남	22	이종현	한창희	김은진	김영산
39(2013)	정하선(경기)	남	25	이수민	문성혜	엄태양	김성진
40(2014)	엄태양(서울)	남	24	김용성	문성혜	김영산	김민정

위 표를 보면 기악부는 장원, 차상, 차하⁴²⁾, 참방, 장려 등 모두 5등급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1977년 3회 대회부터 시작하여 올해 2014년까지 대회를 치르는 동안

42) 1회 대회 때는 장원, 차원, 3원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지만, 2회 때부터는 장원, 차상, 차하, 장려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으며, 6회 때부터 차하 밑의 단계로 참봉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차원은 차상과 그 비중이 같고, 3원은 차하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장원 38명, 차상 37명, 차하 35명, 참방 33명, 장려 34명 등 모두 177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장원 수상자는 남성 32명, 여성이 6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28.6세로, 주 연령대는 20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 이후 장원 수상자가 20대가 아닌 해는 2002년 단 한 해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장원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23.8세로 나타나고 있다.

기악부의 장원 수상자는 38명⁴³⁾으로, 장원 외 입상 경력 과정을 거쳐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살펴보았다.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18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3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5명, 그리고 3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도 2명이 있었다.⁴⁴⁾

기악부 장원 수상자의 출신지는 서울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7명, 전라북도 5명, 전라남도(광주 포함) 1명, 경상북도(대구 포함) 1명, 경상남도 1명, 충청남도(대전 포함)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판소리의 경우와는 달리 기악 분야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한 수도권 지역 출신자가 78%(29명)를 차지해 지역 구분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다.

4. 시조

이 곳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 시조부 수상자를 개관하고자 한다.

43) 기악부는 3회 대회부터 시작하였다.

44) 이 내용 역시 앞의 판소리 명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상자 명단을 기초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참가횟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하 다른 종목의 경우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다.

〈표 7〉 전주대사습놀이 시조부 입상자

회(연도)	장원			차상 (차원)	차하 (3원)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 별	나 이				
1(1975)	신용식(경북)			김호성	서기환		
2(1976)	김완철(전북)			안길옥	남극우		백학정
3(1977)							
4(1978)	문정순(전남)						
5(1979)	곽상희(전북)			장남기	임산본		
6(1980)	임산본(전북)	남	48	장남기	손명자	채규범	
7(1981)	김영식(경남)	남	69	손명자	홍이섭	채규남	
8(1982)	백진복(경남)	남	43	손명자	채규남	심성자	이상순
9(1983)	손명자(강원)	여	35	박선웅	이상순	채규범	심성자, 우순점
10(1984)	박선웅(충남)	남	41	채규남	박의숙	이일규	이동규, 박창업
11(1985)	권척이(대구)	여	58	채규남	서화선	김철수	우순점, 박의숙, 박인례
12(1986)	채규남(전북)	남	60	심성자	전달수	오종수	김기동
13(1987)	심성자(광주)	여	34	전달수	이순규	김혜숙	박기자
14(1988)	박기자(경북)	여	47	김갑연	김종옥	김철수	전달수
15(1989)	권춘화(대구)	여	45	정인수	김종옥	김갑연	최귀임
16(1990)	김종옥(서울)	남	53	오종관	서영희	최귀남	김원기
17(1991)	서정희(경기)	여	46	전두근	박기자	김용환	채환복
18(1992)	박진희(경남)	여	60	오종관	유두근	홍수기	권정숙
19(1993)	한자이(대전)	여	39				
20(1994)	이종려(서울)	여	56	유두근	권정숙	나순철	홍수기, 유인성
21(1995)	유두근(충남)	남	60	김종진	김시택	노경옥	홍수기
22(1996)	김명순(인천)	여	44	최귀임	노경옥	송춘자	황옥순

회(연도)	장원			차상 (차원)	차하 (3원)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 별	나 이				
23(1997)	황옥순(충남)	여	33	도옥란	최정문	신윤희	유재근
24(1998)	이영준(서울)	남	60	조재문	서문형임	최재원	이종록
25(1999)	이종록(부산)	남	56	최재원	이윤경	송춘자	라순철
26(2000)	김영희(전북)	여	50	라순철	김창선	최영애	박봉금
27(2001)	신윤희(서울)	여	56	조영숙	김창선	채현목	유재근
28(2002)	조영숙(전북)	여	53	채현목	나순철	김주호	지현주
29(2003)	이미화(광주)	여	34	엄장섭	지현주	박봉금	양동규
30(2004)	엄장섭(경기)	남	73	양장열	윤형석	김주호	양동규
31(2005)	양장열(전남)	남	57	박선택	윤형석	유재근	양동규
32(2006)	허화열(경북)	남	51	안중자	지현주	김령경	장영이
33(2007)	양동규(전북)	남	67	황경자	최춘	지현주	이상래
34(2008)	박승규(경기)	남	58	라호은	이승재	최춘	박형순
35(2009)	장영이(경기)	여	54	박형순	지현주	최춘	이상래
36(2010)	이상래(충북)	남	65	김창선	이종세	이병도	박은선
37(2011)	김창선(경남)	남	65	최 춘	윤미애	신지균	이한은
38(2012)	최 춘(서울)	여	70	이현택	이한은	이분선	이종세
39(2013)	이은자(전북)	여	61	이현택	이한은	서길수	천복임
40(2014)	이한은(경남)	여	57	서길수	왕향주	윤미애	김화자

위 표를 보면 시조부 역시 다른 종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등 모두 5등급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1975년 제1회 대회부터 시작하여 올해 2014년까지 대회를 치르는 동안 장원 39명⁴⁵⁾, 차상

45) 3회와 4회 대회 때는 장원 수상자가 없었고, 6회 대회 때에는 2명의 공동 장원

37명, 차하 37명, 참방 34명, 장려 38명 등 모두 185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장원 수상자의 성별은 남성 16명, 여성이 19명으로⁴⁶⁾ 거의 비슷하며,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53.0세로, 다른 종목에 비하여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수상자는 73세이고, 최연소 수상자는 33세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시조부의 장원 수상자는 39명으로, 장원 외 입상 경력 과정을 거쳐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살펴보았다.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22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1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2명, 그리고 3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는 3명, 그리고 2012년 장원을 한 최춘 명창처럼 4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도 있었다.⁴⁷⁾

시조부 장원 수상자의 출신지는 전라북도 8명, 경상남도(부산 포함) 6명, 서울이 5명, 경기도(인천포함) 5명, 경상북도(대구 포함) 5명, 전라남도(광주 포함) 4명, 충청남도(대전 포함) 4명, 충청북도 1명, 강원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조 분야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출신이 60% 정도를 점하고 있어 지방의 강세가 두드러져 보인다.

5. 민요

이 곳에서는 전주대시습놀이 민요부 수상자를 개관하고자 한다.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46) 장원 수상자 39명 중 기록이 확인된 34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었다.

47) 이 내용 역시 앞의 판소리 명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상자 명단을 기초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참가횟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하 다른 종목의 경우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다.

〈표 8〉 전주대사습놀이 민요부 입상자

회(연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 별	나 이				
5(1979)	김혜란(서울)	여	28	이춘희	김영희		
6(1980)	이금미(서울)	여	21	박상옥	김진주		
7(1981)							
8(1982)							
9(1983)	임정란(서울)	여	40	이점순	변숙현	김국진	홍연순, 강정애
10(1984)	이호연(광주)	여	28	김금숙	박도화	이연희	김국진, 변숙현
11(1985)	김금숙(서울)	여	37	최영숙	한진자	지정희	정수분, 장필국
12(1986)	전숙희(서울)	여	40	임수현	정수분	최보물	박정옥
13(1987)	임수현(서울)	여	26	남궁랑	이유라	김혜숙	박기자
14(1988)	최영숙(서울)	여	32	남궁랑	이재숙	정재경	조경희
15(1989)	남궁랑(서울)	여	34	정재경	강연옥	이혜선	김은희
16(1990)	한진자(서울)	여	36	강연옥	정재경	이혜선	김진희
17(1991)	지화자(서울)	여	47	이유라	박순금	김진희	신정애
18(1992)	이유라(서울)	여	35	이선영	김장순	박순금	이순순
19(1993)	이선영(서울)	여	33	김장순	최근용	유옥선	전병해
20(1994)	김장순(서울)	여	37	유옥선	최은호	유경미	박순금
21(1995)	박순금(서울)	여	41	최은호	우옥선	정재경	이명희
22(1996)	최은호(서울)	여	35	정재경	김점순	노말임	문옥순
23(1997)	정재경(경기)	여	41	노경미	유의호	김점순	오현숙
24(1998)	유의호(서울)	남	40	김영미	노영숙	이재돈	노경미
25(1999)	노경미(경기)	여	47	김영배	한명순	김정순	김소희
26(2000)	이명희(경기)	여	31	김정순	이혜선	김영미	노영숙

회(연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 별	나 이				
27(2001)	오현숙(서울)	여	42	김선란	조옥란	안계월	최정분
28(2002)	김선란(서울)	여	47	박준영	김명순	박은희	이윤경
29(2003)	김점순(서울)	여	42	김명순	조옥란	최미희	최정분
30(2004)	김명순(서울)	여	51	김보연	신월숙	홍석분	이희열
31(2005)	박윤정(경기)	여	47	강효주	김보연	강영희	최영자
32(2006)	강효주(서울)	여	27	김영미	고금성	유상호	김현숙
33(2007)	고금성(강원)	남	31	김영미	김수진	오지영	공윤주
34(2008)	김영미(경기)	여	40	김보연	김수진	김탁기	이순애
35(2009)	강해림(경기)	여	24	전영랑	이희문	김수진	김희자
36(2010)	문보라(경기)	여	22	김승원	김영순	이은미	신월숙
37(2011)	정남훈(서울)	남	32	김영순	김보라	이우호	이은미
38(2012)	이기옥(서울)	여	51	김영순	원은영	김단아	함영선
39(2013)	김영순(서울)	여	57	이우호	공윤주	김인태	박승순
40(2014)	황시내(충북)	여	37	최윤선	김혜연	김유리	이승은

민요부도 여타 종목의 경우처럼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등 모두 5등급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1979년 제5회 대회부터 시작하여 올해 2014년까지 대회를 치르는 동안 장원 34명, 차상 34명, 차하 34명, 참방 32명, 장려 35명 등 모두 169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장원 수상자는 34명 중 남성 3명, 여성이 31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악의 경우와는 정 반대로 나타난다.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37.0세로,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골고

루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장원 수상자는 34명으로, 장원 외 입상 경력 과정을 거쳐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살펴보았다. 즉 다른 종목 장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여러 번 입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전주대사습놀이의 권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15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3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5명, 그리고 3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도 1명이 있었다.

민요부 장원 수상자의 출신지는 서울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7명, 광주 1명, 충청북도 1명, 강원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민요 분야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한 수도권 지역 출신자가 91%(31명)를 차지해 출신 지역 구분의 의미가 희박해 보인다.

6. 궁도(명궁)

이 곳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 궁도부 수상자를 개관하고자 한다.

〈표 9〉 전주대사습놀이 궁도부 입상자

회(연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별	나이				
1(1975)	김철기(경기)	남					
2(1976)							
3(1977)	이기일(전북)	남					
4(1978)	심재관(경기)	남					
5(1979)	권영학(경북)	남		김건태	김영희		
6(1980)	이파윤(충남)	남		김현원	이의형	염상구	

회(연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별	나이				
7(1981)	나금찬(전북)	남	46	윤삼춘	하상덕	김장환	
8(1982)	하상덕(인천)	남	65	노병옥	박종인	김병규	조태복
9(1983)	장준오(전남)	남	42	김규홍	조기환	이도명, 이인근 임현근, 공인수 문정호, 박찬철 김현원	신봉선, 강찬중 김성근, 임상철 옥승호
10(1984)	이환철(경기)	남	31	김경원 김규홍	하현철, 강장현 임현근	김홍기, 성백선 주해웅 최재상	김성근, 유상중 이기태, 박찬철 임상철
11(1985)	김현원(인천)	남	67	순일수 김봉원	정정근, 박영기 박승천	김규홍, 한상옥 황정길, 정윤환 최동훈, 윤건주	김영도, 서경옥 이영기
12(1986)	정완규(충남)	남	40	주해웅 김석철	황길웅, 한성근 김태주	백남석, 김일성 황전길, 최철상	문득길, 이순열 현주석, 안병길 주장웅
13(1987)	김석제(광주)	남	40	주해웅 김정현	김재웅, 구명기 윤중한	박승천, 왕승호 강장현, 김병수	윤덕중, 이수일 박문규, 성경옥 김태주
14(1988)	주해웅(전북)	남	38	유상중 심재성	현계석, 차경철 김세화	김규홍, 황기마 윤명철, 김태주	김두범, 김정규 옥승호, 임태휘 김도형
15(1989)	박문규(대전)	남	40	박형진 안병길	오세준, 김재홍 김영길	김성화, 조광래 이순렬, 심재성	박재영, 김한성 김린규, 김정곤 윤재주
16(1990)	김연길(전북)	남	49	김세화 김봉원	장수남, 권경옥 김용준	안상식, 김정규 옥승호, 임태운	조종일, 오세준 문상직, 김태주

회(연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별	나이				
							인영식
17(1991)	권오철(울산)	남	34	김봉천 안상식	박형수, 송규선 인영식	함 룡, 옥승호 김성화, 김용준	현계석, 이진형 한영덕, 장경현 조영현
18(1992)	조기환(경남)	남	60	유병선 조영석	박창산, 김기영 양영위	김영식, 김경철 김현기, 이현재	김홍채, 한병윤 구명기, 박재영 박기형
19(1993)	김병석(서울)	남	39	정훈철 김영랑	이재곤, 이진형 정경현	심재성, 오세준 이지형, 이상진	김용준, 김진호 김봉원, 박동환 박형수
20(1994)	김종기(전북)	남		최해중 심재성	이창하, 조영석 유병선	강상기, 안병길 이지연, 이정문	한병윤, 김양복 장경현, 이운연 함 용
21(1995)	장용(전남)	남		김진점 최갑설	김도형, 함 용 이재곤	치해중, 신해중 최오환, 김 청	오영수, 이평래 서호영, 안병길 김 장
22(1996)	조영석(전남)	남	50	김효규 윤한의	김학순, 이기봉 서상택	박용운, 이진형 김일성, 옥승호	김경수, 김세훈 이국중, 김용준 이수진
23(1997)	이국중(강원)	남	51	오세준 한병윤	이수진, 이정문 김호웅	옥승호, 강경호 최해중, 이기봉	김종선, 김세훈 함 용, 이주원 양성열
24(1998)	박동렬(경기)	남		구명기 권영무	김치영, 김수만 이기봉	안병길, 하기용 김영식, 신용식	주 비, 서병재 오세준, 박용운 문창규
25(1999)	강보순(경남)	남		김수만	오대주,	김형래, 안정찬	송기영,

회(연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별	나이				
				서병재	박성희 최일하	이지형, 허순구	김치영 최해중, 김성규 김도형
26(2000)	한병윤(전북)	남		서병재 서안식	이재록, 구명기 김치영,	이곤호, 심재성 서상택, 이용해	장강현, 오원섭 김교천, 이기봉 지득성
27(2001)	박해동(경남)	남	41	서순중 김치영	주 비, 황기환 조정현	김길영, 김태준 윤환의, 이태수	허성옥, 노상일 박영진, 김중열 한병철
28(2002)	권태섭(강원)	남	39	김성락 김선규	서만식, 박현식 박병인	강성철, 함 용 이지형, 서상택	이자윤, 안병길 김영식, 임두중 서병재
29(2003)	박예엽(경북)	남	43	신용식 김영식	김치영, 정운섭 유진성	하기철, 김만환 이지형, 김세곤	백정수, 황시열 노일국, 양성렬 이한승
30(2004)	김영식(강원)	남	51	박용호 김만환	최재훈, 이재은 서안식	유동훈, 남상욱 기재영, 송영근	강신재, 정운섭 황기환, 김중열 김길영
31(2005)	서안식(전남)	남	47	김종학 구영식	이한승, 류병호 기재영	인권식, 안문규 김창수, 강성철	서상택, 최재훈 오대주, 권경옥 장현필
32(2006)	김창수(전남)	남	44	고영환 서윤석	김종운, 이용민 안문규	채기훈, 강신제 이상진, 정운섭	이형모, 노대현 권인철, 장용진 이기홍
33(2007)	서병재(경기)	남	46	이희균 강귀성	이 곤, 박용호 김인환	김광덕, 전주석 장춘기, 강신제	신용식, 이지형 백도석,

회(연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별	나이				
							유동훈 노대현
34(2008)	김태곤(경기)	남	37	김연수 서윤석	장춘기, 최재훈 배종화	정명호, 백명록 이정호	김종은, 노대현 노상일, 강신제 윤필섭
35(2009)	최재훈(전남)	남	49	박태희 변정훈	강병권, 김경웅 김연수	이기덕, 서윤석 김치영, 권인철	이일규, 이한승 이송해, 유진성 연독희
36(2010)	김연수(경기)	남	43	권경근 강치원	김인환, 김영환 하기용	강귀성, 권인철 이일규, 정영만	홍정민, 서윤석 강장석, 이재은 김석권
37(2011)	강장석(충북)	남	51	이일규 강신제	강치원, 고민구 홍정민	백도석, 이용기 윤선구, 하기용	장춘기, 박태희 김용수, 김홍구 오정세
38(2012)	이일규(광주)	남	51	윤일현 최선희	이기천, 박태희 강신제	위점량, 장춘기 고민구, 백도석	김석권, 연득희 이형진, 김선태 권경근
39(2013)	이기덕(인천)	남	58	홍성만 이의준	김진현, 김성구 이용민	장춘기, 안문규 서정일, 유영복	강병직, 오정세 윤선구, 류동훈 김봉현
40(2014)	유영복(충남)	남	39	이흥종 남광우	신용식, 장춘기 고민구	차동근, 김정수 김남희, 최선희	오정세, 임범수 장상수, 윤일현 문 식

공도부도 여타 종목의 경우처럼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등 모두 5등급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1975년 제1회 대회부터 시작하여 올해 2014년까지 대회를 치르는 동안 장원 39명⁴⁸⁾, 차상 67명, 차하 98명, 참방 135명, 장려 159명 등 모두 498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궁도부는 종목의 성격상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원 수상자는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 수상자의 평균연령은⁴⁹⁾ 45.8세로, 다른 종목에 비하여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궁도부의 장원 수상자는 39명으로, 장원 외 입상 경력 과정을 거쳐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살펴보았다. 즉 다른 종목 장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여러 번 입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전주대습놀이의 권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30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5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3명, 그리고 3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도 1명이 있었다.

궁도부 장원 수상자의 출신지는 경기도(인천포함) 10명, 전라남도(광주포함) 8명, 전라북도 6명, 충청남도(대전포함) 4명, 경상남도 4명, 강원도 3명, 경상북도 2명, 서울이 1명, 충청북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궁도 분야는 전국적인 분포도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은 단 1명에 그치고 있어 주목된다.

48) 제2회 대회에는 수상자가 없다.

49) 장원 수상자 39명 중 내용이 확인된 29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었다.

7. 가야금병창

이 곳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부 수상자를 개관하고자 한다.

〈표 10〉 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부 입상자

회(연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 별	나 이				
11(1985)	강정숙(서울)	여	34	한장순	정옥순	오옥란	정진숙, 김오순
12(1986)	윤소인(서울)	여	37	한관동	박옥화	김순예	김혜선
13(1987)	정예진(서울)	여	29	한관동	강동열	이명희	오옥란
14(1988)	강동렬(서울)	남	32	김명선	오옥란	이영애	양정이
15(1989)	이영신(경기)	여	24	정명희	오옥란	이영애	강영자
16(1990)	오옥란(서울)	여	27	정경옥	서영희	강은경	김미희
17(1991)	정경옥(서울)	여	30	서영희	박현숙	윤지형	문명자
18(1992)	정명희(서울)	여	35	이영애	문명자	윤지영	천희
19(1993)	문명자(광주)	여	39	박주영	강영자	이영주	서영례
20(1994)	강영자(전북)	여	34	위희경	양정이	이영애	이영희
21(1995)	황승옥(광주)	여	35	위희경	신정옥	양태숙	강정희
22(1996)	위희경(서울)	여	23	주문희	강정희	박애숙	이영주
23(1997)	강정희(대전)	여	50	박애숙	이영주	이현숙	
24(1998)	박애숙(전북)	여	44	이영애	하선영	최승례	최영복
25(1999)	이영애(광주)	여	41	정선화	박윤선	박순천	김복실
26(2000)	박윤선(경기)	여	26	서영례	이선	서태경	정선화
27(2001)	오희경(전북)	여	29	서영희	공은영	차수연	박혜진
28(2002)	표윤미(서울)	여	25	서영희	최맹례	이봉순	박옥현
29(2003)	서영희(서울)	여	35	박현진	이봉순	박혜진	윤지원
30(2004)	유인숙(전북)	여	33	이영희	오정희	송수라	최승례
31(2005)	나승희(전남)	여	30	천주미	서태경	김현주	장혜윤

회(연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 별	나 이				
32(2006)	최민혁(서울)	남	22	이영희	차수연	김은숙	김용란
33(2007)	박현진(광주)	여	28	김현정	이영희	전영랑	박혜진
34(2008)	이영희(전북)	여	35	천주미	오지영	김복실	김수진
35(2009)	박혜련(경기)	여	27	김현정	송란	김정순	서일도
36(2010)	임재현(전남)	남	25	전해옥	송수라	김정순	박현주
37(2011)	민정민(경북)	여	24	서태경	송란	전해옥	박현주
38(2012)	배한나(서울)	여	30	김영아	박은비	오나연	신아름
39(2013)	박은비(광주)	여	24	이용우	정주연	전해옥	김수진
40(2014)	전해옥(대전)	여	32	이용우	김미성	김영아	김지애

가야금명창부도 여타 종목의 경우처럼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등 모두 5등급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1985년 제11회 대회부터 시작하여 올해 2014년까지 대회를 치르는 동안 장원 30명, 차상 30명, 차하 30명, 참방 30명, 장려 30명 등 모두 150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장원 수상자는 30명 중 남성이 3명, 여성이 27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37.0세로, 주 연령대는 30대가 14명(46.6%), 20대가 13명(43.3%)으로 전체 수상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야금명창의 장원 수상자는 30명으로, 여타 종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원 외 입상 경력 과정을 거쳐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살펴보았다.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16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6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4명, 3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명, 그리고 4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도 1명이 있었다.

가야금병창부 장원 수상자의 출신지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광주포함) 7명, 전라북도 5명, 경기도 3명, 대전 2명, 경상북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야금병창 분야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두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명고수

이 곳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 명고수부 수상자를 개관하고자 한다.⁵⁰⁾

〈표 11〉 전주대사습놀이 명고수부 입상자

회(연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이름(지역)	성별	나이				
36(2010)	강태관(서울)	남	48	송길화	유지수	최용석	정세연
37(2011)	오홍민(전북)	남	23	고정훈	이영랑	손주현	장솔지
38(2012)	고정훈(서울)	남	31	최소리	손주현	이다름	최재영
39(2013)	박상주(전북)	남	42	김준영	윤영미	이병열	소래성
40(2014)	홍성기(전북)	남	55	윤재영	손주현	유재혁	이재진

명고수부도 여타 종목의 경우처럼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등 모두 5등급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다른 종목과 달리 5년 전인 2010년도 제36회 대회부터 시작하여 올해 2014년까지 대회를 치르는 동안 장원 5명, 차상 5명, 차하 5명, 참방 5명, 장려 5명 등 모두 25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50) 아래 표는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홈페이지

(http://www.jkss.or.kr/03award/01award.php?s_num=19&pc=0)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장원 수상자는 모두 남성이며, 연령대는 평균 39.8세로,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고루 나타났다.

이 중 장원 수상자는 5명으로, 여타 종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원 외 입상 경력 과정을 거쳐 장원 수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살펴보고 있다.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가 4명으로 대부분이며,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난다. 명고수부 장원 수상자의 출신지는 전라북도가 3명, 서울이 2명으로 나타났다.

IV. 전주대사습놀이와 명인 명창

이 장에서는 1975년부터 실시해온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배출한 명인 명창들의 인원수와 연령대, 성별, 출신지역, 장원 전 입상경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명인 명창들의 인원수를 살펴보겠다. 판소리 명창부는 1975년 제 1회 대회부터 2014년 40회 대회까지 매년 1명씩 모두 40명의 장원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전주대사습놀이 중 유일한 단체종목인 농악은 1987년 제 3회 대회를 제외하고는 매년 1팀씩 총 39팀을 장원 수상팀으로 선정하였다. 제 1회 대회부터 시작된 무용 종목은 두 해를 제외하고 모두 38명의 장원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시조와 궁도 역시 각각 39명의 장원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1977년 제3회 대회부터 시작된 기악은 38명의 장원 대상자를, 1979년 제 5회 대회부터 참가한 민요는 34명의 장원 수상자를 내었다. 1985년 제 11회 대회부터 참가한 가야금명창부는 30명의 장원 수상자를, 2010년 제 36회 대회부터 시작된 명고수부는 5명의 장원 수상자를 내어 모두 302명(팀)의 명인 명창을 배출하게 되었다.

다음은 명인 명창들의 연령을 살펴보도록 한다. 판소리 명창의 장원 대

상자 40명의 평균 연령은 41.2세로 나타났다. 또한 판소리 명창부를 제외한 종목을 대상으로 평균연령을 살펴본 결과, 무용은 35.5세, 기악은 28.6세, 시조는 53.0세, 민요는 33.2세, 궁도부 45.8세, 가야금병창 37.0세, 명고수 39.8세로 각각 나타났다.⁵¹⁾

다음은 각 종목 장원 수상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도록 한다. 판소리 명창의 장원 대상자 40명은 남자 11명, 여자 29명으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판소리 명창부를 제외한 여타 종목의 수상자들을 살펴본 결과, 무용은 남자 12명, 여자 24명, 기악은 남자 32명, 여자 6명, 시조는 남자 16명, 여자 19명, 민요는 남자 3명, 여자 31명으로, 궁도는 남자 39명, 여자 0명, 가야금병창은 남자 3명, 여자 27명, 명고수는 모두 남자 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명인 명창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9개 종목별 명인 명창의 인원수를 출신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2〉 명인 명창의 출신지역별 인원

출신 지역	판소리	농악	무용	기악	시조	민요	궁도	가야금 병창	명고수	계
서울	3	3	17	22	5	24	1	12	2	89
경기(인천포함)	1	7	7	7	5	7	10	3	0	47
강원도	0	1	0	0	1	1	3	0	0	6
충청북도	0	2	1	0	1	1	1	0	0	6
충청남도(대전포함)	4	5	1	1	4	0	4	2	0	21
전라북도	16	9	1	5	8	0	6	5	3	53
전라남도(광주포함)	13	4	4	1	4	1	8	7	0	42
경상북도(대구포함)	2	5	2	1	5	0	2	1	0	18
경상남도 (부산, 울산포함)	1	3	5	1	6	0	4	0	0	20
제주도	0	0	0	0	0	0	0	0	0	0
계	40	39	38	38	39	34	39	30	5	302

위 표를 보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배출한 명인 명창의 수는 모

51) 단체종목인 농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두 302명(팀)인데 서울이 89명(29.4%), 전라북도가 53명(17.5%), 전라남도 42명(13.9%)의 순으로 나타난다. 호남권인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합치면 95명(31.4%)이고, 서울이 89명(29.4%)이므로, 서울과 호남, 기타 지역이 각각 1/3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대부분의 종목에 걸쳐 서울 출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도제식 전통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이 일반화됨에 따라 교육을 위해 서울로 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멀지 않은 시기에 출신지역별 구분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명인 명창들의 장원 수상 전의 입상경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판소리 명창부에서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13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5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9명, 3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2명이며, 4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도 1명이 있었다. 농악 장원 수상팀은 39팀으로,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25팀,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8팀이며, 2회 이상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도 6팀이 있었다.

무용은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가 20명이고,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2명이며,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6명이 있었다. 기악부의 장원 수상자는 37명으로,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18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3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5명, 그리고 3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도 2명이 있었다.

시조는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가 22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1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2명, 3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는 3명이며, 4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민요는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가 15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3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5명, 그리고 3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도 1명이 있었다.

궁도는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는 30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5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3명, 그리고 3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도 1명이 있었다.

가야금병창은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가 16명,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6명, 2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4명, 3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는 1명, 그리고 4회 입상 후 장원이 된 경우도 1명이 있었다. 명고수는 입상경력 없이 바로 장원대상자가 된 경우가 4명으로 대부분이며, 1회 입상 후 장원 대상자가 된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체 명인 명창 302명 중 장원 수상 전에 입상을 한 경우는 139명으로 전체 장원 수상자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3〉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1-40회) 종목별 장원 수상자 현황

종목	최초개최 대회(연도)	수상인원	평균연령 (일부)	성별		출신지역		장원 전 입상경력 횟수		
				남	여	1위(명)	2위(명)	없음	1회	2회 이상
판소리	1회(1975)	40명	41.2	11	29	전북(16)	전남(13)	13	15	12
농악	1회(1975)	39팀	해당사항 없음			전북(9)	경기(7)	25	8	6
무용	1회(1975)	38명	35.5	12	24	서울(17)	경기(7)	20	12	6
기악	3회(1977)	38명	28.6	32	6	서울(22)	경기(7)	18	13	7
시조	1회(1975)	39명	53.0	16	19	전북(8)	경남(6)	22	11	6
민요	5회(1979)	34명	33.2	3	31	서울(24)	경기(7)	15	13	6
궁도	1회(1975)	39명	45.8	39	0	경기(10)	전남(8)	30	5	4
가야금병창	11회(1985)	30명	37.0	3	27	서울(12)	경기(7)	16	7	7
명고수	36회(2010)	5명	39.8	5	0	전북(3)	서울(2)	4	1	0
계		302명(팀)		121	136			163	85	54

V. 맺음말

판소리 등용문으로 널리 알려진 전주대사습놀이 는 19세기 초부터 구한말까지의 전주 통인청 대사습과 1975년 부활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명창과 명인들을 배출하였다. 전주대사습에서의 장원은 명인 혹은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는 척도로, 또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장원을 한 수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고찰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주대사습놀이는 명인 명창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명인 명창들은 전주대사습놀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이 글은 구한말까지 전주대사습놀이를 통해 배출한 판소리 명창들의 면면을 검토하였고, 1975년 제1회 대회부터 2014년 제40회 대회까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배출한 명인 명창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과정을 통해 전주대사습놀이와 명인 명창과의 상관성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소리 명창은 전주통인청대사습에서 배출한 35명의 명창과 전주대사습놀이에서 배출한 40명의 명창 등 모두 75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통하여 농악 39팀, 무용 38명, 기악 38명, 시조 39명, 민요 34명, 궁도 39명, 가야금병창 30명, 명고수 5명 등의 명인 명창들이 배출되었다. 따라서 전주통인청대사습부터 현재까지 모두 337명의 명인 명창이 배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75년부터 시작된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에서만 모두 302명(팀)의 명인 명창이 탄생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둘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장원 수상자 40명의 평균 연령은 41.2세로 나타났는데, 최근 10년간 장원 수상자 중

40대 이상은 40%(4명)에 그쳐 명창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다른 영역의 평균연령은 무용이 35.5세, 기악은 28.6세, 시조는 53.0세, 민요는 33.2세, 궁도부 45.8세, 가야금병창 37.0세, 명고수 39.8세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종목에서 30대가 장원 대상자들의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배출한 명인 명창 중 남자는 121명으로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여자는 136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목 특성상 전체가 남자인 궁도의 사례를 제외하면 여자 명인 명창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배출한 명인 명창의 출신지역은 전체 302명 중 서울이 89명(29.4%), 전라북도가 53명(17.5%), 전라남도 42명(13.9%)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서울과 호남, 기타지역이 각각 30%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배출한 302명(팀)의 명인 명창 중 입상 경력 없이 바로 장원을 한 경우는 163명으로 53.1%를, 장원 수상 전 입상을 한 경우는 139명으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판소리 명창부 본선 경연 대목을 분석해 보면, 춘향가 8대목, 심청가 9대목, 흥부가 2대목, 수궁가 1대목, 적벽가 2대목 등, 모두 5마당 22대목이 본선편곡으로 불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명창이 부른 마당은 춘향가와 심청가이며, 대목으로는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과 심청가 중 ‘황성가는 대목’으로 나타났다. 바디별로 조사한 결과, 춘향가는 김세종 바디, 김창환 바디, 정정렬 바디, 김연수 바디 등 4개 바디가, 심청가는 정웅민 바디, 김연수 바디 등 2개 바디가, 흥부가는 송만갑 바디와 김연수 바디 등 2개 바디가, 수궁가는 유성준 바디가 나타났으며, 적벽가는 송만갑 바디와 김연수 바디 등 2개 바디가 각각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글은 전주대사습의 명인 명창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으로,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전주대사습, 전주대사습놀이, 전주대사습놀이 명창, 전주대사습놀이 명인

〈Abstract〉

Master Singer and Master of Jeonju Daesaseup Nori

Lee, Sang-kyu

Through the Jeonju Tongin-cheong Daesaseup and the National Contest of Jeonju Daesaseup Nori, the Jeonju Daesaseup Nori produced a lot of master singers and other masters as it is well-known a way to enter to Pansori. This study analyses the overall about masters and master singers of Jeonju Daesaseup Nori from the past till the present day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shown here.

First of all, until Choseon dynasty, there were 35 master singers through the Jeonju Tongin-cheong Daesaseup and through the Jeonju Daesaseup Nori which was resurrected in 1975 produced 40 master singers. Therefore, the number of master singers is 70 in totall. Moreover, through the National Contest of Jeonju Daesaseup Nori many masters and master singers were produced; farmers music 39 teams, korean dance 38, korean instrumental music 38, shijo 39, korean folk song 34 korean archery 39 kayageum pyeongchang 30, drum for pansori 5. Consequently, as the result is shown, from the day of Jeonju Tongincheong Daesaseup till the present days, the number of masters and master singers are 337. Moreover, the number of the winner of the National Contest of Jeonju Daesaseup Nori which was started in 1975, has 302(teams)/masters and master singers.

Second of all, the average age of the winners of he National Contest

of Jeonju Daesaseup Nori is 41.2 years old. However, during the last 10 years, over 40 years old was 40%(4 people) among the winners. It shows that the age of master singers are younger and younger. Other parts, such as korean dance is 35.5, korean instrumental music is 28.6, shijo 53.0 korean folk song 33.2 korean archery 45.8 kayageum pyeongchang 37.0 drum for pansori 39.8 years old. Therefore, it was analysed that the most winners of each part is 30s years old.

Thirdly, averagely, the percentage of female masters and master singers were much higher than males, except korean archery which had only male winners.

Fourthly, among 302 masters and master singers, the highest percentage of city was Seoul 89 people (29.4%), Jeollabuk-Do 53 people (17.5%), Jeollanam-Do 42 people (13.9%).

Fifthly, among 303 masters and master singers, the people who won the competition at once was 163 people (53.1%) and the people won the competition after challenged more than twice was 139 people (46%).

Finally, master singer section in the contest, 22 part songs among 5 different episodes were sung during the final competitions; Chunhyang-ga 8 parts, Shimcheong-ga 9 parts, Heungbo-ga 2 parts, Sugung-ga 1 part, Jeokbyeoeok-ga 2 parts. Moreover, there were 2 episodes ; Chunhyang-ga and Shimcheong-ga which were sung by the most master singers and the most parts were "Okjung-ga taemok" in Chunhyang-ga episode and "Hwangseong ganeun taemok" in Shimcheong-ga episode.

I hope this study helps everyone to understand about masters and master singers of Jeonju Daesaseup Nori.

Key Word: Jeonju Daesaseup, Jeonju Daesaseup Nori, Master Singer of Jeonju Daesaseup Nori, Master of Jeonju Daesaseup Nori

【참고문헌】

국립민속국악원, 『명창을 알면 판소리가 보인다』(국립민속국악원, 2000)

이희승,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全州大私習史』(도서출판 탐진, 1992)

최동현, 『판소리 이야기』(도서출판작가,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삼화인쇄주식회사, 1999), p. 42

홍현식, 『대사습사의 전통성』(전북도립국악원 연구결과보고서, 1987)

황미연, 『전북국악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8)

이화정, 『한국 판소리 명창 제도와 내부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전주 대사습 명창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0. 2

황미연, 「전주대사습 놀이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 『낭만음악』제7권 제4호 (낭만음악사, 1995)

뉴시스 홈페이지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090601132007528>)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홈페이지

(http://www.jjds.or.kr/03award/01award.php?s_num=19&pc=0).

전주대사습놀이의 지역사적 · 사회문화사적 의의

이정덕*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전라도 무가의 판소리로의 발전 |
| II. 예술 VS 축제 | V. 지역문화로서의 대사습놀이 |
| III. 대사습이 아닌 대사습놀이 | VI.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대사습놀이에 대하여 기존의 자료를 통하여 지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는 데 적합한 몇가지 관점을 선택할 수는 있다. 대사습놀이는 개별공연의 집합체라기보다는 절기에 행해진 종합적 축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연의 집합체에서는 공연과 예술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지만 축제가 되면 축제를 매개로 한 집단적 신명이나 놀이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 즉, 접근하여 바라봐야할 주제가 달라진다. 이곳에서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이 논문은 전주역사박물관의 지원과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157).

는 대사습놀이를 판소리 공연의 집합체로서보다는 축제로서의 집단적 놀이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연희자들의 연희성도 중요하겠지만 축제적 성격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대사습놀이에서의 놀이라는 명칭은 공연이나 예술보다는 놀이로서의 집단적 흥이나 신명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축제는 축제 참여자들의 정서와 감성의 공감대가 신명을 내면서 공명하는 집단적 행사다. 축제 현장에까지 나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족이라기보다는 서민이나 민중일 가능성이 크다. 아전, 상민, 양반 등 다양한 세력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대사습놀이의 경우 신을 모시며 행하는 전통적인 축제들과 구별되어 예술적 놀이를 기반으로 집단적 신명을 자아내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신을 전면에 앞세운 신성성에 기반한 축제와는 그 성격이 다를 것임을 암시해준다. 집단적 신명을 자아내는 기제는 유파나 명창의 성음과 기법의 차이(예술적 요소)보다는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감성을 자극하는 코드였을 것이다. 집단적 감성과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경, 분위기, 소리, 몸짓, 내용 등이 다중의 참여자와 포괄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축제에서는 개인의 예술적 감상보다는 집단적 상호작용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사습놀이가 지니는 지역사적, 사회문화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대사습놀이와 관련하여 역사적 사료들이 충분히 입증할만큼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료를 매개로 한 입증보다는 위에서 제기한 필자의 관점을 매개로 한 사료들의 해석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필자의 관점에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기존 자료들을 중심으로 대사습놀이의 지역에서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II. 예술 VS 축제

초기의 예술은 주술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성을 통해 매개한다. 이미지와 행동은 실물과 행동과 서로 주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미지의 힘이란 이미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여한 정신성에 있고, 우리가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내면적인 의도, 욕구 등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욕구, 그리고 그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예술은 인간이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얻은 세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¹⁾

축제도 원래 예술처럼 주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집단성과 신성성을 기반으로 세속적인 일상생활과 크게 구분된다. 예술은 개인적이거나 일상생활과도 쉽게 혼합될 수 있지만 축제는 그렇지 않다. 집단적인 신명으로 개인적이거나 일상생활과 크게 다른 상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뒤비노(1998)에 따르면 축제는 신을 매개로 한 신성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규칙을 파괴하고 전복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조정하여 질서를 회복하려고 한다. 상징공간에서나마 현실의 거대한 전복을 시도하는 공동체가 된다. 기존의 질서는 뒤집어지고 혼돈 속에서 신과 합일하는 신명난 상태가 된다. 이를 통해 근원적 에너지가 분출하며 신이 상징하는 국가나 사회나 집단에 새로운 활력을 생성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신성성이 약화되었다라도 공동의 놀이와 즐거움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생성한다.²⁾ 예술은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예술

1) 김용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책세상, 2000), pp. 47-51

2) 이정덕, 「한반도에서의 공동체적 놀이·축제의 역사적 의미변화」, 『지식과 지평』 10호, 2011

은 개인을 초월하고 질서를 초월하거나 파괴하고 환상에 빠지는 것을 촉진한다. 예술은 축제의 매개체이지만 축제와 다르다. 판소리가 대사습놀이의 매개체이지만 둘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장 뒤비노는 놀이는 규칙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전복을 꿈꾸는 축제와는 다르다³⁾고 말했지만, 필자는 축제도 놀이의 하나로 생각한다. 축제가 꼭 전복을 꿈꾸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복 또한 놀이의 신명난 방법이다. 놀이에 규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규칙이 없을 수도 있다. 놀이는 일체감과 해방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⁴⁾ 이를 집단적으로 놀면서 느끼면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축제는 원래 신성성에 기반하지만 현대로 올수록 신성성이 약화되는 축제가 많이 생성되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신성성이 지닌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왔기 때문이다. 뒤르케임(1992)은 토템이 신성한 것은 개인을 초월한 사회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성성은 개인초월에 대한 은유로도 볼 수 있다. 현대의 축제들도 개인을 초월한 어떤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도록 하며 또한 개인을 의식하지 않고(또는 덜 하거나 비우고) 놀도록 하기 때문에 개인을 초월한다. 초자연적인 신을 직접 상상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현대의 축제도 어느 정도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축제는 예술이라기보다는 개인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신성한 행위이며 집단적 놀이이다. 지역민이 질서를 전복하면서 확인하며,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고, 공통적 세계관을 재확인하며, 일상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느끼며, 창조적인 열망과 희열을 발산하고 재창출한다. 직접 참여하여 같이 놀고 즐기며 창조적인 열기를 발산하고 결국은 집단적 놀이

3) 장 뒤비노 저, 『Fêtes et civilisations』, 유정아 역, 『축제와 문명』(한길사, 1998), p. 75

4) 로제카이와 저, 『Les jeux et les hommes』, 이상을 역, 『놀이와 인간』(문예출판사, 2006)

를 매개로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의 안정성을 재확인한다. 축제는 나의 의미와 존재를 공동체 속에서 확인하는 장소이다. 나는 축제를 통해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창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사습놀이는 연행자와 참여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상호 교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여자끼리의 상호교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복수의 관계가 동시에 총체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총체적 작동은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창조성이나 즐거움이 표출될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유된 문화코드가 폭발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역사적 사회적 양육과 생활과정을 통하여 각 개개인에 이미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현장에서 참여자들이 동시에 본능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문화코드를 같이 창조하고 해석하고 갖고 논다. 개인들에게서 이미 이러한 문화코드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사습놀이 또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며 문화코드를 같이 창조하고 해석하고 갖고 노는 과정이다.

Ⅲ. 대사습이 아닌 대사습놀이

동짓날 저녁에 전주감영과 부청에서 행해지는 놀이는 대사습이 아니라 대사습놀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하지만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1992)에서 발간한 『전주대사습사』는 이를 대사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사습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연습과 예술적 경연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대사습놀이가 지니는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심승구⁵⁾의 발표문이 보여주듯이 조선시대 후기 사습과 대사습에서 사

5) 심승구, 「전주대사습놀이의 개념과 형성과정」,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성과 문

(私)는 정식(正式)과 대비되는 사용되어 정식이 아닌 연습을 의미하였고 결국 본격적인 의식(儀式)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예행연습을 해보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전에 앞서 연습을 통해 공연이나 절차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한 준비였다. 이러한 국가의전의 공연에 동원되는 재인들에서 전라도 재인이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다.⁶⁾

전주에서 사용되는 대사습이라는 용어는 군사훈련에서 사용한 대사습이라는 용어가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사습이라는 용어가 의전절차의 연습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전주에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전라도 각 고을에서 군사훈련(시습)을 하던 군인들을 모두 모아 전주 감영에서 대규모로 군사훈련(대사습)을 할 때 대사습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대사습이 끝날 때 잡회를 벌이고 잔치를 벌여 놀았다. 밤에는 불을 밝혀 성 안이 대낮처럼 밝았다.⁷⁾ 따라서 대사습은 겨울에 행해진 군사훈련일 가능성이 높으며, 판소리를 포함한 놀이는 이 훈련이 끝나고 놀이로 행해졌기 때문에 대사습놀이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놀이가 조선말의 대사습놀이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판소리를 포함한 전주대사습의 모습은 대사습이 아니라 대사습놀이로 표현해야 정확하다. 이는 전주대사습의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공연의 장보다는 놀이의 장으로서 이해해야 더욱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놀이를 할 때도 예술성이 놀이의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술성이 관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대사습놀이에서는 예술성도 지역문화 속에서 생성되고 작동하는 놀이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화사적 의의』 학술대회 자료집, (전주역사박물관, 2014), p. 26

6) 심승구, 같은 논문, 2014, p. 33-35

7) 심승구, 같은 논문, 2014, p. 36-37

IV. 전라도 무가의 판소리로의 발전

전라도 특히 전라북도에는 판소리가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고 발전한 곳 이어서 판소리의 고향으로 일컬어진다.⁸⁾ 영정조 때 우촌대, 하은담, 최선 달 등이 판소리의 기틀을 만들었고 1800년대 초 8명창이 판소리를 발전 시켰다고 전해지며 그 중 5명이 전라북도 출신이다. 하지만 판소리와 대 사습놀이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부족해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판소리와 대사습놀이 모두 주술적인 속 성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판소리는 무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 장이 많고, 대사습놀이도 동지제에 행해져서 해가 가장 짧은 날 저녁에 불을 밝히고 노는 과정이 무의식적일 수도 있겠지만 태양운행질서와 주 술적으로 연계되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판소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설들이 있지만 무가(巫歌)와 관련되어 발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 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창이 17세기 널리 퍼지기 시작하며 시조, 단가, 장가, 잡가가 발달하 기 시작했다. 영조 이전에는 판소리가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땅재주, 판줄, 죽방 등의 놀이에 끼어 두드러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⁹⁾ 영정 조 이후 판소리가 빠르게 성장하여 가장 대중적인 음악으로 발전하였다. 판소리는 300년도 안되었지만 고려시대에도 재인이나 광대가 존재했다. 이들은 고려시대에 팔관회, 연등회의 국가 축제에 가무백회를 하였고 민 간에서 가무백회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확대된다. 각종 축제나 잔치에서 광대가 각종 소리를 한다.

8) 전주예총, 『전북예술사』(전북일보출판부, 1989), p. 99

9) 노재명,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본 판소리 참모습』(나라음악잔치 추진위원 회, 2007), p. 25

정노식¹⁰⁾은 무녀의 살풀이 굿이 남원에서 성행할 때 광대들이 이를 창극조로 부르면서 판소리의 춘향전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초창기의 명창인 하은담, 우춘대 등이 광대집안 출신이다. 춘향전으로 무당이 씻김굿을 하였는데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원혼을 위로하여 극락으로 보내는 해원사(解怨辭)는 사사조(四四調)의 서사시로도 만들어진다. 남자의 무악반주에 맞춰 무당이 노래와 춤을 통해 굿을 한다. 춘향무굿은 숙종 초인 1680년경으로 전해지며 이것이 춘향설화로 발전하였는데 당시 명창인 하은담과 최선달에 의해 판소리로 불려지게 된 것이 영조 30년경(1754년)이다. 전라도에 무당들이 동족을 조직한 단체를 신청(神廳)이라고 하고 무가(巫家) 출신만 가입하는 계(契)이다. 이들은 노래, 춤, 줄타기, 연회, 음악의 한두가지 이상 기예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고을의 재인청(화랑청, 광대청, 신청)에 예속된 연주악인들이기도 하다. 관아의 행사, 사또의 생일잔치, 장원급제 행사, 동제나 당제, 기우제 등에는 무료봉사하고 대신 납세, 병역, 부역을 면제받았다. 민간의 생일잔치, 환갑잔치, 혼인잔치에 불려가서 연주하면 돈이나 곡식을 받는다.¹¹⁾ 민가에서 행하는 고사

10) 정노식, 『조선창극사』(조선일보사, 1940), pp.12-17

노재명, 앞의 논문, 2007, p. 26에서 재인용

11) 잔치에 재인들을 불러 판을 벌이는 것이 조선후기에 전국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에서는 판소리가 등장한 이후 점차 판소리가 잔치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잔치에 노는 모습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근대 이후 재인들의 가장 큰 별이가 되는 것은 환갑 잔치, 진갑 잔치와 같은 민간의 잔치였다 한다. 환갑 잔치 전에는 하루 전에 길군악을 치고 가서, 잔치집에서 서도 잡가 등을 부르는 저녁 놀이를 한 뒤, 그 집에서 하루 잔다 한다. 다음날 아침 긴 영산 등의 삼현육각을 연주하면, 주인이 옷 입고, 상 받고, 잔 받고 등의 일을 한다. 잔치가 무리악이 기생들이 검무 등을 추면, 악기 반주를 하고, 주인 양주와 친척들의 춤에도 반주한다고 한다. 저녁이 되면 재인들의 놀랑사거리, 방아타령, 양산도 등을 부르다가 판이 좋으면, 배뱅이굿, 병신타령 등의 제담소리를 했다 한다.”(손태도, 『광대집단의 가창문화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p. 86 ; 최동현, 「한국 전통음악과의 관련성」, 『판소리의 공연예술적 특성』(민속원, 2004), p. 104에서 재인용)

곳, 셋김굿, 축원굿, 액막이굿 등을 해도 돈을 받는다. 또는 요청에 따라 삼현육각이나 가무 또는 줄타기나 농악이나 소극(笑劇)도 해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집단은 고려시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소리의 비조로 전하는 하은담은 영조시절 전주신청(全州神廳)의 대방(大房)이었고, 최선달은 도산주(都山主)였다. 이들이 무굿을 모방하여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해학과 재담이 넘치는 사사조 서사시의 극창 춘향가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들은 전주장날에 장터근방에서 무대를 가설하고 춘향가를 불렀다고 하며 사람이 구름처럼 몰렸다고 한다. 이후 권삼득과 송홍록을 거치면서 세련미가 가미되었고, 잡희형태를 벗어나 향반의 기호에도 맞도록 개선되었다. 춘향의 실상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연희되어 권삼득으로 이어지며 대중성이 강화되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¹²⁾

이와 마찬가지로 심청가도 심청무굿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심청굿에 있어서는 사설이 서민층의 일상생활 용어로 알기 쉽게 익살과 재담을 섞어 가며 표현한 데 반하여, 판소리 심청가는 다듬어진 가사로 고상한 문장이나 한자체를 많이 사용한 문어체로 만들어졌다.¹³⁾

판소리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전라도의 무부(巫夫, 세습무당의 남편)들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노래, 춤, 연주, 연희 등 여러 장르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유명한 명창인 고수관, 하은담, 염계달, 송홍록, 김계철, 송만갑 등도 신청에 소속되어 관청의 행사에 동원되었다. 판소리는 일찍부터 양반출신들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선달, 김의관(김창환), 송감찰(송만갑), 이통정(이동백), 권삼득 등 초기의 명창에 양반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¹⁴⁾ 그 만큼 판소리가 이전의 연희들에 비하여 고급으로 인식되

12) 박황, 『판소리 2백년사』(사사연, 1987), pp. 38-54

13) 박황, 같은 책, 1987, pp. 87-90

14) 최동현, 「한국 전통음악과의 관련성」, 『판소리의 공연예술적 특성』(민속원,

고 양반층에게도 호소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술적인 성격을 지닌 춘향전 씻김굿에서 주술성이 제거된 춘향가로 발전하였다. 심청굿도 주술성이 제거된 심청가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의식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주술성에 대한 약화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술성이 약화된 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주술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유교적 성향이 더욱 큰 양반층에게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논문을 읽어봐도 아직 찾아내지 못했지만 17세기, 18세기의 사회적 변화와 춘향굿에서 춘향가로의 변화는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17, 18세기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주술적 사고방식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1506년 중종반정 이후 유교의 기본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사림파들이 득세했다가 몰락했다가 다시 득세하는 과정을 거쳐 사림이 흐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황, 이이와 같이 유교적 담론이 더욱 심화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회를 재조직하면서 사림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600년대 이후 조선에서 성리학, 향교, 향약이 강화되면서 각 지역에서 유교 및 씨족질서가 더욱 강화되었다. 16, 17세기 서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선조 때에는 124개의 서원이 신설되었고 숙종 때에는 서원의 개수가 도마다 8, 90개를 헤아릴 정도가 되었다.¹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양반층은 친족과 유교의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향촌지배력을 강화시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교와 무속을 음사(淫祀)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해졌다. 많은 절을 철폐하고 그 곳에 서원을 세웠으며, 많은 당신들도 철폐되었다. 불교나 무속적 행

2004), pp. 108-109

15) 교지편찬위원회, 『전주향교지』(기창족보사, 2004), p. 111

사에 대한 비판과 억압도 증가하였다. 동제나 당산제 등에서도 무속적인 성향이 약화되고 유교적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¹⁶⁾ 이 과정에서 무속집단들도 생존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술적인 곳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지닌 다른 장르를 만들어야 할 압력도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주술성을 제거하고 해학성과 대중성을 대폭 강화한 판소리로의 전환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¹⁷⁾ 판소리가 일단 창출되면서 처음에는 시장이나 민가의 행사로, 점차 더 나아가 관청 행사의 주요 공연장르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술성이 탈색되어 양반이나 관료들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취향을 고려한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양반층에서도 널리 수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판소리의 유행은 시대적 흐름에 잘 맞았기 때문에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에는 독자적인 공연보다는 기존의 공연들 사이에 하나의 장르로 추가하여 불려졌지만, 점차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장르로 성장하였고 점차 판소리만의 공연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

16) 필자가 전주 부근인 구이면을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1600년대에 농촌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그 핵심은 친족과 사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질서의 강화이고 또한 주도 친족집단의 지역지배력 강화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절이 철폐되었고 무속적 민간신앙을 미신이라며 억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필자가 전북의 해안이나 산간지역에서도 마을공동체신앙을 조사할 때도, 당제가 제사형으로 변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3분의 1정도 되었다(이정덕 외 1999, 2002). 평야지대에서는 대부분이 제사형으로 변하였고 일제나 해방 후에 사라졌다. 이러한 유교의 강화현상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선 전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7) 이러한 변화는 사당패에서도 나타났다. 이들의 원래 명칭이 거사와 사당이어 종교적 불교집단이었으나 불교에 대한 억압으로 점차 주술적 종교적 행위는 약화되고 기예와 몸을 파는 집단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남자는 거사, 여자는 사당이라고 칭하며 “옷차림까지 변장하여 복치고 노래하며 요망스런 놀이를” 벌이는 집단이 되었는데, 임진왜란 시기에 이미 종교적 관련성을 거의 상실하고 노래, 춤, 매움을 위주로 하는 하급연예인으로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이 종교색이 탈색된 유랑연예집단으로 변한 것은 임진왜란 후로 보인다.(최동현, 앞의 논문, 2004, pp. 95-97)

소리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기존의 연예집단도 흡수하였다. 예를 들어 사당패들이 남도에서는 점차 판소리를 하는 광대집단에 흡수되었다.¹⁸⁾ 인기를 끌면서 점차 실내에서 소수를 위해 공연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창자와 고수가 어느 곳에서든 쉽게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수의 청자가 이미 판소리에 대한 심미적 안목이 크게 성장하여 있는 상태임을 보여준다.¹⁹⁾ 판소리의 독자적인 심미성이 높아지면서 전승 방식과 수련방식에서도 이전의 잡가들에서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을 거치게 된다.²⁰⁾

처음에는 서민층인 굿의 계층이 소비하였을 장르가 점차 양반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양반들의 반응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주술성이 사라지면서 유교적인 양반들의 정서에도 알맞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송만재는 판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²¹⁾

시원한 정자엔 높이 햇불이 타오르고
소리꾼과 고수는 동서로 마주 했네.
소리 듣기로야 당상보다는 당하가 좋으니
즐거움이야 못사람과 함께 한들 어떠리

위의 내용은 판소리가 정자에서 야간에 공연되었고 대체로 당하에서 공동으로 감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신분적으로 당시 판소리의 주요 관람자들이 그렇게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당상에서 듣는 신분이 양반층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최동현, 위의 논문, 2004, p. 105

19) 최동현, 「한국 전통 음악과의 관련성」, 『판소리의 공연예술적 특성』(민속원, 2004)

20) 최동현, 「소리의 학습·수련의 음향학적 특질」, 『판소리의 공연예술적 특성』(민속원, 2004)

21) 김종철, 「실전 판소리의 종합적 연구」, 『판소리연구』3, 1992, p. 95

신위도 판소리의 감흥을 시로 적었다.²²⁾ 고송염牟(高松廉牟) 4명의 성씨를 적고 이들을 모두 호남 소리꾼으로 적은 것을 보면 호남에 뛰어난 판소리 광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시는 서울의 양반들이 쓴 것으로 전주 부근에서도 대사습이나 7월 ‘연(宴)날’에 초청된 조선 최고의 소리꾼을 초청해 듣는 경우가 많았음을 상기하면 소리꾼을 초청하는 전주 부근의 양반들도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高松廉牟는 호남의 이름난 광대
미칠듯한 기쁨이 나를 詩囚에서 풀어내네.
우렁차고 강개하기는 김용운이지
荊釵記 한 마당은 천하의 절창일세.

1783년 이전에 쓰여진 유만공의 시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²³⁾ 과거 급제자가 소리꾼을 가려서 뽑아 야간에 소리를 하도록 한다. 친척, 공부 동료, 스승, 주민들이 모여서 좋은 밤을 선택하여 잔치도 하고 판소리도 듣는다.

春榜 나고 곧바로 광대를 가려 뽑아
명창을 데려다가 좋은 밤을 택한다네.
허두가 소리 마치고 연회가 벌어지니
기이하고 빼어났구나 춘향가 한 마당.

판소리는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것은 같지만 특히 서민들이 주요 소비층인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사투리, 쉼 목소리, 거친 욕설과 음란한 재담이 어우러져 있다. 해학적

22) 김종철, 같은 논문, 1992, p. 96

23) 김홍규, 「19세기 전기 판소리 연행환경과 사회적 기반」, 『어문연구』30, 1991, p. 16

이고 병신 흥내, 짐승 모방도 포함된다. 어전과 고관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과 경기에서는 맑고 고운 목소리, 교훈적인 소리, 육설과 음란 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송만재가 1810년경 자신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였음에도 한 판의 놀이를 벌일 수 없어 썼다는 시에 이미 양반가에 판소리가 널리 수용되었으며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⁴⁾

장안에선 모두들 우춘대를 말하지만
오늘날 누가 능히 그 소리 이어갈까
한 곡조가 끝나면 술동이 앞에는 천 필의 비단이 쌓이는데
권삼득과 모흥갑이 소년으로 이름 있구나.

신위가 쓴 시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바다를 이루어 계속 추임새를 넣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판소리가 이미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여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잇따라 터져 나오는 추임새소리
그 넓은 마당에 사람의 바다
이 밤에 부질없이 햇불을 켜지 마라
진작부터 초승달이 그림 끝에 걸렸으니.

판소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1800년대 중후반 여자 소리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00년대 권번은 판소리를 가르치는 핵심기관이 되면서 판소리가 더욱 널리 확산되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주, 남원, 군산의 권번에서 판소리가 중요한 교육과정이었다.²⁶⁾ 이렇게 소리꾼이

24) 최동현, 앞의 논문, 2004, pp. 109-110

25) 최동현, 앞의 논문, 2004, p. 125

여성으로 확장되었지만 이들도 무계출신들이 대부분이어서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판소리의 창조, 발전, 계승에 이르기까지 무속집단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²⁷⁾

V. 지역문화로서의 대사습놀이

『전주대사습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1992)에 따르면 대사습놀이는 고종 2년(1864) 대원군의 “단오절에 관의 주관으로 판소리 경창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거기서 장원한 명창은 상경케 하라”²⁸⁾는 명에 의해 시작하여 1905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폐쇄를 당했다고 한다. “야인시절 전주에 왔다가 판소리에 매혹된 대원군은 그 이듬해, 그러니까 고종 2년(1864) 당시에 전라감사에게 ‘단오절에 관의 주관으로 판소리 경창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거기서 장원한 명창은 상경케 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2년 5월 5일의 단오절에 제1회 전주부 통인청 대사습이 개최된 것인데.... 이방은 단오절 몇 달 전에 대사습을 공고하여 각처의 명창을 정해 시일에 모이게 하고 전라도 각 고을 수령에게 초청공문을 발송하며, 전주 성내 성외의 돈냥 있는 유지와 양민에게도 통문을 돌리면서 대방을 불러 가설무대를 설비하게 하는 등 대사습 대회의 만반준비를 당부하였다.... 누가 더 잘 하고 못한 것은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고, 따라서 출연자 중에서 출중하게 잘 부른 명창이 수천 청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우애와 같은 박수갈채로 장원이 결정되었다. 대사습에서의 장원은 임금 앞에서 소

26) 황미연, 『권변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민속원, 2013)

27) 물론 현대에서 판소리의 성격이나 담당자층이나 향유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지만 이 글은 전통사회에서의 지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글이라 현대는 다루지 않는다.(최동현, 앞의 논문, 2004, p. 11)

28)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전주대사습사』(도서출판 탐진, 1992), p. 44

리를 하게 되므로 자연히 광대로서는 일생일대 최고의 영광이 되었던 것이다.”²⁹⁾

초기에 이를 통인칭 ‘대사습’라고 부른 것은 ‘대사습’ 때 각처에서 모여든 명창들을 통인청사에 기숙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⁰⁾ ‘대사습’ 이전에는 대방이 돈벌이 목적으로 명창을 초빙하고 막걸리 한남대기 값의 입장료를 받았으나 ‘대사습’이 되면서 무료가 되었다고 한다. ‘대사습’ 이전에는 명창을 한사람씩 데려다가 소리를 했으나 ‘대사습’에서부터는 경창대회로 했다고 한다. 이방이 단오절 몇 달전부터 ‘대사습’ 공고를 하고 명창들을 모이게 하며 전라도 고을 수령들에게 초청공문을 발송하고 전주 성내외의 돈있는 유지와 양민에게 통문을 돌리고 대방을 불러 무대를 설치하는 등의 준비를 하게 하였다. ‘대사습’ 날에는 감영에서 방명록을 놔두고 돈내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적도록 하는데 각 고을 수령이나 유지나 양민들도 체면과 감사의 예의로 찬조금을 냈다. ‘대사습’ 장내의 상석에는 감사와 각 고을 수령과 관기들이 자리하고, 하석에는 유지와 양민, 맨땡에는 백성들이 수천명 운집하여 광대가 한사람씩 무대에 출연하여 장기를 자랑하였다. 박수를 많이 받으면 장원이 되었다. 장원은 임금 앞에서 소리를 하게 되므로 광대로서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³¹⁾

이 책의 앞쪽과 달리 가운데의 인터뷰 자료들에서는 ‘대사습’이 단오가 아니라 동짓날 행해졌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비슷한 놀이가 감영에서 고종의 생일인 7월달에도 행해졌음을 증언하고 있다. ‘대사습’은 동짓날의 통인놀음으로 영문(전라감영)과 본부(전주부)의 통인이 전국에서 광대를 초청하여 통인청 혹은 사정에서 광대의 소리를 듣고 놀았다.

29)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같은 책, 1992, pp. 44-46

30) 앞에 이야기 했듯이 대사습이 틀린 말이고 대사습놀이가 맞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 『전주대사습사』에서 대사습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 ’ 표시를 했다.

31)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같은 책, 1992, pp. 44-46

동짓날 야간에 5색 포묵으로 둘러치고 큰 등불을 켜며 숯불을 켜고 병풍을 쳐 소리를 하도록 했다. 양쪽에서 자기 편을 초청하여 서로 다투어 소리를 하게 했다. 옆에서는 술과 음식을 팔았다. 동지 명절로 노는 날이어서 사람이 많았다. 주로 이속, 기생, 서민이 모였다고 한다. 양반층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광대의 기량과 인기에 따라 나타나는 관중의 과다로 승리가 결정된다. 양쪽이 관중을 끌기 위해 입씨름도 하고 심하면 투석전도 벌인다. 많은 관중을 모으기 위해 실력있는 광대를 초청하는 데 힘썼고 대우도 잘해줬다. 특히 전주부에 전주 토박이 세력이 강하고 억세어 우세하였다.³²⁾

광대들은 당시 전라감영인 전주에서 대사습 판소리를 하는 것을 큰 명예라고 생각했다. 서울광대도 전주대사습 참가를 영예로 알았다. 판소리 고장이 전주여서 전주에서 소리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았다. 통인들의 사적인 놀이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판소리 취미가 있는 양반층은 이날 직접 사랑방으로 광대를 불러 판소리를 들었고 잔치날에도 불러서 들었다. 전라도에서는 마을잔치, 명절, 가절, 경사날에 판소리를 듣고 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감영에서도 고종생일날인 7월 ‘연(宴)날’ 선화당에서 수령들과 양반들이 모여들고 뛰어난 명창과 명기가 기량을 뽐냈다. 행사 후에 취미있는 양반집에 초청되어 판소리를 하게 되면 좋은 대우를 받아 양쪽으로 수입이 두둑하여 각지의 광대들이 몰려들었다.³³⁾ 하지만 ‘대사습’에서 잘못하면 낙명(落名)이 될 수 있다. “(박만순은) 전주 통인청 대사습시에 참여하여 춘향이 첫비두 이도령이 광한루 구경차로 나갈 때 (사설을 잊어 버려 실수를 하고)... 일시 낙명이 되어서 수년간 소리를 중지....”³⁴⁾하게 된다. 즉, 대사습에 참여하면 떠서 더

32)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같은 책, 1992, pp. 143-145

33)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같은 책, 1992, pp. 144-146

34) 김홍규, 앞의 논문, 1991, p. 14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명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다. 상당한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소리판이 생긴 것이다.

대사습놀이는 통인들이 주관하는데 이들은 10세 때부터 관청에 입적하여 일을 시작한다. 온갖 심부름, 잡역, 장인의 역할을 한다. 말단 관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통인들 중에서 2명을 삼번(三番) 통인으로 진급시키고 이들 중에서 육방(六房) 관리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들이 대사습놀이를 주관하였다는 것은 판소리가 원래 서민계층의 소리였음을 보여준다. 서민계층이 가난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음악적 재능에 돈과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대사습놀이나 잔치에서 판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공짜로 들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판소리의 주 소비층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인다. 그렇다면 전주지역에서 이미 판소리가 상당히 자주 행해지고 있었고, 서민들에게도 이를 들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어떠한 방식으로 판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전주 관청에서도 동짓날의 대사습놀이나 7월의 연날 행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각종 잔치나 다양한 축제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졌고 특히 판소리가 가장 광범위하게 공연된 장르로 선호되어 다양한 현장에서 판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동짓날에 대사습놀이를 하는 것은 고려시대 동짓날에 팔관회를 하였고, 그 이전에는 동지제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세계의 대부분에서 이날 긴 밤에 나타나는 악귀들을 쫓아내고 태양의 부활을 촉진하는 의례를 행한다. 팔죽과 같은 붉은색을 문앞에 걸거나 벽에 발라 악귀를 쫓아낸다. 크리스마스의 빨간색도 로마의 이러한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 전주에 있는 경기전에서도 동지제를 지내고 전주의 삼사정(三射亭)에서도 죽제(粥祭)를 지냈다. 선비집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선비들이 제사음식을 먹으며 시를 짓고 풍월을 읊는다. 서민도

팔죽을 주고 받으며 한 자리에 모여서 술잔을 돌리면 논다. “큰 잔치를 보면 대사습 잔치 같다”고 말할 정도로 대사습은 잔치의 대명사가 되었다.³⁵⁾

7월 ‘연날’ 선화당에서 공연한다. 선화당 중앙에 관찰사가 앉아 있고 좌우에서 통인이 큰 부채로 부채질하며 기생이 양쪽에 늘어서 있고 수령이 한 줄로 둘러앉아 있다. 광대는 판소리를 하고 재인은 줄타기도 한다.³⁶⁾ 나팔소리도 난다. 기녀는 여러 춤을 춘다. 야간에는 커다란 등불을 켜고 밤새 판소리를 한다. 판소리의 진미를 알고 있고 대우가 국내에서 으뜸이어서 전주에서 잔치가 있다고 하면 광대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³⁷⁾ 권삼득은 관찰사의 비호를 받으며 고을 수령들의 부름을 받아 동헌에서 소리를 하였으며, 인근의 농촌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이면 전주 다가정에 수천군중을 모아놓고 소리를 하였다³⁸⁾. 김제에서는 야산에서 하기도 한다.³⁹⁾ 모흥갑이 전주군 귀동에 살 때, 전주부 시장에 들렀다가 수천의 군중이 환호함을 보니 명창인 주덕기가 소리를 하고 있었다.⁴⁰⁾ 이는 판소리가 대사습놀이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공연되었으며 서민들에게 커다란 흥미를 일으키는 대중가요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중가수가 양반들에게도 크게 어필하여 확산되었으며, 왕족 후원자들에게도 확산되면서 임금(어진)에까지 불러가 소리를 한 것이다. 양반들은 보수를 많이 줘서 소리꾼들이 이를 선호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송홍록은) 벼슬아치 양반들의 부름에 응하여 소리를 하게되면 그 行下(사례금)는 천량금이어서, 상경한지 2년만에 수만금을 벌었다고 한다.”⁴¹⁾ 이러

35)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같은 책, 1992, p. 152

36)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같은 책, 1992, p. 150

37)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같은 책, 1992, pp. 148-150

38) 김홍규, 앞의 논문, 1991, p. 10

39) 김홍규, 앞의 논문, 1991, p. 17

40) 정노식, 『조선창극사』(조선일보사, 1940), p. 12

노재명, 앞의 논문, 2007, p. 15에서 재인용

41) 김홍규, 앞의 논문, 1991, p. 12

한 과정은 대사습놀이 등이 서민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리꾼들이 인기를 얻어 부호나 관리로부터 고액사례금을 받는 본격적인 경쟁의 장이기도 했다.

판소리가 이미 전라도에서 널리 발달되어 있었고, 광대로 대사습에 참가한 사람들에서도 전라도 사람이 가장 많았다. 청자와 소리꾼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아주 많았다. 전라북도 선유도의 별신굿에서도 가면도 쓰지 않고 판소리 광대가 출연하였다. 전라도에서는 모든 잔치와 굿에 판소리가 주를 이룬다⁴²⁾. 광대들이 춘추를 가리지 않고 농어촌을 다니며 소리를 팔았다.⁴³⁾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광대나 또랑광대들이 저임금으로 항상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소리의 시장을 찾아다녔을 것이다. 19세기 후반 소리시장이 전국적으로 커졌지만 소수의 소리꾼만 명창이나 국창으로 신분이 상승하여 소수의 고급관료나 부호들로부터 높은 개런티를 받고 초청될 수 있었다.

대사습놀이는 전주에서 가장 커다란 장소인 통인청이나 다가정에서 열렸다. 여기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도 높은 수준의 소리를 무료를 들으며 참여자들과 같이 소리에 공감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소리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갔을 것이다. 이미 많은 소리꾼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입문하여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은 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명창들도 전라도, 특히 전라북도 출신들이 아주 많았다. 『조선창극사』에서도 전라북도의 명창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 전국 80명 명창 중 39명이 전라북도 출신이다.

청중에 의해 장원을 뽑는 방식은 ‘나가수’에서 장원을 뽑는 방식과 같다. 대사습의 장원자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국민가수급인 ‘국창’이 되어 바로 대중들에게 널리 이름이 알려지게 된다. 또한 임금 앞에서 소리

42)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같은 책, 1992, p. 149

43)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같은 책, 1992, p. 156

를 하는 영예를 얻었기도 하며, 천민의 신분으로 의관, 통정대부 등의 벼슬을 받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판소리가 ‘국민가요’로서 군림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⁴⁴⁾

조선시대 말의 국민가요인 판소리는 전북에서 새로이 만들어낸 장르이어서 거의 모든 것을 전북에서 개척하고 발전시켜 갔으며, 전북에서 대사습을 통해, 시장의 장날을 통해 대대적인 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명창과 귀명창이 계속 재생산되어 조선을 선도하던 장르였다. 요즘의 나가수나 오디션처럼 창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을 관람자가 참여하여 뽑아내는 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수준도 계속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기법들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소리의 사회비판성, 예술성, 오락성이 더욱 발전했다.⁴⁵⁾ 처음에는 서민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장르였지만 신재효의 개작과 수도권에서의 변화로 양반층과 고관대작에게도 호소력을 지닌 것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선호하는 장르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주부근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대사습을 매개로 한 판소리 중심지로서의 자부심과 집단정체를 형성시켰을 것이다. 즉 동짓날인 대사습이나 7월 ‘연날’ 뿐만 아니라 단오제나 다른 절기나 장날에도 소리가 행해졌기 때문에, 또한 각종 개인적인 잔치 등에서도 판소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대사습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음악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부심과 실제 수준 높은 해학성과 오락성, 그리고 감성과 전주부의 대립적 구조는 대사습놀이를 신명나는 축제로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적인 판소리 취향이 지역적 특색으로서 선순환 발전했다. 대사습놀

44) 권은영, 「전주대사습놀이, 서바이벌 오디션의 원조」, 『열린전북』 6월호, 2012.

45) 박진아, 「스타대전 저그 초반러쉬 대목」을 통한 창작판소리의 가능성 고찰, 『판소리연구』21, 2006, p. 376

이가 행해지고 지역적으로 여러 관행과 맞물려 실천되면서 지역의 문화 코드로서 같이 창조하고 해석하고 놓고 그에 대한 관심과 교육과 연습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의 과정이 작동되어 조선시대 말 창자와 귀명창의 수준이 선순환되어 상향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따라서 대사습놀이는 집단적 무게를 지닌 지역사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전통성, 진정성, 공동체성, 신성성, 신명성을 지니는 핵심적인 지역축제로서 신명나는 집단적인 놀이로 성장하였다. 동지와 결부되어 악귀나 사기(邪氣)가 넘치는 긴 밤을 즐겁게 넘기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기를 극복하고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져 양기(陽氣)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놀이이지만 어느 정도 신성성을 지닌 축제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인이나 서민 중심의 대사습을 통해 판소리의 일부에 깊숙이 배어 있는 사회질서의 비판적인 내용에 공감하면서 일시적이지만 사회를 고쳐야 한다는 해방감과 일상탈출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적 희열의 공간으로서도 작동했을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대사습놀이는 질서를 전복하면서 확인하며,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고, 공통적 세계관을 재확인하며, 희열을 발산하고 재창출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놀이를 매개로 지역공동체에의 소속감과 자부심 다시 말하면 나의 의미와 존재를 공동체 속에서 확인하는 장소로서도 기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제들이 일제의 침략과 간섭으로 대사습 폐지와 함께 사라지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절망을 넘어서 분노로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자와 귀명창의 수준이 선순환되어 상향되는 과정이 19세기까지 작동했고, 그러한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그리고 1975년부터 대사습놀이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 이전보다 지역과의 연계감이나 자부심과 열정은 감소하였지만, 전주는 다른 지역보다 귀명창이나 국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도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더

재미있고 신나는 장르들이 급증하면서 판소리의 영향력도 줄고 있어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Ⅵ. 나가는 말

신성성을 어느 정도 지닌 주술적인 굿과 굿판(단오제 등)에서 판소리와 예술적 축제인 대사습놀이가 전주에서 만들어져 조선말기와 일제초기에 조선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악장르로 부상하였지만 이후 점차 약화되면서 이제 음악 전체가 아니라 국악만의 대표장르로서 유지되고 있다. 서구화가 이루어지고 서구적 장르들이 부상하면서 판소리가 지니는 전통이라는 무게와 진정성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관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의 시대를 초월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전통성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에 우리는 주목하고 따라서 이를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통상징으로 만들고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의 음악은 서구의 음악에 의해 철저히 절단되었다.

여름에 이탈리아에 여행을 간 적 있었는데 조그만 도시들까지 음악축제를 해도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였다. 도시나 산성 등, 가는 곳마다 음악회나 오페라를 한다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로마에서는 고대의 대목 육장이나 황제 별장에서 공연을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장이라고 알려진 베로나에 갔을 때는 로마시대의 원형경기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오페라를 공연하고 있었다. 아이다를 공연하고 있어 관람을 했는데 정말 사람이 가득했다. 15,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었다. 밤 10시에 시작하여 밤 1시쯤 끝났다. 그런 공연이 2달 정도 쭉 이어진다고 한다. 정말 대단한 오페라 열기였고 사랑이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재미도 없고 지

루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다.

오페라도 종교음악에서 분리되어 나온 음악이다. 1597년 처음 상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중세음악에서 독립하여 종교적 성격은 사라지고 극적인 요소가 강화되었다. 17세기 중반 베네치아에 오페라극장이 생기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갈수록 종합예술작품의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노래에 이야기와 연극을 섞어서 더 쉽고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발전해온 것이다. 19세기에는 좀 더 가볍고 재미있는 코믹오페라, 오페레타로 발전하였다. 미국으로 건너가 20세기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미국적 분위기에 맞추어 더 대중적이고 더 쉽게 전달되는 이야기와 노래와 춤을 통해 뮤지컬로 발전하여 세계로 퍼졌다.

한국사람들에게는 한국적 감성을 전달하는데 한국장르가 더 뛰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한국장르가 소외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노래, 이야기, 연극이 어우러진 창극이나 판소리가 있지만 오페라나 뮤지컬에 비하면 관심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지역적 역사와 지역적 전통의 무게가 서구의 장르에 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역사를 같이 해와도 우리 스스로 서구 것이 더 발전했다고 대부분이 믿으면 취향이 자꾸 그쪽으로 옮겨간다. 지역과 역사의 무게는 서구의 것을 더 좋고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초라해진다. 지역과 역사의 무게가 우리에게 의미를 지니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이 더 좋고 더 낫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최초의 각인이 평생을 간다.

주제어 : 대사습놀이, 판소리, 무가(巫歌), 세속화, 집단놀이, 경연대회, 동지(冬至)

〈Abstract〉

Socio-cultural Meanings of Daesaseup Play in Local Context

YI, Jeong-Duk

Daesaseup (big training exercise) has been interpreted usually as a collection of pansori (traditional vocal art) performances. I want to interpret it not as a collection of performance but as a communal play. To understand it as a communal play requires to focus more on the aspects of communal play rather than on individual singers or their performances. In communal play, collective fun should be more emphasized than the quality of individual pansori singers' performances. Of course, the collective fun is closely related to the quality of performance. However, collective fun and art quality are working on different levels. This paper is focusing on collective fun rather than on art quality.

The original term is not Daesaseup but Daesaseup Play. Many scholars misunderstand Daesaseup as a correct term. But Daesaseup originally meant big training exercise for military action. Pansori performance was not a part of Daesaseup but a part of Daesaseup Play. That is, pansori is not a part of big training exercise but a part of play after big training exercise. This means that collective fun is more important than singing exercise. In order to stimulate the collective fun and inspiring, not only the quality of performance but also the mood, sound, interactions, gestures of the play should be interacted among the

spectators. These interactions between singers and spectators and among spectators were the major part of Daesaseup Play.

Pansori was evolved from the ritual singing of Shamans in Jeolla province. Pansori singing became a dominant art genre through 17, 18th centuries because they appealed to secularized confucian followers. Confucianism became more against Shamanism and Buddhism from 16, 17th centuries. They enjoyed more secularized genre of arts and the ordinary people also followed it. Jeonju local government had an office for players who could perform rituals and/or give fun to mayors and governors. Landowners and new officials also invited them to play for the celebration of birthday, high official examination pass, or communal events. Pansori singers also sang in markets for money. Hundreds of people gathered to listen to famous pansori and paid some money or rice. There was a big market for pansori among not only the nobles but also the ordinary in Jeolla province whose capital was Jeonju. Pansori was often performed in the evening with torches. Many Confucian followers expressed their touching mind in poems.

Daesaseup Play might begin as a evening entertainment or play to console soldiers and officials after a big military exercise. Somehow, Daesaseup Play became an independent entertainment which process we don't know yet. It became a competitive play between singers invited by Jeonju city officials and singers invited by Jeolla provincial officials. If they draw more spectators, they win the play. The winning part got a great honor over the loser. It became the major entertainment festival for Jeonju citizens in the evening of winter

solstice day. I think the hidden meaning of the play is to overcome the possible dangers of shortest sun-light day with torches and plays which could expel the bad spirits and ghosts. People also ate red bean porridge and paste them on walls to expel bad spirits. This supernatural belief should intensify their fever and immersion into the Daesaseup Play.

Key Word: Daesaseup Play, Pansori, Shaman sing, secularization, collective fun, communal play, competition, winter solstice day

【참고문헌】

- 교지편찬위원회, 『전주향교지』(기창죽보사, 2004).
- 김용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책세상, 2000).
- 노재명,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본 판소리 참모습』(나라음악잔치 추진위원회, 2007).
- 에말 뒤르케임 저, 『(Les) formes ele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le systeme totemique en』, 노치준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민영사, 1992).
- 장 뒤비노 저, 『Fêtes et civilisations』, 유정아 역, 『축제와 문명』(한길사, 1998).
- 박 황, 『판소리 2백년사』(사사연, 1987).
- 손태도, 『광대집단의 가창문화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이정덕, 서해숙, 『전북 서해안지역 마을공동체 신앙』(전북대학교 박물관, 1999).
- 이정덕, 서해숙, 이상훈, 이종진, 『전북 산간지역 마을공동체 신앙』(전북대학교 박물관, 2002).
- 전북예총, 『전북예술사』(전북일보 출판부, 1989).
- 전주대사습보존회, 『전주대사습사』(도서출판 탐진, 1992).
- 정노식, 『조선창극사』(조선일보사, 1940).
- 로제 카이와 저, 『Les jeux et les hommes』, 이상을 역, 『놀이와 인간』(문예출판사, 2006).
- 황미연, 『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민속원, 2013).
- 권은영, 「전주대사습놀이, 서바이벌 오디션의 원조?」, 『열린전북』 6월호, 2012.
- 김중철, 「실전 판소리의 종합적 연구」, 『판소리연구』 3, pp.87-153,

1992.

김홍규, 「19세기 전기 판소리의 연행환경과 사회적 기반」, 『어문연구』 30, pp.1-42, 1991.

박진아, 「‘스타대전 저그 초반러쉬 대목’을 통한 창작판소리의 가능성 고찰」, 『판소리 연구』21, 2006, pp.353-379.

심승구, 「전주대사습놀이의 개념과 형성과정」,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성과 문화사적 의의 학술대회 자료집』, 전주역사박물관, 2014, pp. 21-38.

이정덕, 「한반도에서의 공동체적 놀이·축제의 역사적 의미변화」, 『지식과 지평』10호, 2011

최난경, 「오수암의 생애와 예술」, 『판소리학회 제36차 발표논문집(전북대 인문대)』, 2001, pp. 657-679

최동현, 「한국 전통음악과의 관련성」, 『판소리의 공연예술적 특성』(민속원, 2004), pp. 91-135.

최동현, 「소리의 학습·수련의 음향학적 특질」, 『판소리의 공연예술적 특성』(민속원, 2004), pp. 137-161.

전주대사습놀이 의 과제와 발전방향

심인택*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전주대사습놀이 현황과 과제 - 36회(2010)~40회(2014)
- III. 전주대사습놀이의 축제성 행사 - 37회(2011)~40회(2014)
- IV. 전주대사습놀이 발전을 위한 제언

I. 들어가는 말

2014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제40회를 맞이하면서 경연대회와 축제가 잘 어우러지는 한 판의 장으로 맞이하였다.

2010년 제36회까지는 경연대회 중심의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본선: 실내체육관)로 진행되었으며, 2011년 제37회부터는 경연대회(본선: 경기 전 대숲무대)와 축제를 한옥마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혹자는 사람이 모여드는 한옥마을에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축제를 여는 것은 “청중을 찾아다니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파격적으로 외형을 바꾸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전

* 우석대학교 국악과 교수

주 한옥마을의 발전이 이러한 전국대회 진행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2011년 제37회 이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축제와 더불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4년간의 평가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각 지역 각 분야의 경연대회 또는 축제는 그 지역과 그 분야의 생산성을 확대하고 축제의 상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펼쳐지고 있는 우리음악문화와 관련된 경연대회는 약 200여 대회가 있다고 한다. 이 경연대회에서 수상하고 있는 상으로 2014년도에는 대통령상 28곳, 국무총리상 17곳, 장관상 172곳이라고 하며, 통계에 기록하지 못한 경연대회를 합하면 더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우리음악과 관련된 중요한 경연대회를 보면 아래와 같다.

- * 1965년 ~ / 충북 영동 난계기념사업회 전국시조경창대회개최(현 47회)
- * 1967 ~ 1973년 / 5·16기념사업회 가야금부문 5·16민족상 / 학생
- * 1975년 ~ / 충북 영동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현 40회) / 학생 → 일반
- * 1975년 ~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현 40회) / 일반 → 학생
- * 1981년 ~ / 국립국악원 온나라국악경연대회(현 34회) / 학생 → 일반
- * 1985년 ~ / 동아일보사 주최 동아국악콩쿠르(현 30회) / 학생 → 일반

현재 우리나라는 경연대회와 축제행사로 봄부터 가을까지 북적대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구분하여 보면 어느 행사는 철저히 경연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어느 행사는 축제에 초점을 맞추고 경연대회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행사는 경연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축제를 곁들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경연대회의 실황을 TV로 중계하

는 경우도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경연대회로 시작하여 현재는 축제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경연대회의 본선은 전주MBC가 전국에 생방송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연대회>의 목적은 훌륭한 연주자를 발굴하는데 있으며, <축제>의 목적은 축제의 ‘주제’에 의한 확대 재생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훌륭한 연주자를 발굴하는 경연대회는 훌륭한 연주자를 발굴하는 과정이 목적 이상으로 중요하며, 축제는 축제행사를 통하여 축제의 ‘주제’를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시작을 18세기 조선 숙종시대라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1975년 이후 현재까지 40년의 전통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전통은 40여년 동안 우리나라 각 지역과 각 단체에서 많은 경연대회를 열리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전주대사습놀이의 정통은 매년 전주대사습의 장원으로 선정된 명인 명창들의 활약을 통하여 우리음악의 저변을 크게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대사습놀이는 전주지역의 경연대회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대회인 것이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매년 전주대사습놀이가 끝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점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관심과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 본다. 어떠한 국내의 대회라도 또는 국제적인 대회라 하더라도 항상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현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발전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회요강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

선점을 논의하고자 하며, 이 논의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고자 한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이하 전주대사습놀이)가 일반인들에게는 축제성 행사를 통하여 마음껏 즐기도록 하여야 하며, 전공자들에게는 경연대회를 통하여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평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안은 필자의 생각과 함께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Ⅱ.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현황과 과제 - 제36회(2010)~제40회(2014)

1.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일정 현황(2010~2014년)

전주대사습놀이 일정 현황(2010~2014년)을 보면 6월 초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단오절과 현충일을 고려하여 가급적 금·토·일·월요일로 대회일정이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대사습놀이가 전국적인 대회이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 경연대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회 일정은 1년 전 또는 당해년도 홍보물에 내년도의 일정을 발표하여 경연자가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회(2010)	6월 14일(월)	6월 15일(화)	6월 16일(수)	
37회(2011)	6월 11일(토)	6월 12일(일)	6월 13일(월)	
38회(2012)	6월 8일(금)	6월 9일(토)	6월 10일(일)	6월 11일(월)
39회(2013)	6월 7일(금)	6월 8일(토)	6월 9일(일)	6월 10일(월)
40회(2014)	6월 7일(토)	6월 8일(일)	6월 9일(월)	

* 38회(2012)부터 학생전국대회(32회)를 함께 개최

2.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참가자 현황(2010~2014년)

전주대사습놀이 참가자 현황(2010~2014년)을 보면 많은 경연자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농악부(단체)와 궁도부의 참가자를 제외하면 전체 참가자가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 점은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개인 경연 부문의 경우는 참가자의 음악적 기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가자의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관계기관에서는 참가자의 숫자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한다. 사실은 각 부문에 누가 경연대회에 참가하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연 대회의 예선, 본선 진행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0 (36회)	2011 (37회)	2012 (38회)	2013 (39회)	2014 (40회)
관소리명창부	11	8	14	9	13
농악부	4(164)	7(308)	7(317)	9(406)	7(323)
기악부	37	31	17	40	26
무용부	26	15	25	22	21
민요부	17	19	15	10	8

	2010 (36회)	2011 (37회)	2012 (38회)	2013 (39회)	2014 (40회)
가야금병창부	12	13	18	10	12
시조부	68	41	48	52	48
판소리일반부	11	18	20	10	11
명고수부	18	12	10	7	8
궁도부	210	220	192	232	197
계	414팀 (574명)	384팀 (684명)	366팀 (676명)	401팀 (798명)	351팀 (667명)

3.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각 부문 심사위원 현황(2010~2014년)

전주대사습놀이 각 부문 심사위원 선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부분이다. 전체 심사위원 수는 경연대회 10개 부문에 7명씩 70명의 심사위원과 학생전국대회 9개 부문에 5명씩 45명의 심사위원을 합해 11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는 명고수부의 명창 선정까지 합하면 약 120명이 넘는 인원이다. 심사위원들을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심사와 숙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은 그야말로 매시간 진행자들에게 긴장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각 부문 심사위원 선정은 각 부문의 경연자 신청 마감 후 경연자의 약(경)력을 조사하여 가급적 경연자의 사제관계와 가족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엄격하게 심사위원 선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경연 신청자 접수 마감 전에 심사위원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심사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말하지 말아야한다.

〈판소리 명창부〉

36회(2010)	조소녀	이명희	김수연	송순섭	왕기철	정희천	전인삼
37회(2011)	신영희	전정민	김영자	성창순	정화영	정철호	최종민
38회(2012)	최승희	조통달	안숙선	성창순	유영애	정희천	김기형
39회(2013)	신영희	박계향	김수연	이순단	왕기철	이난초	최종민
40회(2014)	김명신	김일구	왕기석	성창순	유영애	조영자	유영대

〈명고수부〉

36회(2010)	이성근	주봉신	최승희	추정남	배영배	김명신	김경숙
37회(2011)	정홍수	임청현	권혁대	이원태	윤진철	송재형	조용안
38회(2012)	김청만	신호수	전유찬	이상호	서장식	조용수	김규현
39회(2013)	이성근	정화영	나연주	송호종	박근형	최우철	조용안
40회(2014)	정홍수	나재순	임청현	주봉신	김규형	x	x

〈농악부〉

36회(2010)	최종실	최익환	정철기	유지화	이대휴	임응수	김현선
37회(2011)	정인삼	김홍수	최종실	김병천	이광수	신만중	김호규
38회(2012)	지운하	김용래	이궁조	임광식	김수기	최병삼	이용식
39회(2013)	정인삼	김창기	손영만	박종환	라금추	방승환	변미혜
40회(2014)	김오현	김용수	박태주	이경화	이광수	임응수	이용식

〈기악부〉

36회 (2010)	강호중 (피리)	임경주 (가야금)	한상일 (피리)	최상화 (대금)	정화영 (타악)	김무경 (아쟁)	박대성 (아쟁)
37회 (2011)	김종섭 (피리)	문재숙 (가야금)	문동옥 (대금)	송부익쇠 (대금)	우종량 (해금)	김무길 (거문고)	김한승 (아쟁)
38회 (2012)	한상일 (피리)	양승희 (가야금)	지성자 (가야금)	이화동 (대금)	이재화 (거문고)	김무경 (아쟁)	이태백 (아쟁)
39회 (2013)	최경만 (피리)	양승희 (가야금)	이생강 (대금)	박용호 (대금)	김정림 (해금)	김무길 (거문고)	김한승 (아쟁)
40회 (2014)	강영근 (피리)	곽은아 (가야금)	김경애 (대금)	이철주 (대금)	이재화 (거문고)	김무길 (거문고)	이태백 (아쟁)

〈무용부〉

36회(2010)	이미숙	이주희	최윤희	김정민	김삼진	천명선	김광숙
37회(2011)	김연자	채향순	김은경	홍진희	김묘선	문정근	정명자
38회(2012)	정재만	박경란	양선희	이길주	김삼진	천명선	한영자
39회(2013)	국수호	채향순	최윤희	채상묵	한명옥	박광자	강덕숙
40회(2014)	김연자	박종필	심가희	정명숙	조홍동	최창덕	한혜경

〈민요부〉

36회(2010)	황용주	김경배	유 창	김광숙	이호연	김영임	남궁랑
37회(2011)	전숙희	한영순	이순희	한진자	김명순	김혜란	최우칠
38회(2012)	김금숙	김경배	유 창	노경미	이호연	조영자	남궁랑
39회(2013)	김혜란	김경배	최영숙	한진자	박윤정	임정란	서한범
40회(2014)	김금숙	박종영	유 창	이금미	이호연	정재경	윤중강

〈가야금 병창부〉

36회(2010)	강길려	강정열	이영애	박애숙	이영신	정명희	조영자
37회(2011)	강정숙	윤소인	이영희	이영신	김향순	황승옥	이성근
38회(2012)	강미선	강정열	강정희	문명자	정경옥	박옥희	이임례
39회(2013)	강정숙	안옥선	이영애	박애숙	표윤미	박혜련	윤중강
40회(2014)	강미선	강정열	강정희	문명자	정경옥	황승옥	지성자

〈판소리 일반부〉

36회(2010)	성준숙	이종달	김차경	이세정	김세미	남궁정애	김전이
37회(2011)	유영애	유수정	김경숙	김정애	한정아	김소영	이옥천
38회(2012)	이순단	김명신	김차경	김금미	김세미	임화영	주호중
39회(2013)	유영애	왕기석	송재영	김정애	한정아	김미숙	김미정
40회(2014)	이순단	정의진	전예주	김화자	고향임	방성춘	신영자

〈시조부〉

36회(2010)	김금과	김영희	이홍재	이종록	신은희	박기자	김종옥
37회(2011)	조창훈	황규남	김영기	문 현	박승규	하주화	김일래
38회(2012)	김호성	이오규	오종수	변진심	조영숙	심성자	서현숙
39회(2013)	조창훈	서정희	허화열	신윤희	정인경	이정규	김종옥
40회(2014)	김경배	엄장섭	오종수	한자이	조영숙	장영이	김창선

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예선장소(2010~2014년)

전주대사습놀이 예선 장소는 경연자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경연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경연장에 대하여 주최측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 부분은 경연자가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주최측에서는 각 부문별로 똑같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경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다. (간혹 경연자 중에는 사전에 경연장소를 확인하기도 한다)

10개 부문 중 대부분은 실내 경연 부문으로 볼 수 있으며, 농악부와 궁도부는 실외 경연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악부의 경우 야외보다는 실내체육관이 경연자들에게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상변화에 부담이 없고, 경연 중 타 단체의 소리를 줄여 줄 수 있으며, 바닥이 일정하기 때문에 동작과 동선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실내 부문의 경우에 경연자는 무대의 유무, 무대의 면적, 심사위원과의 거리, 청중과의 거리, 분장실(대기실)의 유무 등 상황에 따라 경연자 자신이 어떻게 적응하여야 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 부문의 예선 경연장소가 각 경연 부문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다.

예선은 본선보다도 더 큰 부담이고, 현행 제도는 예선에서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예선은 경연자와 심사위원에게는 본선보다도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본선 진출자를 각 부문별로 3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연의 공정성과 긴장을 위하여 본선 진출자를 5명으로 하는 것이 경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6회 (2010)	37회 (2011)	38회 (2012)	39회 (2013)	40회 (2014)
관소리 명창부	덕진예술회관	소리문화관	공예품전시관	소리문화관	소리문화관
농악부	전주실내 체육관	풍납초등학교 운동장	덕진공원	덕진공원	덕진공원
기악부	덕진구청강당	최명희문학관	동락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전통문화전당
무용부	전주MBC 공개홀	한벽극장	한벽극장	한벽극장	한벽극장
민요부	덕진예술회관 극단실	소리문화관 (지하)	전통문화연수원 (동헌)	동학혁명 기념관	전통문화연수원 (동헌)
가야금 병창부	덕진예술회관 극단실	한옥생활 체험관	한옥생활 체험관	한옥생활 체험관	한옥생활 체험관
시조부 (예선,본선)	전주시청 강당	중앙초등학교강당	동학혁명기념관	동학혁명기념관	전통문화연수원 (고택)
관소리일반 (예선,본선)	삼성문화회관 (건지홀)	한옥체험관	공예품전시관	소리문화관	한국전통 문화전당
명고수부 (예선,본선)	여성교육 문화센터	전통문화연수원 (동원)	한벽극장	한벽극장	전통문화연수원 (동헌)
궁도부 (예선,본선)	천양정	천양정	천양정	천양정	천양정

<실내> 한벽극장 6, 한옥생활체험관 4, 한국전통문화전당 3, 동학혁명 기념관 3, 공예품전시관 2, 덕진예술회관 극단실(지하) 2, 덕진예술회관 공연장, 전주실내체육관, 전주시청강당, 덕진구청강당, 중앙초등학교강당,

최명희문학관, 동락원, 전주MBC 공개홀, 소리문화관(지하분장실),
전통문화연수원(고택), 삼성문화회관(건지홀), 여성교육문화센터.
<실외> 천양정 5, 전통문화연수원(동헌) 4, 덕진공원 3, 소리문화관 3,
풍남초등학교운동장.

5.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본선 장소 (2010~2014년)

전주대사습놀이 본선 장소는 전주대사습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2010년까지는 실내체육관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경기전에 특설무대(대숲무대)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수년 동안 실내체육관에서 본선을 진행할 때 청중이 점점 적어지는 점을 항상 걱정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연대회에 청중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청중이 적은 것보다는 청중이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주변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주대사습놀이는 “축제성 경연대회”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만약에 좀 더 많은 청중이 함께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첫째, 본선 경연 장소를 실내(예:연지홀, 모악당)로 옮기고, 둘째로 경연시간을 퇴근(퇴교)시간 이후로 정하면 국악관련학교와 일반학교 및 사회에서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경기전에서 낮에 본선을 하게 되면 청중은 경연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각 부문 전공에 따른 선후배 정도이고, (소음문제, 질서문제 등등 문제가 많은데 왜 본선 경연(실외)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지가 궁금하다.) 나머지 청중은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로 밖에 볼 수 없다. (불특정 다수가 경연대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2011년 이후 경기전 특설무대(대숲무대)의 본선 경연대회를 보면서 “청중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청중들은 누구인가?”에 궁금증만 갖고 돌아오게 된다.

본선 경연자 입장에서는 실내체육관보다 한가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기상변화이다. 바람은 어느쪽에서 불고 있는 것인가. 12시 이후 본인이 경연을 시작할 때 해의 위치가 어느 방향에 있는 것인가는 경연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머지 문제는 실내체육관과 별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실내체육관이 없을 때는 당연히 마당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실내체육관보다 더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도 무슨 이유로 “실내체육관이나 경기전 무대에서 경연을 하는 것인가”이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이나 경기전에서는 경연자와 심사위원의 거리가 멀어서 심사위원석 앞에 TV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음향기기 사용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사회자의 멘트가 경연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 고민하여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전주대사습놀이의 본선 경연장소는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여야 할 부분이다.

횟수(년도)	36회 (2010)	37회 (2011)	38회 (2012)	39회 (2013)	40회 (2014)
장소	전주실내 체육관	경기전 대숲무대	경기전 특설무대	경기전 특설무대	경기전 대숲무대

6.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경연시간과 경연내용 (2010~2014년)

〈경연시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요강의 경연시간을 보면 예선, 본선 모두 <0 ~ 00분 이내> 로 되어 있고, 주의 사항에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다. 판소리명창부의 경우 “30분 이내” 라고 한다면 경연자는 몇 분짜리로 판을 짜야 하는지, 기악부의 경우 “7분 이내” 인데 ‘진양조’만 연주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짧은산조’를 연주하라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예선경연을 보면 경연 시작 전에 진행자가 경연자에게 어떻게 준비하라는 안내가 있으나, 이 또한 급작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선 진행에 있어서 예선경연시간과 경연방법은 각 부문 심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는 심사위원의 권한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심사에 있어서 요강에 안내한 대로 경연시간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음” 이라는 문구를 넣어 대회의 분위기를 흐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연자는 요강에서 안내한 대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대회 당일 예선 몇 분 전에 경연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대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첫번째 경연자는 매우 당황스럽다.)

현행제도에서 경연시간을 정한다면 판소리의 경우 예선, 본선은 25 ~ 30분으로 명기하여 경연자가 준비한 만큼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징을 치는 것도 부끄러운 점이다.)

예를 들어 2014년 판소리명창부의 경우 예선 경연자가 13명이므로 총 진행시간은 390분이 소요된다. 약 7시간 정도이다. 기악부의 경우 예선 경연자가 26명이므로 총 진행시간은 182분이 소요된다. 약 3시간 정도이

다. 여타 각 부문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훌륭한 경연대회라면 요강에서 요구한 경연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경연대회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강변은 전주대사습놀이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제36회 전주대사습놀이까지 참가 부문 중 판소리명창부와 농악부는 예선, 본선 경연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였고, 2011년 제37회부터는 30분 이내로 다시 정하였으며, 2010년까지 판소리일반부 10분 이내, 명고수부 10분 이내를 2011년 37회부터는 판소리일반부 20분 이내, 명고수부 15분 이내로 정하였다. 이는 대회를 좀 더 알차게 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경연시간으로 보인다.

또한 가야금병창 부문도 2011년까지는 6분 이내, 2012년에는 7분 이내, 2013년부터 다시 6분 이내로 경연시간을 정하고 있다.

〈예선 경연 시작 시간〉

예선 참가자는 “예선 당일 9:00에 각 행사장에 집결 후 경연순서를 추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9시에 추첨을 하고 대략 9:30이나 10:00에 경연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연자는 오전에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기에 신체리듬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성악의 경우는 기악보다도 컨디션 조절에 더 부담이 있으리라 본다.

예선 경연은 오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연대회도 오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경연자가 최상의 기량으로 경연을 하기보다는 대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다른 부문과는 달리 기악부의 경우는 각 전공 악기별로 경연 순서를 추첨하여야 하는데, 현재 이렇다한 구분도 없이 경연에 참가하는 각 악기를 제각기 추첨하여 경연에 임하다보니 심사의 기준과 변별력이 떨어

어질 수 밖에 없고, 경연자들도 짜증나는 일이다.

경연시간은 예선이든 본선이든 오후에 시작하여야 하고, 기악부는 각 전공악기별로 경연 시작 추천 번호를 정하여야 한다.

〈경연 내용〉

판소리 명창부는 예선에서 본인이 신청한 바탕소리 중 한 대목을 추천 하게 되어 있고, 본선에서는 자유곡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선에서 자유곡 만큼은 경연시간을 꼭 지켜서 기량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본선마저도 약 15분 정도에 징을 치고 만다. 그리고 본선 자유곡이 예선에서 신청한 바탕소리의 대목도 가능하고, 다른 바탕소리의 대목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판소리명창부와 기악부를 제외한 각 부문은 예선곡과 본선곡을 달리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소리명창부도 예선곡과 본선곡은 서로 다른 바탕소리의 대목으로 경연을 하는 것이 전주대사습놀이의 위상에 맞다고 볼 수 있다.

기악부의 경우는 참가 악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대개 경연대회의 악기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전주대사습놀이에서는 어떠한 악기도 산조를 연주한다면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예선, 본선의 경연곡을 ‘기악산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곡(류)으로 예선, 본선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악기의 산조는 대략 25~60분 이상을 연주하는데, 전주대사습놀이 경연대회에서 산조를 7분 연주하도록 하고, 예선 본선을 같은 곡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선 본선의 경연시간이 7분이라면 ‘진양조’만 연주하기도 그렇고, ‘짧은산조’를 연주하기도 그렇고, 사실 경연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문제이다. 전주대사습놀이의 기악부는 적어도 예선 본선 모두 10~12분정도의 짧은

산조가 적당하며, 예선과 본선곡은 다른 류의 산조를 연주하여야 그 위상이 정립되리라 본다.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에 출전하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산조를 연주할 수 있는 기량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악부의 경연 참가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통합 기악부’라는 점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렇다고 각 악기를 따로 경연하는 것도 주최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관·현으로 나누는 것도 부담이고, 찰현(해금·아쟁), 공명(대금·피리), 타현(가야금·거문고)으로 나누는 것도 부담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기악부의 경연은 다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 밖에도 각 부문의 경연 내용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가 자격〉

대회 요강을 보면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해외 교포로서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 되어있고 단, “판소리 명창부는 만 30세 이상으로 판소리 5바탕 중 1바탕 이상 완창이 가능한 자”로 되어 있다.

문제는 “완창이 가능한 자”이다. 이는 완창 발표회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완창 발표회를 안했지만 완창이 가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완창발표회를 하였다면 어느 한 바탕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한 바탕 중 부분 완창도 가능한 것인지도 판단이 어렵다. 또한 완창에 관한 자료 제출도 없는 것 같고, 이에 대한 심사 기준도 없는 것 같다.

전주대사습놀이에서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판소리명창부의 참가 자격을 아래와 같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 30세 이상으로 2바탕 이상 완창발표회(전바탕)를 갖춘자.
- (2) 완창발표회는 3년 또는 5년 이내의 발표 경력을 인정한다.
- (3) 완창발표회 인쇄기록물과 발표 영상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상물에 대하여 심의한 후 참가 유, 무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참가자격을 조금 어렵게 하면 참가자가 없다고 한다.)

〈경연 반주〉

각 부문 경연의 장고와 북 등은 참가자가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시조부에서 장고 반주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나, 그래도 집고(장고)는 주최측에서 준비할 필요는 없다.

* 36회 고수 및 악기는 반드시 경연 참가자가 동반해야 함

* 37회 고수 및 악기는 경연 참가자가 동반해야 함

(민요부는 창자가 장단을 쳐도 무방함, 시조부는 지정고수 있음)

* 38회 고수 및 악기는 경연 참가자가 동반해야 함(시조부는 집고 반주 있음)

* 39회 고수 및 악기는 반드시 경연 참가자가 동반해야 함

(판소리 일반부, 시조부는 지정고수 있음)

* 40회 고수 및 악기는 경연 참가자가 동반해야 함(시조부는 집고 반주 있음)

〈창작곡 금지〉

언젠가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창작곡 없이 어떻게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는 각 부문 경연에 지정곡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차한 문구를 넣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선, 본선에서 각 부문 별로 경연곡을 지정곡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작곡 금지의 안내문은 표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남도민요(안)〉

우리나라에서 민요는 크게 경서도민요와 남도민요로 대변할 수 있다.

2012년 38회 전주대사습놀이 민요부에 남도민요가 새로 추가 되었다가 2013년도 39회부터 다시 남도민요를 제외하고 있는데, 경서도민요와 남도민요를 격년제로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경서도민요와 남도민요를 따로 경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연 부문을 확대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문이다.

〈2010년 36회 대사습 경연부문 · 경연시간 · 경연내용(10개 부문)〉

경연부문	경연시간	경연내용(예선)	경연내용(본선)
판소리명창부	20분 이내	신청마탕 중 대목추첨	자유곡
농악부	20분 이내	30명 이상	
기악부	7분 이내	기악산조	기악산조
무용부	7분 이내	녹음반주 CD제출	녹음반주 CD제출
민요부	6분 이내	경서도잡가(좌창) 중	경서도민요 중
가야금병창부	6분 이내	자유곡	자유곡(예선곡 안됨)
시조부	8분 이내	자유곡	자유곡(예선곡 안됨)
판소리일반부	10분 이내	자유곡	자유곡(예선곡 안됨)
명고수부	10분 이내		
궁도			

- * 경연시간은 대회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음
- * 고수 및 악기는 반드시 경연 참가자가 동반해야 함
- * 창작곡 금지

〈37회 · 39회 · 40회 대사습놀이 경연부문 · 경연시간 · 경연내용(10개 부문)〉

경연부문	경연시간	경연내용(예선)	경연내용(본선)
판소리명창부	30분 이내	신청바탕 중 대목추첨	자유곡
농악부	30분 이내	30명 이상	
기악부	7분 이내	기악산조	기악산조
무용부	7분 이내	녹음반주 CD제출	녹음반주 CD제출
민요부	6분 이내	경서도잡가(좌창) 중	경서도민요 중
가야금병창	6분 이내	자유곡	자유곡(예선곡 안됨)
시조부	8분 이내	자유곡	자유곡(예선곡 안됨)
판소리일반부	20분 이내	자유곡	자유곡(예선곡 안됨)
명고수부	15분 이내		
궁도			

* 경연시간은 대회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음

* 고수 및 악기는 경연 참가자가 동반해야 함

(민요부는 창자가 장단을 쳐도 무방함, 시조부는 지정고수 있음)

* 창작곡 금지

〈2012년 38회 대사습 경연부문 · 경연시간 · 경연내용(10개 부문)〉

경연부문	경연시간	경연내용(예선)	경연내용(본선)
판소리명창부	30분 이내	신청바탕 중 대목추첨	자유곡
농악부	30분 이내	30명 이상	
기악부	7분 이내	기악산조	기악산조
무용부	7분 이내	녹음반주 CD제출	녹음반주 CD제출
민요부	7분 이내	*경서도잡가(좌창) 중 *남도민요 (육자배기, 성주풀이, 홍타령)	*경서도민요 중 *남도민요 중

경연부문	경연시간	경연내용(예선)	경연내용(본선)
가야금병창부	7분 이내	자유곡	자유곡(예선곡 안됨)
시조부	8분 이내	자유곡	자유곡(예선곡 안됨)
판소리일반부	20분 이내	자유곡	자유곡(예선곡 안됨)
명고수부	15분 이내		
궁도			

- * 경연시간은 대회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음
- * 고수 및 악기는 경연 참가자가 동반해야 함(시조부는 집고 반주 있음)
- * 창작곡 금지

〈시상 내역〉

대통령상	판소리명창부(1)
국회의장상	명고수부(1)
국무총리상	농악부(1)
문체부장관상	기악부(1), 무용부(1)
국방부장관상	궁도부(1)
문화방송사장상	민요부(1), 판소리일반부(1)
전주시장상	가야금병창부(1), 기악부(2), 시조부(2), 판소리명창부(3), 명고수부(3)
대상문화재단상	시조부(1)
전라북도지사상	판소리명창부(2), 명고수부(2), 농악부(2)
전북도의장상	무용부(2), 궁도부(2)
전주시의장상	기악부(3), 무용부(3), 궁도부(3)
전주MBC사장상	민요부(2), 판소리일반부(2)
보존회이사장상	가야금병창부(2), 농악부, 판소리일반부(3), 시조부(3)
국악협회이사장상	민요부(3)
전북예총회장상	가야금병창부(3)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시상하는 내역은 장원(1등), 차상(2등), 차하(3등)

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사항목 및 심사규정〉

심사항목 및 심사규정 1)항에 “심사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예선은 최저 90~99점의 범위 내에서, 본선은 최저 95~99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라고 대회요강에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본선에서 심사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등위(1, 2, 3등)별로 채점을 하여야 하는데, 혹은 동점으로 채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각 부문에서 3명이 본선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1, 2, 3 등으로 등위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에 좀 더 폭을 넓혀 본선 진출자를 5명으로 한다면, 심사위원의 점수 기록은 1, 2, 3, 4, 5의 숫자로 기록하게 하고, 채점 집계요원은 1은 (99점), 2는 (98점), 3은 (97점), 4는 (96점), 5는(95점)으로 환산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같이 3명의 본선 진출자의 채점은 1은 (99점), 2는 (97.5), 3은 (95점)으로 환산하면 된다. 혹 심사위원이 1, 2, 3 또는 1, 2, 3, 4, 5를 잘못 표기하면 바로 채점 집계요원이 수정을 요구하면 된다.

〈심사회피제도〉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바른 제도인지 아닌지를 필자는 항상 의문이다. 대회요강을 보면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회피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심사회피를 신청한다는 것인가. 이는 전주대사슴놀이 집행부에 심사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누가 심사회피를 신청하였는지를 몰라야 하는데, 사실 함께 심사하는 심사위원도 알고 있고, 그 외 사람도 알고 있는 듯 하다. 심사회피를 해야 한다면 해당 심사위원은 아예 심사에서 제외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심사위원석에 참석을 하고 있으며 해당자 란에 심사회피를 표기하고 다른 경연자를 심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심사 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심사위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다른 경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종 집계표에는 다른 심사위원 점수를 합하여 평균 점수를 심사회피 심사위원의 점수로 게시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대사습놀이 명예와 권위를 위하여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적어도 판소리명창부(대통령상)에서는 심사위원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예선에서 미처 경연자와 관련된 심사위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선까지 오게 되면, 아예 본선에서 해당 심사위원은 해당 부문에서 심사위원을 탈락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판소리명창부는 예선, 본선 심사위원을 다르게 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상자 사후관리〉

대회 요강에 수상자 사후관리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 각 부문 장원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분야 공익근무대상자로 병무청에 추천함(농악부문은 장원 단체의 단원 중 병역을 미필한 최고령자 1인을 추천, 명고수부문은 제외)
- 2) 심사위원 위촉, 전야제 등 전주대사습놀이 관련행사 참여 기회 부여
- 3) 국악 프로그램 출연 기회 부여

위 1), 2), 3) 중 2), 3) 번은 별 의미가 없는 사후 관리로 볼 수 있다. 2)의 심사위원 위촉은 당해연도 심사위원 선정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관련행사 참여 기회는 행사의 내용에 따라 행사 단체 또는 주최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3) 국악프로그램 출연 기회 부여는 라디오, TV 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는 (주)MBC 또는 전주MBC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 전 방송매체에 출연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는 각 프로그램의 담당PD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1)에서 명고수부문은 공익근무대상자에서 제외라고 하였는데

명고수부 참가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부문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수상자 사후 관리의 한 방법을 제안한다면

예) 2014년 각 부문 장원을 적어도 1년 동안 (주)MBC 또는 전주MBC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수상자 축하공연을 마친 후, 2014년 전주대사습놀이 각 부문 “장원자 전국순회공연”을 준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국 광역시도(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강원, 광주, 전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제주 등)를 매달 1회씩 순회공연 하도록 하여, 1년 정도 사후관리를 한다면 전주대사습놀이의 활성화와 홍보 그리고 “전국대회”라는 인식을 전 국민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으며, 전주대사습놀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 대회라는 영광을 차지하리라 본다.

1년 동안 전국 순회 연주가 끝나면 당해연도 전주대사습놀이 전야제 축하공연에서 마지막으로 공연을 한 후, 다시 당해년도 각 부문 장원자에게 1년 동안 전국순회공연을 넘겨준다면 장원자 사후 관리에 큰 명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Ⅲ.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놀이 축제성 행사

- 37회(2011)~40회(2014) -

1. 전야제 축하공연, “시절을 잇다”

매년 전주대사습놀이를 시작하기 전날 밤에 축하공연을 갖고 있다. 이 공연의 출연자는 역대 각 부문 장원을 주 출연자로 하여 공연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야제 축하공연은 가능하다면 전년도 장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역대 장원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본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장원은 전야제 축하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칭	장소	출연
36회(2010)	전야제 축하공연	덕진예술회관	
	장원자 축하공연	덕진공원 야외무대	
37회(2011)	전야제 축하공연	경기전 대숲무대	역대 장원
38회(2012)	축하공연	경기전 특설무대	역대 장원
39회(2013)	축하공연	경기전 특설무대	역대 장원
40회(2014)	대사습명인명창 축하공연	경기전 대숲무대	역대 장원

2. 기획초청공연 “시절을 놀다”

전주대사습놀이 기획초청공연 중 성공 작품은 “밤샘 콘서트, 밤을 날다”로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양한 장르의 연주단체와 개인을 초청하여 밤새도록 연주회를 여는 것으로 2011년 첫 번째는 23:00~05:00까지 소리문화관에서, 2012년에는 20:00~02:00까지 마당창극 “해 같은 마패를 달 같이 들어 메고”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단체와 개인을 초청하여 소리문화관에서, 2013년에는 20:30~새벽까지 다양한 단체와 개인을 초청하여 공예품전시관 야외무대에서, 2014년에는 20:30~24:00 까지 다양한 단체와 개인을 초청하여 공예품전시관 야외무대에서 열었다. (점차적으로 공연시간이 줄고 있다.)

“밤샘 콘서트”는 전주대사습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성 행사로 발전하였으며,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획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주최 측에서는 기획초청공연에 대한 구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기획초청공연에 대하여 4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필자는 아래의

프로그램을 매년 기획공연으로 준비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1. 밤샘 콘서트
2. 판소리다섯바탕을 주제로 하는 광대전
3. 판소리다섯바탕 중 눈대목을 창과 관현악으로
4. 또랑광대 경연대회
5. 아침을 여는 경기전(줄풍류, 시조, 가곡)

제37회(2011)	제38회(2012)	제39회(2013)	제40회(2014)
인디판소리콘서트 (경기전)	창작국악경연 (소리문화관)	한바탕 다스름 (공예품전시관)	한바탕 다스름 (공예품전시관)
가무악극 (경기전)			
크로스오버콘서트 (경기전)			
밤샘 콘서트 (소리문화관)	밤샘 콘서트 (소리문화관)	밤샘 콘서트 (공예품전시관)	밤샘 콘서트 (공예품전시관)
아침을 여는 국 악관현악(경기전)	아침을 여는 풍류 한마당(경기전)	아침을 여는 정가 한마당(경기전)	아침을 여는 정가 한마당(공예품전시관)
여성국극 (한벽극장)	오색춘향 (소리문화관)	광대전 (공예품전시관)	향연 (공예품전시관)

3.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다, 거리공연 변죽을 울리다”

- 37회(2011)~40회(2014)

2011년 37회부터 2014년 40회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대를 놀다”는 사실상 축제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다. 전주대사습놀이와 함께 펼쳐지는 축제의 의미로 4년간 공연물의 내용을 보면 각 행사팀과 행사 내용이 전주대사습놀이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리라 본다.

축제는 축제의 ‘주제’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많은 축제가 그러하듯이 전주대사습놀이의 축제성 행사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주대사습놀이는 10개의 부문으로 경연을 벌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10개 부문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 축제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연결고리는 찾기가 어려운 듯하다. 그야말로 서로 줄거기를 하여 각 프로그램 간에 동선이 그려질 때 청중들이 찾아다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 초청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레파토리를 30분 또는 1시간 정도 주마간산(走馬看山)식의 행렬 공연은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만 있지 전주대사습놀이를 통하여 청중과 함께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거리공연, 변죽을 울리다” 는 분명 기획공연과는 다른 양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전주대사습놀이에서 “복판과 변죽”이 잘 어울릴 수 있을 때 우리음악의 보존 - 계승 - 창달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2011년 37회부터 2014년 40회까지 전주대사습놀이의 축제성 행사를 시간별로 정리한 것이다.

〈37회(2011)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다, 거리공연 변죽을 울리다”의 공연 내용〉

(15회 공연)

일시	내용	장소	출연자(팀)
6월11일 12:00	막걸리소리관	은행로	
6월11일 14:00	인디판소리콘서트 “이리오너라”	경기전 대숲무대	인디 그룹
6월11일 16:00	소리와 춤의 만남 “궁”	경기전 대숲무대	예빛예술단
6월11일 17:00	미친광대	은행로	지기학 외
6월11일 18:00	거리광대	은행로	윤충일 외
6월11일 19:30	크로스오버콘서트 꽃별&카이	경기전 대숲무대	꽃별 / 카이

일시	내용	장소	출연자(팀)
6월11일 21:00	2011 전주대사습놀이 축하무대	경기전 대숲무대	역대 장원
6월11일 23:00	밤샘콘서트 “국악, 밤을 날다”	소리문화관	*
6월12일 10:00	경기전아침을 여는 국악관현악	경기전 대숲무대	**
6월12일 10:00	히든 퍼포먼스	경기전	넬마루무용단
6월12일 10:00	히든 퍼포먼스	은행로	기악독주 4명
6월12일 12:00	막걸리 소리판	은행로	
6월12일 16:00	국악꿈나무	은행로	김성욱 외 10명
6월12일 19:00	사랑의 연가 “춘향전”	한벽극장	여성국극단
6월13일 17:00	미친광대	은행로	지기학 외

- * 1. 해학판소리 윤충일 일행 - 치매퇴치기 & 각설이 타령
 2. 놀애 박인혜 - “청”바다가 되다, 두 이(二)자 이별, 청춘가
 3. 대중 판소리꾼 슈퍼맥 김명자 - 단가 ‘캔디타령’, 슈퍼맥 씨름대회
 4. 만요컴퍼니 - 청춘빨딩, 오빠는 풍각쟁이, 모던기생점고 등
 5. 퓨전그룹 ‘비움과 채움’- 달빛조차 몸을 사리는데, 칠자배기 등
 6. 소리꾼 ‘남상일’- 노총각 거시기가, 장타령, 봄날은 간다 등
 7. 인디판소리 ‘AUX’ - 품바, 왕의 춤, 어사출두 등
 8. 용마루 대금 원완철 - 원장현류 대금산조
 9. 천년지향 ‘나니레’- 바람이 그린 풍경, 태풍의 눈 등
 10. 현대무용단 ‘사포’- 보고지고 보고지고
 11. 전주판소리합창단 - 광대가
 12. 강정열 가야금병창 - 단가 ‘녹음방초’, 심청가 중 뽕덕어미 잃고
 13. 김일구 아쟁산조 - 김일구류 아쟁산조

- ** 1. 전주시립국악단 - 낙양춘, 천년만세, 수제천
 2.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 - 남도아리랑, 축대머리, 국악가요, 신내림

〈38회(2012)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다, 거리공연 변죽을 울리다”의 공연 내용〉
(18회 공연)

일시	내용	장소	출연자(팀)
6월8일 18:30	창작국악공연 “시절을 놀다”	전주소리문화관	*
6월9~11일 12:00	막걸리 소리관	은행로 주차장	
6월9일 13:00	히든 퍼포먼스	한옥마을 일원	넬마루무용단
6월9일 13:00	내용없음, 김은영 외 10명	오목대	벼리국악단
6월9일 13:30	거리극 “닭들의 꿈, 날다”	은행로한방문화센타	바닥소리
6월9일 15:00	거리연희 “타-밴드 판타지”	은행로사거리	타악연희 “아퀴”
6월9일 16:00	국악꿈나무	은행로	권혁대 외
6월9일 19:00	2012전주대사습놀이 축하무대	경기전특설무대	역대 장원
6월9일 20:00	밤샘콘서트	전주소리문화관	**
6월9~11일 10:00	거리산조, 거리광대	한옥마을 일대	여러명
6월10일 10:30	아침을 여는 풍류한마당	경기전 특설무대	****
6월10일 13:00	내용없음, 김승호 외 10명	오목대	예술단 놀이판
6월10일 13:00	히든 퍼포먼스	한옥마을 일원	넬마루무용단
6월10일 13:30	거리극 “닭들의 꿈, 날다”	은행로한방문화 센타	바닥소리
6월10일 14:00	오색춘향,이판사관 춘향이야기	전주소리문화관	미친광대
6월10일 15:00	거리연희 “타-밴드 판타지”	은행로사거리	타악연희 “아퀴”
6월10일 16:00	대풍가	오목대	나순철 외
6월11일 11:00	히든 퍼포먼스	한옥마을 일원	넬마루무용단

* 1. 그란디 - Beautiful of Korea

2. 그루터기 - 봄 날

3. 그리움 - 제비

4. 리딩톤 - 한국인

5. 불세출 - 지옥가

6. 소리에(愛) - 열정

7. 소릿결 - 돈타령

8. 아쟁 앙상블 ‘도로시’ - Distorted 아쟁

9. 제배두루 - 꿩꾼이

10. 창작집단 강강술래 - 내 인생에

** 1. 마당창극 “해 같은 마패를 달 같이 들어 메고”

2. 두레소리 - 꿈꾸는 아리랑 등

3. 김무길, 박양덕 - 거문고산조, 흥타령

4. 코리언 월드 뮤직 그룹 리딩톤 - Green apple 등

5. 박애리, 팝핀현준 - 쑥대머리, 매화향기

6. 유태평양 - 수궁가 중

7. 국악 아카펠라 토리's - 아리랑연곡 등

8. 모던테이블 - 다크니스 품바

9. 코믹 범죄 판소리 “바투: 더 투맨쇼”

10. 앙상블 시나위 - 사랑가 등

11. 드미트리 카즐로프 - 러시아 민요 등

12. 어쿠스틱 - 창부타령 등

*** 1. 이리향제줄풍류

2. 국예풍류회

〈39회(2013)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다, 거리공연 변죽을 울리다”의 공연 내용〉
(36회 공연)

일시	내용	장소	출연자(팀)
6월7일 19:00	한바탕 다스름	공예품전시관	*
6월7일 21:00	국악영화극장 “야외”	공예품전시관	**
6월8일 10:00	꿈나무 어린이소리관	목우현	권혁대 외
6월8일 11:00	얼씨구 막걸리소리관	은행로 주차장	
6월8일 11:30	거리연희콘서트 “점심”	한옥마을블루페코	E-플랫
6월8일 12:30	거리연희콘서트 “점심”	한옥마을블루페코	E-플랫
6월8일 11:30	거리연희콘서트 “점심”	한옥마을오스갤러리	여울빛
6월8일 11:30	거리연희콘서트 “점심”	한옥마을오스갤러리	여울빛
6월8일 11:30	거리극어린이뮤지컬 “오리날다”	경기전주차장	박영준 외
6월8일 13:30	이판사판 판소리 오락가락	경기전주차장	지기학 외
6월8일 16:00	히든퍼포먼스 “붓의춤,먹의노래”	공예품전시관	김병기 외
6월8일 16:00	거리산조 “가락에 젖다”	오목대	대,거 산조
6월8일 15:00	시시때때 굿판, 판굿	경기전주차장	오감도
6월8일 17:30	거리연희콘서트 “즈음”	공예품전시관	***
6월8일 19:00	전주대사습놀이 축하무대	경기전특설무대	역대 장원
6월8일 20:30	밤샘콘서트	공예품전시관	****
6월9일 10:00	꿈나무 어린이소리관	목우현	권혁대 외
6월9일 10:30	아침을 여는 정가 한마당	경기전특설무대	조영숙 외
6월8일 11:00	얼씨구 막걸리소리관	은행로 주차장	
6월9일 11:30	거리극어린이뮤지컬 “오리날다”	경기전주차장	박영준 외
6월9일 11:30	거리연희콘서트 “점심”	한옥마을블루페코	E-플랫
6월9일 12:30	거리연희콘서트 “점심”	한옥마을블루페코	E-플랫
6월9일 11:30	거리연희콘서트 “점심”	한옥마을오스갤러리	여울빛
6월9일 12:30	거리연희콘서트 “점심”	한옥마을오스갤러리	여울빛
6월9일 12:30	전주기집놀이 “용기 일렁이며”	풍남문 → 경기전	보존회
6월9일 13:30	포랑광대경연 “각시따라”	여명카메라박물관	

일시	내용	장소	출연자(팀)
6월9일 13:30	이판사판 판소리 오락가락	경기전주차장	지기학 외
6월9일 15:00	시시때때 굿판, 판굿	경기전주차장	오감도
6월9일 16:00	히든퍼포먼스 “붓의춤먹의노래	공예품전시관	김병기 외
6월9일 16:00	거리산조 “가락에 젖다”	오목대	대,거 산조
6월9일 17:30	거리연희콘서트 “즈음”	공예품전시관	***
6월9일 19:00	광대전	공예품전시관	왕기철 외
6월9일 17:30	거리연희콘서트 “즈음”	공예품전시관	***
6월10일 10:00	거리산조 “가락에 젖다”	오목대	대,거 산조
6월10일 11:30	거리연희콘서트 “점심”	한옥마을블루페코	E-플랫
6월10일 11:30	거리연희콘서트 “점심”	한옥마을블루페코	E-플랫

* 1. 불세출

2. 연희컴퍼니 “유희”

3. 바라지

** 1. 영화 “소리아이”

2. 영화 “왕자가 된 소녀들”

*** 1. 배우경 월드 뮤직 사운드 - Fly me to the moon, 새야새야 등

2. 소래꽃 - 열두고개 넘어, 길 없는 길 등

3. 풍류지악 - 타, soul, 바람을 그리다 등

**** 1. 모던 테이블 - 다크니스 폼바

2.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 Jumping without, Moving 등

3. 반(VANN) - 창내고자, Breath, 태평, 비 그치는 소리

4. 김용우 - 아리랑 연곡, 창부타령, 노랫가락, 사설난봉가, 장타령

5. 죽향 이생강 - 이생강류 대금산조, 팔도아리랑

6. 숨 - 거울자아, 혼, 오후 등

7. 국립국악원 무용단 - 오우의 춤

8. 주리'SKUNS - 거미 달을 삼키다. 야상곡, 칼의 춤
9. 양상블 '소리나무'- 몽금포스토리, 쑥대머리, 반려, 짝이 되는 동무
10. 고래야 - 하얀날개, 어드로 갈까, 물속으로, Whale of a Dream
11. 소리결 - 삼도아리랑, 노랭이 타령, 로또 당첨을 위한 주문, 돈타령
12. 제비 - 제비는 어디로 갔을까?, 검은줄, 장화 신은 제비, 제비모리

〈40회(2014)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다, 거리공연 변죽을 울리다”의 공연 내용〉
(39회 공연)

일시	내용	장소	출연자(팀)
6월7일 10:30	아침을 여는 정가 한마당	오목대	연가풍류회
6월7일 10:30	거리별곡(판소리)	최명희문학관	송길화
6월7일 11:00	한지인형극, 아단법석춘향전	경기전주차장	아트컴퍼니 꼭두
6월7일 11:00	국악극장 하루	여명카메라박물관	미디어(영화)
6월7일 11:00	거리연희우리춤멋이라흥이라	공예품전시관	넬마루무용단
6월7일 12:00	거리별곡(판소리)	목우헌	송길화
6월7일 12:00	거리연희, 시시때때 굿판	경기전주차장	북,징,쟁,장 풍물
6월7일 13:00	청소년국악한마당	부채문화관	다수 출연
6월7일 13:30	거리산조, 가락에 젖다	오목대	가,거,대,아 산조
6월7일 13:30	또랑광대 경연대회	여명카메라박물관	예선
6월7일 15:00	거리연희, 시시때때 굿판	경기전주차장	북,징,쟁,장 풍물
6월7일 15:00	거리연희우리춤멋이라흥이라	공예품전시관	넬마루무용단
6월7일 15:30	거리별곡(판소리)	목우헌	송길화
6월7일 16:00	거리산조, 가락에 젖다	오목대	가,거,대,아 산조
6월7일 16:00	고인돌 하쇼(H0 8ot Show)	경기전주차장	연희단 유희
6월7일 17:00	거리연희 즈음	부채문화관	*
6월7일 17:00	한바탕 다스름	공예품전시관	**

일시	내용	장소	출연자(팀)
6월7일 17:00	국악극장 하루	여명카메라박물관	미디어(영화)
6월7일 19:00	대사습명인명창 축하공연	경기전대숲무대	역대 장원
6월7일 20:30	밤샘 콘서트	공예품전시관	***
6월8일 10:30	아침을 여는 정가 한마당	공예품전시관	연가풍류회
6월8일 10:30	거리별곡(판소리)	최명희문학관	송길화
6월8일 11:00	고인들 하쇼(Hot Show)	경기전주차장	연희단 유희
6월8일 11:00	거리연희, 시시때때 굿판	공예품전시관	북,징,쟁,장 풍물
6월8일 11:00	국악극장 하루	여명카메라박물관	장화홍련(영화)
6월8일 12:00	거리별곡(판소리)	목우헌	송길화
6월8일 12:00	거리연희우리춤멋이라흥이라	경기전앞	넬마루무용단
6월8일 13:00	청소년국악한마당	부채문화관	다수 출연
6월8일 13:30	거리산조, 가락에 젖다	오목대	가,거,대,아 산조
6월8일 13:30	도랑광대 경연대회	여명카메라박물관	본선
6월8일 14:00	거리연희, 시시때때 굿판	공예품전시관	북,징,쟁,장 풍물
6월8일 14:00	한지인형극, 야단법석춘향전	경기전주차장	아트컴퍼니 꼭두
6월8일 15:00	거리연희우리춤멋이라흥이라	공예품전시관	넬마루무용단
6월8일 15:30	거리별곡(판소리)	목우헌	송길화
6월8일 16:00	거리산조, 가락에 젖다	오목대	가,거,대,아 산조
6월8일 17:00	거리연희 즈음	부채문화관	*
6월8일 17:00	국악극장 하루	여명카메라박물관	장화홍련(영화)
6월8일 19:00	향연	공예품전시관	*****
6월9일 11:00	거리연희, 시시때때 굿판	경기전 앞	북,징,쟁,장 풍물

- * 1. 풍류지악
- 2. 청류가락단
- 3. TAAL

- ** 1. 창극발전소 작품명: 푸리
- 2. 진쇠&연희 작품명: 판굿&연희

** 밤샘콘서트(6월7일 20:30 ~ 24:00) 출연자(팀)

- 1. 명창 이일주 & 명창 장문희
- 2. JB진윤경 밴드
- 3. 희문
- 4. 음악동인 고물
- 5. Ethnic Pop group 樂
- 6. LUNA
- 7. THE 메아리

*** 향연(6월8일 19:00 ~ 20:30)

- 1.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
- 2. 국립민속국악원

4.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자” 학술·전시·체험(2011~2014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학술대회, 전시, 체험은 매우 의미가 있는 행사들이다. 이러한 행사들의 장점은 전주대사습놀이 시작 전부터 전주대사습놀이 기간 내에 그리고 전주대사습놀이 기간 이후로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시”행사는 눈으로 보는 전주대사습놀이로 사진작가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작가들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관람자들이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를 한 눈에 보게 되니 매년 중요한 행사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학술대회와 강연 프로그램은 전주대사습놀이 기간의 앞이나 뒤에 배

치하여 전주대사습놀이의 관심사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아이템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체험 행사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좀 더 세월이 지나면서 전주대사습놀이의 학술대회와 전시행사는 알차게 진행되리라 본다. 더불어 체험행사를 통하여 잠시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는 자리를 곳곳에 마련하는 것이 좋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술, 전시, 체험행사를 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자” - 학술 · 전시 · 체험〉

일시	내용	장소
6월11일 11:00	전주대사습놀이 발전방향과 국악의 동시대성 (발제 : 유영대)	공간 봄

〈2012년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자” - 학술 · 전시 · 체험〉

일시	내용	장소
6월9일 10:30	학술1. 전주대사습놀이,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규명(발제 : 함한희)	한옥마을 공간 봄
	학술2. 전주대사습놀이 본질, 경연인가, 축제인가 (발제 : 원도현)	
6월9~11일	전시1. “위대한 사진전” 9인 명창사진	전주소리문화관 (작가 : 노승환)
6월9일 10:00	체험1. 국궁체험	경기전 주차장
6월9~11일 10:00	체험2.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경기전 주차장
6월9~10일	체험3. 어린이국악체험	한옥마을 쉼터
6월11일	판소리 10:00-12:00, 13:00-15:00, 16:00-18:00	
	타악 10:00-12:00, 13:00-15:00	

〈2013년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자” - 학술·전시·체험〉

일시	내용	장소
6월8일 15:00	학술1. 전주대사습놀이의 원류와 문화적 전개 양상 (발제 : 김기형)	최명희문학관
	학술2. 오늘날 전주대사습놀이가 경연으로서 가지는 역할과 위상 (발제 : 전지영)	
6월8~9일 10:00	전시1. 요술서랍	경기전주차장
	전시2. 우석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전시3. 전주비전대학교 방송영상학부	
6월8일 10:00	체험1. 국궁체험	경기전주차장
6월8~9일 10:00	체험2. 종이탈 만들기	경기전주차장
6월9~9일 10:00	체험3. 페이스페인팅,비눗방울놀이,투호,제기	경기장주차장
6월8~9일	일일국악학교 ‘소풍’	태조로 쉼터
판소리	10:00~10:30, 13:00~13:40, 16:00~16:40	
타악	11:00~11:40, 14:00~14:40, 17:00~17:40	

〈2014년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자” - 전시·강연·체험〉

일시	내용	장소
6월6일~8일 10:00~18:00	전시1. 전주대사습놀이 기원과 원류	공예품전시관
	전시2. 전주대사습놀이 복원 40주년	
	전시3. 대사습 명인명창	
	전시4. 11년~14년 전주대사습 축제콘텐츠	
5월24일 14:00	강연1. 강사:이충우 “젊은 국악인들이 생각하는 -”	최명희문학관
5월31일 14:00	강연2. 강사:윤중강 “국악, 앞으로 100 -- ”	최명희문학관
6월7일 14:00	강연3. 강사:송순섭 “국악계 명사에게 듣는대사습-	최명희문학관
6월7일	국궁 체험	경기전주차장
6월7일~8일	종이탈 · 와패 만들기 체험	경기전주차장

일시	내용	장소
6월7일~8일	전통판놀이 체험(쌍륙, 승경도, 저포, 참고누놀이)	경기전주차장
6월7일~8일	페이스페인팅·전통체험놀이(제기차기, 투호)	경기전주차장
6월7일~8일	일일국악학교'소풍'(판소리, 타악)	태조로점터
타악	1회 10:00, 2회 13:00, 3회 15:00	
판소리	1회 11:00, 2회 14:00, 3회 16:00	

2011년 37회부터 2014년 40회까지 초청단체명과 초청단체의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전주대사습놀이 “시대를 놀다”(초청단체) 37회(2011) ~ 40회(2014)

	37회(2011)	38회(2012)	39회(2013)	40회(2014)
시절을 잇다	축하공연	축하공연	축하공연	축하공연
시절을 놀다 <기획 초청공연>	인디판소리콘	창작국악공연	불세출	창극발전소
	옛빛예술단	해같은마패를	연희컴퍼니	진쇠&연희
	꽃별&카이	두레소리	바라지	이일주 외1명
	해학판소리운	모던테이블	모던테이블	진윤경 밴드
	놀애박인혜	리딩톤	오리엔탈	희문
	슈퍼댁김명자	국악아카펠라	VANN	음악동인고불
	민요컴퍼니	박애리, 팝편현준	김용우	E. P 그룹 락
	비움과채움	김무길, 박양덕	죽향 이생강	루나
	소리꿈남상일	유태평양	국립국무용단	더 메아리
	인디판소리	코믹범죄판소	숨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용마루대금원	양상블시나위	주리'S	국립민속국악원
	나니레	드미트리카즐	소리나무	
	무용단사포	어쿠스틱	고래야	
	판소리합창단	미친광대춘향	소릿결	

	37회(2011)	38회(2012)	39회(2013)	40회(2014)
	강정열가야금 병창	국예풍류	제비	
	김일구아쟁산조	이리향제출풍	조영숙 외	연가풍류회
	전주시립국악단		광대전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여성국극춘향			
소계	19 단체	16 단체	17 단체	12 단체
변죽을울리다 <거리공연>	미친광대 2	바닥소리닭꿈2	오리, 날다 2	연희단 유희 2
	거리광대	벼리국악단	오락 가락 2	아트컴퍼니 2
	산조4명	거리산조광대3	거리산조 3	거리산조 4
	넙마루무용단	넙마루무용단3	히든, 김병기2	넙마루무용단4
		타악연희아퀴2	조상훈 외 2	굿판 4명 5
		나순철 외	풍류지악 2	송길화 6
		예술단놀이판	소래꽃 2	풍류지악 2
			여울빛 2	청류가락단 2
			E - 폴렛 2	TAAL 2
			또랑광대경연	또랑광대경연2
			국악영화극장	국악극장 4
			배유경 월드 2	청소년한마당
			기접놀이	
	국악꿈나무	국악꿈나무 2	어린이소리판2	
	막걸리소리판 2	막걸리소리판3	막걸리소리판2	
소계	6 단체(8회)	9 단체(18회)	15단체(28회)	12단체(36회)
합계	25 단체	25 단체	32 단체	24 단체

IV. 전주대사습놀이 발전을 위한 제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경연대회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며, 축제 무대는 경연대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경연대회와 함께 축제프로그램이 추가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즐거움을 갖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경연대회의 속사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 부분에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각 경연대회의 진행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경연대회의 위상을 전주대사습놀이가 차지하기를 기원한다.

〈대회 일정〉

단오절과 현충일을 고려하여 6월 초순에 3일 또는 4일 동안 (금·토·일·월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일정을 올해(전주대사습놀이 팜플렛)에 미리 발표하는 것이 대회를 준비하는 경연자에게 도움이 된다.

〈참가자 현황〉

각 부문에 많은 사람이 경연에 참가하도록 경연장소, 경연방법, 심사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

경연 참가자 신청 접수를 마감한 후 심사위원 선정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각 부문의 각 전공별(특히 기악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판소리명창부의 경우 예선 본선 심사위원을 다르게 선정하게 되면

전주대사습놀이의 위상이 높아지리라 본다. (각 부문에서 2년 이상 연이어 같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고 함)

〈예선장소〉

실내부문과 실외부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연자가 경연에 부담이 안 되는 예선장소를 정한다.

〈본선진출 경연자〉

현재 본선 진출자는 각 부문에서 3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선이 끝난 후 본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각 부문의 등위에 대하여 설왕설래하기도 한다. 이보다는 본선의 의미를 확대하고 긴장과 기대를 높이기 위하여 적어도 5명의 진출자를 정하여야 한다.

〈본선장소〉

1. 본선장소는 실내(예 : 명인홀 - 확성이 필요 없음)에서 시행하여 경연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본선이 끝난 후 수상축하무대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마이크를 사용하여 확성을 한다면 경연자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2. 수상축하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수상축하공연 장소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예1 : 본선은 명인홀, 수상축하무대 및 시상은 모악당, 시간은 오후 5시 이후 / 예2 : 본선은 명인홀, 수상축하무대 및 시상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무대, 시간은 오후 5시 이후 / 예3: 본선은 명인홀, 수상축하무대 및 시상은 경기전 대숲무대 또는 시청 광장, 시간은 오후 5시 이후)

〈경연시간〉

대회 요강의 경연시간을 철저히 지켜 경연하도록 한다.(경연시간의 단서 조항은 경연자들의 준비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 현행 경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판소리명창부의 경우 예선은 25-30분, 본선은 14분-15분을 대회요강에 명시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기악부의 경연시간은 현재 예선과 본선 7분에서 10-12분으로 하여야 한다.

〈경연곡목〉

판소리명창부는 예선과 본선은 다른 바탕소리를 준비하여야 하며, 기악부는 예선과 본선은 다른 곡(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문의 예선과 본선의 경연곡은 점차적으로 가능한 부문부터 지정곡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3-5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도 좋다.

각 부문의 경연은 동일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

〈예선, 본선 경연 시작 시간〉

예선경연시간은 오후(3시, 5시, 7시)에 진행하여 경연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연자가 최상의 신체리듬과 컨디션을 갖고 경연에 임하도록 한다. 또한 예선 본선을 오후에 진행하면 진행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참가자격〉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판소리명창부(대통령상)의 참가 자격을 아래와 같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 30세 이상으로 2바탕 이상 완창발표회(전바탕)를 갖춘 자.
- (2) 완창발표회는 3년 또는 5년 이내의 발표 경력을 인정한다.
- (3) 완창발표회 인쇄기록물과 발표영상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상물에 대하여 심의한 후 참가 유무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연반주〉

경연반주는 반드시 경연참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창작곡 금지〉

대회요강에 주의사항에 “창작곡 금지”가 있는데, 이 조항을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

〈남도민요 부문〉

민요부에서 남도민요 부문은 새로 신설하거나, 경서도민요와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남도민요를 경서도민요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심사항목 및 심사규정〉

본선 심사의 채점 점수(방법)는 현재 본선 진출자가 3명이므로 1, 2, 3으로 표기하고 1은 99점, 2는 97.5점, 3은 95점으로 집계 담당자가 환산하여 게시한다. 혹 본선진출자가 5명일 경우는 1, 2, 3, 4, 5로 명기하여 1은 99점, 2는 98점, 3은 97점, 4는 96점, 5는 95점으로 환산하여 게시하면 된다. (현재와 같이 각 부문별 심사가 끝난 후 각 심사위원의 점수와 등위를 발표(게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심사회피제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명창부(대통령상)의 심사위원은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경연자와 관련이 있는 심사위원은 전체 심사에서 미리 제외하여야 한다.

〈사회자의 주의점〉

예선과 본선의 사회자는 마이크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사회자의 목소리 음량이 너무 커서 경연자와 심사위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자는 경연자의 이력 사항 등등을 말하면 안 된다.(수상자 발표 후는 가능하다)

〈수상자 사후관리〉

전주대사습놀이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경연대회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1년 동안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막대한 수상자 사후관리의 대회 요강은 삭제하여야 한다.

〈전야제 축하공연〉

전주대사습놀이의 전년도 각 부문 장원자들이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마지막 무대로 전야제 축하공연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은 전야제 축하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여야 한다.

〈수상자 축하공연〉

각 부문 본선이 끝난 후, 경연자들은 수상자 축하공연장으로 이동(카퍼레이드: 과거에는 이러한 카퍼레이드가 있었다)하여 수상기념공연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주최측은 준비하여야 한다. 현재는 생중계에 의하여 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TV 생중계는 본선 이후 바로 수상기념공연 장소에서 생중계를 하는 방법과 녹화방송을 하는 방법이 좋다. (예: 본선은 명인홀, 수상공연은 경기전 대숲무대, 시청광장, 우천시 다른 장소 준비)

〈기획초청공연〉

기획초청공연보다는 기획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전주대사습놀이의 홍보 및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4~5 종류의 기획공연을 매년 같은 포맷(주제 또는 구성)으로 준비하여야 전주대사습놀이의 대표 기획 작품으로 인식되고, 이 프로그램을 찾는 청중도 전국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거리공연, 변죽을 울리다〉

많은 공연물을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전주대사습놀이의 축제공연이므로 첫째 경연 10개 부문의 보존적인 공연, 둘째 경연 10개 부문의 계승적인 공연, 셋째 경연 10개 부문의 창달적인 공연, 넷째 미래를 향한 파격적인 공연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연물을 감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생각하여 공연의 위치와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및 전시〉

학술대회와 명사의 강연은 경연대회 전후에 시행하여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전시는 경연대회 전부터 시작하여 경연대회 후까지 이어지도록 준비하여 시각적인 홍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주제어: 전주대사습놀이, 전주대사습놀이 발전방향 경연대회, 축제, 전국대회

〈Abstract〉

Task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Jeonju Great Saseup Nori

Sim, In-Taek

Completing its 40th event, the national contest of Jeonju Great Saseup Nori turned out to be a site where contest and festival are well harmonized.

While national contest of Jeonju Great Saseup Nori was held mainly in the form of contest until the 36th event in 2010(main contest: interior gym) it was held in the form of contest (main contest: bamboo wood stage in Kyungki Pavilion) and festival since the 37th event in 2011, showing constant development. The evaluation for 4 years have many positive aspects so far.

The national contest of Jeonju Great Saseup Nori should be mainly based on contest and festival should be prepared as program for contest. This is to present improvements for each sector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ntest of Jeonju Great Saseup Nori.

The event schedule should be announced by 1 year in advance and the place and method of contest and examination method should be specifically instructed. The judge should be selected before closing the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and the place of preliminary contest should be readjusted depending on the items of contest and the number of those qualified for main contest should be expanded from 3 (currently)

to 4~5 and the main contest should be carried on indoors without confirmation. Congratulatory stage should be established separately and contest should be held as per time fixed in the announcement. The pieces for contest should be different in preliminary contest and final contest. The contest should be held in the afternoon. The qualification of master of Pansori to whom presidential prize is awarded should be enhanced and the accompaniment of those participating in the contest should be chosen by the contestant. The mark of scoring in the main contest should be illustrated by promoter in advance. The system of avoiding examination should be deleted. If it is related to contestant, the relevant judge should be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all examinations and MC should not be allowed to make any utterance except calling name in the contest.

The position of national contest of Jeonju Great Saseup Nori should be elevated by fairly managing the contest.

Key Word: Jeonju Daesaseup Nori, Development plan of Jeonju Daesaseup Nori, National competition, Festival, Competition

<보고서>

전주시 마을조사 Ⅱ - 완산동

◆ 조사연구진 ◆

책임연구원: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장)

연구원: 이지은(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정은(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보조연구원: 이진성(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

강지원(전주역사박물관 인턴)

김지은(어진박물관 인턴)

I. 완산동 지명과 유적

1. 완산칠봉의 정기가 서린 완산동

완산동은 완산칠봉 자락에 형성된 마을로 전주천을 경계로 전주시와 연결되어 있다. 완산교, 서천교, 매곡교를 통해 전주부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며, 마을 앞 천변은 서문박장과 남문박장이 열리는 곳이다.

전주의 옛 지명은 완산으로 완산칠봉에서 유래하였다. 완산칠봉은 전주의 정신적 뿌리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고종황제는 전주를 황실의 고향으로 성역화 하면서 오목대·이목대와 함께 완산에 비를 세웠다.

완산은 신령스런 정기가 서린 산으로 알려져 있다. 용머리고개는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혈맥이다. 완산자락에 여러 종교와 신앙이 자리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일제강점기 때 완산동은 일본인들이 살지 못한 곳으로 유명하다.

완산자락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곳이며, 호남최초의 교회 은송리교회가 있던 곳이다.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원로들의 경로당 기령당과, 전주에서 두 번째로 개교한 완산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얼음을 저장하는 빙고가 있던 곳이다.

2. 완산동 지명유래와 행정구역

현 완산동은 조선시대 부남면(府南面)의 은송리(隱松里)·곤지리(坤止里)와 부서면(府西面)의 빙고리(氷庫里)이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 일원을 병합하여, 완산칠봉에서 이름을 따 완산정(完山町)이라 하고 전주면(全州面)에 편입하였다. 전주면은 1935년 전주와 완주가 분리되면서 전주부(市)로 승격되었다. 광복후 1946년 완산정을 완산동으



부사면도(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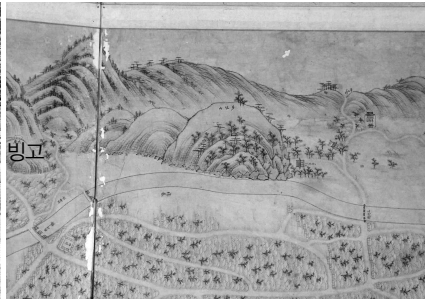
로 고치고 동완산동, 서완산동, 중완산동 3개동으로 나누었다가, 1957년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빙고리

조선시대 전주천의 얼음을 보관해 놓는 곳으로 이 동네 이름이 빙고리이다. 현재 '엄마랑 아가랑 어린이집' 뒤 다가산 자락에 몇 개의 굴이 있다. 『전주야사』(이철주)에 빙고가 더 큰 규모로 기록되어 있어 이 굴들과



다가산자락 굴



빙고(전주부고지도, 19세기)

는 다르지만, 옛 예수병원 아래에 빙고가 있었고, 다가산 아래 소가 깊어 얼음이 두껍게 얼므로 이 얼음을 떼다가 저장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 굴들의 위치가 천변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빙고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 강당재



강당재 학살터

구 예수병원(엠마오사랑병원) 좌측(용머리고개쪽) 고개이다. 주변에 화산서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고개를 강당재라고 한다. 고개마루 근처 좌편에 인민군이 학살했던 움푹파인 터가 있어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 맷골

투구봉과 검두봉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매화나무가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매곡교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하였다.

■ 수돗골

완산칠봉에서 흐르는 물이 삼복더위에도 얼음물처럼 차다하여 얼음골이라고 불렸다. 일제강점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이 설치된 후 수돗골로 불렸다. 현재 언덕 위 전주시립도서관 부근이 정수장 자리이다.



수돗골마을

3. 전주 옛지명 '완산'의 유래 완산칠봉

완산칠봉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의 유래가 되는 산으로 예부터 전주의 영산(靈山)으로 받들어 지고 있다. 고려시대 이규보는 완산이 작은 산에 불과한데 고을 이름을 삼은 것이 묘하다고 하였다. (『남행월일기』)

완산은 풍수상 전주의 안산에 해당되고, 남복산(南福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기러기 형국의 산형이다. 외칠봉, 내칠봉, 좌우칠봉으로 구분되어 삼면칠봉이라고 한다. 완산은 조선왕실의 뿌리로 인식되어 땀나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했다.

완산은 영기가 어린 산으로 송장을 거꾸로 묻어도 아무해가 없을 정도로 명당이라 한다. 그래서 평장(平葬)의 형태로 몰래 묘를 쓴 경우가 많았다. 예전에는 완산에 소나무가 많았으나, 사람들의 벌목으로 민둥산이 되어 일제강점기 때 삼나물을 많이 심었다고 한다.

중국 전주에도 완산이 있다. 본래 스님 바리때를 얹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발봉(鉢峰)이라 하던 것을 개명한 것이다. 도심에 우뚝 솟은 봉우리



완산칠봉 위성사진

들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완산이 흡사하다.

[이규보, 「남행월일기」]

전주는 완산이라고도 일컫는데 옛날 백제국이다. 인물이 번창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고국풍(故國風)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질박
하지 않고 아전들은 모두 점잖은 사인(士人)과 같아, 행동거지의 신중함
이 볼 만하였다. 중자산(中子山)이란 산이 가장 울창하니, 그 고을에서는
제일 큰 진산(鎭山)이었다. 소위 완산(完山)이란 산은 나지막한 한 봉우
리에 불과할 뿐인데, 한 고을이 이로써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격전지 완산

4월 27일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였다. 뒤따라온 홍계훈의 경군(京軍)은 그 다음날 완산에 진을 쳤다. 동학농민군과 관군간에 12일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다음은 『전주부사』(1943)에 전하는 완산전투 기사이다.

“5월 1일 동학군이 갑자기 남문에서 출격, 싸잔다리를 넘어 남북 두 대로 나뉘어 완산 주봉에 있는 관군을 향해 돌진했다. 곧 남쪽의 한부대는 순창 가도로 나아가 오른쪽으로 꺾어져 남고천을 건너 곤지산 서



동학농민군 전주입성기념비

쪽 기슭의 야곡(冶谷)으로 북진하였다. 또한 북쪽의 한 부대는 전주천 왼쪽기슭을 북진하여 투구봉으로 기어올라 남쪽에서 아군과 합세 매곡(梅谷)을 사이에 두고 검두봉의 낮은 언덕에 포진해 있던 관군의 일대를 습격해 일거에 완산을 점령하였다. 매곡을 경계로 투구봉과 검두봉 사이에서 일대 접전이 펼쳐졌다.”

1991년 완산칠봉 전적지에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가 건립되었다. 전주성 점령과 관련해 유일한 기념물이다.

■ 땀띠샘



땀띠샘

완산칠봉에 있는 약수터로, 물이 맑고 차가워서 땀띠에 걸린 사람도 이 물로 씻으면 땀띠가 없어진다고 해서 땀띠샘이라고 불렸다. 60년대 초반까지도 완산초등학교에 강당이 없어서 땀띠샘 계곡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 금송아지바위



금송아지바위

옥녀봉에서 내려와 무학봉으로 오르는 초입에 있는 큼직한 바위로, 송아지가 엎드려 있는 형세이다. 병정놀이 등 어릴 때 많은 추억이 어릴 때 많은 곳으로 금송아지와 관련된 설화가 전한다.

■ 청학루 · 백학루

청학루(완산정 121-1)는 완산동 북쪽 기슭에 위치해 시내 전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의 정자로 현재 태화청학아파트 자리에 있었다. 1921년 갑부 박기순이 전라감영의 비장청 건물을 뜯어다가 지은 것으로, 후에 국악원 분원으로 쓰이다가 없어졌다. 백학루는 청학루 서편에 큰 규모로 있

었는데 그 주인을 마을사람들은 박부자로 기억하고 있다.

■ 방공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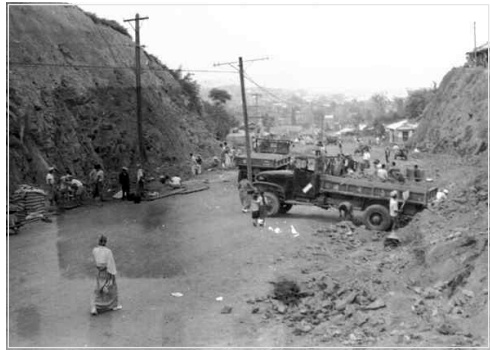
1968년 이후 전시상황을 대비해 군, 경찰, 도 지휘소가 들어가 지휘 할 수 있도록 완산자락에 조성한 땅굴이다. 지금은 입구가 철문으로 닫혀 있다.



완산칠봉자락 방공호

4. 일제가 끊어놓은 용머리 고개

용머리고개는 서완산동 남쪽에서 김제, 금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산세가 용의 머리 형상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전주고지도에는 용두치(龍頭峙)라고 표기되어 있다. 전주의 비상을 의미하는 형세인데, 일본이 들어와 용머리를 절단하고 길을 내



용머리고개 도로확장공사

었다. 당시 지역토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며, 지금도 일제에 의해 끊어진 전주의 혈맥을 이어야 한다는 목청이 높다. 1968년에 용머리고개 도로를 확장하였다.

[용머리고개에 관한 강감찬 설화]

강감찬이 이곳에 있을 때 어느해 가물어서 몹시 걱정하다가 하루는 하인을 시켜 지금 막 내를 건너는 초립동이 있을 터이니, 그를 곧 데려 오라고 일러 보낸 즉, 과연 그런 사람이 있어 데리고 왔는데, 그를 보자 강감찬이 호령하되, 이렇게 가물어도 못본채하고 지나가다니 꽤썸하다고 꾸짖으며 당장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면 참하겠노라 하였더니, 그 초립동은 실은 용이 둔갑한 것이었으니 죽음을 면하고자 승천하며 비를 내리게 하고, 떨어져 죽은 곳이 이 고개라 하여 그후 강감찬은 그 용을 후히 장사지내 주고 묻어 주었다 하여 지금도 용무덤이라고 부르는 무덤이 있다 한다.

■ 용머리고개의 대장간과 골동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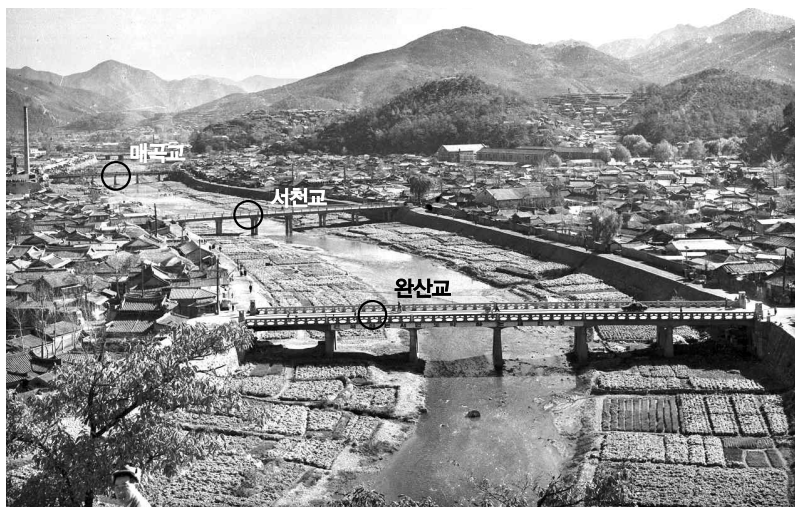


광명대장간에서 만든 낫

용머리고개에는 대장간과 골동품점들이 모여 있다. 언제부터 용머리고개에 이런 가게들이 들어섰는지는 분명치 않다. 완산동 토박이들의 구술에 의하면 강대경씨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때 여기에서 대장간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용머리고개가 김제와 부안 들녘으로 나가는 길목이므로 일찍부터 대장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장간 중에는 광명대장간이 가장 오래된 곳으로 1956년에 이곳에 터를 잡았

다. 처음에는 길 건너 맞은편에 있다가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골동품가게 중에는 광명당이 가장 오래된 곳으로 태평동에 있다가 1982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이후 여러 골동품 가게들이 용머리고개에 들어섰다.

5. 전주도심과 완산동을 잇는 전주천 다리



매곡교, 서천교, 완산교

■ 매곡교 梅谷橋

남문시장과 연결된 다리이다. 맷골로 가는 다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그 아래로 우시장이 열려 쇠전다리라고도 하고, 다리 주변에 담뱃대 장수들이 즐비해 연죽교(煙竹橋) 또는 설대전다리라고도 하였다. 1936년 대홍수에 서천교 흠다리가 유실되자 1938년 3월 매곡교를 서천교 동쪽 상류의 현 지점에 새로 놓았다.

■ 서천교 西川橋

매곡교와 완산교 사이, 완산교회 앞쪽의 다리이다. 이 천을 서천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천교 사이로 담뱃대 장수들이 좌전을 벌렸다고 해서 연죽교 또는 설대전다리라고도 불렸다. 호화로웠던 다리로 1847년(헌종 13)에 세운 서천교개건비가 있다. 홍수로 유실되어 1932년 박기순

이 나무다리를 가설하여 박참판다리라고도 한다. 1936년 대홍수로 다시 유실되었으며, 1968년에 중건하였다.

■ 완산교 完山橋

용머리 고개로 나가는 다리이다. 소금전이 있어서 소금전다리, 염전교(鹽塵橋)라고 불렀다. 1922년 전주교와 함께 콘크리트로 건립되었다. 이 후 1936년 홍수로 유실되었다가 1937년 콘크리트교로 다시 건립되었다. 19세기 후반 고지도에도 완산교로 추정되는 다리가 보인다.

Ⅱ. 완산동 사람들

1. 다양한 계층이 함께 했던 완산동

완산동은 남문시장·서문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유통과 관련된 외지인의 유입이 활발했고, 청학루·기령당 등 조선시대 상류문화가 있었으며, 수돗골, 맷골 등의 자연부락 등의 모습들이 어우러져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전주의 발달과 함께 확장된 지역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시도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시도국장의 관사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많이 살았다. 또 도심에 인접해 있어서 하숙생들도 많았다. 완산칠봉의 영기 때문인지 점집, 사찰 등의 종교시설도 많았으며, 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상인들도 많이 살았다. 이렇듯 완산동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와 이야기를 만들어 왔던 곳이다.

■ 유기전

완산동에는 유기전이 몇 군데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 완산교회 뒷길과 대명까치맨션 근처 자리로 전해진다. 완산교회 뒷길에서 유기전을 했던 정은주할머니에 따르면 1950~60년대에 유기전을 시작했으며 이곳 말고도 유기전이 2~3군데 더러 있었다고 한다. 직접 만들어 팔았고, 후엔 징과 팽과리 등 도 팔았는데, 이는 서울에서 가져다 판 것이라 한다. 스테인레스가 들어온 이후로 유기전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유기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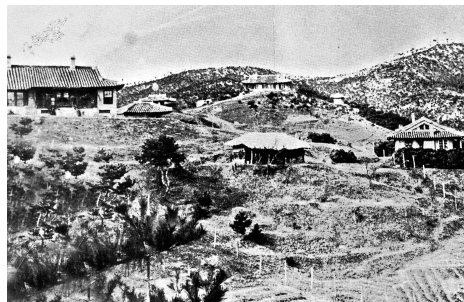


놋쇠로 만든 상

2. 완산칠봉의 정기를 이은 종교의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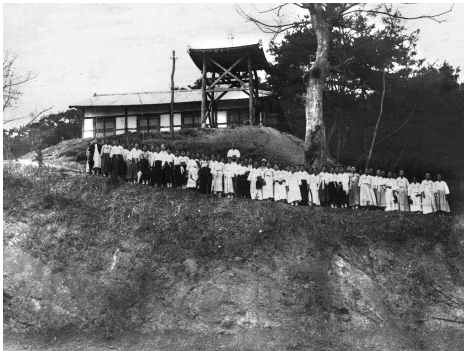
■ 호남 최초의 예배당 은송리 교회

은송리 교회는 호남최초의 예배당으로 현 서문교회의 전신이다. 1893년 정해원이 52년을 주고 은송리의 행랑채가 딸린 초가 한 채를 사서 예배를 보았다. 은송리는 전주천변에서 지금의 완산교회 주변을 말한다. 교회의 정확한



예수병원 일원

자리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전주부사』(1943)에는 백운정 부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백운정은 현감 백치언이 건립한 것으로, 후에 박기순이 백운정 옆에 청학루를 세웠다.



완산교회

■ 완산교회

완산교회는 전주에서 서문교회, 남문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된 교회이다. 서문교회에서 남문교회는 1905년, 완산교회는 1926년 분리되었다. 1929년 완산교회로 명칭하였다. 처음에는 예수병원 아래 산중턱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

배를 보다가 1933년 현재의 자리에 교회당을 짓고 이전하였다.

■ 화산교회

1949년 기전학교 강당에서 기도회를 가진 것을 시초로 1951년 전주화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예수병원 건너편에 있다가 이전하였다.

■ 칠성사

완산동에서 가장 오래된 완산자락의 사찰로 1900년 진석환거사가 창건하였다.

■ 관음선원

1950년대 보현 스님이 묵담스님을 모시고 창건하였다. 풍광이 좋고 용두봉 쪽이 명당이라 하여 현 위치에 창건한 것이라고 한다.

■ 원각사

1951년 완주 위봉산에서 옮겨온 사찰로 당시 전몰장병 유골 봉안소였다고 한다.

■ 김유신을 모신 사당 완산사(完山祠)

전주지역의 김유신 장군 후손들이 1933년 건립한 사당으로 완산시의버스정류장 뒷편에 있다. 김유신장군이 황산벌 전투 후 주류성으로 가는 길에 전주에서 머물렀다고 하여 건립한 것이다. 김해김씨·허씨·인천이씨가 세 집안이 함께 제를 지낸다.

■ 천변가에 즐비한 점집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천변을 끼고 점집들이 즐비하였다.

3. 기령당과 완산초등학교

■ 가장 오래된 지역원로들의 경로당 기령당

기령당(耆寧堂)은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유지들의 양로당으로 군자정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군자정은 부성밖에 건립된 최초의 활터로 빙고리에 있었으나, 불이 난 후 완산칠봉 서쪽 끝 자락 현 기령당 자리로 이견되었다.

1938년에 건립된 ‘기령당사적비’에 의하면 1899년 부중의 인사들이 모여 부사건청물에 양로당을 처음 창설하였고, 1921년 진사 이건호가 완산동에 있는 가옥과 대지를 기증하여 완산동으로 옮기고 기령당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1949년 인창섭이 옛 군자정 건물과 터를 기증하여 이견하였다.

도지사, 시장 등 기관장들이 부임하면 먼저 기령당에 와서 인사를 드렸다.



관음사원 주련

이런 연유로 기령당에는 전라감사와 전북도지사의 명단을 수록한 『도선생안』, 전주부윤과 전주시장의 명단을 수록한 『부윤선생안』 등이 소장되어 있다. 완산동에는 기령당 외에 학서당 등 유서 깊은 경로당들이 자리하고 있다.



기령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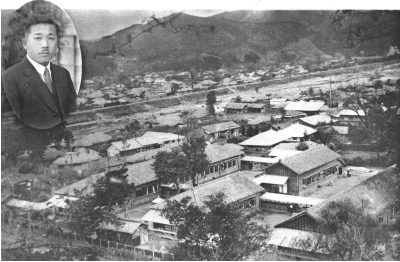


기령당비



학서당 편액

■ 전주에서 두 번째로 개교한 완산초등학교



완산초등학교(전주교대부속자리)



완산칠봉(의재 허백련作, 완산초등학교 소장)

완산초등학교는 전주초등학교에 이어 전주에서 두 번째로 개교하였다. 1906년 사립함육보통학교로 시작하여, 1913년 제2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처음에는 전주교대부속학교 자리에 있다가 1939년 완산동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완산동에 거주했던 옛 원로들은 대부분 완산초등학교 졸업생이었다. 현재는 학생 수가 줄어 전교생이 100여명이고, 근지중과 함께 있어 정문과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다. 완산서초등학교는 1992년에 개교하였다.

■ 전주시립도서관

1949년 전라북도 도립 도서관으로 개관하여, 1963년 시립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1989년 완산동 수돗골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완산공원 꽃동산과 함께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구술채록>

1. 신동기씨
2. 송주원씨
3. 박준영 · 최병로씨
4. 김삼룡 · 최영섭씨
5. 조재순 · 강봉률 · 이해열씨
6. 주기환씨
7. 서인자씨
8. 완산교회 유한길 장로님
9. 관음선원 상일스님
10. 원각사 용승스님
11. 화산교회 신남춘장로님
12. 광명대장간 김창기씨

1. 신동기씨 구술

— 1935년생, 매곡경로회관 회장(前 공무원)

면담일:2014년 6월 10일 / 면담장소:자택 / 면담자:이지은

구술자: 내가 전주 시청에 한 33년 있었어요. 그런데 33년 중에 반절 이상은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에 있었어요. 33년 공직생활에서 문화 분야, 특히 이제 문화재 또 향토문화 뭐 그런 쪽에 10년 정도 담당했고 또 아울러서 나 자신, 뭐 그런 것도 조금... 발굴도 하고 또 현지를 찾아 가 보고,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왔어요. 그래서 비교적 딴 사람보다도 뭐 그런 내용을 좀 알긴 하는데. 전주시사 있죠?

면담자: 네네, 전주시사.

신동기: 전주시사, 전주시사도 두 번에 걸쳐서. 말하자면 팀장이라고 할까?

면담자: 선생님 완산동에 오래 거주하셨어요?

구술자: 내가 1935년 12월, 음력으로 12월 22일날 완산동에서 나서 지금까지 살아요.

면담자: 토박이시네요. 선생님 어렸을 때, 유년기 때 거주하셨던 지역은 어느 쪽이에요?

구술자: 완산초등학교 있죠? 사거리에. 그러다가 인제 6.25 전 해방 막 되고 완산초등학교 앞에 저희 선친께서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또 쭉 살았었고 그 때는 여기가, 왜정 때니까. 35년이니까. 뭐 초가집만 이렇게 있었고, 그 때는 다 초가집 아니야? 초가집이었고, 지금처럼 마을 형성이 별로 안 되어 있었어. 그리고 인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인제, 전라북도 감영이 바로 도청 자

리이기 때문에 전주천에서 겨울에 얼음을 떠다가... 지금 요 근방일 거야. 빙고, 말하자면 석빙고.

면담자: 여기 지도에도 빙고가 있더라구요. 예.

구술자: 석빙고, 빙고를 저장해 놓고 여름에 그놈을 감영에서 썼지. 그런 마을이여, 여가. 그런 마을이여. 집이 별로 없었지. 지금이니 까 그렇지.

면담자: 선생님 어릴 적에, 유년기 때도 그런 빙고가 남아...?

구술자: 응, 그런 것 없었지.

면담자: 그냥 전해들은 이야기세요?

구술자: 그렇지, 그렇지. 조선조 때니까. 전해 들었고 그것이, 뭐 뭐 빙고라고 하는 것이 뭐 돌 파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는 찾을 수가 없지.

면담자: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구술자: 유물은 찾을 수가 없지.

면담자: 그런데 지금 이 오르막길 있는 이 일대가.

구술자: 그렇지, 그렇지. 이 일대가, 이 일대가. 이 산이 투구산이고, 이 짝이 곤지산이고 그래. 그 계곡, 계곡 있었고. 예... 1922년? 1920년? 1920년? 20년경에 전주인구 2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돗물을, 왜정 때 공급해야겠다하는 프로젝트가 왜정 때 생겨가지고. 바로 시립도시관 자리에 정수장이 됐어. 그 정수장 물을 전주천, 그러니까 저 좁은목 거기서 끌어다가 말하자면 저기로 끌어다가 여기서 정수를 해서.

면담자: 그래서 여기를 수돗골, 수돗골이라고 하는?

구술자: 응, 수돗골이라고 했지. 그러기 전에는 이제 맷골이라고 했고. 매향골.

면담자: 매향골. 그래서 이제 매향이라고?

구술자: 응, 그렇지. 매화골.

면담자: 그러면은 그 선생님, 학교는 완산초등학교...

구술자: 그렇지. 36회.

면담자: 36회 졸업. 그러면 당시 선생님들도 다 일본인 교사였겠네요?

구술자: 그렇지, 3학년까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면담자: 선생님 혹시 학교 다니셨을 때 기억, 마을에 대한 기억이라던지.

구술자: 마을에 대한 기억, 기억은... 투구봉이라는 마을... 여기 보면 다 나오는 거야. 투구봉. 여기보고 맏골, 청학루가 있어서 청학루. 백학, 백학루. 그런 것들이 있었지, 동완산동.

면담자: 네, 네. 동완산동. 그러면은 완산초등학교 졸업하시고 학교는... 북중?

구술자: 나는 학교는 인제 여기 전주에서 안 나오고. 그게 인제 6.25 때 문에 아주. 사촌누나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서.

면담자: 그러면은 언제 다시 전주로 오신거세요?

구술자: 에... 거기서 내가 1957년에 군대를 갔다가, 59년에 제대하고 바로 전주로 다시 왔지.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 군대 가시기 전까지 대전에 쪽 계셨던 거세요?

구술자: 그렇지, 인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나 서울에 인제 제대하고 서울에 있으려고 했어. 아무래도 내 위에 형들이 다 돌아가서났기 때문에 선친께서 내려오라고 자꾸 보채고 그랬어.

면담자: 선생님, 다시 완산동으로 오셨을 때, 마을이 많이 달라져 있었나요?

구술자: 그 때, 뭐 57년에 이때 할 때에는. 그 때나 제대하고 와 가지고 뭐 별로 달라진 것 없지. 불과 한 3, 4년 사이니까 달라진 것이 없지.

면담자: 선생님 당시 교통이나 지명 이런 건 어땠어요?

구술자: 그렇지, 잘 알지? 그 때 이전에 벌써 전주라고 하는 지명이...
아, 완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완산칠
봉을 6세기 때에 부른 이름은... 남복산이라고 일컬었다 하더라.

면담자: 남복산? 남쪽에 있는...

구술자: 복스러운 산. 그러니까 산은 적지만은 아담하고 이 봉우리가
7개가 있고, 그래서 ‘남복산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다’ 하는 기록
이 있어요. 그런 것이 6세기 무렵 백제시대, 백제시대지. 백제가
666년에 망했나?

면담자: 네, 네. 660년.

구술자: 그 때, 그 때 이미 여기는 고을 형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인제
역사가 쪽 흐르면서 한 때는 조선조 초기? 그럴 때에는 전주가
전국 4대 도시 안에 들었다고. 한 때는 3대까지도. 한양, 평양,
전주, 대구 그랬어.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반은
그 때 당시 전주천 자체가 지금 저 짝, 뭐 전주 지리 잘 알지?

면담자: 네, 전주 살고 있습니다.

구술자: 그러면 좁은목 저 위에서 말이야, 그 때는 인제 산이 울창하니
까. 우리가 해방되고 땀감이 없고 그러니까 막 벌목을 허고 도
벌을 하고 그래서 민둥산이 되었지만은 그 때는 물이 좋았었어
요. 진안 쪽, 그리고 임실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양이 상당히 많
았었어요. 그 전주천이 어디로 흘렀냐. 한벽루 있죠? 한벽루 거
기, 거기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쪽 향교라고 있어요. 향교로
해서, 전주고등학교 고 앞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면담자: 거북바위 앞으로 이렇게.

구술자: 거북바위를 이렇게 돌아서, 시청 앞으로 해서, 태평동으로 해
서 그렇게 흘렀어. 그런데 1936년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대홍

수가 일어나서 풍남문까지도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비가 왔어요. 저 풍남문 복원을 할 때 내가 전영래 박사, 박사하고 직접 발굴 조사를 했는데. 약 1m 20cm를 파니까 기단석이 다 나오고, 웅석의 기단석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 복원한 거예요. 1978년부터 80년까지. 내가, 내가 계장할 때. 그거 복원한 거예요. 그놈 싹 기단 조사해가지고 책 만들어서 말이야.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하고, 꼭 복원해야겠다. 국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복원을 해서. 남문에 종각이 없었어, 그 때는. 옛날엔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것까지도 발굴을 했지. 그레가지고 종각, 포루 이렇게 만들어서. 77년에 시민성금으로 그 종도 해가지고, 저쪽 신갈에 가서 성종사에서 직접 만들어다가.

면담자: 아, 그 종을요?

구술자: 그 종을 그렇게 했어요. 호남의 경제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남문시장. 거기가 이제 사진에도 나와요. 거기가 아주 그냥 풍성했었고, 그것 때문에 완산동이 그야말로 인구가 많았어, 시장이 가까우니까. 인구가 많았고 해방되고 나서도 집값이 전주에서는 제일 비쌌어.

면담자: 아, 완산동이요?

구술자: 예, 완산동이. 그래서 전주의 원조는, 원조의 땅은 완산이다. 그래서 완산이라고 하고, 온고을이라고 하고. 그러고 또 그 때 당시는 지금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같은 군이었었어... 지금만 해도 곤지산이 절벽으로 이렇게, 도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쪽 전주천 저 밑에까지 쪽 맞닿아 버렸어. 그러니까 전주천 거그를 가 보면은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인공으로 그놈을 싹 깨가지고 천을 만들었지. 그래서 저쪽 교동 쪽에서 보면은 '갈마음수'라고 해, 곤지산을.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그런 형태

다, 곤지산이.

면담자: 갈마음수.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태.

구술자: 음수형이다, 그렇게.

면담자: 그러면은 선생님 60년도에 이제 전주 다시 들어오셔서 그...

구술자: 시청에서, 64년에.

면담자: 64년.

구술자: 그래서 1997년까지 근무하다가 여기 동완산동 동장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서 정년을 했지. 교동 동장 3년 반 하고, 여그 와서
1년 반 하고 그러고 정년을 했지.

면담자: 그럼 선생님 그 시청에서 근무하실 때 그 기억하시는 완산동
의 모습, 뭐 특별한 모습 이런 게 있었을까요?

구술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완산동이 이제 그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
면은 왜정 때 지금의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전주에는 제1보통
학교, 제1보통학교. 지금 전주국민학교가 제1보통학교예요, 전
주초등학교가. 그리고 제2보통학교가 완산초등학교야. 제2보통
학교의 첫 교실은 지금 저쪽 부속초등학교 있잖아?

면담자: 아, 전주교대 부설, 부설초등학교?

구술자: 응, 그 자리가 제2보통학교 자리였었어. 근데 저리 이사 갔지,
왜냐. 교대를, 사범, 사범학교를 설립을 해 가지고 사범학교 지
으면서 부설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쪽으로 옮겼어. 그런
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고. 그마 만큼 완산동이 전주에서는 하
나의 보급자리 형태가 되었지,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이제, 그러
고 이제 해방이 되었다. 해방이 되가지고 남부시장이 그렇게
호남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시장이 되니까 아울러서
완산동이 가장... 같이 저기 했었고. 인제 교동은 비교적 그... 토
호, 토호들이, 토호들이 교동은 많이 살았고. 교동, 그랬단 말이

여.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그 때 제1보통학교, 제2보통학교 있다가 해방되고 이제 전주초등학교, 전주국민학교, 참. 완산국민학교, 풍남... 풍남국민학교도 왜정 때부터 있었어. 그리고 인자 해방되고 중앙국민학교가 생기고, 저쪽 뭐 우전국민학교 그런데는 완주군이었으니까, 그 때만 해도, 서신초등학교 있었고, 전주가 그렇게밖에 없었어.

면담자: 네네.

구술자: 그리고 인자 완산은... 완산칠봉은 뭐 인자 저쪽 평화동 쪽에서 봐도 칠봉. 외칠봉, 내칠봉 그러지? 저쪽 그 감영 쪽, 그러니까 도청 쪽에서 봐도 칠봉.

면담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 시청 출퇴근하실 때는 뭐 걸어서 하셨어요?

구술자: 그렇지, 자전거나 뭐. 여기서 뭐, 뭐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면담자: 그렇죠. 옛날 시청은 옛날 미원탑 있던 그 자리죠?

구술자: 지금 기업은행자리가 기여.

면담자: 아, 기업은행자리가 옛날 시청자리.

구술자: 기업은행자리가 본관이고, 지금 그 앞에 전북은행 자리.

면담자: 아, 네네네.

구술자: 거기가 부, 부속 건설과가 있었고, 수도과가 있었지.

면담자: 그 당시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 괜찮게 사는 집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 다 걸어다니고.

구술자: 그러지. 다 걸어 다니지.

면담자: 혹시 말, 소구루마 이런 것도 혹시 그 당시에 있었어요?

구술자: 아, 그러지.

면담자: 60년대까지?

구술자: 어, 60년대까지 있었어요. 내가 인제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게요.

면담자: 네, 네, 해주세요.

구술자: 그 때는 인제 농사가 지금의 평화동, 저쪽 우전면, 또 저쪽 이서, 저쪽은 동산초, 뭐 이런 디가 변방 아납니까? 저그 우아동 저쪽으로 이제. 원도심, 그쪽 조금만 저기지.

면담자: 발달했고.

구술자: 응, 발달했지. 그게 인제 일본말로 혼마찌, 혼정이라고 해. 혼마찌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비료가 없으니까. 비료가 없으니까, 아침 4시나 5시 쯤 말이야, 소구루마를 장군 똥자루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전주를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러기 이전에는, 나중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랬지. 그러기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가서 말하자면 분노, 분노를 저기를 해. 아침 출근 또는 밥을 먹을라 하면 꼭 와서 그러니까 시에서 규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시에서 시작해 가지고. 소구루마 이제 이렇게 싣고 와요, 소구루마로. 재미있지, 그거. 그렇게 용머리고개도 넘어오고, 그쪽 장성배기도 넘어오고, 그렇게 넘어와 가지고 똥을 푸고 이제 가는데. 8시 이전에 나가야 혀.

면담자: 아, 새벽 4시에 오전 8시 사이만?

구술자: 예, 다 푸고 나가야 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시에서 직원들이 가서 이제 해당 과에서 가서 제재를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이죠.

면담자: 그게 60년대예요?

구술자: 60년.

면담자: 그게 몇 년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구루마 가지고?

구술자: 음, 내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70년대 초까지 그랬을 거야.

면담자: 오, 70년대 초까지 그렇게.

구술자: 아, 비료가 없으니까. 과수원, 논, 밭, 뭐 많았거든 그 때. 지금

그 자리, 그 자리가 전부 아파트 들어서 있잖아. 서신동이니, 효자동이니, 평화동이니, 동산, 저쪽 우아... 그랬지.

면담자: 그럼 선생님 혹시 선생님 댁에도 그렇게 달구지 가지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구술자: 아니 그 사람들이 와서 퍼 가.

면담자: 알아서 그냥 퍼가요?

구술자: 아니 인제 와서 “똥 팝시다!” 그래.

면담자: 아침에 와 가지고.

구술자: 농부들이, 맞아. 그럼 이제 퍼 가라고 하지.

면담자: 재밌네요.

구술자: 한 때는 돈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면담자: 아, 그거를 퍼 가는데? 돈을 주고 퍼 가는 거네요?

구술자: 하도 이제 비료가 부족하니까. 자기 농사지었던 것 조금씩 이렇게 주고, 그렇게도 했고. 이제 경쟁을 모다 하고 그러니까 퍼 가는 데 돈을 조금씩 이렇게 반찬값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주고, 그런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귀했어.

면담자: 그럼, 선생님 당시에 시청 근무하실 때 완산동에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술자: 예, 많이 살았지요.

면담자: 아무래도 도청, 시청이 가깝고 하니까...

구술자: 예, 시청이 가까우니까. 완산동, 교동, 다가동, 전동 그렇게 많이 살았죠.

면담자: 가까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완산동은 부자 동네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 그랬다던데요?

구술자: 그렇지. 왜냐하면 상인들이 많이 사니까, 상인들이.

면담자: 아, 남부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구술자: 상인들이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뭐 저 사업 자금이지, 그런 돈이 있었지.

면담자: 그리고 또 완산동이 굉장히 좀 유서 깊은 동네잖아요.

구술자: 아, 그렇지요.

면담자: 그런 면에서 혹시 지역 유지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구술자: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저쪽 그 서완산동에 있는 기령당이라고 있어. 기령당에 내가 지금 감사로 있는데.

면담자: 아, 그러세요.

구술자: 감사로 있는데. 기령당이라고 하는 다가 지금 417년이 되었어요.

면담자: 올해로.

구술자: 올해로 417년 되었어.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마을마다, 고을마다 이렇게 경로당이 있질 않았고, 그 때는 벼슬아치를 좀 허고 예를 들어서 어디 도에... 감영에 이렇게 근무했다가, 전주부에 근무했다가 정년을 했든지. 또 인제 토호들이 이제 그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말하자면 시도 읍고 이렇게 저기 허고 그런 자리여, 그게. 조선조 초에는 주로 이제 낙향한 사람들이, 벼슬허고 낙향한 사람들이 기령당을 설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저쪽, 저기 저 동서학... 서서학동 군자정 자리에서 이사를 왔지만은 완산동 학교 옆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자리에 이사 가기는 그제... 해방 전에 왔던가? 몇 번 이사갔지. 그런 역사가 있어. 기령당지를 만들었어, 내가 그 문화계장 하던 시절에... 기령당지도 한 번 봐봐.

면담자: 네, 네. 전주 기령당 당지.

구술자: 거기에 선생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 번 박물관에서 와서 저기 했을걸?

면담자: 그러면은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막 새마을 운동도 이런 것도 많

이 했잖아요. 그 때 뭐 완산동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일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구술자: 그 때는 인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자꾸 이제 승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야, 직원들이... 비교적 완산동이나 이 저 도심동은. 도심동이니까 여기는, 그 때만하더라도. 지금은 변방동으로 됐지만은 완산동이. 그래서 직원들이 저쪽 이제 뭐 저 평화동, 우전면이 이제 전주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고 마을이 장재, 장재마을이랄지, 뭐 저기 지곡마을이랄지 이런데 이제 하나씩 말어. 공무원들이. 아침 7시에 새마을기하고 태극기를 마을에서 걸어. 7시에 걸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마을가서 일을 하고 그럴 때야. 그 때는 뭐 택시가 있어, 버스가 있어. 그래서 인제 자전차로 다니던지 그러 안 하면 걸어서 다니던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제 서신동을 맡았어. 서신동 거기가 뭐 마을이 되었더라? 저 우아동도 맡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말아요. 그렇게 말가지고 소위 그 국민운동으로 그렇게 번지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그 때 당시 공무원들은 상당히 애썼어요. 새벽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고 일 붙이고, 일하고 나서 다시 또 시청으로 9시에 출근해야 돼요.

면담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 완산공원? 그거는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구술자: 저기에 대해서 내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전주 또는 완주가... 완주의 본디가 완산동인데. 아마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은송리, 반석리 그래. 그렇게 돼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완산이라고 한 것은 완전 완(完)자, 아까 얘기한 복스럽고 그런 산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기린봉하고 저런 디에는 말하자면 공원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원

래 공원, 말하자면 지정이 딱 되어버리면은 제약을 많이 받아
요. 그 지역은, 그 지역은. 그 기본계획을 세워놔야 해, 시가. 아,
앞으로 어떻게 여를 개발을 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놔야
해. 기린봉은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완산공원은 기본계획을 안
세웠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시에다가. 나
동장하고 그럴 적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놈
을 개발을 해야지, 기냥 놔두면 뭐할 것이냐. 그 이유가 하나 있
어요, 내가. 전주 이제 뜻 있는 유지들이 전봉준 동학 혁명군이
1900... 1892년인가?

면담자: 1894년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죠.

구술자: 응, 일어났지. 그래가지고 무장을 거쳐서 전주로 입성을 했잖
아. 입성을 할 때 그냥 무혈입성을 했어요. 그 때 전라감사가,
김 뭐 감사가 도망 가버렸잖아? 마을에서 문을 열어줘 버렸잖
아. 그렇게 인제 여기를 입성을 했는데. 저쪽 용두봉, 그러니까
지금 용머리고개. 고리 이렇게 원평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어
요. 그 안에 무장에서부터 전투가 많이 있었는데 그 때 나라에
서 말이야. 조선조 그 나라에서 초토사를 보내가지고 동학농민
군을 뒤만 딱 따르라. 그 때 대포가 2문이 있었어요. 뒤만 따라
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원평에서 한 번 접전을 했고 그냥 바
로 완산칠봉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곤지산 여기에서 경군
은... 농민군은 입성을 하고 정군은 곤지산 여기 와서 대포 2문
을 가지고 막 쏘대요. 그러니까 그 때가 이제 여름 5월 달이니
까 말이야.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번기고.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져요. 그 전투 벌어진 곳이 완산입니다. 일부는 기록을 보
면은 저쪽 지금 서서학동을 가지고 새동네라고 했어요. 고리 이
렇게 농민군이 들어가고 일부는 이 골짜, 그리고 저쪽 투구봉

골짜기로 해 가지고.

면담자: 아, 수돗골이랑... 이렇게 만났다는.

구술자: 응, 그렇게 해 가지고 셋으로 나뉘가지고 약 700명이, 농민군이 경군하고 싸워. 말하자면 중앙군대가 하고 싸워. 그 관군, 그게 홍계훈이 이끌고 온 겁니다. 그렇게 싸웠는데 거기서 한 500이 죽어요, 농민군이. 왜냐하면 그 때는 조총이 있으니까, 경군은. 그래가지고 기냥 전의가 상실이 되어버리지, 그런데다가 농사 철은 되었지. 그래가지고 기냥 나가버렸어, 전봉준 저기가. 그런 말하자면 농민군의 희생을 완산에서 당했던 말이야. 그런데, 그 소위 그 희생한 농민군의 혼을 달래줄 그런 어떤 기념물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전영래 박사, 그 때 여러 교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저 작촌선생 말하자면 모시고? 내 친구 아버지지만은. 그렇게 해 가지고 상의를 헌 것이 동학, 어... 동학농민군전주입성, 전주입성비라고 그걸 완산 가서 세웠어요.

면담자: 그 누각 앞에 있는?

구술자: 그렇지. 그게 원래 종각이여, 원래. 남문 종, 종을 만들어놓고 저 보수하고 복원을 할 때 놀 디가 없어서 거기가 종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면담자: 그럼 그 종각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구술자: 인제 그러니까 풍남종을 만들어서 놀 디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우선 임시로 해놓고.

면담자: 끝나고 다시 온?

구술자: 그렇지, 그러지. 종각을 여기다가 복원을 해 가지고 했어. 그러고 인제 허물어 져갔고 거 있는데. 바로 그 앞에다가 만들었어요. 여기 저 그게 보국안민이라고... 김윤, 김윤식. 변산 김윤식

이 쓴 원본이 다 있어. 여기 다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 인제 완산공원이 저게 도 소유예요. 도유림이라고 우리가 그랬어. 그러니까 도에다가 승인 받아야 하고 승인 받을려면 아까 내가 얘기한 공원 기본계획이 있어야 해. 마스타 브레인이 있어야 해. 그런데 그것을 안 해놨다고. 그래서 참 도에서 꾸중도 받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장소가 그 근방이다. 경군하고 싸운디가. 세 군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한 500명이 그렇게 말하자면 희생이 되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으면은 일하기가 쉽지. 예를 들어서 위령비를 세워준다던지, 그 농민군 저기를. 위령비를 세워줘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할 판인데 그런 것을 안 했어. 그러다 나는 인자 정년이 되야 버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지. 삼례에다 엉뚱하니, 삼례는 제2봉기장소예요, 거가. 그러지. 위령비 세울 위치는 아니야. 세우면 여기다 세워야 해.

면담자: 경군하고 전투가 있었던 곳이니까.

구술자: 그렇지, 여기서 싸웠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내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달라고 막 재촉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년하고 나서 뭐 힘이 있간디. 갓끈이 떨어져 버렸으니.

면담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언제부터 이렇게 공원으로..

구술자: 그것은 내가 내 전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 알아봐야 돼. 그 있을 거야, 다. 그래서 완산동이 낙후가 되었잖아? 그것이 완산공원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저기를...

면담자: 묶여가지고?

구술자: 어어, 도시계획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기를 못해요. 5층, 4층인가 이상을 못 지어요. 4층,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면담자: 예, 고도제한.

구술자: 응, 고도제한. 그것이 뭐 스카이라인에 걸리네 뭐네 해 가지고. 내가 이제 완산동지역활성화... 뭐 추진위원회도 부위원장으로 하도 저기허길래 그 회의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동 자문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그 때도 고도제한 좀 풀어달라고 그래도 안 풀어줘요.

면담자: 시에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구술자: 예, 시에서 안 풀어줘요. 완산이 참 명산인데 말이야, 자그만 허지만은. 이게 뭐 아마 표하고 150 조금 넘나? 그 밖에 안돼요. 그래도 참 칠봉이라고 하고, 외칠봉, 내칠봉 그러지요. 봉마다 이름이 다 있고.

면담자: 네. 선생님 유년기 때 완산칠봉에서 놀고.

구술자: 아,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놀이터가 거그야. 놀이터가 거그였어요. 뭐 눈감고도 거그 다 다니고 그랬어. 그럴 정도야. 그리고 지금 도로가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벚나무가 있었어요. 양쪽에 벚나무가 쪽 있어가지고 이제 벚꽃이 피고 그러면 버찌 있었잖아. 버찌를 따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서로 많이 먹었다고 따 가지고 입에다 막 칠해 이렇게. 나 이만치 먹었다 이거지, 과시를 해. 그런 참 재미도 있었지. 병정놀이도 거그서 많이 하고.

면담자: 할 만 하겠네요, 거기서 하면 느낌이.

구술자: 왜냐면 삼나무가 거가 왜정 때 심어 놓 것이 있어서. 지금만 해도 삼나무가 있잖아?

면담자: 그걸 일제강점기 때 심은?

구술자: 아, 그렇지. 강점기 초기에 심었지.

면담자: 지금 남아 있는 삼나무가 일제 때.

구술자: 수령이 저거 한... 한 7,80년 될거요.

면담자: 원래 삼나무가 저렇게 길쭉길쭉 자라는 나무가요?

구술자: 그렇지. 일본은 저런 나무 많아요. 도로 옆에까지도 있어요. 내가 저 1980, 70... 1989년. 1989년에 일본에 갔었는데, 현직에 있을 적에. 우리가 저쪽 가고시마 시하고 결연을 맺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연수 겸해서 갔었는데. 두 번을 갔어요. 그 이듬해 전주 시립교향악단을 인솔하고 또 한 번 가고. 그래서 협연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말이야, 삼나무가 이건 뭐... 새끼야 새끼.

면담자: 그리고 선생님 완산동이 대장간도 많고 골동품상도 많잖아요. 이게 좀 완산동의 특색인 것 같은데...

구술자: 지금은 봐서 특색이죠? 지금은 특색인데 이 골동품은 뭐 그리 간지가 얼마 안돼요.

면담자: 아, 그럼 원래 어디에?

구술자: 원래는 이제 전동, 중앙동, 다가동 고작 쪽으로 있었는데 몇몇이 거기 가서 한 댕집 있나, 셋집 있나 모르겠어요. 대장간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면담자: 아, 완산동에.

구술자: 전주가 이제 자치단체 축제 중에 풍남제라고 있었어요, 풍남제라고. 지금은 이제 명칭을 풍남제라고 않지. 그 때는 풍남제를, 지금 기린로 있지 않습니까? 기린로를 막 개설해가지고 포장도 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면담자: 행사를 했었어요?

구술자: 그런데 이제 기린로가 이제 포장을 하고 건물을 자꾸 짓고 그러니까 헐 디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있을 때 그 때 종합경기장 고리 이제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각 시군의 토산품이랄지, 향토음식이랄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점포 하나씩을 주고 거기서 이제 성황을 이루었지. 풍남제라 하다가 요

즘은 풍남제라고 딱히 그렇게. 요즘은 지역 문화행사도 하도 많으니까. 우리 풍남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지금은 아마 대사습. 대사습이, 대사습도 내가 여러 해 했습니다. 1회 때는 저쪽 종합경기장에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방공회관이라고 지금 저 덕진에. 전주시회관이 하나 있잖아, 예술회관. 거기서 쪽 했고 그랬는데. 엇그저께 끝났드만.

면담자: 선생님 그러면은 골동품상이 완산동으로 온 게 얼마 안 돼...

구술자: 얼마 안돼요. 내가 기억하기는 한 20년 정도 됩니다. 대장간은 원래 두 군데가 있었어요. 두 군데 있었어.

면담자: 아, 선생님 어린 시절이나 뭐 60년대 뭐 이때도.

구술자: 60년대 있었어요. 청년 때도 있었고.

면담자: 선생님 그리고 그 또 완산동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종교적으로 교회도 많고.

구술자: 그렇습니다.

면담자: 절도 많고 점집도 좀 많고.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구술자: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민간신앙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점쟁이라고도 하지만은 무당이 아납니까? 민간신앙이, 일종의 민간신앙이야 이게. 이것은 전주의 상당히 오래 전부터 형성이 되었었어요. 특히 완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이 남부시장이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호남상권을 쥐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특히 민간신앙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그랬지요요? 어디 길을 떠나드래도 그런디 가서 점을 치고, 내가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겠는디 어쩌냐 묻고.

면담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구술자: 그렇지, 그렇지요.

면담자: 그리고 또 여기 절도 상당히 좀 많더라구요, 완산동에.

구술자: 근디 절은, 절도 6·25 이후에 생긴 거예요. 가장 오래된 절은 칠성암. 왜정 때부터 있었어.

면담자: 완산칠봉 안에 있는?

구술자: 안에 있는, 그 절이 제일 오래 있었고, 나머지는 6·25 이후에 모다 생긴 거지요. 오래되진 않았습시다. 전주의 절은 저 동고사, 승암사... 원각사 이런 것은 생긴지 얼마 안돼. 한 50년 되는가...

면담자: 용머리고개가 60년대 초반에 공사가 되나요?

구술자: 아니죠. 용머리고개는 소위 그 식민지 시대에 전주 무슨 그 도로 개설을 헌단 말이야? 그런데 그 때도 말이야, 지역 그 유지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면 완산칠봉 자체가 저쪽 모악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꼭 용과 같은 형태야. 그 머리가 지금 용머리고개입니다. 그래서 인자 황학정이라고 저쪽 예수병원 있죠? 고리 이렇게 뻗었거든? 그래서 다가산으로 이렇게 뻗었거든? 근디 거기다 길을 낸다고 허니까 전주 토호들이랑 유지들이 ‘용의 머리를 잘르면 어떻게 되냐, 목을 잘르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반대가 극심했어요. 그래도 뭐 별 수 없었지. 그래서 그 왜정 때부터 그 도로를 낸 거예요.

면담자: 그 때 나고 이렇게 길을 넓히고 한 거는 60년대쯤 됐던 거예요?

구술자: 그러지, 뭐 자동차 생기고 하니까. 60년대 이전에. 60년대 이전에부터 있었죠. 왜정 때부터 있었어, 그 길은. 4차선 낸지는 한 70년대? 한 그 정도 되고, 길은 있었어.

면담자: 그 선생님 혹시 유년기나 청년기 때, 유년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인들과 뭐 관련된 이야기라던지 선생님 기억 속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세요?

구술자: 예... 그래요. 우리가 3학년 때 담임이 여자 담임이었었어요.

면담자: 혹시 일본인?

구술자: 예, 일본인. 무라마쓰라고.

면담자: 무라마쓰, 예예.

구술자: 무라마쓰, 무라마쓰라고 하는 여자 선생이 있었는데. 해방이 딱 되었으. 그 때는 3학년이라면 지금 뭐 몇 살입니까?

면담자: 한 10살?

구술자: 11살이나 10살이나 이런 정돈데. 신주머니에다, 그 때 이제 저 쪽 풍남동에 살았어. 거기에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일본 가옥이 몇 있었거든.

면담자: 네, 그 선생님이 풍남동에 사셨어요?

구술자: 네. 적산,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산가옥이지. 그래서 거그 살았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해방이 이제 막 되아가지고 말이야, 만세 부르고 그랬을 텐데, 그랬을 땐데. 우리 몇몇이 말이야, 신주머니에다가 전주천에서 자갈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그를 갔어요.

면담자: 선생님 댁으로?

구술자: 예예. 밤에 숨어서 돌을 거그다 던지고 그랬어요. 그런...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 직접 했어, 나는. 왜정 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부급장을 했어. 부급장을 했었는데. 그런... 책임감 땀에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 때 한 닷명이 갔어요. 닷명이 가가지고 막 던지고 도망오고 막 그랬지.

면담자: 그 때 그 무라마쓰 선생님 굉장히 엄하고...

구술자: 엄했.. 아주 사나웠지, 아주 사나웠어요. 자기 남편이 부속초등학교 선생이었고, 왜정 때. 그 때 이제 고쫓라고 해서 여그 군복 입고, 여그다 별 하나 달고 그렇게 있었지.

면담자: 칼도 차고?

구술자: 칼도.. 시키편, 시키편이라고 해서 칼도.

면담자: 시키편?

구술자: 응, 시키편.

면담자: 그럼 그 무라마쓰 여자 선생님도 칼을 차고?

구술자: 아, 여자는 안 차고.

면담자: 그냥 남자.. 그 남편 되시는.

구술자: 왜정 때 말이에요. 4학년부터는 지금 얘기하는 열병분열을 했
다니까.

면담자: 열병분열?

구술자: 어어, 그 저 군대 가면 저 교단... 아니 저, 그것 보고 뭐라 그래.
중앙에 딱 그 대대장이랑 누가 있고 그러면은 군인들...

면담자: 열병식?

구술자: 그 열병식 허잖아. 일제가. 아, 그럼! 4학년부터 그래 가지고 목
총 다 메고 말이야. 그리고 앞에 지휘하는 급장은 시케또라고
저저 칼... 그거 딱 해가지고, '가시라 다까!'하면, 말하자면 '우로
봐', '우로 봐'가 아니라 '가시라'라고 하면 중앙이지, 중앙을 보
라고. 그 앞에 지나가면서. 그거 열병 아니야? 열병식? 그런 것
까지 했어요. 우리는 구경허고, 3학년 이하는 구경허고, 4학년...

면담자: 4학년부터는 실제로 하고, 훈련을?

구술자: 응. 다 했어, 그 때. 초등학교 다 했어.

면담자: 완산동에 왜정 때 뭐 일본사람들 많이 거주하고 했었어요?

구술자: 그게, 그것이 특이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완산동 토백이들은
다 아는데, 일본사람이 거주를 해야 할 디는 완산초등학교 관사
뿐이에요.

면담자: 아, 거주할 수 있는 곳이 관사뿐이에요?

구술자: 교장, 교장이니까 거 살아야지. 또 여기다 정수장을 만들었으니까 정수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일본사람이었어야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야, 오는 사람마다 이질이 걸려서 죽어요.

면담자: 죽었어요?

구술자: 아, 죽어.

면담자: 그럼 그 교장도 죽었고 여기 정수장 관리했던 주인도 죽고?

구술자: 그러니까, 그것이 참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나중에는 말이야 관사도 비워버리고 여기 저 관리인도, 관리인도 한국 사람으로 했어요. 이상하게 이질이 걸려. 이질이 아주 그 일본사람들은 약한 모양이야. 그래서 이질로, 이질 때문에 완산동에는 일본사람이 못 살았어요.

면담자: 아예 들어오려고도 안했겠네요?

구술자: 들어올라고도 않지, 특이하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디가 두 군디 뿐이야.

면담자: 근데 거기마저도 다 죽어나가니까.

구술자: 응, 죽기 전에 나가던가, 죽어서 나가던가. 그랬다 그래, 그랬다 그래. 근데 그 사실이야, 정수장은. 그래서 한국사람 관리인을 뒀어. 그 저 장호 아버지가 여 관리인이었잖아, 나중에. 문장호 아버지가.

면담자: 굉장히 특이하네요.

구술자: 특이해요. 그래서 '완산칠봉의 기 때문에 그런다'하는 그런 속설이 있었지.

면담자: 아, 완산칠봉 때문에. 그리고 또 선생님 완산칠봉 이쪽 가보니까 방공호라고 하나요? 대피소처럼 굴 이렇게 확 있더라구요, 그제...

구술자: 그것은 훨씬 후의 얘기에요. 그것은... 연도는 내가 이제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 저 우리 관공서에서 CPX라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팀 스피리트같은 훈련을 하면은 전시, 전시 훈련을 허잖아. 그럼 인제 도청이 있고 그러니까.

면담자: 제일 가까운...

구술자: 도청이, 도청이 말하자면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두 군데 이렇게 파났어요. 그거 뭐 얼마 안 되지, 한 80년대...

면담자: 근데,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 뭐 훈련을?

구술자: 했어요. 거 들어가서 도청, 전부 들어가서 거 가서 하고 그랬어요. 국가가 전시가 되었으니까 중앙에서부터 쪽... 그러니까 행정체제를 쪽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금계 시청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그 가서 전령도 받고 막 그랬지.

면담자: 그 보통 선생님, 저기 서완산동쪽인 거 같은데... 그 빙고리라고도 하고.

구술자: 빙고리라고 있어요, 빙고리라고. 완산교에서 쪽 다가산을 이렇게 휘감고 돌아가는 거기가 상당히 소가, 물이 많을 때 소가 이렇게 있어요. 전주천이 물이 많았었어요. 거기가 이제 얼어. 깊어도 깊고. 1년에 한 두, 서너 사람이 꼭 죽고 그래요. 거 떡 감다가.

면담자: 아, 떡 감다가.

구술자: 거기서 얼음 떠 가지고 거기 빙고도 거기다 갔다가 쟁이고 떠다가 여기다 쟁이고 그랬어요.

면담자: 선생님 그러면은 빙고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구술자: 내가 알기론 두 군데, 거기하고 여기 두 군데.

면담자: 그 쪽 하나, 그리고 여기 수돗골 있는 이쪽 하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빙고리.

구술자: 왜정, 왜정... 거시기 저 뭐야 저... 조선조 때니까.

면담자: 선생님 그리고 제가 또 무슨 얘기도 들었냐면요. 그 왜정 때
여기 그 서완산동 이쪽에 조선총독부 간부가 살았대요. 근데,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양반집 자제분께서 그 조선총독부 뭐 앞
잡이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 다가산에서 전주천으로 떨어져서 투신
자살을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도 하는데...

구술자: 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모르겠어, 조선총독
부 인제... 한국사람으로서 조선총독부에 인제 근무를 했는감
만? 그럴 수 있지?

면담자: 선생님 그리고 여기, 이쪽 동완산동 이쪽에 전라북도 산업국장
관사가 또 있었다고.

구술자: 응, 관사가 완산초등학교 바로 앞에. 그러니까 저쪽 도유림, 삼
나무... 거기 바로 밑에. 거기에 전라북도 국장 관사들이 있었어.
네 군데여. 내무국장... 산업국장, 건설국장 또 하나가...

면담자: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고.

구술자: 다, 다 헐어버렸을걸?

면담자: 관사 하나 남아... 하나 남아 있더라구요.

구술자: 하나 남아 있어?

면담자: 저희... 그 들어가서 좀 보고 왔거든요.

구술자: 아, 그랬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리고 빈 터로 있죠?

면담자: 네 그리고 나머지는 빈 터로..

구술자: 아, 남아 있구나 하나... 하나가 남아있다?

면담자: 아닌가, 그게?

구술자: 나는 다, 다, 다 저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철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2층 집이야?

면담자: 네, 2층집.

구술자: 그건 거시긴데... 가가 누구여, 저...

면담자: 선생님, 하나 남아 있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보고 왔거든요.

구술자: 가만 있어봐, 내가 볼 적엔 아닌 것 같은데...

면담자: 아, 그래요?

구술자: 아닌 것 같애. 이거 어디에서 찍었어요. 이쪽 도로쪽에서 찍었어요?

면담자: 아니요, 그 정문에 주택으로 딱 들어서,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런 모습이었구요. 이 앞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찍은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구술자: 음, 글썄 나는...

면담자: 아, 선생님 그럼 다 철거된 걸로 알고?

구술자: 철거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면담자: 터만 남아 있고 건물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으신?

구술자: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전주고등학교 교장을 허고 전라북도 사무국장... 뭐 지사... 김가전 선생 묘소가 있던 자리가 관사 자리였어.

면담자: 김가전 도지사 묘소가 옛날 관사 자리라고요?

구술자: 지금 관사.. 아니.

면담자: 지금 주차장.

구술자: 몰라 주차장인가는 몰라도 그 일대가 도지사 묘소였었어. 그리고 우리가 치자나무가 있어서 따 먹으러 가고 그랬지.

면담자: 그리고 또 뭐 백, 백대령.

구술자: 백대령. 응.

면담자: 이 분 수원백씨시더라고요. 이 분이 우리 지역에서 조금 무슨 활동을 하셨었어요?

구술자: 지역에서 활동이 아니라 이제...

면담자: 여순사건 때 돌아가셨다고...

구술자: 수원백씨 집안 저한테 내 동창 삼촌이여, 그게. 삼촌인데. 거
저 백대령 묘, 비가 있었는데 그거 파갔을걸?

면담자: 어? 지금 있어요.

구술자: 아, 하나 있고 저쪽 우에것은 아마 파갔을거야.

면담자: 아, 원래 있었던 게 또 있었구나.

구술자: 여쭙 정자나무, 정자 있지? 정자 하나 비 있지? 정자 이렇게
생겼잖아, 원두막 같이.

면담자: 비를 봤는데요, 뭐 원두막같이 이런 건 없었구요.

구술자: 사진 찍었어? 어디 봐봐, 내가 보면 아는데.

면담자: 비만 찍어가지고, 주변 모습을 안 찍어가지고, 산중에 있던...

구술자: 아, 요 비...

면담자: 아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구술자: 응, 당초에는 이렇게 안 있었는데. 거시기 했어, 파묘 해 갔는
데 거기다 이제 유적지라고 했는감만. 유지라고, 유적지라고 그
렇게 했는감만. 그래, 6·25 때 전사한 사람들, 전사한 사람이었
어요. 그 때 당시 백, 수원백씨 집안사람인데.

면담자: 그리고 그 완산칠봉 약수가 또 깨끗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완산
칠봉에서 나오는 물.

구술자: 물? 그것은 깨끗하다고 내가 말 할 수가 없어.

면담자: 옛날 말인가요?

구술자: 옛날에는 저희 선친께서도 다니시면서 웅달샘같이 이렇게 했
던 것을 마을사람들이 돈 걷어가지고 거기다 비석도 세우고 그
랬지.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오염이 되 가지고 가끔 시 보건소
에서 조사를 하거든? 그러면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그래. 여기
도 그러고 저 좁은목 물도 그러고 그래.

면담자: 선생님 그 완산칠봉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 마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구술자: 쭉 내려왔었죠. 그 지금 완산초등학교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
까? 거기서 완산학교 그 우로까지가 그게 다 내렸었어. 근데 지
금 복개가 되어서 도로가 되어서 그렇지. 한 쪽이 약 한 3m?
3m 정도가 개천이었고. 뭐 이제 한 2m 정도가 도로였고, 그렇
게 되었어. 그런데 그거 다 복개를 했지. 그리고 인제 나무들이
없으니까 다 물이 없어, 건천이 되어버렸어. 건천이 되어서 이
제 하수구 역할을 하지. 그리고 지금 이 비가 오면 말어요, 전부
복개를 허고 아스팔트하고 그러니까 그놈이 하수구로 해가지
고 바로 바다로 빠져버리니까 땅으로 들어갈 물이 없지 않습니
까. 그니까 산에서 조금 그 물이 쭉쭉쭉 흐를정도 뿐이지 말
이야, 지금은 전부 거리마다 도로마다 집안마다 말이야. 전부
다 시멘트로 덮어놔오니 지하수가 어디가 있겠어. 바로 직행이
지, 전주천에서 직행. 전주천에서 그냥 바다로 직행을 해버리지.
땅으로... 그니까 옛날에는 5m만 가더라도 샘이 됐어요, 지금은
50m 가더라도 물이 없잖아.

면담자: 혹시 뭐 완산동 마을 축제라던가, 뭐 당산제라던가 이런 것도
혹시 있었나요?

구술자: 완산동 당산제는 없어요. 왜냐면 마을이 그렇게 도심에 속해버
리니까 그 맥을 이을 사람들이 없다고.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
니까.

면담자: 그렇죠, 이동하는 사람이 많으니.

구술자: 그러니까 그런 마을이.. 마을은 오래 된 디가 다 있는데, 그런
당산제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오히려 저 변방 쪽이 많지.

면담자: 선생님 그러면은 좀 마을만의... 특징이랄까? 혹시 뭐 이런건...

구술자: 특징, 특징... 특징도 별로 특징도 꼽을 수가 없어요. 꼽을 수가 없어. 왜냐면 도심이 되어 버리니까. 내가 아까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전주의 근본이라고?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면담자: 혹시 더 완산동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더 있으세요?

구술자: 음... 그것 뭐 이제 이쪽 저기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 특히 내가 더 할 말은 책에다 이런 디 다...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이 책에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변해요. 변하고 그래요. 나 어렸을 때 같으면 참 완산동이 아주 참 좋았었는데. 인심도 좋았고, 첫째는 교통이 좋았어요. 아, 도청, 시청이 다 여가 와 있으니깐. 지금 같으면 저쪽 덕진까지만 가더라도 촌으로 봤어요, 우리는. 거기는 촌으로 봤어. 덕진연못 같은데 그런 디를 다 시골로 봤다고. 지금은 거꾸로 되었지만은. 그렇게 되었어요, 시대가.... 선화당을 새로 복원을 하면은 객사하고 선화당 새로 복원하고 풍남문, 경기전 이 연결을 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 코스도 이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를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면담자: 선생님 혹시 유년기 때 학교 다니셨을 때 사진이나, 사진이나... 완산동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이런 것도 있으세요?

구술자: 6·25 때 우리 집이 그냥 다 저기를 해 가지고, 망해가지고, 재산이라는 것을 다 불 질러 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더라도, 뭐한테... 우리 형들이 조금 저기해 가지고 억압을 많이 받았지.

2. 송주원씨 구술

— 1934년생, 前 공무원

— 기령당이사장 최병로씨 동행(이하 구술자2)

면담일:2014년 6월 14일 / 면담장소:자택 / 면담자:이동희

구술자: 이자리 초가에서 나아가지고 여기서 크고 여기서 공직생활 마치고 그냥 여기서 살아요. 그냥 한자리에서 나같이 오래 사는 사람도 없을거예요.

면담자: 그러게 없을거 같은데요. 전주 그 기네스북에 조사돼야할 분이시네, 한 곳에서 110년을 사신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사신.

구술자: 네, 이 자리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조부님께서 천도교 창건록에 이름이 오를 정도에 그 접주는 아니더라도 지역의 고을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천도교 창건록에 오르고 나뉘 학교 다닐 적에 사실 천도교 교당에 갔었다고. 천도교 교당이 어디였냐면 지금 저기 전주대학(영생대학)있던데 철도 넘어가는데 길있잖아? 고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적에 거길 가서 천도송도 부르고 이.. 일요일이면 식구들이 전부 그 때만 해도 수도가 없었고 공동우물로 먹었으니까. 지금은 공동우물이 저 옆에 지금도 그 우물자리가 있어. 거기서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떠다가 옛날에는 그 부뚜막에 주황이라는게 있습니다. 가마솥이 하나있고, 거기다가 막대기를 두 개 거기다가 물을 넣고 콩드리고 일요일날이면 앉아서 청수 소반에다가 그릇 하나 놓고 가족이 앉아서 신천주교도와영세불망만사세 그것을

하고 이제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천도교 생활을 했어요. 이 말이 뭐 인내천그러고 오만년 누구덕의 어찌고 그러더만 뭐 최덕 실이라고 하더만 다 없어지고 서울로 다 합쳐버려고 그러니까 천도교 역사가 깊어지니까.

천도교는 제사를 어떻게 하는고하니. 평소에 먹는 밥상을 그대로 깨끗하게 정성만 드려서 한다. 그렇게 많이들 챙기지 않았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제사를 모시면 저기예다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딱. 누구누구부군 심의 이렇게 써 붙이고 그러고 밥을 저쪽에다가 놓잖아. 이렇게 밥상을 딱 놓고 여기서 저기에서 절을 하는디. 그래야 저기 어른이 계시니까 우리가 인사를 드린다 하는디. 천도교는 요게 밥상을 이쪽에다가 놓아요.

면담자: 동쪽에다가?

구술자: 아니 이쪽에다가 봐 내쪽으로. 그리고 지방도 안 붙여. 그래가지고 그냥 한속에 평소 밥상 그대로 해서 제사를 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근래 와서 아 내가 자손들에게 잘못 가르치나 보다 해서 지방도 쓰고 큰아들보고 여기서 너는 참신 뭐 설명을 하고 가족들이 여기서 전부 절을 두 번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요새 가르쳐주고 있고. 천도교가 고런 것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집 앞 골목길이 신작로 나기 전에 큰 길이 었다는고만. 우리집 서당도 있었어.

면담자: 예예 여기가요?

구술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에서 한문 공부도 하고 천자문 외워서 쓰면 선생님이 신문지로...여기가 큰 길이였다고. 그래서 저길이 우리 어렸을적에는 버스가 자갈로 해서 목탄차가 뒤에서 북북북 돌리면 요렇게 가스를 부글부글하면서 자동차가 겨우 올라갔어. 애들이 뒤에 타고 내리갈적에는 자동차가 더 빨리 내

려가잖아. 그면 따라 내려가다가 넘어 떨어지고 이런 일도 아주 이 길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왜정 때 들어서면서 도로를 전부 구역별로 담당해가지고...

면담자: 그럼 큰길이었다는 데가 그러니까 저 원래 큰길이었다는데 지금.

구술자: 원래 저는. 제가 어렸을적에는 지금 큰길이... 기어다니는 길이였었고. 이 앞에 골목이 큰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원빌라 있잖어? 거기서 저 따박골로 넘어갔다고해. 사실은 따박골이라는게 가원빌라에서 저 뒤로 넘어가는 길이 따박길이야. 오늘보니까 따박1길, 2길있는디 이걸 말도 안되는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병원 있잖어? 예수병원에서 걸어가면 낙원아파트 뒤로 올라가는 길이 강당고개. 그래가지고 왜정 때는 그 위에 감시초소가 있었어요. 비행기 감시초소. 그래가지고 이 일본애들이 미군기들이 오면 감시하고 싸이렌을 걸어주고.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 다닐적에는 선생이 오르젠을 눌러가지고 봉~~ 이걸 비이십구 소리야 고로롱로롱~ 이걸 브라만 특이소리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했고.

면담자: 그 당시 감시초소에서 있었던데 강당골이라는 데가 어디 지금 예수병원있는데...

구술자: 강당고개가 지금 어디있고 하니. 여기 우리 기령당이 있잖어. 기령당에서 골목으로해서 그 유치원 하나 있죠? 조그마한 유치원. 그리 넘어가는 길이 강당고개야. 이게 낙원아파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게 그... 저.... 화산교회 있잖어. 어 그게 강당고개. 그리해서 예.... 저쪽 그... 우석대 사회교육원 자리. 지금 엠마오 사랑병원 있잖어. 그리 고개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게 이게 강당고개야. 거기 가면은.

면담자: 아 그게 강당고개예요? 저 그 집단 매장했다는?

구술자: 거기가 이렇게 돌로 많이 파져 있잖여.

면담자: 네 쪽 들어가있는데.

구술자: 그게 사람이 한 40~50명 죽어있어요.

구술자 2: 지금도 거기가 빠가 있지요.

면담자: 거기 지금 보고 왔어요.

구술자: 내가 6:25때 이서면으로 피난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6.25때 겪은 일은 이루 다 말 할 순 없고. 수도원을 했다. 미군이 왔다갔다. 그래서 강당고개로 해서 거기로 가니까 거기가 한 40~50명 발 잃고 있는 사람, 넘어져있는 사람, 시کم등 누워져있었어.

구술자 2: 지금도 빠가 있어. 지금도, 그 거기만 지나갈라면 으쓱해. 거기가 아주 그 위애가 그 때 말로 소반술. 소반술. 소반과 같은 산이다해서 소반술. 강당고개. 그래가지고 예전에 거기가 싸이렌 불리고, 그런 곳이 있었어요.

면담자: 그럼 그게 옛날 구 도로변이에요. 그 넘어다니던. 강당고개. 지도에 나오던 강당고개그러구나.

구술자: 거기에서 화산교회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딸기밭이 쪽 있었어. 그리고 지금 예수병원에서 나가는 큰길 근처에는 미나리깡이 주로 많이 있어. 미나리깡. 예 그게 강당고개고. 여기 지금 정혜사 밑에 안행골프장 있잖여? 그 효자3단지, 여가 전부 논이었어. 그리고 그 뜰이 있어. 지금 가구점 있는데. 효자3단지 뒤로. 그럼 그 숭악했다고. 우리 어렸을적에는 용촌 배기라고 했지. 나병환자들 거기도 있었고 강당고개에도 있었고. 그렇게 아주 숭악한데야.

구술자 2: 거기가 중학교 지금 집진 자리인데. 거기가 야산이 하나있었어. 어디에? 그 여학생들 중학교 있지? 여기? 하 여기는 어떻게 되는데고하니. 지금 뭘 교회여. 바울교회 고 위에 능선부터 이 학교

까지는 능선이 쪽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교회 주차장부터 저리 넘어가는 길 있지요? 그것이 터진목이여. 터진목. 왜 터진 목이냐. 능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학교도 이렇게 산이 있었어. 박정근씨 그 집안 선산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탁! 끊어서 길이 넘어갔다고 해서 터진목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교회 있는디 전부 다 공동묘지야. 거기가 전부 공동묘지고,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주택들 있잖아여 여기 조금 높은디 거기서 우리 밭 있는디 뒤로 다 공동묘지.

면담자: 아 언덕빼기 있는데도.

구술자: 그래서 여기가 원래 쌍영동입니다. 쌍영동.

면담자: 쌍영동.

구술자: 나는 왜 쌍영동이라고 했는가하는 그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도 공동묘지가 있고, 저기도 공동묘지가 있고, 그리고 저기 지금 현대아파트 있잖여? 거기도 송악한 공동묘지여. 거기서부터 저쪽 남전주 전화국 앞에 지나가는 데까지도 산이 쪽 있었어. 현대아파트부터 짹 공동묘지였어. 아주 많았어.

면담자: 천변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 말씀하신거예요?

구술자: 여기 저..... 여담미담? 오른쪽 옆에 현대아파트. 거기 있잖여. 거기가 다 공동묘지.

면담자: 아.... 여담미담 그쪽에서 남전주 전주 시내까지 전부 다 산자락이였고.

구술자: 어 거기 앞에 산자락이였어. 앞애가 쪽 연결되어가지고, 내가 논도 서마지기 거기서 농사도 지었어. 상념아?라고 했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디쯤될려고하니 평화동 사거리 조금 넘어서가 상념아야. 그래가지고 논도 서마지기 옛날 논도 짓고 그랬는다.

면담자: 아이고 기억력도 좋으시네.

구술자: 그리고 저거는 다 아시겠지. 우리가 예전 때 1학년 때는. 1학년 학교를 들어가면 도덕책. 수신이라는 책을 신사당에 가서 받아 왔어요. 그 신사당에 충혼탑 있는 데가 우리 어렸을 때는 신사당이야. 그리고 대동아 전쟁 말기 때 지금의 기전대학 있는 데로 옮겼어.

면담자: 옮겼다면서요. 예.

구술자: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는 신사당에 가서 수신책을 받고. 그리고 대동아 전쟁 때는 전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주 한 번씩 나팔 불고 북장구도 치고 신사당 가서 참배를 하고. 학생들이 참배를 해서 도장을 받아와야 점수를 줬어. 내가 어렸을 때에 나팔수였거든. 그래서 박박박 이렇게 불고 둥가라닥다 둥가라닥다 치고 거기 가서 참배하고 저쪽 기전대학에 있는 신사당까지 가서 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요쪽에 있는 신사당을 없애고 거기다 지었는데 구이팔수복이 된 뒤에 충혼탑을 세웠지요.

면담자: 그건 왜 이리 옮겨갔어요 신사는?

구술자: 그것이 나는 이렇게 봐요. 거기 옛날 신사당 자리 충혼탑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려는 명당이라는 하는 곳은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은 뵈고 나가는 디가 안 뵈야 되야 명당이라고 그랬거든. 오목대나 저기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물이 빠지는 건 안 뵈야. 그런데 새로 된 기전대학 자리에서 보면 진짜 들어오기만 했지 나가는 데가 안 뵈야. 터가 넓고. 그래서 그리 옮기지 않았는가.

면담자: 그럴 수 있겠네요.

구술자: 그리고 그 예수병원 주차장에 있잖여? 거기가 산이 이렇게 적하니 연결되어 있었어요. 산맥이. 나는 어렸을 적에 그 산이 폭

꺼져서 길이 났거든요. 하... 병정들은 용구 앞에 거기서 그냥
 쪽~ 내려도 안 다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 생
 활은 다 아시니까 더 얘기할 필요도 없지. 학교마다 봉황전이
 있고 어... 들어갈 적에 절하고 나갈 적에 절하고. 그 나는 말이
 죠. 저기 치명자산이 있잖아. 거기를 치명자산이라고 이름을 부
 르는 거 자체가 조금 사실은 불만스러워.

면담자: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구술자: 옛날부터 중바위산이거든. 중바위산을 그대로 고유명칭 놓아
 두고 치명자 동정녀 부부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성당이
 있다. 이 중바위산이 이렇게 천주교 성지가 되었다 하는건 모르
 겠지만 고대로 치명자산. 치명자산 써부친다고. 왜 고유명칭을
 그렇게 중바위산이거든. 승암산.

면담자: 지금. 지금 애들은 중바위산이라고하면 모릅니다. 어른들은 다
 아는데.

구술자: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꼭 이렇게 중이 고깔쓰고 이렇게 하는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는 천주교 성지라고 잘 가꾸는건 좋지만
 고유명칭까지 바뀌어야쓰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면담자: 그리고 저기.. 여기가 완산 칠봉 있는 텐데. 땅이 참 명당이라
 고 할까 시신을 뭐 어떻게 묻어도 좋고 또 무슨 저기가 평장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몰래 무덤써가지고 봉분 안하고 뭐 이런
 얘기.

구술자: 많이 있을거예요.

면담자: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완산칠봉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
 시거나 다르게...

구술자: 완산칠봉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기억나는 건 없어요. 어렸을
 때나 거기서 병정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때는 대동아

전쟁 말기에는 학생들을 전부 흰 깡통같은거 고철 수집해오라고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2인 1조로 가마니에다가 막대기를 꿰아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그런걸 주우러 돌아다녀요. 특히 대동아 전쟁 말기에는 비행기 기름을 솔나무 뿌리. 이걸로 해가지고 기름을 짜면 얼지를 앓는다 그래가지고 솔뿌리를 캐가지고 지금 전북대 자리가 옛날 공설운동장입니다. 거기까지 질질 끌고들 갔어요. 그래서 나도 완산칠봉에서 솔뿌리를 캐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간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섬뜩한 것이 어딜 팔려고 하는데 사람 대가리가 이렇게 서있는 것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방공호 판 자리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완산칠봉 그 체육시설 가운데는 있는데 그.... 어렸을 때 끌려서 공부한 기억도 있고. 뭐 비행기 거시기한다고 대피한 기억도 있고. 특별히 나올만한 것이 없는 것은 송아지 바위는 금송아지 바위라고 잘 붙여놴더라만 옛날부터 그 송아지바위라고 해가지고 그 돼있었어요. 금송아지라고 해가지고만. 병정놀이 거기서 많이 했지...그 동학농민혁명 때 격전지라고 딱 붙여있는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동학군들이 주문을 외고 가면 실탄이 털럭 앞에서 떨어졌다. 부앙부앙한 얘가지.

면담자: 그럼 아버지 합자가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태자 호자 클 태자 물 호자.

면담자: 아 태자 호자 그. 그 위에 할아버지는?

구술자: 할아버지는 기자 업자, 족보상에는 기운이라고했고.

면담자: 기운이라고도 돼있고.

구술자: 틀 기자 업 업자

면담자: 원래 여기 전주에서 사셨는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셨는지?

구술자: 완주군 이서면 이성동에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가 아버지 열두살 때 어머니가 일찍 작고하시니까 전주로 이사를 하셨다 하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내가 등본을 확인을 안했지만 열두 살 때 이사와 여기서 산다. 병사집 따님이 에... 어머니 아버지를 키우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여기로 알고 있지요.

면담자: 병사집 따님이라는게 뭐지요?

구술자: 병사집 따님이라는게 지금 아마 군인 어떤 이름 있는 분의 따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있고.

면담자: 아까 방공호 거기가 그... 80년대 70년대 아무튼 그때 도청 피신처라고 하던가? 그때 파놓은건가요?

구술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1968년도에 전라북도 경찰국 작전대장을 했어요. 35사단 뭐 이렇게 다해가지고 해안선을 경찰이 방어를 합니다. 무장간첩을 잡기 위해서. 제가 처음 개입을 해가지고 초소도 만들고 전경대 막사도 짓고 부대를 창설하고 한 3년을 했어요. 덩기면서 했는데 그때에 도에 비상계관재라는게 생겼습니다. 지금 소 누군가 사는지는 모르겠어. 그분이 중령출신인데 비상계관으로 배치되어가지고 지금 거기가 전서 지휘소. 도 지휘소여 거기가. 그래서 방공호를 뚫어요. 그게 그냥 송을 던진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거길 파가지고 이제 CPX훈련을 하면은 군 경찰 도 지휘소가 전부 거기에 통신망이 가설되어가지고 들어가서 전쟁지휘를 해요. 대통령 훈련 28호라는게 있어가지고 소위 대간첩 작전에 관한 지휘지침이에요. 그래가지고 10명 이하의 공비가 들어왔을적에는 경찰쪽에서 작전을 하고 10명 이상의 공비가 들어왔으면 군 책임관이 작전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 28호에 의하면은 산속에 깊숙이 되어있는 독같이 있었어. 그때는 전부다 밑으로 전부 다 앵겨가지고 거기다가

전화기를 놔두고 그리고 높은 고지상에는 헬기장을... 우리 있을 적에 다했어. 어디다 헬기장을 해야 군부대로 빨리 해가지고 점령을 해서 군기를 잡을 것이냐 그래서, 덕유산이고 어디고 전부 다 지리산은 군 부대가 장악했기 때문에 지리산 지부는 군이 했고 그 위에는 우리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지원료를 양국에 쥐가지고 예비군을 68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 예비군들 동원해서 헬리콥터 장을 전부 다 만들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대간첩작전으로 해서 헬리콥터 장을 만들고 독립하고 집단화하고 해양선방어 구축하고 여러 군데 그리고 이 예비군들 동원해서 완산칠봉도 한번 그 전투관 자국 있을 것이여 유사시 전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어.

면담자: 거기를 도 지휘소로..

구술자: 도 지휘소고 왜정 때 방공호 자리는 어딘고니, 지금 완산초등학교 정문에서 쪽 올라가자면 이리서 공원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 갈림길있잖여? 거기 왼쪽에 방공호가 있었어요. 왜정 때 방공호가, 방돌이 나오지. 거기에 방공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학교에는 전부 다 방공호를 파가지고 친목을 해가지고 저걸 허고.

면담자: 그러면 그게 그 예전에 여기 빙골이라 하구요 얼음 보관하는 그랬다 하는데 그런 얼음 보관하는 굴하고는 관계는 없는거예요?

구술자: 빙골하고는 저 어렸을 적엔 빙골이라는 것은 저는 완산칠봉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인자 방돌을 떨어진 데가 완산칠봉에 있어 저쪽 남쪽으로, 방돌. 방돌 뜨는 것, 빙골이라는 것은 저는 얘기 못 들어 봤어요.

면담자: 신동기씨가 그 시립도서관 근방에 빙고라는 것이 어렴풋이 있

있고, 정혜사 있는 쪽에 가서 또 있었다고 그러는데.

구술자: 정혜사 쪽에 나 어렸을 적에 거기에 나는 얼음, 찬물나온다, 빙골이라는 소리는 나는 들어보질 못 했어. 방돌 떠는 데는 거기 우리 그 정혜사 오른쪽에서 고개 뿔뿔 넘어 가면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데를 방돌 떨어졌고, 인자 거기서 흑석골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있죠. 저는 빙골을 얘기를 안 들어봤어.

면담자: 예...그래서 혹시 기억을 하시는가... 해서 한번 여쭙봤어요. 이런 건 좀 남겨야 한다든지 뭐 어떤 얘기든.

구술자: 용머리고개라고 한 것만 알고 있지, 어쨌서 거기가 용머리고개인가...지리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서 용머리고개구나 그런 것이나 알고, 특히 완산동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인물 기억나는 것도 없고. 옛날에는 완산정이며.

면담자: 예전에는 완산이 숲이 참 소나무가 좋고, 잘 우거져 있었다던데,

구술자: 완산칠봉이 소나무 별로 우거진 건 없고, 지금 삼나무, 히노끼도 아니여. 편백이 히노끼거든. 저건 삼나무여. 우리 어렸을 땐 물통하고 베 짜는 그런 나무. 이려고 소나무에 지금 소나무에 지금 오리목이 지금 많지만, 소나무는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것은 몰라도 오리목은 저렇게 그 5·16혁명 전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리목이 나서 그렇지 사실은 오리목보다도 소나무를 더 많이 키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구술자 2: 그 지역이 오리목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지.

구술자: 그것 참 그때만 해도 우리가 땀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산림정책도 많이 바뀌지고 그래서 그런 아카시아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참 잘되는 거여. 뭐여.

면담자: 예전에 완산동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구술자: 완산동이 사실은 여기가 빈촌이며 빈촌이고, 나도 우리 아버지

께서 여기 자작농은 못하고 소작농을 했어. 저기 완산동에 김태원씨라고 그 자손들이 박참판, 김태문 그분들 논이 여기에 있었거든. 그래서 소작농을 했고, 아주 여기가 빈한했지요. 아 보잘 것이 없었어. 그리고 김상문씨라고 하나, 그... 사는 분 있지? 내 그 학교 동기생하나가 김인권이라고 있는데 완산동 기령당 밑에 그 동네 그 부자였지. 김상문씨라고.

면담자: 가난하신 분이 많이 사셨구나. 이전에 용머리고개 있는 데나 이런데 도굴하시는 도굴꾼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지금 골동품상들이 거기 있고, 그런 말들이 있던데.

구술자: 특별히 도굴꾼으로 이름난 건 없어 죽은 조모씨 있지, 용머리고개에. 우리 또래 되야. 가들이 그때 조금 꼬챙이 들고 이렇게 뿔도 좀 하고 그랬는데 도굴꾼은 별로 없어요. 여기 응골 같은 데는 엿장수들이 많고 뭐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는데 저는 도굴꾼이 많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네...

면담자: 골동품상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나...

구술자: 예...골동품이 인자 근래에 거시기해서 그렇지. 여기에 도굴꾼으로 있으면 누가 그 뿌리가 있던, 여기서 살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여. 이거하나는 있네, 우리 동네가 백정 놈이 몇 집 살았어요 여 뒤에도 살고 앞에도 살고 서너집이 여기에 살았어, 그게 밀도살이여. 저녁이면 소 끌고 와서 새벽에는 ‘퍽’해서 두드려 잡고 해방 후에 바작을 했어. 요근방에 그런 백정이 몇사람 살았어. 그 백정의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 길모씨라고 육군 대령출신인데 한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 일본서 전문학교랑 다녔어. 나 어렸을 때 클라리넷도 불고 그랬는데 근데 백정을 왜정말기애나 해방 직후에는 안 알아 쫓겨요 내 후배 중에 사범학교 나온 애가 있는데 학교 교사하다가 쫓겨나고 그랬어. 누가 백정한테 배우냐.

면담자: 교사를 하다가, 백정아들이라고 해서 쫓겨나는 분도 있었어요?

구술자: 아 그럼 저런 사람한테는 배울게 없다.

면담자: 아 그 정도였었구나.

구술자: 그런데 후배 중에도 사범학교 후배 내 밴드에 있던 애들 다 죽었지만 조금 하다 그만 두고 다 이사갔지 여기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이사가고.

면담자: 아 여기서요? 결국 못살고...

구술자: 길대령 같은 사람은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면담자: 근데 나중에 뭐 잘못 됐어요? 길대령 그분은?

구술자: 길판술이거든 그 아버지가, 그게 지금 어딘고니 여기에 기령당 왼쪽에 집 조금 높은 집 있는데, 고근방...

구술자2: 고근방에서 유기전이 혹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유기전이 해방 직후에 유기전을 하다가 그것이 없어졌다고, 한씨라는 사람이 유기전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 까치... 대명 까치맨션, 까치맨션 거기 올라가는데 그 골목이 유기전골목이거든?

구술자: 유기전은 특별히 생각안나고 기령당 들어가는 데는 유기전이 있어요. 거기 유기전 있고 옛장사들이, 까치맨션 있는 데는 옛장사들이 좀 살았어.

면담자: 그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았구나... 완산교회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완산교회 뒤편으로 그게 큰 도로라는 거 아냐? 그게 큰 도론데.

구술자: 저기 그 방천 옆에 완산교회?

면담자: 예예 방천 옆에, 그게 큰 도론데 거기에 유기전 가게들이 두세 개 있었다고...

구술자: 그러기는 허, 거기에 있었어.

면담자: 그니까 위에서 만들어 갖고 내려와서 팔고 그랬는가?

구술자: 그러기는 혀 유기전 있었어. 그리고 기령당 들어가는데 그 완산교회 그 앞에 유기전이 있었어. 완산교회 사거리 그 앞에 대소꾸리도 거기서 팔고 내 친구 그 안영교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한 뢰신가 거기 있었어.

면담자: 대략 그니까 그 부근, 완산교회가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편이잖아요. 이렇게?

구술자: 완산교회가 방천길에선 오른쪽이고 내가 얘기하는 길은 그 뒷길 얘기예요. 그 뒷길에서 완산교회가 왼쪽 있고, 골목 네거리에서 여기. 거기가 유기전이었어.

면담자: 예... 사거리에?

구술자: 예. 그니까 지금은 그때는 골목길이니까 거기 인제 거기서 조금 들어가는 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청학루는 다 아실거이고.

구술자2: 청학루, 청학루 저 기령당하고 청학 경로당, 그 근방 태화 아파트 있지? 태화아파트. 그 근방을 청학루라고 그러더라고, 청학루.

면담자: 왜 청학루라고 그러죠?

구술자: 거기가 뭇 누각이 하나 있었던가봐. 그래갖고 노인들이, 거기서 응. 응, 고근방에 오른쪽, 청학루. 그리고 박참판 집이 거기 뭇 빌라 하나 있는 게 박참판 집이 아주 부잣집이여 그 앞에 김상문이라고 왜정 때 망토 입고 다닌 분은 그 집 영감님 뿐이여. 이렇게 딱 하니. 김인권이 나하고 국민 학교 동긴데 그 사람 아버지가 김상문이고 그 할아버지가 했어.

면담자: 망토 입고 그러고 다닌 분이?

구술자: 어 망토입고 다녔어. 박참판, 김참판.

면담자: 뭇해서 그렇게 돈을 버셨대요?

구술자2: 일본사람 행세하고 땡졌대...

구술자: 지주지 지주. 우린 소작을 하면 전부 왜정 때 다 공출로 가져갔

어요. 뭐 해서 땅속에다 숨기고 그러고 살았어요.

구술자2: 반절씩 가져갔어.

면담자: 그 참 초록바위 있는데요. 그 근처에 뭘 지소 있었어요? 한지 만드는? 한지 뜨는? 초록바위 어저께 단장님이 계셨던가?

구술자: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나도 인자 3학년까지 걸어서 다녔지만 그 이전의 역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잘...

면담자: 그 완산동에 점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구술자2: 83개인가 84개.

면담자: 어떻게 아셨어요?

구술자2: 그 점쟁이들 회장이 거시기 해갖고 내가 물어봤더니 84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회장이 김양이라고 있어.

구술자: 대개 점집이라는 게...

면담자: 왜 거기가 그렇게...

구술자: 못 사는데에 점집이 있거든. 못 사는데에.

면담자: 그 선생님 어렸을 때에도 점집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구술자: 어렸을 때 나는 많이는 못보고 더러 있었다...

면담자: 그 근처예요?

구술자: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점집 있는데 다가산 밑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새동네라고 그랬어. 기와집들을 짓고 거기가 좀 괜찮게 살았지. 새로 말하자면, 개척된 동네고, 그 여쭙은 아주 그냥 쓰러져 가는 초가집만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면담자: 그니까 그 밑으로, 점집들이 내내 완산교회 밑으로 해서.

구술자: 더러 있었을 거야, 더러. 나는 반이 거기 땡기면서 조금 기억은 없으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지.

면담자: 특별히 거기 점집이 왜 많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는.

구술자: 예... 그런건...

면담자: 그게 언제 땀니까? 몇 년정도?

구술자2: 몰라 그때를 잘 모르겠네. 원평서 저 학교를 다녔어. 집이 거
 인데 아버지가 거기서 백정을 했어. 공주사대를 나와갖고 군산
 상고로 발령이 났는데... 3일간 하고 나가라 해갖고 쫓겨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집에서 복덕방하다가 죽었어. 저번에. 나
 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나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 나는 군산상
 고를 들어가고, 그 사람은 공주사대를 나오고 그랬지.

면담자: 그니까 그때 대학 들어갔을 때가 그때가 몇 년이예요? 그러면
 대략 짐작이 갈 수도 있네. 고등학교 졸업하실 때가.

구술자 2: 그게 한 60년도나 되는가벼, 59년도나.

면담자: 사진 한번 볼게요.

구술자: 아 이거 나 순경 때 찍은 그런 것뿐이네...

면담자: 순경 때 찍으신거 같네요. 나팔... 예..

구술자: 어렸을 때... 요건 이건 제가 악대장 때 지휘할 적에..

면담자: 아니 근데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때 국장님이
 시면 경무관 인가요?

구술자: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도청에 1950 몇 년도에 불이 났
 어요. 치안부두에서 실탄을 받아가지고 와서 쟁이다가 그게 폭
 발이 되가지고 타버렸거든. 그래서 경찰국이 경기전 식량영단
 거리 옮겨갔어. 아 막 박격포탄이 그냥 널러댕기고 그랬지...

면담자: 전주 사범 나오셔가지고 순경하셨어요?

구술자: 저는 6·25때, 이게 완산초등학교, 6·25때... 경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직 졸업을 았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려서 그
 러. 가정형편도 어려웠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은 경찰 서장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때는 무궁화 두 개면 진안 이런 데는
 경찰 서장을 했거든. 그래서 경찰 서장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범학교 나오면은 늙어서 교장은 하겠지. 그래가지고 나는 에이. 나는 여기 해야 되겠다. 경찰학교에 건물을 복원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책도, 그때는 프린터해서 다 쓰지 않았어. 우리가 막 프린터를 시도하고 교재도 만들고 뭐 하면서 해가지고, 공부에 취미를 붙여서 하여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를 했죠.

면담자: 경찰에 있으시면서? 그 공부를 언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구술자: 안자고 저녁에 해야죠. 3시간~4시간 자고.

면담자: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구술자: 경찰이... 인제 그 승진시험, 처음에는, 처음에는 박종대 죽은 그 군산예총회장 가하고 둘이 ‘야 우리 보통고시 보자!’ 해가지고 국사 뭐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하다보니까 아 우선 당장 여기서부터 승진을 해야 될 꺼 아니냐, 그니까 경사승진시험 공부하고, 그러다보니까 인자 또 군대 기피자가 아닌데 병역 미필자로 해서 군대 지원해서 갔다 와서, 또 인자 그 경위 승진시험보고, 또 경감 승진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면담자: 아 승진 시험을 해서 계속... 공부를 잘 하셨고만.

구술자: 열심히 했죠. 그때만 해도 카페라라고 하는 잠 안 오는 약이 있었어. 그걸 먹어가면서 하루에 한 3시간~4시간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늦게 나를 뒤가지고 빨리 장가를 보내서 지금 이 사람이 애들 데리고 초저녁이면 하난 업고, 하나는 데리고 나가. 그러다 공부하고 애들 자면은 데리고 와. 공부하고, 이 사람 욕 봤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아 집이 어디가 지금 뭘 공부방 있고, 뭐 있고 그러간이? 방 하나에다 이렇게 놓 놓고 나눠서 좌우 그런디 초가집에서 뭐 어떻게 혀.

면담자: 선생님 실례지만 몇 년생?...

구술자: 저요? 34년 생. 나이는 그렇게 많던 안해요.

3. 박준영 · 최병로씨 구술

- 박준영씨(구술자 1) : 1928년생, 기령당 당장, 前 교직
- 최병로씨(구술자 2) : 1938년생, 기령당 이사장, 前 농협

면담일: 2014년 6월 13일 / 면담장소:기령당 / 면담자:이동희

면담자: 사범 나오셨어요?

구술자 1: 아니, 공업학교. 공계 동원된 게 동원령을 내리면 다 거기 가야한게. 아 거기도 가고 군산 비행장도 가서 석 달인가 있었어요. 그때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여. 전시 중요한 데로 막 따라가니까. 지리 연구하는 놈들이 완산칠봉에다 송장을 이렇게 저쪽에다 대고 거꾸로 묻어도 아무 해가 없드리아.

면담자: 아, 그렇게 명당이다.

구술자 1: 응, 지금도 저 산에 가면요, 지금은 글도 그렇게 단속을 안한게 올해 한해가서 이만치 흙을 좀 부서 놓고, 명년에 가서 또 요만치 이래갔고, 못둥이다 있어. 그전에는 못둥이 없었어요, 왜정말기에는.

구술자 2: 평장 했고만.

구술자 1: 말하자면 평장을 혀.

면담자: 완산칠봉에 묘가 없었던 것은 묘를 못 쓰게 했던 거 아닌가?

구술자 1: 그렇지. 시에서 막았어요.

면담자: 막으니까 평장을 표시 안나게 써버리는.

구술자 1: 평장으로 한 묘도 많습니다. 모르게 그랬지.

면담자: 몰래 묻고 가버리는 거죠.

구술자 1: 그전에는 거그 해방 후에, 왜정말기 해방 후에 올라가면 지나

가면 저게 저게 묘다, 저게 저게 묘다, 저게 저게 묘다 그러. 어떤 게 기여요? 묘면 이렇게 뚱그란 게 있어야지. 그 속에 다 백골 들었다. 하하하하. 거꾸로 묻어도 해가 없다 그런디여.

면담자: 어째서 완산칠봉에다가 묘를 못 쓰게 했는가요?

구술자 1: 말하자면 국유진게.

면담자: 아, 개인소유지가 아니라 해서.

구술자 1: 아 개인소유지가 아닌게 못허게 허지.

면담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명당이라 알고 거기다 좀 투장을 많이 했다 이거죠, 아니면 묻을 데가 없으니까 거그다 갖다 묻어버렸는가? 반대로 묻어도 관계없다는 것은 땅이 종단 얘기잖아요. 이렇게 묻든 저렇게 묻든 별.

구술자 1: 우리 할아버지하고 거그 올라가면, 아 저그 저그 그래요. 아 근디 누가보면 누가 묘라 그래요? 아, 다 임자가 와서 팔월 보름날에 다 절허고 가. 우리 할아버지가 볼 때 암만 할아버지 친구도 요 어디 묻혔어. 궁게 그 전에는 묘 썼다고를 못했디야.

면담자: 그게 한 30년대나 이렇게 된가요? 지금 말씀하신, 할아버지하고 같이. 그때 1930년대 정도 되요? 그때가?

구술자 1: 30년, 그렇지.

면담자: 어렸을 때니까. 한 30,40년대?

구술자 1: 그전에 완산칠봉 댕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인게 팔각정도 세워지고 저그 올라온 등산로가 되어있지. 그 전에는 뭐 금해서 못 댕긴 것이 아니라 기양 솔나무 밭인게 가덜 못한게 못 댕겨.

면담자: 아 산이 깊었어요? 완산칠봉이?

구술자 1: 아 그전에는 솔이 많고, 지금도 잡목 때때 못 댕겨.

구술자 2: 그 등산로라 다 끊어내갔고 있어.

구술자 1: 등산로가 있응게로 올라온디. 요 여그 여그 이쪽에서 올라오는 까치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길은 요새 것이여. 그쪽은 다 시원혀. 찬게. 땀때기 난 사람이 그 물에가 씻으면 땀때기가 없어졌다는디 뭐.

면담자: 제가 지금 두 분 말씀 듣다보니까, 정말 중요한 전주가 옛날 이름이 완산이잖아요. 왜 작은 산에서 지명을 붙였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그랬는데. 완산칠봉은 명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해가 없고 시원한 공기도. 빙고도 설치할 수 있고.

구술자 1: 지금은 잡목이 생기고 그래도, 그때는 나무도 잘잘한 놈이 짝차서 댕기들 못했어. 그 후에 해방 후에 나무 다시심고 그랬지.

구술자 2: 예수병원 뒤에 여그 폭 파진자리 거기서 사람 많이 죽었지.

면담자: 언제 때? 인공 때 그랬나요?

구술자 1: 인공 때.

면담자: 물왕멸 이런데요?

구술자 1: 물왕멸 골목에서 더 저쪽으로 가. 저기가면은 묘가. 비석도 이 방망이만 할 것이여. 자기 선조인가 아부진가 할아부진가도 모르고 기양 우리 할아부지가 여기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팔월 보름날 되면은 거창혀. 붙들고 울어. 비만 붙들고, 김제사람이 농업학교 토목선생을 했어. 그 선생이 여가 있는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울어쌓고 그려. 저그저 물왕멸 앞에 뭐여 헌게. 아 너는 모르는구나 하고 선생이 그려네. 아 왜요? 6·25때 사람 죽인지는 알아요.

면담자: 저기가, 6·25때.

구술자 1: 지금도 그 묘 댕기는 사람이 있디야.

면담자: 강당길

구술자 2: 응, 강당길 거그여.

면담자: 지금 말씀하신 데가 거긴감만요. 사람들 많이 죽었다는 데가.
화산교회 근처 강당길. 여기가 사람을 6·25때 죽인 데라는 거
죠? 공동묘지가 아니고?

구술자 2: 거기가 움푹 파졌어. 그래갔고 거그다강 사람을 던져 났다.

면담자: 북한이 그랬어요? 북한군이 그랬어?

구술자 2: 아 인민군들이 거기서 죽였당게.

구술자 1: 화산국민학교를 지은 후에 선생님들이 전부 숙직을 했어. 바람이 들은게로 유리창이 덜컹덜컹 할 것 아니여. 숙직한 선생님이 나중에 교장선생님한테 나 이거 무서서 학교 그만 뒤야겠네요. 저는 숙직 못허것어요. 막 뿔이 나오는 거 같히고, 궁게 바람 불으면 거그가 쯤 높은게 바람이 잘 차. 궁게 문이 덜컹덜컹하고, 궁게 못헌다고 하고 한때는 말이요. 선생들이 그것이 소문이 나면 선생들이 요리 부임을 안전게 소문을 내지 마라 딱 덮어놓고 교감이 저녁에 한번 자봤디야. 바람이 불은게 그렇지 뿔이 있는 것은 아니여. 공동묘지 있는 데다가 지었데요.

면담자: 화산초등학교요?

구술자 1: 응, 이 너머여.

면담자: 너머에 화산초등학교가 있는데 화산초등학교는 옛날 공동묘지에...

구술자 1: 응, 공동묘지에 지었어, 해방 후에.

면담자: 해방 후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인민군들이 묻은 데고, 지금은 공동묘지고.

구술자 2: 화산초등학교. 대풍 한마을 아파트 거그여.

면담자: 한마을 아파트. 여기도 완산동인가요 그러면?

구술자 2: 예.

구술자 2: 송주원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 앞에 사는데. 옛날 경찰 국장을 했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완산동에서 나갔고 완산동에서 커갔고 지금까지 있었응게.

구술자 1: 그전에 여 송태섭이라고 있었거든 방앗간 한 사람

면담자: 지금 완산동 다리건너서 방앗간 했다는 분이요.

구술자 1: 남문 다리 쪽으로. 근데 그 가족들이 여그 전혀 안살아. 어디로 다 갔는가는 몰라도. 지금 그 분이 살았으면, 남자는 살았으면 구십...

4. 김삼룡 · 최영섭씨 구술

- 김삼룡씨(구술1) : 1933년생 — 최영섭씨(구술2) : 1937년생
— 마을주민(구술3 · 구술4)

면담일:2014년 6월 10일 / 면담장소:완산초 옆 정자 / 면담자:이지은

구술자 2: 옛날에 김가전 도지사라고 있었어. 그 묘가 여가 있었어. 허 대령이라고 육군대령인데 6·25참전한 전사자야.

구술자 1: 아 6·25는 아니여. 그 전에 반란사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구술자 2: 여수 반란은 ... 허튼 몰라. 저 김가전 도지사가 묘가 여가 있었고 기억이 뭐냐면 그 저 그 양반 나가실 때 애도가가 '오늘 가 내일 가 어느 길이요' 애도가 불러주는 거 있잖아.

면담자: 예전에 그분 묘가 완산칠봉 여기에 있었어요?

구술자: 현재 주차장 있는 디가 김광규 의원 아니 거시기 저 도지사 묘 있었고. 그러거고 그 우에가 지금 저 육군대령 묘.

구술자 2: 그냥 이장하고 그 현장 그대로 남아있어. 그 위치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고. 그 흔적은 남아있다니까.

구술자 1: 비석만 서있어 묘는 파가고. 국군묘로 갔고.

면담자: 완산동에 얼마나 거주를 하셨어요?

구술자 1: 나는 근 한 50여년. 50년 이상.

면담자: 몇 년도에 완산동 왔는지 기억안나세요?

구술자 1: 아 원래 내가 전주오기는 18살에 와서 그다음에 군대생활하고 모다 이러 저리해서 결혼하고 완산동에 살기 먼저 팔복동에 있다가 완산동으로 온 게 스물일곱. 스물여덟에 왔네.

면담자: 아 완산동에 들어오신 게 스물여덟. 선생님 실례지만 몇 년생?

구술자 1: 33년생 1월 5일. 그 양반이 그래서 그 전은 호적에는 서른셋이었는데 아버지들이 거시기 군대들을 안 보낼라고 늦게 호적을 해가지고 그 바람에 1년 뚫어 가지고. 나는 그때 갔드니 우리 동기가 다 실탄 안 맞은 사람 없어 다.

면담자: 선생님 그러면 당시에 28세 때 들어오셨으면 60년대 초반쯤 들어오신 거 같은데.

구술자 1: 몰라. 군대생활 끝나고 요리 왔어. 군 생활할 때는 팔복동에 있었고.

면담자: 그때 당시에 마을에 모습 같은 거 기억나세요?

구술자 1: 마을 모습은 지금 빈민들이 살고 그러니까... 깡통으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붕 다 이고 해서 다다다다. 신동리에 보면 또랑이 있어.

구술자 2: 그것은 내가 얘기해주께. 내가 이 완산초등학교 37회 졸업생이야. 그러니까 2학년때 해방이 됐어. 우리가 40, 저 50년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니까 6·25사변이 났다고.

면담자: 선생님 중학교 입학하시니까...

구술자 2: 6·25사변이 났어. 여기가 툇이야 툇. 완산칠봉에서 내려오는 툇이 있어. 인도 있지 인도. 거까지 전부 물이 내리갔어. 그리고 여기가 미나리깡이야. 개천이 참 깨끗했어. 가재도 잡고 그랬어... 그레가지고 그때 우리가 비행기가 폭격을 하니까 고꾸공꾸라고 쓰는 게 있어. 지금 말하자면은 방한모여 방한모. 그거 쓰고 완산칠봉으로 도망갔어. 비행기 폭격할 때.

구술자 2: 일본이 항복할 때. 그니까 8·15해방 때 내가 2학년이야... 1학년 1반 사진이야. 이게 일본 선생이고 일본 각시. 내가 어땠냐면 이게 나야. 학교 학생수가 3천 명이야. 이 선생이 마쓰무라 선생이라고 이 여선생이 근데 뭐야, 전고 옆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하다가 죽었어. 이사람 남편이 일본사람이야.

구술자 1: 나는 이분보다 한두 살 더 위에 거시기가지고 나는 그 무렵에 고부국민학교 졸업했어. 고부국민학교 그때 3학년 때 해방됐어 나는.

구술자 2: 그리고 그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오라고 쌀을 쪄어 일본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젤로 최후에 남는 것은 그 이가 많아.

면담자: 아, 몸에 이. 머리에 이.

구술자 2: 미국사람이 소독해주는 거. 그리고 빵 먹은 거, 밀가루. 아 여기 여 학교 앞에서 DDT 소독을 받아 그리고 들어가 학교에. 그것이 젤로 기억나. 그리고 예방주사를, 그때는 전염병이 많아 가지고 어께다 놔. 한 달에 한 번씩을 맞았을 거야. 거짓말로 안 맞고 맞았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 아퍼.

면담자: 아 맞기 싫어서. 유년기 때 학교 다니실 때 마을에 놀만한 장소는?

구술자 2: 없어. 완산칠봉 가서 그냥... 어린게 일본말을 몰라. 그런게 선생이 일본말 모른다고 완산칠봉을 한바퀴 돌고 오라고 그러. 그때 길이 아니야. 여기서 출발해갔고 돌아오면 학교 끝났어. 그만큼 험악한 길이었어, 여기서.

면담자: 아 이 완산공원하고 완산칠봉 길이...

구술자 2: 그렇지. 오솔길에는 빨래터가 있었고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구술자 3·4: 거기서 빨래 삶는 일을 하셨어. 어 직업으로 돈 받고 얼마씩 받고 전주천에서. 애들은 목욕하고 어른들은 빨래하고. 빨래하면 거기서 돈을 받고 빨래했지. 빨래를 삶았잖아. 드럼통. 거그다 삶았어. 어, 드럼에다 빨래를 삶고 돈을 받았어.

면담자: 그럼 돈을 빨래 삶아주고 돈을 얼마를 받아요?

구술자 3: 내 생각에 뭐 1원 2원 그랬던 거 같애. 많으면 3원 받고 5원

받고.

면담자: 아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고.

구술자 2: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여. 그 10년 사이라.

구술자 3: 한 61년인가 62년인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뭐가 있는 고니 한 60년 거기까지 후반까지 그랬을 거야.

구술자 2: 50년 때 해방되니까 50년에서 60년 사이야.

구술자 1: 1945년에 해방되었으니까 그 후로 3년간 가정부하다가 저...

구술자 3: 내가 어릴 때 언제생각이 나는 고니 여섯, 일곱 살 때 그런 데가 있었어.

구술자 2: 궁게 60년대 안쪽이야.

면담자: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마쓰무라 선생이 일본말 못하면 완산칠봉한번씩 돌고 오라고 했잖아요. 왜 돌고 오라고 한 거예요?

구술자 2: 잘 못하니까.

면담자: 모른다고.

구술자 2: 이름을 개명을 했어. 내 이름이 최영섭인데 다케하라야. 다케하라를 일본말로 못써. 그서 인제 한 바퀴 돌으라고 했지. 별서는 거야.

면담자: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구술자 2: 많지.

면담자: 그쵸, 일본말을 모르니까.

구술자 2: 그러지. 의무교육이 아니고 시험을 봐, 1학년. 그럼 이제 어머니 그려놓고 오까상, 오포상 그런 거 가가거겨고고 그런 거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합격을 해야 가 학교를.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못가.

면담자: 그럼 일본어로 수업하셨겠네요?

구술자 2: 궁게 1학년 때니까 2학년 되어서 해방됐으니까, 배울동 말동

하다가 해방이 됐어.

면담자: 그럼 일본인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기억에 남는? 뭐 학교 분위기라든지.

구술자 2: 기억에 남는 것은 혼나는 것뿐이 없어. 몰르니까. 엄마 이름을 물어보면 엄마 이름을 알 수 있가니? 오까아상만 알지?

구술자: 완산동에 청학루가 있고 백학루가 있어. 유지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었고.

면담자: 아 지역유지들. 청학루에서?

구술자 1: 그 당시에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만 거기들.

면담자: 그러면은 선생님 청학루에 모여서 어떤 일을 했어요?

구술자 1: 사랑방처럼 우리가 지금 아는 경로당이나 뭐다 그러듯이.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일본사람들은 우리 전주 완산동에 서는 못 살았어.

면담자: 왜요?

구술자 1: 일본사람들이 저 각혈병. 피를 토하고 죽어.

면담자: 아 여기 오면?

구술자 1: 아면. 지금 전주의 콩나물국이 왜 유명한지 알어? 토질. 토질로 인해가지고서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거시절때 부뚜막 있지. 불 때는 부뚜막 우에다 꼬치도 몇 개 놓아두면 그놈 바싹 익혀야여. 그러면 인자 투가리에다 콩나물국을 끓인게 꼬치가 뽀서 지거든. 그래가지고 먹고 그랬고. 교동에 콩나물국을 시장에 ... 전주 콩나물국이 그래서 유명해 졌어. ... 전주콩나물이 지금도 유명하잖여. 그 일본사람들은 여기 와서 못살았던 것이 사실이야. 죽어버리니까

면담자: 아, 여기 오면 토질이나 이런 게 일본인이랑 안 맞아가지고

구술자 1: 옳지 옳지 안 맞아가지고.

면담자: 물이 그렇게 깨끗했는데 왜 안 맞았을까?

구술자 1: 물이 아니라 토질관계야. 그래가지고 일본놈들은 어디 가서 사냐면 여그 저 완산다리 저쪽 건너. 또랑. 저쪽으로는 다.

면담자: 전주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구술자 1: 이쪽으로는 일본놈들이 몇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일본인은 못 살겠더라고 자기네들이 알아. 그래가지고 다가동 거그가 집도 인자. 나도 현재 일본사람이 진 집에서 우리 둘째 딸이 살고 있지만은

면담자: 지금 살고 계세요?

구술자 1: 아른. 일본사람들 유지들이 살고 그랬거든. 아까막에 여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보실장... 그분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야. 여기는 청학루 백학루가 있었고, 일본사람들이 여가 못살고, 여기 또랑에서 갑오동학군들이 동학난 났을 때 무기가 없어 솔가지를 흔들면서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하고 저기 초록바위있는 데 고쪽으로 해가지고 둘러싸게. 완산칠봉은 그때에도 공산이라고. 출입금지구역이 되었어.

면담자: 아 그 당시에 출입금지 구역이었어요?

구술자: 아른요. 공산이라고.

면담자: 받들 공자해가지고?

구술자 1: 받들 공이 아니라 공할 공자.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동학군들은 어떡하냐, 완산칠봉 들어서면 좋을 판인디 일부러 거기를 안 서기해가지고, 저쪽 서문교회있지. 용머리교회에서 돌아가지고 서문교회 있는 디로 그렇게 바로 전주를 입성했지.

면담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완산칠봉을 못 들어오게 막아놔서?

구술자 1: 아이 막어논 것이 아니라. 관군들이 늦게사 여그 동학군들보다 늦게 출발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그 고개이름이 뭐시지?

면담자: 용머리고개.

구술자 1: 응, 용머리고개. 여그서 나가자면 좌측편이고 저그서 오자면 우측편이고 용머리고개 거그 넘어 우측 편에다가 관군들 사령 부를 맨들어서. 동학군들은 도청에서 해가지고 요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싸움은 투구봉에서 했어. 그서 우리가 예비군 훈련받을 때도.

면담자: 아, 선생님이 예비군 훈련을 여기 투구봉에서 하셨다고요.

구술자 1: 암. 그런 전력으로 그런 목적으로.

면담자: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완산칠봉을 막아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구술자 1: 막아는 것이 아니라 출입금지구역. 여기 저 거시기 전에는 완산칠봉이 요길이 아니라 요리해서 올라가. 요 은행나무 단풍 나무 보이지. 그리 올라가는 길이 있어.

구술자 3: 논이 있어가지고 가운데를 길을 내가지고 올라갔어.

구술자 1: 여기가 미나리깁도 있고.

구술자 3: 아주 냄새가 지긋지긋했어.

구술자 1: 전에는 고기장사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여는 투구봉이라 해가지고 탄 사람들은 잘 들어오지도 않을라고 생각 했어.

면담자: 어떤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구술자 1: 고기장사들이라고.

구술자 2: 고기 잡는 사람을 지금은 그런 용어를 안 쓰지만 백정이라고 해서 거리를 둔거야. 그래서 차별을 두고 생활을 한 거지... 천변에 빨래터 있을 때까지도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 그때는 나무도 육에? 짙어지고 가서 나무 했어.

구술자 1: 그러고 여그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활상이 어떠냐면 나무꾼들이잖아. 전에는 구루마로 해가지고 소양가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나무들 해다가 그래가지고 와서 팔고, 장작도 팔고.
그 파는 다가 어디냐면 강천 가에.

구술자 2: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역사가 깊은데 완산동이 속된 애기로 도
심 속의 시골이야 여그가. 도심 속의 벽촌. 한 가지 장점이 공기
가 좋아. 공기는 최고로 좋고 벽촌이야. 개발을 좀 해 주어야.

구술자 1: 방금 말씀대로 벽촌이라근디 사람이 굴곡이 다 있잖아. 우리
가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180명인가... 달라진 거야.

구술자 2: 그리고 여기가 왜정시대에 왜놈이 못살았어. 여기. 왜놈이
절대 여그 와서 살지를 못했어. 근데 왜놈의 거주지가 어디냐면
다가공원. 다가공원 밑에 거그가 살아. 왜놈이 완산에 살지를
못했어. 죽어.

면담자: 그럼 선생님들 여기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교통이랑 이런 건
어땠어요?

구술자 2: 저그 저 사범학교를 다녔는데. 사범학교까지 걸어 땀겨어.
여기서 국제학교도 걸어 땀겨어. 전여중까지 걸어땀겨. 쉼로 먼
학교가 농업학교, 동중.

면담자: 그럼 제일 먼 농업학교, 동중까지 다 걸어 다녔어요?

구술자 1: 아 그럼.

구술자 2: 아 여그 상관서도 걸어 나왔어. 이제 부잣집은 자전거타고
다녔어.

구술자 1: 그때 자전거는 동네에 어찌다 하나씩. 궁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었어.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나 집집마다 지게가 하나씩 있었
고 일본사람들은 자전거가 하나씩 있었고 미국사람은 자동차
가 하나 있다고. 그런 얘기는 우리도 어려서 듣고, 그러고 또 한
가지 여가 길나고 박정희대통령 있을 때 이환의지사라고 있었
어. 그 양반은 여든 두 살이고, 나하고 동갑인데. 그 양반은 오

시계 되면은 에 이북에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첫 순치가가지고 브리핑을 참 잘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도지사 발령받어가지고 전주로 왔어. 그래가지고 그분은 오시게 되면 목에다 수건 딱 둘루시고 밀짚모자 쓰시고 모시고 내려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엄병로 시장. 엄병로 시장이 그 양반도 천주교 시찰 갔다와가지고 또 두 분들이 완산칠봉을 공원길을 내기 시작했어.

면담자: 아 그 시장님이랑 도지사님이랑 같이.

구술자 1: 그래가지고 여가 좋은 명산이고 그런게 이 길 내는 거 말이 많았어. 뭐 사람이 죽네 뗏허네 하고 언제나 좋은 일 허든 나중에 일을 허게 되면 반대파가 있기 마련이야. 그런 애로랑 있었는데. 이환의지사는 광주사람인데 처음부터 그리여. 어머니도 모시고, 그때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단지 시민이지만은 그분들 해주시는 거 고맙게 여기고 아까 여그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여가 낙후되니까. 언제나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그리여. 완산동에도 부자들 많이 살았어. 서완산동 이쪽으로. 여 거시기도 뭐야. 백합경로당 있는 디로. 다 공무원분들 살고. 보통사람들은 여 완산동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랬었어. 그러고 공기도 좋고, 그때는 6·25사변 나가지고 바로 버스정류소가 어디가 있는고니 다가동 파출소 있는 디 거그가 있다가 그 다음에 남부시장 저쪽 편으로 들왔다가 그놈이 이리 옮겨가면서.

면담자: 그럼 그 버스정류소가 6·25사변 났을 때 처음엔 다가동파출소에 있었는데...

구술자 2: 다가동 파출소가 아니라 다가동 우체국 앞. 청석동 우체국 앞에 사거리에 있어. 청석동이야 옛날에 그제. 다가동이 아니라 청석동이라고 했어.

면담자: 아 청석동 우체국 앞 사거리에 원래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구술자 2: 옛날에 상업은행 사거리.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영신당약방 앞에 가게야. 막된 애기로 여기 다 집을 헐었어. 참 아파트를 질라하고. 여기만 지금 고도제한 해제가 안됐어.

면담자: 아 여기가 고도제한?

구술자 2: 고도제한에 막혀갔고 벽촌이야. 이게 서서학동,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서완산동 5개동인데. 관할 5개동인데 전부다 해제됐어. 여그만 안됐어. 여기만. 공원입구라고해서 여기만 지금 고도제한이 해제가 안 돼. 그리갔고 이게 낙후된 거야.

구술자 1: 선 너머 거기가 다 미나리깡이고 전부다 지금 도시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

면담자: 그럼 이쪽에 있던 미나리깡은 언제 없어진 거예요?

구술자 2: 개발하면서

면담자: 언제?

구술자: 6·25사변후로.

구술자 2: 저 60년대 지나서. 50년대 말에.

면담자: 선생님들 혹시 완산동에 거주하시면서 학교 다니실 때 자료라든지 사진 같은 자료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런 물건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구술자 2: 없어. 가난해서 공부해야겠다하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었어. 도시락도 못 싸갔고 다니고, 왜정시대에는 요모기빵이란 빵을 쫓아.

면담자: 무슨 빵?

구술자 2: 요모기빵. 간식으로 이걸 쫓아. 도시락 싸오라고 쌀도 쫓고. 그리고 인제 아마 우유지는 것이 근래에 와서 쫓아잉? 우리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이 없고.

구술자 1: 여기 완산칠봉에 수목. 이것이 왜정 때 심었던 것이거든.

5. 조재순 · 강봉률 · 이해열씨 구술

- 조재순(구술 1) : 1928년생 — 강봉률(구술 2) : 1928년생, 학서당 총무
— 이해열(구술 3) : 1933년생, 학서당 당장

면담일자:2014년 7월 2일 / 면담장소:학서당 / 면담자:이지은

면담자: 빙고 얼음 창고?

구술자 1: 얼음 창고는 여가 없었고 저 아래 있었어. 신흥학교 가면 다리 밑이거.

면담자: 신흥학교 가는 다리 밑에? 완산교 옆에 말구요?

구술자 1: 예.

면담자: 어. 실제로 보셨어요 어르신?

구술자 1: 지금이 기전여곤가?

면담자: 예, 기전여고. 옛날 기전여고 자리. 기전대학자리.

구술자 1: 기전여고는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먼 고 밑에 골로 나가가지고 거그가. 거그서 얼음을 떠가지고 빙고에다 넣었지.

면담자: 아 거기서 얼음을 떠서 빙고리에 넣다고. 그 빙고리도 그럼 그 근처에 있었어요?

구술자 1: 궁계 거그가 있었지. 여그는 없었다고. 완산동에는 없어.

면담자: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다보니까 학서당이 굉장히 오래 됐다고...

구술자 1: 51년도에 생겼어. 궁계 그때는 학서당이라고 않고 경로당이라고 해갖고.

면담자: 아 그때는 그냥 경로당이라고. 그 예전에는 여기 봉서당도 있었다고 하던데...

구술자 1: 봉서당은 여그서 있다가. 원래 여그서 생기서. 여그서 생겼어. 저쪽 방은 봉서당이 쓰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구술자 2: 봉서당이 이방에서 했는데 나중에 시의원이 집을 하나 사서 이 밑에 내려 보냈어.

면담자: 원래 이 안에 학서당, 봉서당 같이 있었는데 시의원이...

구술자 1: 봉서당은 나중에 생겼지 여보다.

면담자: 시의원이 건물하나 사서 따로 봉서당을 지어줬구나

구술자 1: 임병옥 의원이라고 있었어. 그 사람이 봉서당을 저쪽으로 옮겨줬지. 거기는 보통 여자들이 많이 썼고.

면담자: 그럼 봉서당이 저쪽으로 나간 건 언제예요?

구술자 1: 봉서당 간판에 붙어 있잖아.

면담자: 아니 근데 지금 폐쇄됐나 봐요. 없던데.

구술자 2: 응, 폐쇄됐어. 없어졌어. 그게 한 15년 전. 15년 되까.

구술자 3: 더 될걸.

구술자 2: 15년 더 되아요?

구술자 3: 15년 더 되아.

면담자: 어르신 그러면 그 여기 51년도에 세울 때 누가 세운 거예요?

구술자 1: 성동열이라고 허는. 그때는 집도 없었고. 방 하나만 어떻게 해갔고 여기 있다가 저 밑으로 이사 갔거든.

구술자 2: 시발은 성윤철이 아부지가. 계를 해가지고...

구술자 1: 궁계 학서당이라고 할 때가 헌 사람들이여 그계.

구술자 3: 옛날에는 시초는 동네사람들이 계를 이렇게 했어. 계를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집을 어떻게 할 수 가 없으게 계장 명의로 만들었어. 거그가 개발되야가지고 나빠지니까 또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까 그 사람 아들이 아부지가 했으니까 내 것이다 하고 돈 좀 내놓고 이 학서당을 내보냈어. 내보내서 헌

때가 인자 막 헌 얘기가 그 얘기에.

면담자: 아 계장 아드님이 계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젠 내꺼다 해가지고 뭐 이저. 찾아 간 거예요? 그 건물을?

구술자 3: 그렇지 건물도 폐쇄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것이니까 내 것이다 해가지고. 건물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연히 계원들도 돌아가시고 숫자가 적어지고.

구술자 1: 원래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동네사람들이 성동열씨가 처음에 계를 하다가 그 집이 폐가가 되니까 자기 죽고 자기 아들이 그 집을 인수했어. 인수해가지고 돈을 쪼끔 내놔가지고 이 밑이다가 집을 샀어. 사가지고 그 계를 유지혀. 그쪽애가 집을 지어 갖고 경로당을 해갖고 했는데. 그 집이 뜯기니까 그 후에 그 돈하고 임...

면담자: 그 여기 일로 쪼끔만 올라가면 화산교회 있잖아요. 그 뒤에 산이 산 이름이 뭐예요? 거기를 강당고개? 강당고개라고 불게 된 이유는 옛날에 화산서원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던데...

구술자 1: 중계산이라고?

면담자: 혹시 화산이라고는 안하셨어요?

구술자 1: 모르겠는데. 보통 이름을 중계산이라고 부르고.

구술자 2: 중계라는 건 참나무가 있으면은 참나무에서 즙이 나와. 즙이 나오면은 풍덩이가 빨아 먹을라고 거시겨. 중계라고도 하고 풍덩이라고도 허는디. 빨아 먹을라고 막 그것이 맛있응게. 이름을 중계산이라고 불렀어 그냥.

면담자: 지금 그 산 말씀하시는 거죠? 강당고개 올라가는 길에.

구술자 2: 이 뒷산.

면담자: 오른쪽엔 엠마오사랑병원 있고 맞은편에 산 있잖아요.

구술자 1: 남포를 털어가지고. 남포라고 돌 뜨는. 거그서 돌을 떠가지고

전주천에 가져다가...

면담자: 아 전주천 정비할 때 여기서 돌을 떠가지고...

구술자 1: 여기 저기 갑자년인가 나 일곱 살 때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떠날러갔어.

면담자: 그 1935년. 36년 대홍수 났을 때...

구술자 1: 왜정 때여. 그때 서학동하고 교동으로 가는 다리가 떠날러갔어. 전주천이 이렇게 널른 것이 아니라 좁아가지고, 궁게 다리 있어서 저쪽으로 팽배를 쏘면 잘 쏘는 사람은 저쪽에 떨어졌다 고.

구술자 1: 강당재? 고거는 그전에는 도둑놈 소굴이여. 소굴.

면담자: 예, 들었어요. 도둑놈이 엄청 많았다면서요. 강패들.

구술자 1: 거시기로 나가는디. 지금 여 서원북지관으로 나가는 길이 뭇 길이지? 고리 나가는 해갔고 이동교로 바로 빠져.

구술자 2: 두 능선으로 쪽 올라가는 고것보고 뿔이라고 하더라. 입에서 뱅뱅 도는디. 또 하나 여가 유기전골이라고 있었어.

면담자: 네, 들었어요. 유기전이 유명했나 봐요.

구술자 2: 유기를 만들어갔고 인경. 중. 종을 만들어서

구술자 1: 종을 만들은 것이 아니라. 유기그릇장사를 헌게 여기서 맨들 어가지고 깎아가지고 팔은 게. 그때 시장이 남문 종을 왜정 때 떠여가부렀어. 일본사람들이. 그런게 그 종이 없으게 여그와서 종을 맨들었지. 맨들었는데 그것이 성공은 못 이뤘어. 그냥 가서 달여가지고 친게 깨져버렸다는만.

면담자: 그게 그러면 언제예요? 왜정 때? 아니면 해방 후에?

구술자 2: 해방 직후에. 6·25때 6·25후에 정전되아가지고는 종을 만 들었지.

면담자: 만들었는데 치니까 깨졌어요. 그 종을 그럼 유기전 거기서 만

들었어요. 유기전이 많았어요?

구술자 2: 아니 쪼그만 했어.

면담자: 쪼그만한 데 몇 군데가 있었어요?

구술자 2: 가내 공업인게.

면담자: 여기 지금 대장간이란?

구술자 2: 응 대장간이 있었지. 이 밑이가 있었지.

면담자: 아 그래서 여기가 대장간길? 길 이름이 대장간길.

구술자 1: 대장간자리 저그가면 대장간. 강대경이 아버지가 한다.

면담자: 맨 처음에?

구술자 1: 응. 젤 처음에 왜정 때서부터.

면담자: 그럼 강대경씨란 분은 지금도 하세요?

구술자 2: 안 혀. 죽었을꺼여.

구술자 1: 왜정 때 했당게 왜정 때.

면담자: 아 그니까 지금은 용머리고개에 있는데 왜정 때는 이 근방에
있었다고요?

구술자 2: 응. 거가 거기여.

구술자 1: 여기서 시방 저리 올라가는 길이 있어. 골짜기 이렇게. 바로
이리 내려가면은 거리 가는 길이 있어.

면담자: 대장간 가는 길.

구술자 1: 거기 구젯말랑이라고.

면담자: 어디? 구젯말랑. 아 옛날 옛 구자 젯말랑.

구술자 1: 이 돌 나기 전에 구젯말랑이 있다 그 말이어. 가꼬는 어디로
빠졌냐면 바울교회 있는 데로 해서 평화동 네거리로 빠져.

면담자: 아 평화동 사거리.

구술자 1: 응. 사거리로 그래갔고 고 밑이로 해갔고는 거가 공동묘지가
있었어.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고리서 나가면은 우전면.

면담자: 아 우전면까지 딱 넘어가는.

구술자 1: 거가 효자동인디 저쪽으로 삼천동이고. 경계여 경계

면담자: 선생님 제가 대장간에 대해서 듣기로는 지금 용머리고개에 있는 광명대장간이 제일 오래됐다고 했거든요.

구술자 1: 아니야. 오래 되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어. 해방 후부터 해가지고 얼마 안돼야.

면담자: 강대경씨 아버님이.

구술자 2: 응 강대경씨 형님이 있고, 형님이 둘이 있고 그리여 궁계 강대경씨가 경찰도 하고 그랬어 6·25전에.

면담자: 아 6·25전에...

구술자 2: 응, 경찰관으로 하고. 그런디 장소가 지금 이쪽에가 둘이 나란히 있잖아 근디 그전에는 저쪽에가 있었어. 강대경이 아버지가 헛거.

구술자 1: 아니 원래 여가 있었어.

구술자 2: 여쪽에가 있었어.

구술자 1: 해방 후에 애기지 그거는.

면담자: 아 그니까 아버님 지금 이렇게 이게 용머리 고개면 여기 터미널 있고 지금 이쪽에 대장간이 있잖아요.

구술자 2: 요쪽에도 있었어

면담자: 요쪽에도 있었어요. 그럼 강대경씨 아버님이 하셨던 데는 어디예요?

구술자 2: 요기야 요기.

면담자: 이쪽? 이 근방?

구술자 2: 응. 요기서 지금 이리 가면 내려가면 좌측이지.

면담자: 아 이렇게 내려가면 좌측에. 근데 그 강대경씨 아버님은 왜정 때부터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셨어요?

구술자 2: 궁계 그 사람이 돌아가신 게 해방되아가지고는 한 몇 년
후 한 5년이나 10년이나 했을 것이여 아마.

면담자: 아 해방되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더 하셨어요.

구술자 1: 그리고 요그 이렇게 해갔고 내려가면은 저그 산 저그 교회하
나 있죠?

면담자: 예, 높은 교회.

구술자 1: 고 밑으로 이렇게 해갔고 가는 길이면 여가 궁계 여기서 이
렇게 들어가는 골목 있지?

면담자: 예, 골목 있어요. 이렇게.

구술자 1: 여기는 끊어진 거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사거리 밀차 못가
서.

면담자: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구술자 1: 아니 여그가 있었지. 궁계 여기는 이 길은 맥힌 것이고 이
길이 시방 이게 이렇게 돼 같고 딱.

면담자: 이렇게 연결이 되요? 아, 옛날에 길이 이렇게 있었다고.

구술자 1: 여가 어디냐면 요양병원인가 시방 나오지.

면담자: 여기가 버스 터미널. 그리고 여기가 사거리.

구술자 1: 여기서 이렇게 보면 천변 윗팅이로 요양병원이 여가 있잖여.

면담자: 아 옛날에 여기에 요양병원 있었어요?

구술자 1: 아니야. 지금 재활병원.

면담자: 아 재활병원.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거. 여기야 여기. 이길
이렇게 쪽.

구술자 1: 여기가 구셋말랑이야. 그래갔고 이 길이 이렇게 해갔고는 거
시기 뒤에도.

면담자: 이 길이 다시 이렇게 여기가 바울교회...

구술자 1: 바울교회. 뒤에도 이렇게 해갔고 난 길일 이렇게 해갔고.

면담자: 이 길이 이렇게 해갔고 평화동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구술자 1: 평화동 사거리는 이렇게 가야 평화동 사거리지.

면담자: 아 이렇게 가야 평화동 사거리.

구술자 1: 그래갔고 이리 내려가는 그전에는. 근디 지금은 이 길이 없어졌지.

면담자: 이 길이 그러면은...

구술자 1: 구짚말랑이여.

면담자: 이 길이 선생님들 유년기에 다니셨던 길이세요?

구술자 1: 왜정 때 다녔지. 이 길나기 전에 이게 시방 대로여.

면담자: 용머리고개 나기 전에.

구술자 1: 이게 대로여. 왜정 때는 이렇게 해갔고 임실로 빠져나가.

면담자: 예, 들었어요. 전주에서 목포까지 잇는 이 길이 있었다고. 소금길이라고 하죠. 소금길.

구술자 1: 맞아. 소금길이여. 이 큰 도로가 나기 전에는 그것이 사람이 걸어 땡길 때는 전부 그길로 했는디. 일정 때 길이 나면서 그 길이 폐쇄가 되고.

면담자: 아, 일제 때 큰길이 나면서 이 길이 다 폐쇄가 됐구나.

구술자 1: 아 그렇지. 사람 인도만 다니고. 우리 완산동이 유명한 것이 완산칠봉이 왜 유명하냐.

면담자: 터가 좋다면서요. 터가 좋다고.

구술자 1: 그게 아니라 완산칠봉이. 일테면 여기가 북쪽 아니여. 이렇게 되었으면 완산칠봉이 삼봉이면 이렇게 칠봉. 이렇게 칠봉. 이렇게 해서 칠봉 그래서 유명혀. 그래서 유명혀. 그래 갔고는 덕진 쪽에서 뵈도 칠봉이 뵈고. 뚜렷허니. 저 거시기도 보도 이게 칠봉이 되고. 서학동 쯤 거시기서 보도 칠봉이 뚜렷허다고 해서. 칠봉이 이게 여그가 시방 육봉. 여 완산동 용머리고개. 이 길이

야는 봉이 없어지고.

면담자: 봉이 없어졌어요?

구술자 1: 끊어 내버린 게 봉이 없어졌지

면담자: 일제강점기 때? 일제 때?

구술자 1: 그래갔고는 지금 여기에 어디여 이게. 이리 가면 요 통신공사
있죠. 거그서 평화동 나가는 길 있잖여. 여그가 끊어지고 하나.

면담자: 아 여기 하나 끊어지고 일제 때. 그럼 지금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구술자 1: 여기 지금 서학동 쪽으로. 서학동으로 해갔고.

면담자: 예, 서학동쪽으로 향하는.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구술자 2: 아니 지금도 몇 칠봉 몇 칠봉 해가지고 보이기는 보여. 많이
보이든 않지.

구술자 1: 그래서 유명한 것이지. 그래서 명산이여. 덕진 쪽에서 보도
뚜렷하게 보여.

면담자: 그니까 사방에서 봐도 칠봉이 보인다고 해서 명산이라고. 그
선생님 완산칠봉이 터가 좋다고 해서 예전에 몰래 무덤도 썼다
고 하던데...

구술자 1: 그런 말 있지.

면담자: 송장. 봉분을 안 쌓고.

구술자 1: 명당. 터가 좋다고 해가지고. 송장을 꺼꾸로 묻어도. 그 얘기가
있었어.

구술자 2: 그것은 모르는 얘기고. 뜬소리로 돌아댁기는 소린게.

면담자: 그럼 선생님 예전에 완산칠봉을 남복산이라고도 불렀나요? 남
복산. “남쪽에 있는 복 있는 산이다” 이런 얘긴 못 들어보셨어요?

구술자 1: 그런 소린 못 듣고. 전주가 왜 3대 못가는 재별이 없다고. 3대
가 가야 재별이 넘어서야는디 쪽 그냥 첫 대서부터 강 쪽 가야

는디 3대를 못 간디야 전주재벌은.

면담자: 왜 그런대요?

구술자 1: 저 모악산 때미.

면담자: 모악산. 왜 모악산이 왜요?

구술자 1: 악산 산이 메여서. 그래서 전주는 재벌이 없다. 3대 재벌이 없다.

면담자: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술자 1: 이게 그전 사람들 전주서 돈 벌면 다 대전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면담자: 아 여기에 있질 못하고.

구술자 1: 이게 용수. 대구같이 용수 이렇게 이렇게. 분지점이며.

면담자: 이렇게 분지처럼 있으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자들이.

구술자 1: 이쪽으로 하면 바구리 같이 이렇게 쳐졌지.

면담자: 완산동 사람만 학서당 회장을 할 수 있어요.

구술자 1: 총무, 재무는 할 수 있어. 회장만은 완산동 사람 아니면 못히여. 지금 노인정이 다른 디는 정부에서 지어줘 가지고 있는디. 자체적으로 진거여.

면담자: 자체적으로? 그러면 노인정 나오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구술자 1: 어. 지금은 부조받고 있는디 그전에 저 완산동에서 기령당하고 학서당하고는 자체 이거 진 것이여. 그런게 오래되지. 한 50년 돼.

6. 주기환씨 구술 — 1956년생, 통장

면담일: 2014.6.5. / 면담장소: 자택 / 면담자: 이지은

면담자: 처음에 전주 들어오셨을 때 노송동에서 사시다가 풍남동으로 옮기시고 이제 여기 완산동으로 오신거세요. 그러면 선생님 80년도에 완산동으로 오셨을 때 연세가?

구술자: 그때는 20대지요. 내가 여기 바로 아래 골동품가게 앞에 거기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했었어요. 2004년도 10월까지.

면담자: 선생님 그러면은 완산동으로 오시면서 오토바이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구술자: 그렇죠 예. 오토바이가게를 할려고 여기로 왔지 그전에는 경찰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면담자: 아 선생님 원래 경찰이셨어요?

구술자: 아니요. 옛날에는 교통 싸이카라고 알죠? 그거를 전라북도서 나밖에 취급을 못했어. 그거를 내가 경찰에서 장비계에서 그걸 맡아서 하다가.

면담자: 선생님 근데 그럼 그 당시에 완산동에 가게를 얻으시려고 생각하셨으면 당시에 완산동이 잘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인구수도 많고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나요?

구술자: 내가 올 때만 해도 용머리길이 큰 길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면담자: 아 큰길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구술자: 여길 통해서 들어가니까 시냇 들어가려면은.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 그 여기 자택에서 가게까지는 걸어서 다니신

거예요? 그때 선생님 80년도에 들어오셨을 때 대장간이나 뭐
골동품가게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더 많았어요?

구술자: 아니 많지 않았고 내가 올 때만 해도 대장간도 2개 정도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골동품가게 들었고.

면담자: 선생님 먼저 들어오신 이후에...

구술자: 이후 골동품가게 생겼고 태평동에서 하시다가 일로 온 것이지.

면담자: 광명당. 광명당이 맨 처음에 여기로 들어온. 당시에 마을 모습
기억나세요?

구술자: 그때요. 내가 처음에 여길 왔을 때는. 사실은 여기에는 공무원
들이 많이 살았어요.

면담자: 여기 그 서완산동?

구술자: 서완산동 이쪽.

면담자: 용머리고개 기준으로 이쪽이 서완산동이고 건너가 동완산동
이잖아요.

구술자: 그러지. 동완산동은 저 건너가서지.

면담자: 그니까 이쪽에는 공무원들이...

구술자: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사실 여기도 교장선생님이 살던 집을
내가 산 것이었고. 우에도 우체국장님이 사시고 그런 분들만 사
셨어. 요쪽으로는 다 이렇게. 침에 여가 문화주택으로 집을 이
런 식으로 다 지었었지요. 새마을동네가 사실은 여기 터미널 있
는데 뒤쪽을 새마을 동네라 했어.

면담자: 아 그 절이 있는 그쪽? 다가공원 있는 그쪽을 아.

구술자: 침 새마을동네를 그렇게 했다가. 사실은 새마을동네 맞아. 인
자 문화주택에 하나씩 살면서 공무원들이 이쪽에 들어오는 거야.

면담자: 문화주택시설 지구를 만든 거네요. 한마디로.

구술자: 내가 와서 살았는 거는, 그도 여기가 좀 살기가 좋고 좀 괜찮았

있어 어쨌든. 이쪽에는 깨끗했고 사실 저쪽에는 조금 그랬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땅값이 틀리다는 말이 있었어.

면담자: 아 같은 완산동 내에서도 동완산동 서완산동 땅값이 달랐다.
그리고 인구수는?

구술자: 서완산동이 많았죠.

면담자: 서완산동이 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혁신도시네 신시가지네
해서 도시기획해서 짓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동네
가 됐잖아요.

구술자: 낙후된 동네가 됐지.

면담자: 선생님께서 체감하는 건 언제부터 그렇게 체감하셨어요?

구술자: 내가 체감하는 거요? 90년대부터. 동네가 다 별로 초라한 동네
가 됐지 동네가.

면담자: 선생님이 체감하시는 건 90년대 후반...

구술자: 다 초라한 떠난 동네가 됐어. 다 이주를 해버렸죠. 그전에 내가
오토바이 가게 할 때만해도 전부 우리 가게 와서 놀으셨어. 사
랑방처럼. 모든 정보가 우리집에 와서 다 알려주고 가고. 내가
다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됐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쨌 여학생
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뭐 내가 인자 집 같은 거 아니 좀 어
려운거 전기가 고장 났다거나 전구다마 이런 거 많이 해주고
다녔지 내가... 하여간 서완산동은 교회를 많이 나가요. 교회를
많이 댕기고. 거의 아마 교회를 다 다닌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떠나고 다른 분들이 돌아와서 살으니까. 말하자면은 여
가 좀 거쳐 가는 동네가 됐어 지금은. 여가 그전에는 하숙도 좀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 여그가. 교통이 좋고 하니까 하숙을 많
이 했었어.

면담자: 그 하숙한 학생들은 그럼 어디학교? 근처에는 뭐 기전대나...

구술자: 켈 첨에는 전북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다녔고, 그 이후에는 방
을 여기는 셋방이 많이 있었어. 방 한 칸씩 해놓고 사는 것도

면담자: 그래서 하숙도 많이 했었고?

구술자: 그러고 말하자면은 여기 방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
방 한 칸씩 세놓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동네가 지금은 산
사람은 이사가버리고 한 사람이 많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동네
가 옛날 분들이 다 떠났다.

면담자: 그래도 선생님은 80년도부터 계셨으면 30년 넘게 계셨는데...

구술자: 나는 내가 80년도에 여기를 와서 결혼을 해서 이집에서 살았
고 우리 애들이 지금 저 저 우리 아들이여. 우리 아들이고 딸인
데. 졸업해서 결혼까지 다 했지 자들은.

면담자: 아 그럼 완산동이 선생님께도 의미 있는 동네겠네요. 결혼도
하시고 가게도 인제.

구술자: 그렇지. 아주 총각일 때 들어 와가지고 혼자 나는 참. 나는 고
향이 여기가 아닌데 영광이 내 고향인데요.

면담자: 근데 어떻게 전주로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구술자: 인제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미 쪽으로 가야되겠쎄. 처음에
여수로 갔었다가 여수 가서 생활을 내가 조금 허다보니까 거기
는 배가 많잖아. 뱃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보니까 뱃사람들 만
나는 건 존디 쯤쯤 힘들어. 나에게는 그것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렇게 전주로 온 것이지. 전주에 온 게 내가 와서 오거리 들어와
서 일을 시작하고 오토바이 일을 시작을 해서...

면담자: 그럼 선생님께서 처음 전주를 들어오신 게 몇 세셨어요?

구술자: 그때는 전주나 20대에 들어왔어. 20대 초에.

면담자: 그럼 선생님 예전에 하셨던 오토바이 가게는 지금 어떤 가게
로 됐어요?

구술자: 지금 골동품가게가 말하자면 소소원이라고 있죠 앞에 보면은.
골동품가게처럼 진열도 하고 있잖아.

면담자: 아 그 가게가 원래 선생님 오토바이 가게셨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 사업하시면서 잘될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되셨어요?

구술자: 하이튼간 괜찮았어요. 경찰 싸이카를 내가 다 맡아서 하고 했으니까.

면담자: 아 그 직을 선생님 밖에 안 맡고 계셨고?

구술자: 어, 경찰 싸이카를 내가 맡아서 일을 했고.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들오는 입구니까 전부 내 손님이었어요.

면담자: 아 그렇겠네요. 들어오는 길목에 딱 있으니까.

구술자: 그렇지 인제 삼천동이나 효자동 저쪽에 살던분들이 인자 중인리 동네 쪽으로. 중인리도 옛날에는 구이면이었어 중인리도. 삼천동이 중인리도 됐지 인자. 구이면이었어. 구이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들 오시거든.

면담자: 그러면은 인제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완산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고...

구술자: 동완산동 저쪽에 가면 수도골이라고 했지 인제.

면담자: 수도서? 지금 그게 도서관 자리?

구술자: 그렇죠. 거기가 수도골목이라...

면담자: 예, 수도골목.

구술자: 그 다음에 터미널. 완산동 터미널. 그 뒤쪽 보면은 거기가 그때만 해도 들어가는 입구. 여기서 다 나가는 시외버스 타고 나가는 차들이 김제, 부안 나가는 것이고. 정읍, 고창 나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시기가 이쪽이지.

면담자: 완산동이...

구술자: 활발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터미널 뒤편에 보면 막걸리집이 있었어. 김제집 뭐 이런 막걸리집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장사들도 잘 됐고, 터미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다 술 한 잔씩 하고 갈 정도였으니까.

면담자: 아 전주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실 때 거기서 술 한 잔씩 하시고.

구술자: 그때만 해도 잘되고 다들 괜찮았어.

면담자: 지금은 다 없어졌죠.

구술자: 그렇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해도 말구루마가 있었어.

면담자: 아, 80년대까지.

구술자: 그걸로 모래실어 날리고 골재 실어다 봐요.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바울교회 건물 지었던 데 그 자리가 부르크공장 있었고.

면담자: 무슨 공장이에요?

구술자: 벽돌공장. 그거 찍는 공장이 몇 곳이 없었고.

면담자: 그러면 벽돌공장이 없어지고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교회는 바울교회는 저 바울교회 어디가 있었냐면은 여기 여 다가동에 ‘은자클럽’이라고 있었어.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그 지하 거기에서 쪼그만한 교회를 허다가 ‘동전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로 이사 온 거여. 침에 동전주교회로 이사를 온 거여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크게 부흥을 헌거지.

면담자: 선생님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진짜 많은 게. 완산교회도 있고 서문교회도 있고 바울교회도 있고 큰 규모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술자: 내가 처음 왔을 때는 뭐냐면 사실은 용머리고개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용머리고개란디가 사실은 여가 길목이다 보니까 센 뭐 싸운 강단들이 있지요.

면담자: 아, 원래 조금 교통요충지에 강패들이 많이 있어요.

구술자: 예, 그런 건들거리는 그런 사람들이나 있고 그런다 그래요. 인자 그런지는 알고 나도 왔는데. 내가 처음 오토바이가게를 시작을 딱 했는데 나한테 누가 와서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나를. 쉽게 말해서 처음 이사 와서 허니까.

면담자: 한마디로 텃세 부린 거네요.

구술자: 텃세부려 나한테. 그랬다가 나는 또 전문기술이 있고 그러고 내가 가만있지 않을 사람이지. 처음에 내가 경찰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면담자: 사람을 잘못 건드리셨네.

구술자: 잘못 건드렸지. 나도 밤에 누가 자꾸 건들고 그러길래 내가 그때 위커를 신고 있었던 말이야 일을 할 때. 그걸로 내가 밟았으면 죽어버렸지. 자꾸 건들길래 내가 담담하게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까지 했는데 취해갔고 와서 아이 그놈아가 와서 막 그러길래 이리 따라 와봐.

면담자: 혼내주셨어요?

구술자: 맨발로 나가길 다행이지. 맨발로 따라와 해갔고... 나를 건들지 말어라... 여기가면 '꽃지산'이라고 있어 꽃지산이라고 여기 꽃지산이라고. 나도 모르겠는데 왜 꽃지산이라고 했는지... 여기서 '용소'라고 있었어 다가동에. 다가동에서 빨래터야 거기가. 빨래터였는데 인근에 마을에서 나와서 빨래하던 자리야 거기가. 용이 그 물을 먹고 올라가다 여기로 떨어졌다더만. 그래서 여기를 용머리고개라 그래요.

면담자: 그런 전설, 설화.

구술자: 나는 인제 그렇게 들었고.

면담자: 그 당시에 80년대 선생님 들어오셨을 때 여기 완산동에 거주

하셨던 분들은 보통 어떤 일에 종사를 하셨어요? 선생님처럼 가게를 운영한다던지 이런 상업적인 일을 많이 하셨나요? 바로 그래도 남부시장도 있고 그래서 장사하시는...

구술자: 상업 쪽이 있죠. 상업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동완산 쪽에 많이 살고, 이쪽에는 공무원들이.

면담자: 그 도청이랑 가까워서 그랬나?

구술자: 예. 그렇죠. 도청직원들 많이 있었고, 시청. 시청도 많이 미원탑 있는 데가 시청이었으니까 옛날에.

면담자: 선생님 그럼 혹시 여기 완산동에 오래 거주하셨던 원로분들. 그 지역 원로분들 혹시 아시는 분?

구술자: 제일 오래 사셨던 분이 지금 저기 나상호씨라고 지금 저기 카드집 이층집 크게 하나 진 데 있잖아요.

면담자: 카드집? 카드집이 어디지?

구술자: 큰길가에 사거리. 큰 사거리. 그분이 젤로 오래된 분이서. 여기 SK아파트로 이사 가셨는데...

면담자: 태평동 SK뷰?

구술자: 글로 이사 가셨고. 근디 그 집은 아직 안 팔았는갑더만. 지금 있더만. 그 집 땅이 여기 교회 땅으로 갔지.

면담자: 아 여기 나상호 선생님 땅이 바울교회 그 땅이에요. 그러면 완산동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네. 오래 계셨고, 선생님 그럼 그 나상호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한 팔십 여섯, 일곱?

면담자: 혹시 그 선생님 연락처?

구술자: 그분은 그 이야기를 잘 안 허시고.

면담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애길 좀 해주실만한.

구술자: 기령당. 김한봉씨도. 김한봉 선생님 저 신성아파트 살거든. 그

분을 만나시면 많이 알을 꺼여.

면담자: 아, 김한봉 선생님 여기에 오래 계셨어요.

구술자: 예. 언론인이었어.

면담자: 혹시 그 김한봉 선생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령당

구술자: 기령당이 아무나 가는 분들이 아니고 사무관 이상이 돼야 가는 곳이야.

면담자: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시내 쪽에. 그리고 이쪽은 뭐 막걸리집이나 이런 술집이 보통 있었고.

구술자: 주로 이쪽 가에 말하자면 효자동쪽이나 거기서 막걸리집이 시작을 했고. 거기 ‘진주집’이라고 막걸리집이 유명했었어. 첨에 막걸리가. 바로 그것은 완산동에 했지 그 양반이 진주집. 진주집 막걸리가 유명했어요.

면담자: 아, 그래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구술자: 없어졌죠. 아주머니 지금 계시지. 쉽게 말하면 여기는 첨에 둘을 때는 서민촌이었어. 부자동네가 아니었어요. 단지 공무원들이 산다는 거. 그러도 동완산동 쪽에는 남부시장 가까운 게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살았고요. 지금도 그쪽에는 그러고. 그때 보면은 쪼끔이라도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기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동완산동은 오래 가는 것 같애.

면담자: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부터 그 풍물도 치고 축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뭐 완산동에 특별히 기억나시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건?

구술자: 특별한 사건은 없고. 동완산 쪽으로 저쪽으로 보면은 무속인들이 많이 살고.

면담자: 무속인들. 그 서학동에도 무속인들 조금 있잖아요. 그 산을 끼고 있어서 그런가? 그 곤지산인가 끼고 있죠.

구술자: 끼고는 있는데 그것이 산을 끼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기가 좀 뭐라 할까 빈촌이라 많나. 사실은 땅값 비싸고 한테는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쪼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온거 같아.

면담자: 보면 종교적인 게 모여 있기는 한 거 같아요. 교회도 있고

구술자: 무속이 많고. 그래갔고 사실은 2005년도에 그때 축제를 하면서
무속인들 그것도 굿도 한 번 했었지. 그걸 했는데 교회에서 그
걸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풍속으로 봐 돌라고 해도 그것은 아
니다 이거여. 그래서 그건 또 못하게 해서 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또 안허는 걸로 갔지. 그래갔고는 풍물만 허고.

7. 서인자씨 구술

— 1957년생(女), 통장

면담일자:2014년 6월 5일 / 면담장소:자택 / 면담자:이지은

면담자: 완산동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기억하는 마을풍습이라던지 축제
제가 있었는지?

구술자: 아버님께 들었는데, 이 동네가 부자동네라든 불렸어요. 기관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집도 군수님이 사셨데요. 그래서 터가 좋은 자리라고 해서 새마을 동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부, 총독부 간부가 살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양반집 자식이 같은 동네 총독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나봐요. 아버지가 수치심 같은거 느꼈을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가공원있잖아요 그 위에 산 바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데. 전주천에 그니까 투신자살이지, 동네에서도 창피하지, 양반집인데. 그 자식이 총독부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겠지. 그러니까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또 하숙촌이었어요. 왜그냐면 기전여고랑 지금 이전했잖아요. 기전여고랑 전문대도 있고 간호대도 있고 신고(신흥고)도 있고 그 당시에는 기숙사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 전까지도 하숙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숙사로 인해서 하숙할 일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여기가 하숙집에 셋이나 있었어요. 지금 현재 하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두 집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집이 제일 크게 하숙집을 하였던 할머니가 지금 80이 넘으셔요. 혼자 사시면서 지금 그 집을 수리 하나도 하지 않고 그 할머니가 김종순할머니라

고 있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 여기 앞에 옆에 여기 이집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그때 당시 하숙했던 모습 그대로 있어서 할머니가 거기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30에 혼자 되셔가지고 5남매를 하숙으로 키우면서 대학교까지 다 나오게 했어요... 신흥고 학생들이 많았고... 제일 솜씨가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 한 집은 뜯겨서 나갔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 안쪽에는 하숙치렀던 사람이 한명 있는데 인자 제 나이포래예요. 그런데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옛날 모습으로 보존 안되어 있어요.

면담자: 부자동네, 새마을동네는 70년대 쯤 이야기인가요?

구술자: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석빙고가 완산동에 있었어요. 옛날부터 빙고리, 가락지구라고 불렀는데, 현재 빙고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밑에가 쪽 있었거든요. 현재 있는대는 아가랑 어린 이집이 있어요. 산 밑에 얼음창고 같은 굴이 있어요. 냉장고 대용으로 옛날에는 썼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게 유일한 곳이 여기예요. 지금. 어린이집 안에 다가공원 산 밑으로 뚫려있어서 뭐 넣어놓고 하면 냉장고 역할을 할거예요. 그리고 완산공용정류소 뒤쪽에는 신라 김유신장군이 삼국통일을 이룰 당시에 이곳에 들른 것을 기념하여 가락전북종친회가 주축이 되어서 건립한 완산사가 있어요.

면담자: 완산동에서 흑룡승천기원제를 하더라구요 축제처럼?

구술자: 그거 했어요. 정원대보름때 육교에서 용머리 거기서 저도 참여했어요.

면담자: 정확히 무슨 행사였나요? 마을의 안정과 안녕, 번영을 기원하는?

구술자: 저도 통장되고 처음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번창하라는 뜻이겠죠. 가게마다 풍물놀이 하면서 집집마다 다녔어요. 그래가지도 우리집도 와서 한참 놀다갔어요. 주로 가게들을 방문하고 그랬지, 자기 집안 잘되라고 그런뜻으로.

8. 완산교회 유한길 장로님 구술

— 1943년생

면담일자 : 2014년 6월 11일 / 면담장소:완산교회 / 면담자:이동희

면담자: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지요. 전주에서 세 번째가요? 산비탈에 교회가 있고 신도들이 쭉 서있는 그 사진 여기 있습니까?
근데 거기가(사진에 나오는 자리가) 여기예요? 아니죠?

구술자: 저희 교회는 1926년에 서문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기독교가 1892년에 들어왔거든요. 선교사들이 1893년에 들어왔고,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주에다가 딱 교회 하나 세웠고 그 다음에 다 시골로 다녔어요. 시골로 다녀가지고 산간벽지에다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전주에다가는 잘 안 세웠어요. 그것이 하나였습니다. 전주에 처음 세운 그 교회가 서문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쭉 세우다가 나중에 전주에 서문교회에서 교인이 많으니까 나갔죠. 제일 먼저 나눈 것이 1910년에 남문교회를 먼저 나갔을꺼예요. 남문교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6년에 저희는 서문교회에서 분립됐어요. 그 과정은 남문교회하고 좀 달라요... 개척은 안 했는데 나왔어요. 네 번째로 중앙교회야. 처음엔 고사동 교회라고 했다가 중앙교회로 고치고 다섯 번째로 동북교회 옛날 교도소 자리에, 그렇게 있었어요. 장로교가 1945년 해방 전까지 전주시내에 다섯 개가 있었어요. 다섯 개가 있었고 그 사이에 구세군 교회가 또 하나 들어옵니다. 1916년에. 전주시내에 해방 전에는 장로교 다섯 교회, 구세군 교회 하나. 그래가지고 여섯 개의 개신교가 있었죠. 여기는 시

골에 가면은 지금 전주에, 전라북도에 기독교 들어온 지가 백 십 년, 이십 년이 좀 넘잖아요. 백 년 된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시내에는 없어요. 남문교회가 백십 년, 1910년에 세웠기 때문에 백 년이 넘었습니다. 전주시내도 구시내에 다섯 개만 있었어요. 그다음에 변두리로 가면 효자동, 서신동, 덕진동, 그때는 해방될 때까지 시가 아니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전주시내권에는 백 년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었는데 해방전에 전주시내는 그렇게 있었어요.

면담자: 원래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완산교회가?

구술자: 26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 이동수 장로님이라는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봤어요. 1926년 4월달에 그러다가 7월 달에 노회에서 어디서 예배를 봐라, 장소를 지정해 줬는데 지정 해준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병원. 예수병원에 주일날이면 이렇게 모여서 어린이들 가르치는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병원 소유인데 거기를 평일에는 예수병원 직원들이 예배보고 주일날은 학생들, 어린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하고 예배를 봤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예수병원 앞자리 산 중턱에 있는 자리.

면담자: 그러면 그 건물인가 보다. 지금 옛날 예수병원이 엠마오사랑병원 이잖아요? 근데 그거 옛날 사진을 보면 기와가 두 채가 있어요.

구술자: 아래예요? 위예요?

면담자: 아래일 것 같은데요? 그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별판, 산 자락인데 기와집이 두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와가 그 바로 위 엔가 예수병원 저기고.

구술자: 바로 밑에 꽤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에 차기상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차기상씨라고 예수병원 서무과장을 했던, 지금 말하자면 행정과장을 했던 차기

상씨라는 사람이 거기 살았어요. 예수병원이니까 바로 밑에.

면담자: 다 그냥 별판, 논, 밭처럼 나무도 없고, 기와집만 두 채가 있더라고요.

구술자: 그 차기상씨도 제가 알아요. 아는 사람인데 거기 살다가 70년대 60년대에 그분은 이 박태승전도관 거기로 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고 없고, 지금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 건너편입니다. 지금 그 엠마오사랑병원 앞에 보면은 그 무슨 교회 하나가 새로 생겼거든. 그 목사님들 원로관?

면담자: 그 위에는 주차장처럼 있고?

구술자: 그런데 그 자릿가, 거기서 조금 돌아와선 확인이 안 되는데 조금 더 돌아와서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 집은 지금은 없어요.

면담자: 원래 있던 건물은 없어졌어요?

구술자: 네 없어졌고. 저희가 완산동 중앙도로거든요. 도로가여서 그쪽을 전면으로 하고 천변을 뒤쪽으로 하고 있었죠. 두 번 증축을 했어요. 교회를 놔두고, 앞쪽을 개축을 해요. 좀 높였다가 또 1967년에 옆쪽을 넓히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72년에 목사님이 다시 오세요. 82년에 교회를 지었어요. 82년에 교회를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옆에 교육관을 96년에 다시 짓고 그랬어요.

면담자: 그전에 용머리 고개가 60년대 쯤 있죠? 그 전에는 좁은 길이었나요?

구술자: 꽤 넓었죠. 김제 정읍 나가는 주 길이었죠.

면담자: 그러면 넓히고 포장을 했군요. 일본이 와서 도로를 뚫었었고 용머리 고개 쪽에다, 그리고 그걸 지금 깎아 내리고 넓히고 포장한 것이 60년대 후반쯤이고.

구술자: 1960년대 전주 상공 지도 갖고 계세요? 거기 보면 완산동 주위에 연탄가게들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 당시 시대상황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쪽길이 주도로였기 때문이에요.

면담자: 이 옆에 용머리고개 가는 길이에요?

구술자: 아니요 이 뒤에 도로.

면담자: 아 뒤에 도로가 주도로예요?

구술자: 이거는 천변도로고 제방이었기 때문에 포장도 안하고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서천교가 건립연도는 잘 모릅니다만 1936년...

구술자: 다리가 36년 8월달에 전주 대홍수가 나죠 쌓았던 제방이 다 무너지고 다리가 없어져버렸어요. 그 다리가 없어진 이후로 다리를 안 세우다가 육십 몇 년도에 다리를 만듭니다. 다리가 있던 자리에 없다가 보니까 담으로 났다가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육십 몇 년도엔가 만들고 나중에 다시 확장하고 크게 다시 또 개축을 했죠.

면담자: 그럼 이 앞에는 도로가 아니고 냇가처럼? 천변가처럼? 이 앞에는? 제방을 30년도 후반에 쌓았으니까?

구술자: 그런데 내 기억은 해방직전 40년 후반에서부터 해방 직전이죠. 해방 직전에 가물가물하게 나고 그 직후 기억인데 그때 전혀 포장을 안했어요. 포장 안고 뒷골목은 주도로가...

면담자: 저 넓이도 지금 저 정도되요? 지금 현재 폭 정도?

구술자: 그럼요. 폭은 그대로예요. 여기는 많이 안변했어요.

면담자: 요 앞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정도지. 도로라고는 볼 수도 없는?

구술자: 폭은 술잔히 됐는데 포장도 안고 그냥 흙, 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확장을 하면서 도로도 넓어지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문 앞에 쫘에 한증막이 있었어요. 한증막이 있었는데 그 한증막에 대한 얘기는 길게는 안 나와도 전주부사에 한 줄

나오더만요.

면담자: 완산동에 점집이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은거예요?

구술자: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뒤에게 유기전이었어요. 낫그릇 만드는데, 주조해서 틀에 놓고 발로 누르면서 짹짹 깎는 것까지 봤어요.

면담자: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대명까치맨션 아파트 쪽에 있었다는데

구술자: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 건물 뒤 도로에 몇군데 있었어요.

면담자: 아 그 주도로라는 곳이요?

구술자: 유기전이니까 낫쇠, 제기, 징, 팽과리, 그래서 가끔보면 징소리도 나고 팽과리 치는 소리도 나고.

면담자: 아 그럼 유기전이 몇 개가 있었어요?

구술자: 네 몇 군데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들오면서 참 여기 개발이 안돼요. 지금 여기가 개발안 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집 하나에 가보면은 한집에 한 세대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 사람이 살아.

면담자: 가난한 동네네요.

구술자: 거기다가.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 시장서 살아. 시장이란 게 아무래도 좀 정서가 이렇게 좀 싸납잖아요. 여기가 민도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개발도 안됐고, 또 집주인은 쪼그만집 가지고 여럿이 세 받아서 살고, 또 그 사람들 나가니까 안되는 거 같아요 개발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점하는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자꾸 이쪽으로 들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면담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장 있는 거하고 관련 있는 게 있겠네요.

구술자: 시장이요 원시장이 남부시장이잖아요. 남부시장 말고 완산다리 밑에 서문시장이 있었거든요.

면담자: 완산다리 밑에까지 서문시장이더만. 옛날 사진을 보니까.

구술자: 예. 완산다리까지 서문시장이었어요. 저는 본 일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읽어보고 사진보고 한 건데. 근데 서문시장인데 그게 나중에 이쪽으로 합치잖아요. 이쪽 그쪽 한 가운데잖아요. 여기가 그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살기가 좋지요.

면담자: 그니까 구술자 어렸을 때만 해도 점집들이 많이 없었다. 그 뒤에 점집들이. 근래의 일이네요.

구술자: 그런게 지금 여기의 민도와 그것이 시장 가깝다는 것이 거리가 이 완산동에서의 남부시장과 지금 저 서학동, 교대. 교대 있는 데서의 남부시장 거리가 같아요. 근데 여기는 옛날부터 서문시장과 남부시장의 중앙에 있어가지고 양쪽의 다 민도가 관계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일본사람이 학교를 세우고 나니까 그쪽은 들하고 그다음에 남문이 있어가지고 남문 성 안에는 이미 그 좀 잘사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는.

면담자: 그럼 예전에 구술자 어려서는 이쪽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아까 유기전도 있었고, 이쪽가면 골동품상도 많은데. 그 예전에 도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도 허드만요.

구술자: 그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골동품상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면담자: 대장간도 있고.

구술자: 그 대장간 오래된 데요.

면담자: 두 번째 대장간이요.

구술자: 예, 그 대장간 오래된 데야. 오래된 텐데. 그 역사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다가산 밑에서 이렇게 내려면은 다리까지 있죠. 다가산에서 다리까지.

면담자: 완산다리 말씀이세요?

구술자: 예 완산다리. 다가산 밑에서 다리까지. 지도에 보니까 옛날에

거길 빙고리라 했더만요. 빙고리를 그 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옥을 잘 지어가지고 쪽 줄맞춰 지었어요. 한옥을. 그래서 거기를 새동네라 했지요. 나는 지금도 새동네 새동네 하는데. 지금 가면은 나 생전 안 가보다가 요 며칠 전에 한번 가봤어. 가봤더니 옛날 지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지은집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인자 원룸 같은 거 많이 짓고 새동네란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거기는 비교적 새동네는 비교적 여기하고 정서가 달랐어요. 그런게 지금도 완산동이 서완산동하고 동완산동하고 완전히 틀리단 말이죠. 서완산동은 옛날 완산동으로서 학교도 저도 완산초등학교 나왔습니다만은 중앙동에 이사 가셔도 거길 다녔어요. 완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전주국민학교 학생들과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틀려요.

면담자: 두 번째 세워졌던 학교가 완산초등학교죠? 첫 번째가 전주초등학교고.

구술자: 예. 저쪽 풍남학교는 일본이 한 학교고. 근데 우리가 봐도 좀 거칠고 그런 것이 있지요. 그게 이제 다 시장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면담자: 완산동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이런 건 좀 남겨야겠다 그런 것은 혹시?

구술자: 잘 모르고. 우리 교인들 중에 완산동 토백이들 좀 있어요. 아주 오래. 여기서 나가지고 산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은 다 이런 사진들이고.

면담자: 그리고 완산동 모습을 담은 사진이랄지.

구술자: 이 가운데 사진이요. 이게 계단이거든요. 신흥학교에서 신사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이 계단이 7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전대학이 확장하면서 없애버리고.

면담자: 지금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 화산동으로 들어가는가요?

구술자: 예.

면담자: 그럼 용머리고개에서 완산동이라는 데가 용머리고개 양쪽 다 완산동 아닌가요?

구술자: 엠마오 사랑병원이 완산동인가 화산동인가?

면담자: 분명히 이쪽에서 예수병원은 화산동일 꺼고 그쪽 길 건너서 선교사 사택 있고.

구술자: 거기는 화산동으로 알고 있어요. 엠마오 사랑병원이 완산동, 화산동 거기를 왔다갔다 할 거 같으네요. 화산신사는 저기. 기전학교 자리. 지금 저 신흥학교 다가교. 원래 저 신크교라고 했어. 신사 올라가는 다리였는데 그 다리를 그대로 놓고 폭을 넓혔거든요.

면담자: 맞습니다.

구술자: 근데 그것을 흔적을 보자고. 밑에 교각 보면 알아요. 완산교도 그렇습니다. 완산교도 원다리 놓고 그놈 확장했어요. 교각을 보면 알아요.

면담자: 그리고 여기 지금 완산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저는 당회록만 봤습니다.

구술자: 근데 우리 교회가 1926년에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1927년 1월 달에 첫 번째 기록이 있어압니다. 첫 번째 기록이 있어야하는데 없고 1934년 치부터 있어요.

면담자: 사진자료들 하고 또 뭐 있는가요?

구술자: 교회 행사. 그담에 그 저 매주일 나오는 후보란 게 있어요. 후보.

면담자: 후보도 오래된 것들이?

구술자: 후보가 우리 교회가 후보가 생겨 난지는 한 60년대 후반부터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건 없고 72년부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전주시내 옛날 사진을 보면요. 10장을 보면 그중에 7,8장은 어디서 찍었냐 다가산에서 찍어요. 그다음에 인자 한두 장은 초록 바위는 저쪽 기린봉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다가산에 가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숲이 무성해서. 그래서 이제 저 다가산에서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어요.

구술자: 그 다음에 인자 요 기전학교가 여기가 있다가 일로 이사 왔어요.

면담자: 그렇죠. 예수병원자리 있다가.

구술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은송리에 있던 교회가 1900년에 서문으로 옵니다.

면담자: 은송리가 지금도 완산동이죠?

구술자: 예. 그리고 서문교회에서 1910년에 남문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1926년에 전주천 여기에 완산교회가 생긴 거죠.

9. 관음선원 상일스님 구술

— 1957년생

면담일자:2014년 6월 30일 / 면담장소:관음선원 / 면담자:이지은

면담자: 제가 관음선원에 대해서 찾아 봤는데요, 신라 때 창건된 것으로 보이나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다 이렇게.

구술자: 그건 아니고, 나도 그거를 봤는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 절은 신라시대 이런 거는 아니고 1950년대 초반에 이 절을 창건하신 스님이 이보현 스님이세요. 그니까 국묵담 스님을 범사스님으로 모시고.

면담자: 묵담 스님이요?

구술자: 응, 국묵담 스님이라고 큰스님이세요.

면담자: 예, 저 들어봤어요.

구술자: 예, 그 스님을 모시고, 이보현 스님께서 초가삼간을 지어가지고 사서 오셨어요.

면담자: 아, 사가지고 이 자리로 오신거세요?

구술자: 응, 그래가지고 광성근씨라고 하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그마한 집을 사서 절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점 그 큰스님 범륜하시고 그 신심있는 신도인들이 땅을 기증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절 이름이 선원이잖아요. 그렇듯이 그 보살님들이 모여서 참선하고 공부하고 큰스님 모시고 이러면서 온 거예요. 신라시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면담자: 어떻게 보면 보살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쪽 이어진...

구술자: 응,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역사는 깊은 않지만

신심으로 이룩한 절이죠. 그리고 그 건물이 묵담스님 계시고 보현스님 계실 때 건물들이 지금 이제 한 50년 넘으니까 기둥부분이 썩고 그래가지고 다시 진거예요. 이 대웅전을. 능인전이란 편액이 있죠?

면담자: 예, 봤습니다.

구술자: 그니까 여기 그 옆에 명부전은 묵담스님 계실 때 보현스님께 실 때 지은 거고, 2000년이 들어서면서 여기 능인전 지었고 인자 여기 보현당하고 사천왕문 올해 중건했어요.

면담자: 그럼 보현스님? 보현스님께서 이쪽으로 건물 사가지고 오셨을 때, 이쪽에 정착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구술자: 여기가 여기 동네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청학루라고 하는 조그마한 정자가 있었어. 누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절 주변에 노송이 여러 그루가 있었어. 우리 지금 대웅전 마당에 있는 한그루 지금 겨우 보존하고 있는데. 그런 노송들이 여러 그루 있었어요. 여기가 풍경이 좋고 여기가 완산칠봉에 용두봉 자락에 명당 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면담자: 그럼 스님 오실 때까지만 해도 노송이 몇 그루 있었고?

구술자: 예, 있었죠.

면담자: 지금은?

구술자: 지금은 한 그루 겨우 보존을 해서. 저거를 나무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손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잘 살리려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인제 그 노스님이 사셨던 건물은 법당하고 살림집하고 같이 있는 인법당이라고 그런 구조였었어. 평수는 똑같은데. 근데 인제 대웅전을 따로 짓고 우사를 따로 나눠서 짓고 이렇게 조금 살기에 편리하게 된 거죠. 여기가 이렇게 비탈이어

도. 옛날 노승들은 저희도 그렇고 이 터가 정말 좋은 터라고 살림방이라고 해서 신도인들이 기도를 하면 소원성취를 하고 스님들이 공부를 하면 승이 잘되고 그런다고 하는 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거예요.

면담자: 그럼 스님 혹시 예전에 관음선원 모습이라던지 사진자료나...

구술자: 응, 사진은 있어요. 사진은 있고 그 옛날 노스님께서 거주하셨던 그 법당 인제 지금은 새로 법당을 저렇게 지었잖아요. 옛날 법당에 걸었던 주련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해강선생 글씨야. 그런 거는 있어. 그리고 노스님 방에 묵담노스님 방에 걸렸던 염화실이라고 하는 이삼만선생 편액이 하나 있고.

면담자: 저희도 불교를 세부 전공으로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딱 스님 말씀 들으니까...

구술자: 이따 가서 봐봐. 좋아.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제 우리 노스님 계시거든요. 큰스님. 올해 연세가 일흔여덟이신데. 인제 이 절에 산 증인이시지. 19살에 오셔서 이 절을 이룩하고 사셨으니까. 우리 스님도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소중하고 오래되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별로. 스님 이거 별로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고.

면담자: 완산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절도 많고 교회도 많고...

구술자: 무당들도 많지.

면담자: 예, 점집도 많고.

구술자: 이게 완산동이라고 하는. 아니 완산, 완산칠봉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같애. 내가 볼 때는 이 산이 완산칠봉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같애.

면담자: 72년도에 이곳에?

구술자: 응, 72년도에 내가 출가를 했어. 40년이 훌쩍 지났네.

면담자: 혹시 더 관음선원에 대해서나 완산동에 대해서나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구술자: 그리고 인제 완산동은 완산칠봉이 있어서 이 완산칠봉이 그냥 보기에는 야산 같은데 들어가 보면 산이 굉장히 깊어요. 숲도 깊고, 산책을 가면 능선 따라 산책을 가면 굉장히 아름다워.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데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 같애. 그리고 여기가 약수가 좋아.

10. 원각사 용승스님 구술

— 용승스님(구술자 1): 1932년생, 원각사 주지스님

— 스님1(구술자 2) — 스님2(구술자 3)

면담일자:2014년 7월 1일 / 면담장소:원각사 / 면담자:이지은

구술자 2: 완주 위봉사에 있다가 이적을 했거든요.

면담자: 완주 위봉사에 있다가요?

구술자 2: 예, 그때 6·25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6·25때 모두 빨치산 때문에 산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시로 나왔어요 그때.

면담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소양에 있는 위봉사에서 왔다고 6·25때 산에 빨치산 때문에 이쪽 마을로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럼 소양에 위봉사가 있잖아요. 그 위봉사랑 이 원각사의 관계가?

구술자 1: 그 사찰 전체가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스님들만 이쪽으로 왔지.

면담자: 아, 스님들만 이쪽으로 오셔서 그럼 건물을 새로 지으신 거세요?

구술자 2: 예.

면담자: 그럼 언제, 몇 년도에 혹시 이 절을 지으셨어요?

구술자 2: 64년 됐지. 64년.

면담자: 아, 여기 지어진 지가 64년이요. 그럼 스님께서 이제 여기 절을 처음 지으셨을 때 왜 이 자리에 짓게 되셨어요?

구술자 1: 그건 여기에서 와가지고 피난 나와 가지고 지었어. 피난 나와 갖고 개인집에 좀 살다가...

면담자: 어디 사시다가요?

구술자 2: 남의 집에.

면담자: 여기 완산동 개인 집에?

구술자 1: 개인 집에서 살다가 이 집이 나와 갖고, 이 집을 샀어요. 원래 이것이 개인 집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집이 여러 채라. 절이 아니고 원래가.

면담자: 완산칠봉이 기가 좋고 명당자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기 사찰을 지으시면서 그때부터 원각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나요?

구술자 1: 그렇지. 그때 원각사로 사찰 명의를 지었지.

면담자: 그러면 이제 위봉사라면 종이 조금 다르고.

구술자 1: 위봉사는 원래 지리산 속에 있었거든.

면담자: 지리산이요? 위봉사가 원래 지리산에?

구술자 1: 아니요, 스님들이 지리산에 계시다 위봉산에 오셨어요. 스님들이 지리산에서는 인제 토굴에서 공부하다가, 4·3사건. 여수반란 사건이지. 여수순천반란사건 때, 그래서 지리산에 밑에 전투가 되었고 피난 나왔어 또, 피난 나왔는데 여기 와갔고 인제 저기 위봉사에는 옛날에 저 춘담스님이라고 있었어. 춘담스님으로 해서 위봉사 들어가게 됐지. 6·25 안 났으면 우리가 거서 계속 있었을 것인데. 완전히 비우고 나갔지.

면담자: 여기가 64년 됐으면 1950년에 이쪽으로 나오신 거예요?

구술자 1: 연도를 잘 몰라.

구술자 3: 아니 스님 나이가 몇 살 때, 몇 살 때 그것만 알면 연도가 나오지.

구술자 1: 만세를 보면 알긴 아는데.

구술자 3: 신묘생이면은 스님...

구술자 1: 육십 몇 살이거든 지금.

구술자 3: 아니 48, 49, 50, 51년이네. 1951년.

구술자 1: 경인년에 6·25가 났거든. 그렇게 치면 나오십니다.

면담자: 그러면 완산동에 나오신 후부터 완산동에 쪽 계셨던 거예요?

구술자 1: 그렇지, 그라고부터 계속 있었지.

구술자 3: 젤 처음에 일본사람이 사는 집이라 집이 컷어. 그니까 그 집을
갖다가 방을 몇 개를 터 가지고 법당을 만들어 부처님을 모시
고 법당을 차렸지. 그래 살다가. 그것도 법당처럼 됐었어 그때
는 집이 하도 커갔고, 그래 갖고 거기다 부처님을 모시고 살다
가 인자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살다가 법당을 하나 지었다는 법
당이 쫘 좋게 못 지었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뭐 한 삼백만원
들어 갖고 지었는가. 한 사십년 전에 한 삼백만원 들여가 지었
는가. 그래 지었는데 그것이 막 물이 새고, 막 날림으로 지어논
게. 돈을 쪼개 들여 그래 지어논게 안되겠더라고. 그래 갖고 우
리 가신 스님이 참 알뜰히 알뜰히 살아가지고, 삼천동에 논을
사가지고 그 논을 팔어가지고 그래 법당을 참말로 대 가람을
지었어.

면담자: 그럼 지금 이 법당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구술자 3: 이 법당은 한 20년.

구술자 1: 병자년에.

구술자 3: 병자생이 지금 몇 살이야?

구술자 1: 19년.

구술자 3: 한 19년? 그래 됐겠네.

면담자: 이 법당은 19년.

구술자 3: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참 알아주는 법당이지. 참 잘 짓는 목
수가 지었고, 다 여 보러 온다니까. 사람들이.

구술자 1: 목수가 저 문화재였던 목수가 지었어.

구술자 3: 고영택 대목장.

면담자: 그럼 스님 혹시 여기 법당이랑 지을 때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거?

구술자 3: 아이 그런 거 못 받았어.

면담자: 그러면 이거 다 스님께서서?

구술자 3: 알뜰살뜰히 모아갖고.

구술자 1: 탁발까지 해가 땀김서, 동냥해가지고.

구술자 3: 고영택목수는 돌아가시고 제자가 김영성(광주)이라고. 대학교 목수 강의도 하고 그러는가. 제자들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자기가 지었는가 구경시키고 그러더라고..

구술자 1: 젊은이들하고 비구하고 같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여는 여스님들만 산다는 거지.

면담자: 그럼 맨 처음에 위봉사에서 오실 때도 여스님들만.

구술자 1: 왔을 때는 여스님만 계셨어.

구술자 3: 여스님들만 나오셨지 위봉사에서 여스님들만.

구술자 1: 계속 여스님들만 있었지.

면담자: 아, 위봉사에서 여스님들만 나오셔가지고 여기 정착하시고 계속 이제 여스님들만 계속. 그것도 특이한 거 같아요. 완산동에. 그 관음사에 가보니까 거기도 여스님.

구술자 1: 거도 여스님만 있어.

면담자: 칠성사는 안 그런가요?

구술자 3: 칠성사도 옛날에 몇 년 전에는 비구스님 살았는데, 지금도 여스님 계시는 거 같더라고.

면담자: 아, 칠성사에도 지금도 여스님. 그러면 완산동에 있는 절에는 모두다 여스님 계시네요?

구술자 3: 하하하. 정혜사도 그렇고.

구술자 1: 칠성사에 전부 여스님. 남스님 다 나갔네.

면담자: 칠성사에 원래 남스님 계셨어요?

구술자 3: 예, 대오스님이라고 남스님 있었어. 비구니가 하나 와갖고 칠성사에 불이 쫜 났다네. 그래갔고 또 가고 다른 스님 와갖고 사는갑더라고.

면담자: 아, 칠성사에 여스님이 오셨는데 그때 불이 났대요? 그래서 쫓끔 쫓.

구술자 3: 어려워갖고, 나가고 다른 스님이 또 와갖고 또 살고.

면담자: 완산동 절에 특징이네요. 여스님만 계시는 게. 그 스님 실례지만 법명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걸 좀 적어 가야 되서.

구술자 1: 용자, 승자.

면담자: 그때 이 근방에 일본식 건물이 예전에 법당으로 쓰셨던 그거 하나였어요?

구술자 1: 아니 주위에는 없었지.

면담자: 이거 하나였어요?

구술자 1: 여관집같이 이래 모다 있었고. 근데 일본집은 아니었었지. 완전히 일본집은 아니고 여관집같이 있었지. 일본사람들이 여와 못 살았대요.

11. 화산교회 신남춘장로님 구술

— 1948년생

면담일자:2014년 7월 2일 / 면담장소:화산교회 / 면담자:이지은

면담자: 그럼 혹시 정확히 몇 년도에 화산교회가 생겼는지?

구술자: 1949년도에 몇 분이 모여서 기도처럼 예배를 다니다가 전주화산교회 우리 그때부터 따지면 우리 66년 정도가 되고요. 그 2년 뒤인 51년에 화산교회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어요.

면담자: 아, 49년도에 처음에 그런 명칭 없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시고?

구술자: 예, 근데 화산교회 발원지는 그분들부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1년부터 화산교회라는 명칭으로. 그때로 따지면 지금 64년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역사는 우리가 이제 옛 교회 연혁을 통해서 알뿐. 나는 그때 당시에 여기 없었으니까.

면담자: 그럼 언제부터 이 교회에?

구술자: 71년. 저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건물이 77년에 세워졌어요.

면담자: 이 자리예요?

구술자: 이 자리는 아니. 이 자리는, 이 교회는 이 교회 있기 전에 교회가 따른 곳에 있었어. 이 아래.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교회 표시나 이런 건 없는데 여기서 이 저 예수병원 쪽으로 나가는 이 골목. 내려가다 보면 이 빌라가 서 있잖아 양쪽으로. 이 이쪽 빌라 바로 끝 지점에 이렇게 그 언덕교회같이 있어서 허름한 집 한 채 있는 게 있어요. 슬라브집. 지금 인자 사람이 살고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그 자리. 그 자리가 옛날에 말하자면 교회자리... 49년에 처음 시작은 기전학교 강당에서 그 기도회로 학생들 몇

분이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고만. 그랬다가 51년에 교회명칭을 전주화산교회로 칭하고 인제 전도사님 부임해서 인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네.

면담자: 그러면 교회명칭을 화산이라고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구술자: 이게 중화산동 화산동 그래서 아마 화산교회 하지 않았는가

면담자: 그런데 여기가 완산동인데.

구술자: 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완산동 서완산동 79-12번지하고 또 이쪽 이 끝에 쪽은 중화산동 내가 번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면담자: 아, 교회 주소가 일부는 완산동 일부는 중화산동?

구술자: 교회 아닌 땅. 땅 일부가 중화산동. 그래가지고 인제 그냥 서완산동 79-12번지를 가지고 교회주소를 잡았었지. 그래 인제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인제 화산. 옛날 명칭으로 이쪽을 화산길 어찌고 하니까 화산교회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원래는 제가 고향이 부안인데 여기 바로 이 밑에 화산초등학교 근무할 때가 81년도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사 왔었어. 우리 이모님이 이 교회 다니고.

면담자: 그러면 81년도에 완산동 오시면서부터 이 교회에 계속 다니셨네요?

구술자: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혹시 인제 그 연혁을 조금 알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장로님 중에도 원로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저 앞에 지금 이 교회. 그 분도 인제 중간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왔을 때가 인제 집사 때거든. 내가 알기로 그 분이. 그 예수병원 근무하시다가 인제 퇴직한 분인데. 저 그 김상중 원로목사님이나 또는 이동천 장로를 만나서 이 저 여기

주요 내력을 물으면.

면담자: 이 산이 다가산이에요?

구술자: 이것은 다가산이 아니고 바로 이 뒷산으로 이것이지. 그 뭐 땅임자가 우석대학교네 어찌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보고 뭘 산이라고 하죠? 천지산? 다가산은 아니예요. 왜그러냐면 다가산하고 끊어져 있어요.

면담자: 이 산이랑요?

구술자: 예. 요 산은 여그만 봉우리만 기고 이 골목으로 내려가면 좌회전해서 가면 저 엠마오사랑병원 앞에 지나서 신흥학교 가는 길이고. 우회전으로 내려가면 깔끔한 내리막길이 있어가지고. 완산동 간이 배차장. 그래가지고 옛날에 완산동 간이배차장 나가는 길목이 전부 술집이었어.

면담자: 어, 막걸리집 많았다고.

구술자: 응, 많고 전부 술집들. 배차장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어찌고 해서. 그 길목이여.

12. 광명대장간 김창기씨 구술

— 1969년생

면담일자:2014.6.30 / 면담장소:광명대장간 / 면담자:이지은

구술자: 내가 여기에 올해 마흔 여섯인데, 여 앞에 옛날에 여기가 이 도로가 지금은 4차선이잖아요, 원래는 이 도로가 외도로였어요. 비포장. 그때는 진짜 도로가 없을 때 그때, 노란택시 보편은 기분, 재수 좋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시절에. 궁게 여기 너머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면담자: 그쵸, 뭐 미나리깡이고 공동묘지고, 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예, 여 너머서 바울교회자리가 옛날에 그 뭐라고 하지.

면담자: 벽돌공장.

구술자: 어, 벽돌공장. 어 아네? 잘 아시네?

면담자: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여기 바울교회 자리가 벽돌공장이라는 분이 계시고, 시멘트공장이었던 분도 있어요.

구술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황토벽돌. 일일이 수작업 해갔고 굴뚝이 크게 있었거든. 그렇게 하다가 점차 그게 없어지고 일반 시멘트공장 그걸 생각했던 거야.

면담자: 아, 그럼 원래 벽돌공장. 황토로 된...

구술자: 어, 궁게 이쪽도 그렇고. 예수병원 넘어서도 옛날에는 다 미나리깡이었어요.

면담자: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구술자: 아니.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앞자리예요. 원래는 이 주유소 자리가 일반 주택이었었어. 주택이었었고.

면담자: 아 원래 s-oil주유소 자리가 일반 주택이요?

구술자: 응. 일반 주택이었었고. 뒤에가 다 판자촌이었어요. 어려운사람. 근데 s-oil주유소 자리가 동산이었어.

면담자: 아, 그걸 지금 깎아내고?

구술자: 다 깎아내고. 그 옆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 지금 있어요. 지금 그 자리가 있거든.

면담자: 맨 처음 그럼 기와집 그 자리에서 대장간 시작을 하신거세요?

구술자: 예. 그러지. 그때만 해도 지금은 기계화 되갖고 때리는 단조 뚜두리는 기계가 있어. 해머라고 하지 해머. 그때 당시는 없었거든.

면담자: 그러면?

구술자: 그때는 직원들이 세네 명씩...

면담자: 다 달라붙어서 한번 치고?

구술자: 예. 그렇지 3박자씩. 똑딱 똑딱 똑딱. 공계 농기구 같은 것도 그때 다 농기구 밖에 없었잖아요. 예전에 아버지 때는 농업이 발달됐으니까 거쪽에 필요한 농기구가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때는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는 현장 도구를 많이 만들었지.

면담자: 그러면 아버님께서 대장간 시작하신 연도 혹시 기억하세요?

구술자: 아버님이 상사 제대해가지고 오셔갖고 했으니까. 지금 여든 다섯인게, 6·25가 1950년도지?

면담자: 하신지 58년?

구술자: 예, 왜 그냐면 우리 큰누나가 지금 쉬운 여덟인게 58년이라고 보지.

면담자: 그러면 아버님께서 여기 맞은편 기와집에서 처음 시작을 하시고 58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완산동에는 아버님께서 유일하셨죠?

구술자: 예, 혼자 했죠.

면담자: 그럼 상당히 가게가 잘됐겠네요?

구술자: 말도 못했지 그때는. 줄을 설 정도였으니까.

면담자: 글고 그 말씀하셨던 기와집이 s-oil바로 옆에 있는 서터 내려
져 있는 그 집이에요?

구술자: 예. 우리가 이사 올 때 이 앞집에서 그 집꺼여. 샀어. 이리 와봐.
우리 아버님이 낫 명인이었어. 이게 아버님 낫이야. 이 마크가.
이 마크 있는 낫은 쓰는 사람들은 알아. 올 아버님이 연장에다
마크를 찍은 것이 유일한 것이 낫이었어. 이 낫은 못 따라가.

면담자: 아버님 그 솜씨를...

구술자: 죽어도 못 따라가.

면담자: 그니까 낫 쓰던 아버님들이 여기 낫 하면 알아주셨다는?

구술자: 이게 최고 귀해. 내가 이렇게 하나씩 모아놓는 거야.

전주학 연구사업 회보 (2014)

□ 전주학 총서 발간

1. 『동학농민혁명과 전북』, 2014. 9 (전주학총서 30)

□ 전주학 학술대회

제16회 전주학 학술대회

○주 제 :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성과 문화사적 의의

○일 시 : 2014년 7월 24일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발제 및 토론

- 주제발표

전주대사습놀이의 연원과 역사(이보형_한국고음반연구회)

전주대사습놀이의 개념과 형성과정(심승구_한국체육대학교)

전주대사습놀이와 명인 명창들(이상규_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사습놀이의 지역사적·사회문화사적 의의(이정덕_전북대학교)

전주대사습놀이의 과제와 발전방향(심인택_우석대학교)

- 종합토론

이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유장영(전라북도립국악원),

박소현(영남대학교), 김기형(고려대학교)

□ 전주학 시민강좌

- 주 제 : 동학농민혁명과 전북
- 기 간 : 2013년 9월~11월(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 대 상 :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대학(원)생
-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 강 좌 : 1강. 동학농민혁명과 전북정신(이이화_역사학자)
 2강. 동학농민혁명의 전개(배항섭_성균대대학교)
 3강. 전봉준·김개남·손화중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이병규_동학농민혁명 기념관)
 4강. 관민협치, 전주대도소와 집강소(김양식_충북학연구소)
 5강. 동학사상과 농민혁명(임형진_경희대학교)
 6강.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신영우_충북대학교)
 7강. 갑오개혁과 동학농민혁명(한철호_동국대학교)
 8강. 120년, 동학농민혁명 다시보기(신순철_원광학원)

◆ 2기 전주학추진위원회(2012~2014) ◆

이태영(전북대학교 · 위원장)	김기현(전북대학교)
소순열(전북대학교)	송화섭(전주대학교)
이상균(전주대학교)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함한희(전북대학교)	조법중(우석대학교)
이상규(전주교육대학교)	이상덕(전라일보)
김남규(전주시의회)	정태현(전주시)

투고 요령

I. 일반 원칙

1. 『전주학연구』는 전주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등을 망라하여 역사학과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주학연구』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 4부와 디스켓을 研究所에 제출해야 한다. 투고된 原稿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論文일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研究論評의 경우 100매, 그리고 書評의 경우에는 30매 이내로 하되 초과분의 제작경비는 논문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작비 산정은 당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지한다.
4. 연구 논문인 경우 영문 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문헌과 주제어는 반드시 명시한다.
5. 심사 후 게재가 결정되면 수정을 마친 최종원고 1부를 디스켓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II. 편집, 각주,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투고 논문은 워드 프로세서(한글 3.0이상을 권장)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백색A4용지에 단면으로 인쇄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시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고, 여백은 용지의 상

하좌우 끝에서 3cm를 두며 1페이지 당 총 35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원고는 논문의 제목, 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초록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4.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및 필자의 성명, 소속, 직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필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로 나란히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과 필자의 성명은 국문으로 각각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과 필자의 성명은 국문으로 각각 기재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기관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5. 국문요약은 750자 이내로 작성하고 요약문 하단에 제출논문과 관련되는 5개 이내의 주제어(Keyword)와 해당 학문분류기호를 첨부하도록 한다. 영문과 비한자문화권논문의 요약문도 이에 따른다.
6.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자의 성명 등은 논문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몇 단계의 소제목 아래 이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본문안의 주 번호는 해당부분의 어깨에 한글의 '각주'기능을 사용한다.
 - 3) 참고문헌의 순서는 1) 한국, 2) 중국·일본, 3) 비한자권의 순서로 하고 논문과 저서의 구별 없이 한국의 것은 저자명의 가나다순, 중국·일본의 것은 저자명 한자음의 가나다 순, 비 한자문화권의 것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는 연도순서로한다.
 - 4)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동아시아로 된 논문은 「 』안에, 단행은 『 』안에 기입한다. 비한자문화권의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5) 同一著者の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 6) 同一 著者の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른다. (例) 홍길동, 앞의 논문(혹은 앞의 책), 1996, pp-
- 7) 漢籍本の 인용의 경우, 일차 제목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예에 따른다. (例) 康廣廣仁, 『報易一盡』, 『戊戌六君子集』(上海版), 近代史料集刊, X 期, pp-
- 8)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 (또는 편자)의 이름—『書名』—一書誌사항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권수-면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 9)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의 이름과 書名을 밝힌 뒤 譯者の 이름, 翻譯書名, 書誌사항을 밝힌다.(例) E.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 since 1780, 강세명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4
- 10)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논문제목」-『잡지명』-통권(혹은 몇 권 몇 호)-발간년도-면수의 순으로 밝힌다.
- 11)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주학연구』의 관례에 따른다.

Ⅲ. 引用 방식

1. 모든 引用文(漢文 포함)은 논리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 ”)로 묶는다. 내용 註 속의 인용문도 겹따옴표로 묶는다.
3.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4.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방점 또는 이탤릭체, 고딕체로 처리한다.
5.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게 되는 긴 인용문은, 앞뒤로 각각 한줄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도 한 칸 쓰기로 한다.
6.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면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7.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주학연구』의 관례에 따른다.

◆ 편집위원 ◆

이태영(전북대학교 · 위원장)

김기현(전북대학교)

소순열(전북대학교)

송화섭(전주대학교)

이상균(전주대학교)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함한희(전북대학교)

조법종(우석대학교)

全州學研究 제8집

2014년 12월 30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펴냄

발행처 || 전주시 ·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싑고개로 259

T. 063-228-6485~6 F. 063-228-6484

펴낸곳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공북1길 16번지

T. 063-252-5633 F. 063-274-3131

ISSN 1976-9822

〈비매품〉

※ 이 책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